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북미·유럽·일본



머리말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급속한 변혁 과정에 있습니다. 미-중 통상분쟁, 브렉시트와 같은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스타트업이 신산업·기술 창출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산층 성장과 더불어 소비재, 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외진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수출 1조 달러 시대와 글로벌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우리 기업인이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출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외 권역과 국가별로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강·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시장별로 세분화·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KOTRA는 전 세계 시장과 산업의 생생한 최신 트렌드와 기회요인을 분석한 '2019 권역별 세계시장 진출전략'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85개국 127개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수집한 최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주의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한 나침반과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여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KOTRA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KOTRA 사장



2019년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과 이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이슈

- 성장세 유지 가운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지속
-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예상
- 5G 상용화로 산업 전반의 변화, Z세대 중심 소비시장 성장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4.4%	3.8%
물가상승률	2017	2018
	2.1%	2.4%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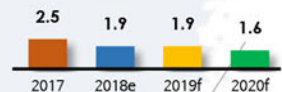


앙겔라 메르켈 총리

경제이슈

- 고용 안정세 및 설비투자 증가,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성장 둔화
- 디젤차 스캔들 이후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
- '하이테크 전략 2025'('18.9) 발표, 혁신전략 가속화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3.8%	3.5%
물가상승률	2017	2018
	1.7%	1.8%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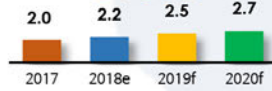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경제이슈

- 마·멕·캐 무역협정(USMCA) 체결로 투자 리스크 감소
- 정치적 불확실성, 정부부채 심화 등 불안요인 공존
- 신정부의 무역파트너 다변화 정책과 인프라 사업 추진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3.4%	3.5%
물가상승률	2017	2018
	6.0%	4.8%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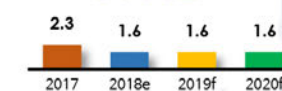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경제이슈

- 완만한 성장세, 고용상황 개선·설비가동률 증가 지속
- 4차 산업혁명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 추진
- 친환경 규제 강화, 재생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9.4%	8.8%
물가상승률	2017	2018
	1.2%	1.9%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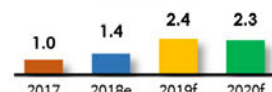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경제이슈

-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토대로 소비 심리와 산업 생산 안정
-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으로 통상여건 개선
- 친기업적 노동법 발효('17),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영화 확대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12.8%	11.8%
물가상승률	2017	2018
	3.4%	3.7%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

경제이슈

-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혁신전략 본격화
- 고령화, 의료예산 부족으로 스마트 의료시장 부각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4.4%	4.1%
물가상승률	2017	2018
	2.7%	2.5%

● G5 ● BRIC ● 기타

● G5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 BRIC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이슈

- 미·중 통상분쟁 등 불확실성 속, 정부의 적정 성장 유지 노력
- 신산업 (AI,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등) 육성
- 개방화 확대: 금융 등 투자장벽 완화,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실업률	2017	2018
	3.9%	4.0%
물가상승률	2017	2018
	1.6%	2.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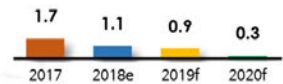


아베 신조 총리

경제이슈

- 아베 총리 3연임 가능성으로 아베노믹스 정책 일관성 확보
-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전산업 혁신과 신규서비스 창출 본격화
- '19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내구재 소비지출 하락 전망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2.9%	2.9%
물가상승률	2017	2018
	0.5%	1.2%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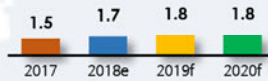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경제이슈

- 푸틴 대통령 4선으로 재조업 육성, 수입 대체화 정책 유지 전망
- 서방과의 외교갈등 지속되며 경제불안요인 지속
- 극동지역 개발 본격화, 정부 차원의 개발 프로그램과 지원 추진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5.2%	5.5%
물가상승률	2017	2018
	3.7%	2.8%

베트남



응우옌 푸 쯡 국가주석

경제이슈

- 제조업·건설업 성장과 FDI 증가가 경제 성장을 견인
- 미·중 통상분쟁, EU-베트남 FTA발효 등 인한 무역환경 변화
- '19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2.2%	2.2%
물가상승률	2017	2018
	3.5%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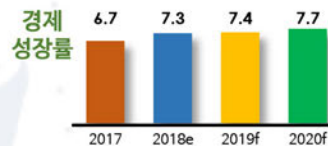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경제이슈

- 건조한 성장세 속에서 통화가치 하락, 일자리 없는 성장 우려
- '19년 4월 총선거 예정으로 모디 총리 재집권 여부에 관심 집중
- 한-인도 CEPA 개정 조기성과 도출 시 진출 확대 가능성



실업률	2017	2018
	N.A.	N.A.
물가상승률	2017	2018
	3.6%	4.7%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경제이슈

- 27년간 경기침체 없는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최장기 기록 유지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를 위해 투자규제 강화
- 자국 제조업 기반 약화, 온라인 비즈니스 성장 등 기회요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2017	2018
	5.6%	5.3%
물가상승률	2017	2018
	2.0%	2.2%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CONTENTS

| 제1권 |

■ 2019 북미 진출전략	1
■ 2019 유럽 진출전략	131
■ 2019 일본 진출전략	243

| 제2권 |

■ 2019 중국 진출전략	1
■ 2019 중남미 진출전략	109
■ 2019 아프리카 진출전략	213

| 제3권 |

■ 2019 동남아대양주 진출전략	1
■ 2019 서남아 진출전략	85
■ 2019 중동 진출전략	163
■ 2019 CIS 진출전략	295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북미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 가. [미국]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5
 - 나.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6
 - 다. [미국] 5G 무선통신 상용화, 주요 소비층으로 여성 및 Z세대 부상 7
 - 라. [캐나다]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효과 9
 - 마. [캐나다] 수입규제 확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 10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2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35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57

III. 진출전략 80

- [미국]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8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81
 3.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94

- [캐나다]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0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102
 3.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108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112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121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126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128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미국) 2019년 경제 성장세 유지되나 정치, 통상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 IMF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5%로 2018년의 2.9% 성장 대비 둔화되나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2019년에도 양호한 고용 상황과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가가 예상됨
 -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가 이어지면서 비주택 고정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 전망
-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추진 난항 및 미-중 통상환경 장기화 우려
 - (정치환경)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기존과 같이 공화당이 차지했으나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하여 공화당 주도 추가 감세 및 정부 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 추진 난항 전망
 - (통상환경) 대중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관세부과 등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할 전망

□ (캐나다) 2019년 경제는 현상 유지되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교역 위축 우려

- 캐나다 중앙은행은 에너지 산업과 서비스 부문 호조로 2019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2.0%(캐나다 중앙은행 전망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WTI)가 60달러를 상회하면서, 서부 오일샌드 투자 재개
 - 2018년 2분기 기준, 수출(12.3%)과 수입(6.5%)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용시장도 전반적인 호조세 유지
- 정치환경 불확실성 증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교역 위축 우려
 - (정치환경) 2019년 10월 연방 총선 결과로 집권당 변동 시 주요정책 변화 예상

- (통상환경)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고, NAFTA 재협상 타결 (USMCA)에 따라 자동차부품, 낙농업, 철강 등 일부 산업 피해가 불가피

나. 주요 경제지표

□ 미국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e)
인구	백만 명	314	319	321	324	326	328	331
명목 GDP	십억 달러	16,155	17,428	18,121	18,624	19,391	20,413	21,410
1인당 명목GDP	달러	51,404	54,657	56,411	57,559	59,501	62,152	64,674
실질성장률	%	2.2	2.6	2.9	1.5	2.2	2.9	2.5
실업률	%	8.1	6.2	5.3	4.9	4.4	3.9	3.5
소비자물가상승률	%	2.1	1.6	0.1	1.3	2.1	2.5	2.4
재정수지(GDP대비)	%	-7.9	-4.0	-3.5	-4.2	-4.6	-5.3	-5.9
총수출	백만 달러	2,218,354	2,376,657	2,266,691	2,215,844	2,351,072	2,569,733	2,758,681
(對韓 수출)	"	62,336	66,653	65,328	64,689	73,424	N/A	N/A
총수입	"	2,755,762	2,866,241	2,765,216	2,717,846	2,903,349	3,185,294	3,446,381
(對韓 수입)	"	70,226	81,412	83,579	81,300	82,721	N/A	/A
무역수지	백만 달러	-741,118	-749,917	-761,869	-751,051	-807,495	-870,345	-985,060
경상수지	"	-426,833	-365,199	-407,765	-432,874	-449,141	-483,233	-611,971
환율(연평균)	US\$/€	1.3	1.3	1.1	1.1	1.1	1.2	1.1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4,100	51,088	52,891	55,860	60,133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5,847	29,458	33,549	37,651	40,255	N/A	N/A

자료원: IMF, IHC Markit, Department of Commerce

□ 캐나다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2019년(e)
인구	백만 명	35.3	35.6	35.9	36.3	36.6	37.1	37.4
명목 GDP	십억 달러	1,842	1,801	1,560	1,536	1,653	1,728	1,812
1인당 명목GDP	달러	43,972	45,005	43,570	42,411	45,087	46,673	48,461
실질성장률	%	2.5	2.9	1.0	1.4	3.0	2.1	2.0
실업률	%	7.1	6.9	6.9	7.0	6.3	5.8	6.0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1.5	1.1	1.4	1.6	2.4	2.0
재정수지(GDP대비)	%	-1.5	-2.4	-3.6	-3.2	-2.9	-3.4	-2.6
총수출	백만 달러	458,260	476,940	409,820	390,319	421,035	539,000	562,600
(對韓 수출)	"	3,399	3,782	3,143	3,305	4,086	N/A	N/A
총수입	"	461,867	463,746	419,271	402,455	432,114	590,100	603,500
(對韓 수입)	"	7,125	6,560	6,445	8,002	6,706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3,606	13,194	-9,451	-12,136	-11,079	-51,100	-40,900
경상수지	"	-59.4	-43.2	-55.9	-49.3	-48.7	-59.0	-47.6
환율(연평균)	C\$/US\$	1.06	1.10	1.28	1.33	1.30	1.29	1.2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73.8	602.0	678.2	735.6	769.9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93.9	589.3	456.0	373.0	242.4	N/A	N/A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자료원: IMF, IHS Advanced Country Analysis & Forecast, Statistics Canada, UNCTAD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미국)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5G 무선통신 상용화, 주요 소비층으로 여성 및 Z세대 부상
- (캐나다) 한국-캐나다 FTA 발효 5년차 효과 확산 기대
수입규제 확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

가. [미국]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경과 및 전망

- 대중 무역적자 해결 담보, 중국의 기술추월에 대한 위기감, 11월 미 중간선거 등을 배경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제재 전격 진행
- 중국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는 부당행위’라고 규정하고 연이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내놓는 등 강경 대응
- 미국 先조치 발표에 중국은 後대응 양상으로 진행
 - 2019년 추가 관세 인상을 앞두고 미-중 두 정상 간 합의 여부에 초미의 관심사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관세 부과 규모]

	1차 제재 (7.6)	2차 제재 (8.23)	3차 제재 (9.24)
미국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25% 관세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 25% 관세	2,000억 달러 (5,745개 품목) 10% 관세(19.1.1부터 25%로 인상 예정)
중국	340억 달러 규모 (545개 품목) 25% 관세	160억 달러 규모 (114개 품목) 25% 관세	600억 달러 규모 (5,207개 품목) 5~10% 관세

자료원: KOTRA 북미지역본부 정리

- 미국 현지 바이어 및 진출기업 영향은 아직 미미하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신규 거래선 검토 및 수입선 다변화 움직임
 - * 3차 제재 시행 시 소비재 즉각 영향 예상, 경기 호황 속 수입이 늘고 있는 기계류는 적극 관심, 자동차부품은 차기 조달 시 검토 등 품목별 온도차 존재
-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하던 캐나다 기업들의 관련 신규 거래선 발굴 문의 증가
 - * 자동차부품(플라스틱 사출금형), 플라스틱 포장지 및 필름, 철강(강판) 등

□ USMCA 정식 서명(11.30)

-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 마감 시한(10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합의를 이루어 새 무역협정(USMCA) 타결 된 후 G20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11.30)
 - 캐나다는 2018년 8월 27일 미국과 멕시코가 원칙적 예비 합의(Preliminary agreement in principle)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한 즉시 미국과 약 한 달여간 협상을 진행
 - 미국은 멕시코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12월 1일 전에 협정 서명을 완료하기 위해 10월 1일*로 협상 기한을 정해둠
 - * 미국 의회비준 절차 상 新무역협정 서명 60일 전에 의회에 협정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원산지 규정 강화, 근로자 적용 기준, 협정 기한 등 정책 변경
 -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자국 제조업체의 최저시급을 궁극적으로 US\$ 16선에 맞추기로 합의
 - 미국은 이를 통해 U턴 기업*을 유도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
 - *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한 내국인(재외동포 포함) 또는 법인이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한 기업
 - 과거 NAFTA는 영구적 협정이었으나 USMCA는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신규 협정의 유효기간은 16년이며, 6년마다 이행성과 평가 실시
 - 또한, USMCA에는 비시장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지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됨
 - * 비시장 국가(Non-market Country): 회원국 중 어느 곳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국가

나.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 2018년 11월 치러진 의회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16대 의회 출범

-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
 -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확보해 기존과 같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함
 - (하원) 43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34명이 당선되어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다수당 지위를 내어줌
 - 당초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로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의석 확보에는 결국 실패
 - * 선거가 치러지는 35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은 26개이나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은 9개에 그쳐 민주당에게 수비적 선거로 분석된 바 있음
- 이번 선거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
 - 중간선거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함

- 유권자의 74%가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답하는 등 이번 선거는 'All About Trump'로 평가되어 트럼프 후반기 정책과 차기 대성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한 국내외 정책에 제동 전망

-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지위를 양분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추진에 변화 예상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 불가피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양당의 상·하원 의석 변화]

	115대 의회				116대 의회		
	공화	민주	무소속	공석	공화	민주	무소속
상 원	51	47	2(민주성향)	-	53	45	2(민주성향)
하 원	235	193	-	7	199	234	-

* 하원선거는 현재 캘리포니아 21구역과 뉴욕 27구역만 남겨놓은 상태임 (11.30. 기준)

다. [미국] 5G 무선통신 상용화, 주요 소비층으로 여성 및 Z세대 부상

□ 美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 무선통신의 상용화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의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는 중
 - 늘어나는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IoT 등 새로운 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G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술 표준화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
 - 5G는 통신사들에는 마케팅 도구가 되고, 통신장비 제조사에는 생존의 수단이 되며, 콘텐츠 업체와 가전, 자동차 등의 사물인터넷 업체들에게는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
 - 미국 주요 기업들의 5G 무선통신 준비 동향
 - Verizon, AT&T, Sprint, T-Mobile, U.S. Cellular 등 미국의 주요 무선통신사는 2018년 말까지 5G 출시를 목표로 5G 기술과 장비를 시험하고 있음
 - 2019년 초 미국 내 최소 30개 지역에서 5G 무선통신이 론칭될 예정으로 Dallas, Atlanta, Houston, Los Angeles, Washington D.C., Sacramento, Las Vegas 등이 시범 도시가 될 전망
 - 2017년 말 기준 32만3448곳의 셀 사이트(Cell site)가 있으며, 5G 통신망을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셀 사이트가 추가될 예정
- * 셀 사이트: 셀룰러 이동 전화망의 기지국. 이동 단말로부터의 무선 신호를 네트워크로 보내기 위한 유무선 신호 변환 등의 기능 수행

- 4G 무선통신망을 강화하고 5G 무선통신망의 근간을 위한 스몰셀(Small Cell)*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2018년에는 기존 스몰셀의 수는 550% 증가한 약 8만6,000개, 2026년에는 약 80만 개 전망

* 스몰셀: 일반적인 기지국보다 작은 영역을 책임지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 Accenture Strategy에 따르면 5G 기술 상용화에 힘입어 2022년 전 세계 IoT 기기 수는 290억 대, 5G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세계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5G란?

- 5세대 이동통신의 줄임말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 따르면, 5G는 다운로드 속도 최대 20Gbps, 최저 100Mbps인 이동통신기술을 의미
- 1㎢ 반경 안의 100만개 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속 500km 고속열차에서도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야 함
- 산업 분석기관인 Accenture Strategy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향후 수년간 5G 무선통신에 2750억 달러 규모를 투자 할 예정
- World Economic Forum과 Accenture Strategy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5G 기술로 인해 전 세계 산업용 IoT(IIoT) 시장은 2030년까지 14조 달러의 경제 가치가 추가 될 전망

□ 여성과 Z세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

- 미국 여성경제(SHEconomy) 시대, 여성전용 제품과 서비스 시장 성장 전망
 - ‘SHEconomy’는 ‘그녀(She)’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가 합쳐진 합성어로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 경제’를 뜻함
 - 미 통계청(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미국의 여성은 전체 소비자 구매력의 85%에 달하는 구매 결정권을 보유
 - 가정을 위해 내리는 거의 모든 구매 결정권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병행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지위 확보
 -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소비재와 의료 서비스, 피트니스 서비스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용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전문지인 Times지는 여성의 임금 인상과 구매력 증대에 주목하며 앞으로 여성 경제 위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차세대 소비계층은 소셜 세대(Social Generation)인 Z세대
 -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즉 ‘디지털 원주민’이라 일컬을 수 있음
 - 구글 검색, SNS 상의 소비자 평가 등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를 통해 신중하고 실용적인 소비활동을 추구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로 베이비부머, 밀레니얼 세대와 다르게 상당히 보수적인 소비 성향을 보임
- 유기농, 사회 공헌, 동물친화 등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 및 충성도가 높은 편으로 회사와 사회적 이익을 강조한 마케팅 메시지가 공략 포인트



자료원: Euromonitor

-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 내 Z세대의 소득 수준이 높아 미국은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2020년 Z세대 인구는 전체 소비자의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

라. [캐나다]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효과

□ 한-캐나다 FTA 발효 5년차, 수혜품목 증가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협정
 - 2015년 1월 1일부로 한-캐나다 FTA 발효 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 캐나다는 한국을 아·태 지역의 수출과 투자 확대의 허브로 활용
 - *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체결국으로,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한 뒤 2014년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정식 서명함
-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현황
 - 한국은 FTA 발효 5년 내 캐나다의 10,973여 개의 품목(92.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0년 내로 97.5% 관세를 철폐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예상
 - 쌀, 육류, 치즈, 송이버섯, 인삼, 고추장 등 민감 품목 211개(비중 1.8%)는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 캐나다산 갑각류(바닷가재), 식품(아이스와인), 의류 등은 FTA 발효 3년차(2017년) 철폐 완료

○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현황

- 캐나다는 FTA 발효 5년 내 품목 수 기준 97.5%에 대해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
- 참고로, 치즈·버터, 유제품, 소시지 등 181개의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대상으로 현행 관세율* 유지

* 치즈(245.5%), 버터(208%), 우유(243%), 크림(295.5%) 등

**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TV, 진공청소기, 냉장고), 가공식품(라면, 간장), 섬유·의류, 화장품은 FTA 발효 3년차인 2017년 무관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FTA 발효 5년차로 접어드는 2019년 수혜 품목

- 한국산 제품의 경우, 축전지, 건축자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주스, 아이스크림), 신발, 양말류 등 캐나다 수출 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
- 한편, 캐나다는 타이어, 돼지고기, 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베어링 등 품목이 수혜를 볼 예정

[한-캐나다 FTA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한국 양허 품목	양허 적용 시점	캐나다 양허 품목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바닷가재(냉동), 면류 등	즉시철폐	자동차부품(일부), TV, 진공청소기, 타일, 가공식품(라면, 간장), 광학기기 등
제재목, 의료기기, 벨트, 합성수지, 식료품(빵, 포도주, 마요네즈) 등	3년	승용차, 자동차부품, 타이어(일부),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닷가재, 농산물(일부) 등
타이어, 돼지고기(냉장·냉동), 베어링, 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	5년	신발, 양말, 축전지, 건축재,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아이스크림) 등

자료원: (韓) 산업통상자원부

마. [캐나다] 수입규제 확대,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영향 가능성

□ 캐나다 자국 산업보호 기조에 따라 수입규제 확대

○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캐나다도 자국 산업 보호 강화

-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값싼 제품의 캐나다 시장 유입 및 미국 시장 우회 진출 발판으로 사용될 우려로 캐나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캐나다 바이어들의 경우 미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규제를 발효할 경우 저가 제품 유입 우려로 동일제품에 대해 국경관리청에 제소하기도 함

○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 북미 지역 내 철강산업 보호무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반덤핑 규제대상 품목 중 60% 이상이 철강제품
- 공공인프라 확충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캐나다 내 철강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나 철강산업 보호기조 또한 심화 예상

□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캐나다 영향 가능성

- 미-중 통상분쟁으로 캐나다 영향 불가피
 - 캐나다는 미국과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어 통상분쟁으로 미국 산업타격 시 캐나다도 영향 가능성
 - * 특히, 중국산 원자재·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캐나다 제조업체의 피해 가능성
 - 또한 미국과 중국은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으로서(1, 2위) 두 국가 간 통상분쟁은 캐나다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우려
 - 수출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식품의 경우 미국 업체의 가격 인하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캐나다 산업 피해 가능성
- 일부 산업의 경우,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캐나다산 제품 반사이익
 - 중국은 미국 Boeing사 여객기 구매를 중단하고 캐나다 Bombardier사로 대체 방안 검토 중이며, 미국산 농축산 식품 또한 캐나다산 제품 수요 증가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美 정치) 트럼프정부 친기업적 정책 추진, 美 선진기술 침탈방지 법안 통과 등
(美 경제) 양호한 성장 지속. 소비·생산 증가, 투자 확대, 완전고용·임금상승 예상
(美 산업) 섬유, 의료기기, 일반기계, 반도체, 컴퓨터, 석유화학·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성장
(美 정책) 세이프가드·무역확대법 등 각종 통상규제 적용, USMCA 타결, 인프라 부흥 계획 등
- (加 정치) 2019년 10월 연방총선 예정으로 집권당 변동 시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
(加 경제) 양호한 경제성장 예상. 재정적자, 인플레이, 통화약세 등 위험요인 상존
(加 산업) 항공우주, 식품가공, 생명과학, 기계·장비, 에너지 산업 분야 등 협력 여건 양호
(加 정책) USMCA 출범 영향, CPTPP 서명, 스마트시티 추진, 의료기기·식품 규제 강화 등



미 국

가. 정치 환경

□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

- 11월 중간 선거 이후 공화당 상원은 세제 개혁 2.0을 추진 중
 - 동 법안은 중소기업 및 개인 소득세 감세 조항을 주요 골자로 함
 - 스타트업 기업의 비용 공제 가능 액을 최대 20,000달러로 인상시켰으며,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에 게 퇴직 연금(401K)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
 - 또한, 2017년 통과된 감세 및 일자리(Tax Cuts and Jobs Act)법에서 2025년에 만기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개인 소득세 감세 조항 영구화 추진
- 규제 완화에 앞장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
 - * 도드-프랭크 법안(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10년 7월 미국에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의 이름을 땄다)은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동 법안에서는 500억이 아닌 2,500억 달러로 자산 규모 기준을 상승시킴

- 또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되었던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승용차 연비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의 환경 기준 완화를 추진 중

□ 외국인 투자를 통한 해외국의 미국 선진 기술침탈 방지

- 중국 등의 국가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탈함으로써 최소의 개발비용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부 내에서 고조됨에 따라, CFIUS(외국인투자위원회)의 권한과 심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이 통과됨
 - *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던 CFIUS(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 및 개혁안(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 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최종 입법화됨
- 이 법률을 통해 CFIUS는 핵심 및 선진 기술 및 인프라, 민감 정보 또는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거래의 검토가 가능해짐
- 개정 전 CFIUS가 검토 가능한 거래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통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의 미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정부 혹은 기업이 인수할 때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동 법이 입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소수 지분 투자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

나. 경제 환경

□ 2018년 미국 경제는 양호한 성장 지속

- (경제성장률)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3.5%로 전분기(4.2%)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 지속
 - (개인소비) 미국의 감세효과와 양호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소비지출 증가. 2019년에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에 따른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증가가 예상됨
 - * 개인소비 증가율: 0.5%(‘18.1Q), 3.8%(‘18.2Q), 4.0%(‘18.3Q)
 - (민간투자)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가 이어지면서 비주택 고정투자와 지식재산권 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 지속
 - * 비주택 고정투자 증가율: 11.5%(‘18.1Q), 8.7%(‘18.2Q), 0.8%(‘18.3Q)
 - * 지식재산권 투자 증가율: 14.1%(‘18.1Q), 10.5%(‘18.2Q), 7.9%(‘18.3Q)
 - (교역) 2분기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이 크게 줄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수입 상품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3분기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 * 순수출의 GDP 기여도: -0.02%(‘18.1Q), 1.22%(‘18.2Q), -1.78%(‘18.3Q)
- (산업생산) 2018년 3분기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기비 1.2% 성장
 - 2018년 미국의 산업생산은 3분기 연속 증가를 나타냈으며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제조업 지수도 98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

- (고용)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 지속

* 실업률: 4.1%(‘17.4Q), 4.1%(‘18.1Q), 3.9%(‘18.2Q), 3.8%(‘18.3Q)

- (물가) 연준 목표 수준(2.0%)을 유지

- 경기 및 고용 호조 지속에 따른 유헴생산자원(slack) 축소, 유가 상승 등으로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 PCE 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1.9%(‘18.1Q), 2.2%(‘18.2Q), 2.2%(‘18.3Q)

- (금리) 미국의 견고한 경제성장세는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나 무역 분쟁 등 하방 리스크 확대 시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해질 것

* 미국 정책금리: 1.25-1.50%(‘18.3), 1.50-1.75%(‘18.3), 1.75-2.00%(‘18.6), 2.00-2.25%(‘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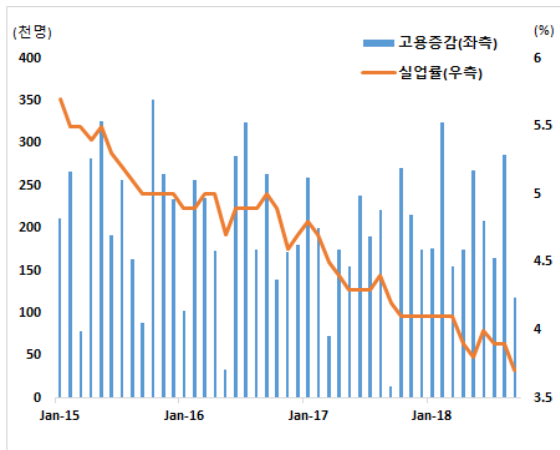
【 경제 부분별 성장률 】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GDP	1.8	3.0	2.8	2.3	2.2	4.2	3.5
개인소비	1.8	2.9	2.2	3.9	0.5	3.8	4.0
민간투자	4.9	5.7	8.8	0.8	9.6	-0.5	12.0
비주택	9.6	7.3	3.4	4.8	11.5	8.7	0.8
(구조물)	12.8	3.8	-5.7	1.3	13.9	14.5	-7.9
(설비)	9.1	9.7	9.8	9.9	8.5	4.6	0.4
주택	11.1	-5.5	-0.5	11.1	-3.4	-1.3	-4.0
재고증감*	-0.8	0.23	1.04	-0.91	0.27	-1.17	2.07
순수출*	-0.1	0.08	0.01	-0.89	-0.02	1.22	-1.78
수출	5	3.6	3.5	6.6	3.6	9.3	-3.5
수입	4.8	2.5	2.8	11.8	3	-0.6	9.1
정부지출	-0.8	0	-1	2.4	1.5	2.5	3.3

* 재고증감 및 순수출은 기여도

자료원: 미 상무부(% , 전기비 연율)

【 고용 및 실업률 】



자료원: 한국은행(미 상무부)

【 주요 실물경제 지표 】

지표	'17.1Q	'17.2Q	'17.3Q	'17.4Q	'18.1Q	'18.2Q	'18.3Q
소비(실질)증감률(%)	1.8	2.9	2.2	3.9	0.5	3.8	4.0
소비자 심리지수	97.2	96.4	95.1	98.4	98.9	98.3	98.1
산업생산 증감률(%)	0.2	1.2	-0.4	1.9	0.6	1.3	1.2
ISM 제조업지수	57.0	55.8	58.6	58.7	59.7	58.7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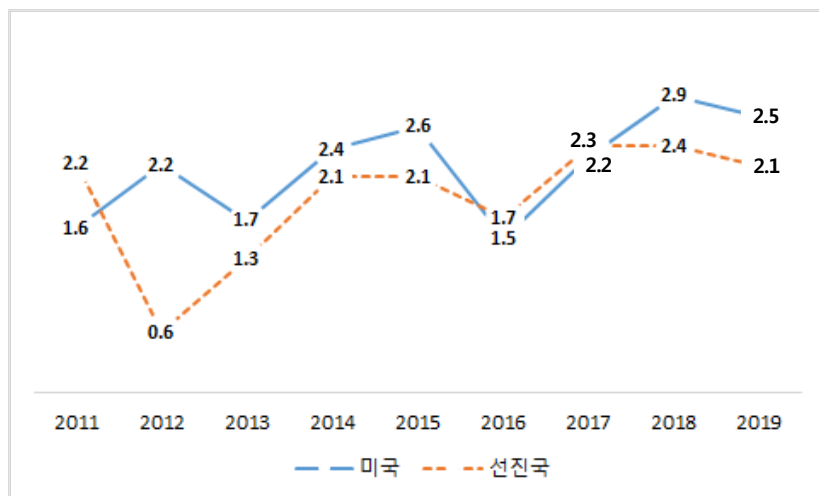
주: 분기는 전기비 연율 또는 월평균 지수

자료원: 미 상무부, 미시건대, 미 연준, ISM

□ 향후 미국 경제, 2.5%의 성장을 이어 갈 전망

- IMF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경제는 2.9% 성장하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2.5%의 성장을 이어 갈 전망
- 고용시장 호조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 주택가격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 양호한 소비 심리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이어질 전망
- 연방준비은행은 금융시장 급락이나 경기의 큰 폭 둔화는 연준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중간(moderate)' 수준이라고 평가
- 무역 분쟁,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그러나 무역 분쟁 확대 시 경기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

【 경제성장률 추세 및 전망 】



자료원: IMF(2018년 10월 발표자료 기준)

다. 산업 환경

□ 섬유

- 미국 섬유 소비는 경제 성장과 가계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신차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인한 인테리어 부자재 수요감소로 다소 위축됐으나 홈 퍼니싱 부문의 수요 확대로 향후 소비 증가 전망
- 지난 수년간 저금리와 소비 심리 확대에 의한 신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기술섬유를 중심으로 섬유 소비가 확대
- 하지만 신차 판매가 다소 둔화된 것은 섬유 시장 성장의 부정적 요인이나 소비 심리 활성화와 지속적인 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따른 가정용 가구 시장의 확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기술 섬유 수요 증가로 2019년 섬유 소비는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2018년 미국의 섬유 수입 의존도는 49.2%이며, 이 수치는 2019년 49.5%로 증가 전망
- 미국 섬유 생산 업체의 자동화가 가속되고 있으나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 섬유에 비해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음
- 다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 섬유 수입 시장의 주요 변수로 여겨짐

[미국 섬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단위: 100만 달러)	61,486.2	61,239.4	61,912.0	61,767.5	62,326.2	63,142.3	64,720.6

자료원: IBIS월드

□ 가전

- 지속적 경제 성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부의 리베이트 등으로 미국 가전 시장은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확대됐으나 신규 주택 착공 및 주택 거래 감소, 미국의 무역전쟁 등으로 향후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효율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마트 가전은 미 가전 시장 성장의 핵심으로 급부상
- 다수의 주(州)정부가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전 시장 매출 확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다만 주택 시장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으로 커진 관세 부담이 소비자 가 인상으로 이어진 것은 가전 시장 성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미국 가전 시장 규모 및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규모(단위: 100만 달러)	33,496.3	32,434.2	32,188.4	32,112.6	31,914.9	31,560.9	31,190.5

자료원: IBIS월드

□ 철강

- 미국의 2017년도 철강 산업은 생산업 기준, 약 975억 8,97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18.1% 성장함
- 2018년도 기준, 약 946억 4,700만 달러로 성장 전망되며 전년대비 3.0% 감소가 전망됨
- 주요 품목 분야는 열간 압연 제품(hot-rolled bars and shapes) 생산 비중이 28.7%, 열간 압연 시트 및 스트립(hot rolled sheets & strips)은 28.6%, 냉간 압연 시트 및 스트립(cold-rolled sheets and strips) 18.1%, 강철 잉곳 및 반제품(steel ingots and semi-finished shapes) 10.3%, 기타(other) 9.8%, 튜브(tubular products) 제품이 2.8%에 달함. 그 외, 냉간 제품(cold-finished bars and shapes)이 1.7%임.

* 미국의 철강 생산업은 2021년에는 약 887억 9,070만 달러에 수준으로 전망됨

[미국 철강 생산업 규모 및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단위: 100만 달러)	92,999.0	82,619.5	97,589.7	94,647.0	90,489.9	89,108.4	88,790.7

자료원: IBIS World, Iron & Steel Manufacturing in the U.S.

- 수입산 철강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로 지난 3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
-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 받았으나 수입 쿼터제를 적용, 한국산 대미 철강 평균 수출량(2015~2017년 기준)의 70%로 제한
-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월 29일, 한국, 브라질산 철강 제품과 아르헨티나 산 알루미늄에 대한 선별적인 쿼터 완화를 허용하는 "Targeted Relief"에 서명
-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량과 제품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쿼터 및 관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
- 쿼터 적용 결정 이전에 건설 공사용 철강 제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쿼터제로 인해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 쿼터 면제가 가능하나 추가 25% 관세가 부과됨

□ 의료기기

- 미국의 2017년도 의료기기 산업은 생산업 기준, 385억 1,28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대비 1.8% 성장함
 - 2018년도 기준, 약 395억 3,63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7% 성장 전망
 - 주요 품목 분야로는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cardiovascular devices)의 생산비중 23.6%, 방사선 관련(irradiation devices) 20.9%, 기타 의료기기(other devices) 20.7%가 있음
 - 이외에, 환자 회복 및 비침습적 기기(patient recovery and non-invasive devices) 17.8%, 뇌 신경 및 척추신경 관련(neuromodulation and spinal devices)은 11.8%, 당뇨병 관련 의료기기(diabetes devices) 생산비중은 5.2%
- * 미국의 의료기기 생산업은 2021년에는 약 431억 8,4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의료기기 생산업 규모 및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단위: 100만 달러)	39,997.0	37,820.7	38,512.8	39,536.3	40,805.5	41,984.6	43,184.8

자료원: IBIS Worl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in the U.S.

-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의 주요 성장원인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최대 소비자 집단 중 하나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화로 수요 증대 및 성장 전망
- 베이비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의 출생자들로 약 7,49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미 전체 인구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일반기계

- 기초산업기계, 건설광산기계 및 금속공작기계 분야 수출 증가세
 - 기초산업기계, 건설광산기계 및 금속공작기계가 타 수출 부진 품목을 대체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항공우주 산업과 단조 산업이 공작기계 수출 성장을 견인
- 건설 및 설비 투자 증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수출 기회 증가
 - 미국의 건설,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 지속 및 투자 확대로 건설 및 공작 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미-중 통상 분쟁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눈에 띄게 증가함. 통상 분쟁 장기화에 따라 제3국 공급 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으며, 한국산 제품을 찾는 바이어도 늘고 있음

【 미국 일반기계 시장 규모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규모(단위: 100만 달러)	579,806	587,263	619,610.6	613,095.4	599,337.4	645,952.0

자료원: Euromonitor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북미 완성차 생산 및 판매량은 금융위기 이후 8년 연속 생산·판매 규모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2분기를 기점으로 저성장 국면 진입*, 2020년까지 저성장 고착화 예상
 - *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자동차 구매 대기수요 감소 요인

【 미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전망 】

구분(단위: 천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산규모	12,105	12,198	11,180	11,260	11,328	11,402
판매규모	17,924	17,959	17,562	17,591	17,504	17,485

주: 상반기 기준

자료원: Marklines, Wards Auto

- 한편, 전반적인 경제 호황 및 유가 하락으로 SUV 차종의 인기 급증, 주요 완성차 기업은 SUV 중심으로 제품군 개편

【 북미 완성차 차종별 판매점유율 】

구분(단위:%)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CAGR)
소형 SUV	30	32.2	34.9	5.2
픽업트럭	14.2	15	16	4.1
세단	36	32.9	29.4	-6.5
기타	19.8	19.9	19.7	-0.2

자료원: Wards Auto Data Center

-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북미 OEM, 자동차 부품업체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 전장부품 중심으로 신규 사업기회 모색 중

* (중점 개발 분야) 레이더, 음성인식, 환경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V2X 통신단말기 등

□ 반도체

- 반도체 부문은 2016년 하반기 이후 7분기 연속 상승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슈퍼사이클에 진입
 - 2018년 반도체 시장은 2017년 대비 7.5%(Gartner), 7.7%(IDC)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 반도체 시장의 30.1%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D램(메모리 반도체의 58.7%)의 급성장이 호황을 주도하고 있고, 69.9%를 차지하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의 시장규모도 AI·자율주행차·IoT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
 - 실리콘밸리에는 애플,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과 구글, 페이스북 등 반도체 관련 테크 기업들이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Global Trade Atlas의 수입통계(HS Code 8486.20 기준)에 의하면 2018년 미국의 반도체 수입은 8억 2,169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은 2018년 기준 약 4,039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5위에 해당함
 - IBIS World의 보고서에 의하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차량,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출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미국 반도체 시장 규모 및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단위: 백만 달러)	48,430.1	49,353.4	49,217.6	48,798.3	50,667.2	52,612.8	54,384.8

자료원: IBIS World

□ 컴퓨터

-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 증가 추세
 - 시장조사업체 Market Watch는 향후 미국 SSD 시장은 지속적 확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성장 동력은 차세대 커넥티드 디바이스 증가, 프리미엄 PC 시장의 성장, 고성능·고용량 저장 장치의 필요성 증대,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하이엔드 컴퓨팅 시스템 수요 증가, 대규모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확산 등
 - SSD는 HDD보다 빠른 속도와 IOPs(초당입출력처리량), 낮은 지연시간(Latency)을 강점으로 점차 기업에서 요구하는 안정성과 성능을 갖추면서 HDD를 대체하여 데이터센터의 주류로 자리 잡는 중

- 서버뿐 아니라 일반 기업 시스템에도 SSD를 선호하면서 B2B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노트북을 비롯한 개인용 전자기기에도 올 한 해 동안 SSD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홈 등 IoT 기기들의 SSD 도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SSD 수요는 당분간 계속 강세를 보일 것(IDC 보고서)

[미국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단위: 백만 달러)	22,762.7	18,947.0	17,293.0	14,955.1	15,829.1	16,388.5	16,583.8

자료원: IBIS World

□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 셰일오일 증산으로 인한 미국 원유생산량 증가
 - 2018년 미국 원유 생산량은 1,080만 b/d, 2019년 1,180만 b/d으로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 될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원유 수출도 호조
- 미국 석유화학 제품 생산 증가 전망
 - 생산시설 증설에 따라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 증가하여 2022년까지 연평균 1.8% 성장 전망
 - 주요 경쟁업체로는 LyondellBasell Industries NV(시장 점유율 35.5%), Chevron Phillips Chemical Company LLC(13.0%), Ineos Group(7.8%) 등

[미국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단위: 100만 달러)	52,118.5	47,919.6	53,520.5	54,957.8	55,974.8	56,905.6	57,760.6

자료원: IBIS World

□ 무선통신기기

- 치열한 5G 무선통신 개발 경쟁
 - 2019년 초 최소 미국 내 30개 지역에서 5G 무선통신이 런칭될 예정
 - 5G 무선통신에 대한 투자는 2,750억 달러 규모일 것이며, 5G 인프라 투자로 인한 GDP에 미치는 영향은 약 5,000억 달러, 새 일자리 300만 개가 창출될 전망
- 미국 무선통신 시장 규모는 2,721억 달러
 - 2018년 미국 무선통신 시장 규모는 2,721억 달러로 2023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하여 3,06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지난 5년간 무선통신업체의 주요 제공 서비스는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미국 무선통신 시장 규모 및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단위: 10억 달러)	267.4	272.7	269.5	272.1	281.9	287.1	293.0

자료원: IBIS World

라. 정책·규제

□ 통상규제 현황

품목	규제	내용
세탁기	201조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 120만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 3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 -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20% 관세 부과, 3년간 매년 2%씩 관세 인하 - 세탁기의 부품의 경우 5만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 - 매년 5%씩 관세를 인하, 쿼터 한도는 매년 2만 개씩 확대(5만개→7만개→9만개)
태양광 모듈	201조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 초과 물량에 30% 관세를 부과, 4년간 매년 5%씩 관세 인하
철강 알루미늄	무역확대법 232조 규제	- 2018년 3월 8일 개시 - 모든 국가는 동 232조 규제 대상국(호주 제외) - 철강 수입의 경우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산 제품은 쿼터 규제 - 나머지 국가 제품은 25% 관세 규제를 받고 있음 - 알루미늄의 경우 아르헨티나 산 제품은 쿼터 규제 - 한국 포함 나머지 국가들은 10% 관세 부과 규제
자동차	무역확대법 232조 규제	-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한 232조 규제 개시 검토 중
중국 수입품 (약 2,500억 달러 규모)	1974년 무역법 301조 對中 관세 규제	-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 부과 -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약 6,000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 개시 의사를 밝힘 - 트럼프 행정부는 동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규제 관련 의견 수렴 과정 완료 후 최종 부과 품목 리스트를 발표(총 5,745가지 품목) - 동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은 2018년까지(9월 24일 개시) 10%의 관세가 부과, 90일 협상기간동안 관세 인상 유예 (12.1)

□ USMCA(구 NAFTA) 정식 서명

- 2017년 5월,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 의사를 美 의회에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7차 공식협상을 거쳐, 2018년 8월 27일 미-멕시코 양자협상 원칙적 합의, 2018년 9월 30일 캐나다와도 극적 합의하며 타결
-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NAFTA가 아닌 USMCA(US, Mexico, Canada Agreement)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11월 30일 G20 정상회담에서 정식 서명

-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및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리스크 등으로 인해 미 의회의 USMCA 협정문 승인 난항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나, 내년 초 이행법안 통과가 완료될 것이란 평가
-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가 큰 틀에서 미국이 요구한 3대 쟁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분석
 - 자동차 관련 역내가치비율 단계적 상향조정(75%), 일몰조항제도의 부분적 도입, ISDS(국가-투자자 소송제도) 적용 요건 완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캐나다 측은 낙농업 시장 보호 정책 완화, 미국 측은 추후 자동차 232조 규제 발동 시 對캐나다·멕시코 규제는 관세가 아닌 쿼터로 대체하고 캐나다 측이 요구한 기존 분쟁해결 절차를 유지하기로 타협
- USMCA 주요 내용

자동차	-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역내 생산 및 부품 조달 비율 인상 - 생산 노동자의 임금 인상
일몰조항	- 협정 체결 후 16년간 유효, 6년째 성과 평가를 실시 후 다시 16년을 연장 - 성과 평가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잔여 10년 동안 합의 시도하고, 합의된 시점에서 새롭게 16년 연장
캐나다 낙농시장	-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서 일부 유제품에 대한 쿼터 제도 폐지 - 160억 달러 규모 시장 개방
자동차 232조	- 향후 25% 관세 부과 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쿼터로 대체 - 자동차는 캐나다, 멕시코 모두 최대 260만대 쿼터 보장,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 324억불, 멕시코는 1,080억불까지 대미수출 가능
철강, 알루미늄 232조	-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면제에는 실패, 향후 논의예정
환율조항	- 시장 환율 정책 유지, 외환시장 개입 등을 통한 경쟁국 자국통화 가치 평가절하 금지 - 거시경제 정책 및 환율 관련 사항 신규 조항 추가
분쟁해결절차	- 분쟁 발생 시, 공동패널 구성하여 해결하는 19조 종전대로 유지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부흥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인프라 부흥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총 1.5조 달러(연방정부 출연금 2,000억 달러와 민간투자 1.3조 달러)를 투자해 미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계획
 - 연방정부는 주·지방정부가 제안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선별하여 프로젝트 총 건설비용에서 최대 20%까지 보조금(grant) 형태로 지원할 예정
 - 연방지원 출연금 2,000억 달러를 세부적으로 (1)주·지방정부가 제안한 프로젝트 보조금(50%), (2)농어촌 개발(25%), (3)혁신프로젝트(10%), (4)연방 금융 프로그램(10%), (5)신규 연방 투자펀드(5%)에 배정할 것이라고 밝힘



가. 정치 환경

□ 자유당 정부, 차기 연방총선(2019.10.21)에서 재집권 도전

-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 차기연방 총선 출마 공식화
 - 자유당은 차기 총선까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진작, 경기부양, 복지강화, 취업·이민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예정
 -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지출과 중산층 지원으로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재정적자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비판도 존재
- 중·서부를 중심으로 자유당 활동 위축 양상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집권당이던 자유당은 2017년 5월 주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인 43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인 44석을 넘지 못해 주정부 구성에 실패*
 - * 신민당(41석)과 녹색당(3석)은 소수정부 연대를 통해 44석으로 주정부를 구성하는데 합의
 - 또한 자유당은 15년간 장기 집권해온 온타리오 주의 주총선('18년 6월)에서 단 7석을 얻는데 그쳐 교섭 정당 자격 상실
 - 2018년 10월 실시된 퀘벡 주총선에서도 패배하는 등 지지율 하락 추세
- 차기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재집권 실패 시, 정책기조 변화 가능
 - 자유당의 주요 정책인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과 인프라 투자기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캐나다 전역으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지지기반 확대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총선에서(2017.7.18) 16년 만에 승리하고 온타리오 주총선에서는 40석을 얻어 제2야당에서 제1야당으로 등극

[캐나다 주정부 구성 현황]

정 당	지 역	주총리(대표)	취임일
신민당(NDP)	앨버타	Rachel Notley	2015.5.24
	브리티시 컬럼비아	John Horgan	2017.7.18
자유당(Liberal)	노바스코샤	Stephen McNeil	2013.10.22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Dwight Ball	2015.12.14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Wade MacLauchlan	2015.2.23
	유콘	Sandy Silver	2016.12.3
	온타리오	Doug Ford	2018.6.29
보수당(PC)	매니토바	Brian Pallister	2016.5.3
	뉴브런즈윅*	미정	미정

정 당	지 역	주총리(대표)	취임일
무소속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Bob McLeod	2011.10.27
	누나부트	Joe Savikataaq	2018.6.14
기타	서스캐처원	Scott Moe	2018.2.2.
	퀘벡	Francois Legault	2018.10.18

* 9월 24일 실시된 뉴브런즈윅 주총선에서 보수당(PC)이 승리했으나, 다수표를 얻지 못해 현재 주총리 후보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결과: 보수당 22석, 자유당 21석)

자료원: Canada Guide

□ 자유당, 연방총선(2019.10.21) 앞두고 지지 기반 축소

- 2018년, 집권 4년차인 여당(자유당)의 지지율이 35%대로 하락(자료원: CBC)
 - NAFTA 재협상 장기화, 캐나다-미국 간 통상분쟁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
 - * 진보 성향의 자유당(Liberal)은 2015년 10월 연방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바 있음
- 자유당이 재집권할 시, 캐나다 재정적자 부담 증가 불가피
 - 인프라 확충과 서민 복지 강화로 2018/201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C\$ 181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현 집권당(자유당) 연방총선 패배 시, 캐나다 경제·산업 정책 변화 예상
 - 특히, 집권당이 적극 추진 중인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주요 선거 공약은 없으나, 주요 쟁점은 경제·산업(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 재정 관리, 이민(취업, 난민)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의 정치적 변동은 캐나다 경제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

[캐나다 주요 정당 개요]

사진						
대표	Justin Trudeau	Andrew Scheer	Jagmeet Singh	Mario Beaulieu	Elizabeth May	Maxime Bernier
정당	자유당 (Liberal)	보수당 (Conservative)	신민당 (New Democratic)	퀘벡블록당 (Bloc Québécois)	녹색당 (Green)	인민당 (People's)
선거구	Papineau	Regina - Qu'Appelle	Burnaby South	La Pointe- de-l'Île	Saanich - Gulf Island	Beauce
의석 보유	182	97	41	10	1	1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나. 경제 환경

□ 국제유가 회복과 수출 및 고용시장 안정에 힘입은 양호한 경제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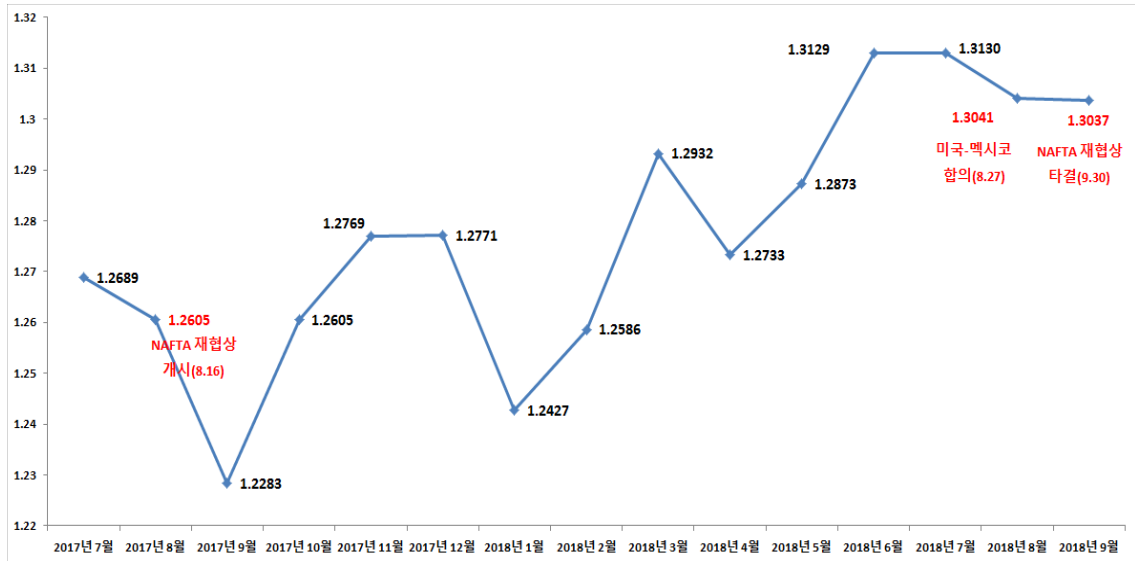
- 국제유가(WTI)가 US\$ 60을 상회하면서, 서부 오일샌드 투자 재개
 - 베네수엘라 원유생산 감소로 캐나다산 중질유는 미국 텍사스 주 정유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Suncor Energy, Encana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서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
- 2018년 2분기 기준, 수출(12.3%)과 수입(6.5%)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수출 증가 주요품목: 원유, 자동차부품, 원목, 알루미늄, 의약품, 항공기
 - 수입 증가 주요품목: 자동차부품, 원유, 휴대전화, 내연기관
-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호조
 - 2018년 7월 고용률은 65.3%로 집계되었고, 실업률은 5.8%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또한, 2018년 2분기 평균 주급은 C\$ 999.74(약 85만 원)로 전년 동기대비 2.8% 상승
 - * 참고: 2018년 7월 기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실업률은 5.0%로 가장 낮은 반면 뉴펀들랜드 주의 실업률은 15.4%에 달하는 등 지역 간 편차 심화

□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등 위험요인

-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 저하 등 불안감 상존
 - 연방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4%에 달하고 있음
- 2018년 3월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발 캐나다 금융위험을 지적했으며, 무디스는 캐나다 6대 시중은행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함
 - TD은행 Aa2, 나머지 5개 은행은 A1으로 조정
-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을 취할 전망
 -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2018년 7월 11일 1.25%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1.50%로 상향 조정
 -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018년 하반기까지 1.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함
- 미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약세
 - 유가상승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NAFTA 재협상(現 USMCA) 등 대외요인으로 캐나다 달러 약세(1 USD = 1.30 CAD; 2018.9 기준)
 - 2018년 말에는 1 USD 대비 CAD 1.28 수준까지 통화가치 회복 예상

[2017~2018년 월별 캐나다 달러 대비 환율 추이]

(단위: CAD/USD)



자료원: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 지역별 경제동향

- 온타리오 주 경제성장률은 2.7%('17년)에서 2.0%('18년)으로 하향 예상
 -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저조하며 부동산 시장 냉각 등 실물지표 성장세 둔화
 - 반면, 고용호조, 임금인상,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됨
- 앨버타 주와 사스캐치완 주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2.4%, 2.2%로 캐나다 경제성장 견인
 -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오일샌드 개발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전망
 - 앨버타 주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져 실업률을 해소하는 등 선순환 예상
 - 이외에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관광업 등 서비스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퀘벡 주는 건설 등 인프라 확대에 경제 호조 예상
- 한편, 대서양연안 노바스코샤(0.8%), 뉴브런즈윅(0.6%) 등은 약세 전망
 - 인구 고령화, 기업투자 감소 등이 주요 원인

[주요 지역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 분	2018년(e)	2019년(e)
온타리오(Ontario)	2.0	1.9
퀘벡(Quebec)	2.4	1.8
앨버타(Alberta)	2.4	2.5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2.3	1.9
새스커툰(Saskatchewan)	2.2	2.8
매니토바(Manitoba)	1.7	1.7
노바스코샤(Nova Scotia)	0.8	0.8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0.6	0.7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Newfoundland and Labrador)	0.2	2.6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1.4	1.6

주: 지역별 순서는 경제 규모 순 / 2018년 추정치, 2019년 전망치

자료원: Royal Bank of Canada

다. 산업 환경

□ 한-캐나다 주요 산업 협력 여건

○ 양국 간 협업 가능성이 높은 15대 유망 산업 도출

- 조사방법: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기업 수, 고용인원, 교역동향* 등에 따라 양국 간 협력 가능 규모, 빈도수, 수요 잠재력, 개방도, 고용창출 등을 분석하여 1~10점으로 점수 부여

* 대한 교역동향은 한-캐나다 FTA 발효 전인 2014년과 최근 2017년도 비교

[한-캐나다 유망 제조업 관련 통계]

구 분	운송기기	식품가공	생명과학	기계·장비	에너지
캐나다 GDP 비중(% , 2017)	1.54	1.46	0.85	0.82	8.63
캐나다 GDP CAGR(% , 5개년)	1.21	4.43	3.54	1.86	3.88
한국 GDP 비중(% , 2017)	4.61	1.35	4.23	2.75	0.18
한국 GDP CAGR(% , 5개년)	-0.99	5.30	5.80	5.83	3.31
캐나다 기업 수(개, 2016)	3,455	9,077	3,213	7,911	23,138
한국 기업 수(개, 2016)	15,270	57,212	11,992	72,185	2,006
캐나다 신규 고용인원(명, 2017)	195,661	227,027	92,688	55,151	264,200
한국 신규 고용인원(명, 2016)	524,852	322,315	203,800	714,744	15,739
대한 교역액(US\$ 천, 2014)	2,730,423	380,601	494,551	991,326	1,809,699
대한 교역액(US\$ 천, 2017)	2,968,821	505,165	517,569	899,402	2,068,408
2014/17년 대한교역증감률(%)	8.73	32.73	4.65	-9.27	14.30
2019년 예상 교역액(US\$ 천)	3,228,034	670,497	541,658	816,002	2,364,101

자료원: Statistics Canada, 한국은행 경제시스템,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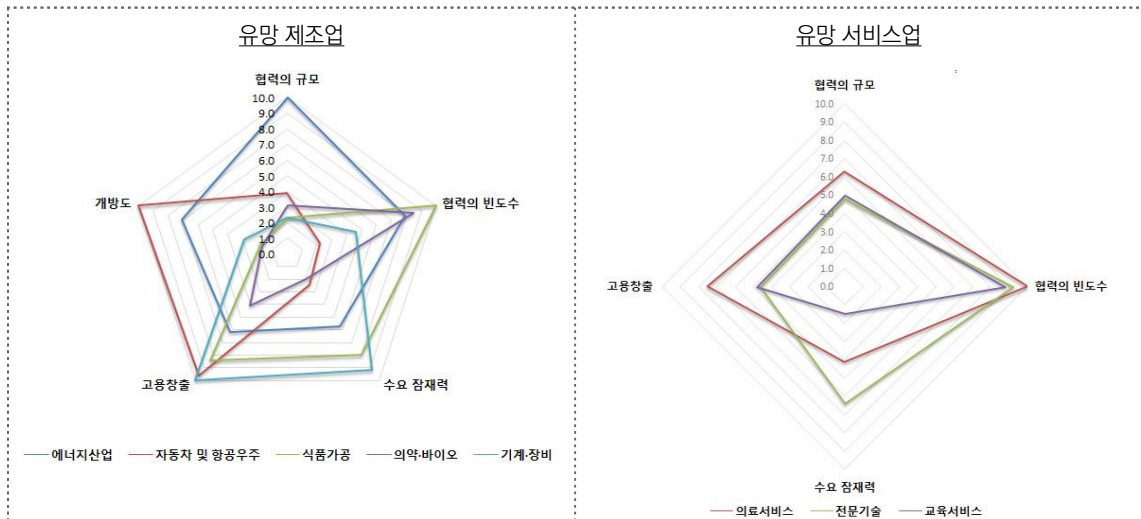
[한-캐나다 유망 서비스업 관련 통계]

구 분	의료서비스	전문기술	교육서비스
캐나다 GDP 비중(% , 2017)	6.52	5.44	5.11
캐나다 GDP CAGR(% , 5개년)	3.06	2.06	2.69
한국 GDP 비중(% , 2017)	4.74	3.67	5.06
한국 GDP CAGR(% , 5개년)	8.91	3.29	2.63
캐나다 기업 수(개, 2016)	247,149	437,052	36,929
한국 기업 수(개, 2016)	138,319	102,713	180,295
캐나다 고용인원(명, 2017)	2,383,200	1,448,800	1,285,000
한국 고용인원(명, 2016)	1,612,816	996,596	1,552,822

자료원: Statistics Canada, 한국 통계청, 한국무역협회(KITA)

- 자동차 및 항공우주(운송기기), 식품가공, 생명과학, 기계·장비,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협력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12월 체결한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에너지, 생명과학 등에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캐나다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 간 기술협력 가동 예정
-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통신(ICT)을 포함한 전문기술,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진출 확대 가능
 -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교류, 해외취업·창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한-캐나다 협력 유망분야 도출결과(도표)]



(주) 조사 방법: 양국의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및 연평균성장률, 기업 수, 고용 수, 교역액 참고(2014~2017년 기준)

자료원: Statistics Canada, 한국 통계청

□ 항공우주산업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이며, 특히, 상용기 부문에서는 세계 3위 기록
 - 캐나다 전역에 약 700여 개의 제조 및 유지보수 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퀘벡과 온타리오 주가 전체 산업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
 - 주력 품목은 상용기 및 소형 항공기, 랜딩기어 시스템, 헬리콥터, 로봇 및 위성기술, 유지보수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등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C\$ 290억으로, 2012년 대비 약 31.8% 증가한 수준
 - 지난 5년간(2012~2017년) 전체 매출액 중 8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
 - 최근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 외에도 아시아와 중동 등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추세
 - 항공우주산업은 캐나다 산업 중 가장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산업으로, 연구개발에 연간 C\$ 180억(약 15조 3,154억 원) 투자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주요 통계 】

(단위: C\$ 억, 만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 출	220	251	277	298	280	290
수 출	176	203	225	238	244	N/A
투 자	N/A	17	18	N/A	N/A	18
고 용	8.5	8.7	9.0	8.9	8.7	8.6

자료원: 캐나다 항공우주산업협회(AIAC)

- 세계 상용기 수요는 2034년까지 약 US\$ 5조 5,700억(38,050대)으로 추산되는 등 성장이 예상되며, 캐나다 또한 향후 상용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과학 산업

- 캐나다 생명과학 산업은 Johnson & Johnson, Novartis, Apotex 등 세계적 제약회사들과 16개의 의과대학, 100개 이상의 임상병원, 연구소 간의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캐나다는 게놈, 프로테옴, 백신, 줄기세포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보유
- 2016년 캐나다 의약품 판매액은 C\$ 255억(약 21조 8,157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4.0% 증가

[캐나다 의약품 판매액 추이]

(단위: C\$ 십억)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허약품	12.9	13.4	13.8	15.1	15.5
비특허약품	8.9	8.7	9.2	9.4	10.0
총 계	21.8	22.1	23.0	24.5	25.5

자료원: Canada Patent Medicine Pricing Review Board(PMPRB)

- 정부의 연구비 지원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확대 추세
 - 캐나다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은 C\$ 9억 2,000만(약 7,864억 원)으로, 지역별로는 온타리오 주(49.1%), 퀘벡 주(32.4%)에 집중 분포됨
 - 대기업-중소기업 간 제휴, 벤처캐피털 투자 등이 늘어나는 추세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주행차

-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캐나다
 -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가 연구개발한 딥러닝 기술은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로 손꼽힘
 - 토론토와 워털루, 몬트리올, 밴쿠버, 에드먼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
 - * 딥러닝(Deep Learning):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분류하는데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
-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 중
 - 연방정부는 2017년 3월부터 인공지능 육성정책(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을 시행해 C\$ 1억 2,500만(약 1,067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
 - 토론토는 2017년 3월 벡터 인공지능 연구소(Vector Institute)를 개소해 연구개발 및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 또한 토론토, 몬트리올 등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투자 지원 확대
-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토론토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각각 2018년 4월, 8월에 개소해 향후 첨단 분야 공동연구, 기술협력 등이 고도화될 전망
-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 적극 추진
 - 온타리오 주는 2016년부터 10년간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워털루 대학교, 토론토 대학교 등 주요 대학교는 센서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차량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 중

-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 또한 확대되고 있음
 -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될 센서, 카메라, GPS 및 통신시스템 개발과 시범운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2018~2023년) C\$ 3억 8천만(약 3,245억 원) 재정 지원 예정
 - 공유차량 서비스기업인 우버는 향후 5년간(2018~2023년) C\$ 2억(약 1,730억 원)을 투자해 토론토 자율주행차 연구소(ATG, Advanced Technology Group)를 확대하겠다고 발표

※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타결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 부담 가중

- 캐나다는 9월 30일 기존의 NAFTA를 대체할 신탁정인 USMCA를 체결하는데 최종 합의, 11월 30일 정식 서명
- 역내부가가치 기준, 북미산 철강·알루미늄 구매요건, 노동부가가치 기준 등이 강화돼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
 - 3개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USMCA 잠정안은 국가별 對美 무역수출 쿼터를 260만대로 제한
 - 또한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기존의 62.5%에서 최소 75%로 상향조정
 - 자동차부품 중 40~45%는 시간당 임금이 US\$ 16 이상인 근로자가 생산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추가
 - 이외에도 USMCA는 승용차, 경량 및 중량 트럭 생산 시 역내산 철강·알루미늄(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요건 부가

라. 정책·규제

□ USMCA 출범으로 캐나다 산업계 변화 전망

-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낙농업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대신 미국이 폐지를 주장했던 제19조 분쟁해결절차·기구를 유지해 절충점을 찾고 재협상을 타결함
- 캐나다 낙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두 국가 간 견해차
 - 미국은 캐나다 유제품 공급관리시스템(Supply Management System)을 모두 철폐하고 완전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반면, 캐나다는 낙농업 시장의 약 3.5%를 개방하기로 결정
 - 또한, 캐나다가 2017년 3월부터 도입한 'National Ingredients Strategy' 육성정책*은 미국 측의 요구대로 폐지하기로 합의
 - *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낙농업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미국산 유제품 원료의 수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산 유제품 원료 가격을 인하하는 'National Ingredients Strategy' 육성정책을 시행함
- 제19장 분쟁해결절차 조항 존폐 여부에 대한 대립
 - 미국은 제19장 분쟁해결절차 조항이 미국의 자주권과 국내 사법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했음

- 캐나다는 동 조항을 개정하는 데는 찬성하나, 영구적인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은 결국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

* 제19장 분쟁해결절차 조항: 무역 분쟁 발생 시 회원국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

-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및 제조업계의 노동부가치기준 강화
 -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역내 부품조달 비율이 최종적으로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됨
 - 또한 2020년까지 제조 차량의 30%는 시간당 US\$ 16 이상의 근로자가 생산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했고,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 2023년에는 40~45%까지 올릴 예정
 -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 자동차·부품 기업들은 협력업체 수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철강(25%) 및 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협의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
- 신규조항(Article 32.10: 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의 추가
 - 신규조항에 따라 비시장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시 다른 회원국에게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협상 서명 30일 전에는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함
 - 다른 회원국은 양자 FTA를 반대할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USMCA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짐
 - 현지 전문가들은 신규조항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조치로 풀이하고 있음

□ 캐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발효(12.30)

-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은 2018년 3월 칠레에서 CPTPP를 체결
-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총 6개국의 비준으로 60일 이후인 12월 30일 발효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개요

-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GDP의 13.5%, 무역 총액의 15%를 차지하는 인구 약 5억명 규모의 메가 경제권
-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항에 빠졌으나, 미국 제외 11개국은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
- 2017년 11월 협정명을 기존 명칭에서 '포괄적·점진적(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을 덧붙여 CPTPP로 변경
- 2018년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최종 협상 완료,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서명 완료
- 또한 발효요건을 기존 TPP '회원국 GDP 85% 이상 비준'에서 '6개국 이상 비준 완료'로 변경해 완화함

□ 캐나다 수입 규제 및 시장 진출 진입장벽

○ 총 34개국, 31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발효 중(2018. 11. 23 기준)

국가명	품목수	규제형태	관련 제품
중국	24	반덤핑·상계	알루미늄사출, 탄소합금강관, 용접탄소강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동제관연결구류, 동관, 산업용 철 가공부품, 탄소강 파스너, 평판압연제품,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유정용 강관, 태양전지 및 모듈, 파일링 강관, 합성수지, 실리콘 강관, 실리콘 금속, 스테인리스 싱크대, 스틸 그레이팅, 강판, 열전기장치, 알루미늄제 건축구조물, 냉연강판, 서커 로드
한국	11	반덤핑	구조용 강관, 동제관연결구류, 용접탄소강관, 유입식 변압기, 동관, 후판(열연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산업용 철 가공부품, 탄소합금강관
		반덤핑·상계	냉연강판
대만	4	반덤핑	용접탄소강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탄소강 파스너, 유정용 강관
미국	4	반덤핑	정제당, 석고 보드, 동제관연결구류, 감자
브라질	4	반덤핑	동관, 평판압연제품, 후판
		반덤핑·상계	실리콘 금속
인도	4	반덤핑	유정용 강관
		상계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상계	용접탄소강관, 합성수지
터키	5	반덤핑	구조용 강관,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유정용 강관, 배관용 용접 탄소강 강관
		반덤핑·상계	밀 파스타
우크라이나	3	반덤핑	평판압연제품, 후판, 유정용 강관
일본	3	반덤핑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후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태국	3	반덤핑	유입식 변압기, 유정용 강관, 실리콘 금속
덴마크	2	반덤핑	정제당, 후판
베트남	4	반덤핑	유정용 강관, 배관용 용접 탄소강 강관
		반덤핑·상계	동제관연결구류, 냉연강판
스페인	2	반덤핑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산업용 철 가공부품
오만	2	반덤핑	용접탄소강관, 합성수지
인도네시아	2	반덤핑	유정용 강관, 후판
네덜란드	1	반덤핑	정제당
멕시코	1	반덤핑	동관
벨라루스	1	반덤핑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포르투갈	1	반덤핑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이탈리아	1	반덤핑	후판
불가리아	1	반덤핑	후판
체코	1	반덤핑	후판
루마니아	1	반덤핑	후판
EU	1	상계	정제당
그리스	1	반덤핑	동관
독일	1	반덤핑	정제당
영국	1	반덤핑	정제당
UAE	1	반덤핑	용접탄소강관
필리핀	2	반덤핑	유정용강관, 배관용 용접 탄소강 강관
파키스탄	2	반덤핑	합성수지, 배관용 용접 탄소강 강관
카자흐스탄	1	반덤핑·상계	실리콘 금속
라오스	1	반덤핑	실리콘 금속
말레이시아	1	반덤핑·상계	실리콘 금속
노르웨이	1	상계	실리콘 금속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2018. 11. 23 기준)

□ 의료기기 및 식품 산업 규제 변화로 인한 무역장벽 예상

- 2019년 1월 1일, 의료기기 품질평가제도 변경
 - 캐나다는 기존의 평가제도인 CMDCAS(Canadian Medical Device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를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로 전환
 - 2019년 이후 MDSAP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기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기존 CMDCAS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경우도 MDSAP를 의무 취득해야 함

☞ MDSAP란?

-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ions Forum)의 회원국 중 5개국(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이 참여하는 국가 간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인정 프로그램
- MDSAP 취득 시, 호주 식약처, 브라질 식약위생감시국, 캐나다 보건부, 미국 식품의약국, 일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5개국의 GMP 심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2019년 1월 15일,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 발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수·출입,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일부 식품에 대한 신규 규정 시행 예정
 - 주목적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14개의 식품 규정을 하나의 법령으로 간소화 하는 것
 - 캐나다 내 식품의 제조·수출입 업체들에 대해 CFIA 면허 취득, 식품안전성 평가, 위생관리 기록 및 유통경로 추적 등 실시로 규정 강화 전망

□ 캐나다 2018~2020년 이민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발표(2017.11.1)

- 2017년 11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3개년 계획 발표
 - 미국과 호주의 반이민정책과는 달리 캐나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예정

2. 시장 분석

- (미국)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으로 우리나라 2위 수출 대상국
 - 한국 주요 수출 품목 중 건설광산기계, 반도체, 석유제품 등은 미국 경기 성장과 공공인프라 부문 확대로 인해 수입수요 증가 예상
 - 반면, 자동차, 철강관 및 철강선 등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위기 요인 존재
- (캐나다) 미국과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 구축으로 북미 시장 거점 역할 가능
 - 밀레니얼 세대 증가로 새로운 소비트렌트 부상(옴니채널, 1코노미, 한류)
 - 철강 중심 반덤핑 관세 적용과 신규 수입규제 품목 조사 등 수출상황 악화



미 국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 대상국

- (경제규모) 2017년 기준, 미국의 경제규모는(경상 GDP 기준) 19.4조 달러로서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 (수입규모) 미국의 수입시장(상품기준) 규모는 2017년 기준 2조 3,608억 달러로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세계 수입시장 점유율 13.8%)
 - 한국의 對미 수출액은 2017년 기준 686억 달러로 중국(1,42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한국 전체 수출액 중 12.0%의 비중을 차지
- (구매력) 풍부한 소비인구와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매우 높은 시장
 - * 인구수(2017년 기준): 3억 2,570만 명
 - * 구매력(1인당 실질 GDP, 2017년 기준): 59,531 달러

□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 변화의 흐름을 좌우

- (R&D 투자) 미국의 전체 R&D 투자액은 연간 약 5천억 달러로 전 세계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며,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1,181억 달러(2019년 예산안 기준)

- (혁신기업) 미국의 우수한 첨단기업들이 연구개발 및 혁신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주도
 - Forbes社 발표 “2018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The 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중 52개 기업이 미국 기업

□ 비즈니스 친화적인 시장

- (제도적 환경) 불필요한 규제와 진입장벽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 개방 시장
 - 주요 기관 글로벌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에서 최상위권 랭크

[주요 기관별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평가 결과]

평가기관	미국
AT Kearney ¹⁾	1위
World Economic Forum ²⁾	2위
World Bank ³⁾	6위

주: 1) FDI Confidence Index, 2)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3) Ease of Doing Business

자료원: 각 기관별 최신 발표자료 종합

- 세계 각국의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여부가 글로벌 브랜드의 척도로 인정
- (인적자원) 전 세계에서 유입된 풍부한 우수한 인적자원은 미국 경쟁력의 원천임과 동시에 최대의 자산
 -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인재 유치
 - *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2018 세계대학랭킹 상위 100개 대학 중 미국 소재 대학은 33개
 - 시장 조사기관인 ‘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2018년 기준 시간당 \$72로 세계 5위

나. 교역 및 투자

□ 연도별 미국 수출입 동향

- 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는 약 US\$ 7,957억 규모의 적자 기록
 - 수출 및 수입은 전년(2016) 대비 각 6.6%(US\$ 952억), 7.1%(US\$ 1,544억) 증가
- 2018년 1~9월 기준 미국 무역수지는 약 US\$ 4,875억 규모의 적자 기록
 -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 9.1%(US\$ 1,037억), 9.4%(US\$ 1,622억) 증가

[연도별 수출, 수입 및 무역 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월~9월)
수출	1,621,874	1,503,328	1,451,024	1,546,273	1,242,245
수입	2,356,356	2,248,811	2,187,600	2,341,963	1,885,359
무역수지	-734,482	-745,483	-736,577	-795,690	-487,508

자료원: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2018년 1~9월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 수입시장의 약 47%를 차지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US\$ 백만,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월~9월)
중국	483,202	462,542	505,470	394,731
멕시코	296,433	293,924	314,267	257,859
캐나다	296,305	277,782	299,319	241,118
일본	131,445	132,030	136,481	104,817
독일	124,888	114,107	117,575	93,768
한국	71,775	69,895	71,444	54,232
영국	58,057	54,271	53,060	44,107
이탈리아	44,221	45,292	49,918	42,743
프랑스	47,809	46,718	48,899	41,004
아일랜드	39,351	45,527	48,797	40,278
총계	2,248,811.351	2,187,600	2,341,963	1,885,359

자료원: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對 미국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미국 외국인투자유치(FDI) 규모는 US\$ 2,772억으로 전년 대비 41.2% 감소
 - 한국(206.4%), 벨기에(77.9%), 일본(38.8%), 스페인(23.8%), 캐나다(7.2%)로 부터의 투자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독일(-20.3%), 영국(-23.7%), 프랑스(-26.1%) 등 유럽 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
 - * 주요국 투자 비중: 캐나다(25.9%), 일본(15.8%), 영국(15.8%), 스위스(7.6%), 프랑스(7.5%), 네덜란드(6.4%), 아일랜드(6.2%), 독일(4.3%), 한국(3.7%), 벨기에(2.2%), 스페인(1.5%)

[국가별 對 미국 투자액]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캐나다	14,933	23,479	58,887	67,053	71,904
2	일본	46,413	44,891	32,997	31,610	43,868
3	영국	32,023	-94,851	50,294	57,267	43,694
4	스위스	18,420	31,139	-5,732	56,155	21,082
5	프랑스	-7,021	10,197	33,472	28,104	20,757
6	네덜란드	4,606	29,685	33,318	47,186	17,770
7	아일랜드	9,554	7,114	14,892	36,695	17,269
8	독일	12,427	37,121	25,353	14,931	11,899
9	한국	6,601	9,024	1,302	3,392	10,392
10	벨기에	-8,589	11,410	-12,327	3,363	5,982
15	스페인	1,594	4,671	4,956	3,294	4,078
총계		201,393	201,733	467,625	471,792	277,258

주: 투자유입액(Financial Inflow Transactions) 기준

자료원: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산업별로는 도매업(378.0%), 소매업(37.5%), 부동산(10.2%) 순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금융/보험(-86.0%), 전문서비스(-84.9%), 제조업(-53.3%) 분야에서 약세
- 투자액 비중은 제조업(34.5%), 도매업(21.4%), 소매업(4.6%), 부동산(3.4%), 전문 서비스(2.5%) 순으로 높았음

[산업별 對 미국 투자액]

(단위: US\$ 백만)

산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85,619	162,123	230,981	204,441	95,575
- 식품	15,661	9,812	11,394	4,881	2,724
- 화학	61,712	80,370	169,378	122,566	41,258
- 금속	2,951	349	2,762	2,717	1,357
- 기계	286	4,726	9,279	1,853	6,324
- 컴퓨터/전자제품	-3,321	13,072	3,206	19,529	4,767
- 전기장비	6,062	2,769	2,782	4,895	4,792
- 수송장비	468	8,014	21,511	7,505	11,668
- 기타 제조업	1,800	43,010	10,669	40,494	22,684
도매업	26,400	30,533	28,084	12,384	59,196
소매업	3,051	15,061	2,474	9,353	12,861
정보	31,579	11,178	8,810	9,695	5,974
은행	5,298	410	-3,978	7,288	4,423
금융/보험(은행 제외)	11,966	2,282	39,296	34,772	4,869
부동산	943	11,741	8,424	8,503	9,368
전문 서비스	8,066	18,214	22,998	45,320	6,825
기타 산업	16,611	-71,814	99,538	107,353	47,100
총계	201,393	201,733	467,625	471,792	277,258

주: 투자유입액(Financial Inflow Transactions) 기준

자료원: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주요 경쟁국 대미 투자 진출 현황

- (중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에 따른 투자금 회수
 - 2017년 중국은 5억400만 달러(FDI 유입액 기준)의 대미 투자금을 회수했음
 - * 미-중 무역 불균형을 거론하며,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무역정책을 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기업과 인수합병을 통한 직접 투자를 이어나가며 투자를 늘려왔음
- (일본) 제2위의 대미 FDI 유입국
 - 2017년 일본의 대미 투자금액(FDI 유입액 기준)은 438억 6,800만 달러 달러로 전년대비 38.7% 증가
 - 미국에 유입된 해외 투자금액 중 일본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로 캐나다에 이어 2위 (2016년 9위) 대미 투자국으로 올라섬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로 미국 투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 것이 대미 투자 확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됨

[경쟁국의 對 미국 투자진출 동향]

(단위: 억 달러)

국가	2015	2016	2017
중국	51.27	254.45	-5.04
일본	329.97	316.10	438.68

자료원: 미국 상무부

다. 프로젝트

□ 공공 인프라 구축 수요의 증가

- 미국 대도시 공공 인프라는 노후하고, 현대화 작업이 시급한 상황임
 - 2025년까지 시설 낙후로 인한 경제손실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 미국 공공 인프라 시설은 전 분야 평균 D+등급으로 재건이 시급
 - 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을 위해 2024년까지 최소 3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 부족 상태에 봉착
-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임기 중 1조 달러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언
 - 투자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해외) 자본의 참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어 민·관 협력(PPP) 시장 확대 전망
 - * 하지만 Buy America 규정 강화로 해외기업의 PPP참여 장애 요인으로 작용 우려
 - 공공 인프라 투자에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지방정부가 전체 투자의 75%를 담당하고 있음

[미국 주요 지역별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

연번	지역	프로젝트	주요 내용
1	서부	LA 유니온 스테이션 재개발	LA 유니온 스테이션 지하철, 터미널, 버스노선 터미널 연결, 기존 트랙 확장 및 신규 트랙 추가 등
2		센트럴벨리-샌프란시스코 고속철 건설	샌프란시스코 세일즈 트렌짓 센터 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센트럴벨리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4단계 공사 추진 중
3	중부	시카고 트리뷴타워 리모델링 및 신축	시카고의 트리뷴타워 북동쪽에 약 433미터 높이의 현대식 초고층 빌딩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10억 달러 투입 예정이며, 2023년 완공 목표
4		미시간 도로 건설 및 현대화	미시간주에 위치한 주요 도로인 I-75, I-94, I-96, I-696 총 4개 고속도로 개선 사업 진행 중
5		달라스-휴스턴 고속철 건설	15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스와 휴스턴을 잇는 240마일 거리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
7	동부	뉴욕 전차충전소 건설	뉴욕주는 뉴욕 전력공사와 공동으로 4,000만 달러를 투입해 2019년 까지 뉴욕 주요 도로 및 공항에 전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 예정
8		메릴랜드 도로 건설 및 현대화	메릴랜드 주 고속도로 I-495/I-95, I-270 교통 지정체 개선 사업 시행

자료원: 각 지방정부 웹사이트

- (캘리포니아) ‘링크 US(Link US)’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
 -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근의 유니온 스테이션(Union Station)은 1939년 설립된 미 서부 최대 규모의 여객 터미널로 꼽힘
 - ‘링크 US’ 프로젝트는 링크 유니온 스테이션(Link Union Station)의 줄임말로 역사적 명소로도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임
 - 철도, 지하철, 버스노선 터미널 연결뿐 아니라 기존 트랙 확장 및 신규 트랙 추가, 여객 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이 포함되어 유니온 스테이션의 전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로 꼽힘
 - 약 17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예측되며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인 HDR, Inc.사가 프로젝트 발주처로 선정
 - 아직 준비 단계로 착공 일정 및 공사 관련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될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되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임

[재개발 되는 유니온 스테이션 및 조감도]



자료원: dezeen.com

○ (일리노이) 시카고 트리뷴타워 리모델링 및 신축 프로젝트

- 시카고의 대표적 건축물인 트리뷴타워 재건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됨. 트리뷴타워 북동쪽에 1,422 피트(약 433미터) 높이의 현대식 초고층 빌딩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며 2023년 완공 예정
- 완공 후에는 뉴욕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시카고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 125개의 콘도미니엄, 439개의 렌탈 아파트와 200개의 객실을 갖출 예정
- LA의 CIM 그룹과 시카고 소재 고럽앤코(Golub&Co)가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는 두바이의 대표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를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앤 고든 길(Adrian Smith and Gordon Gill)이 담당
- 1단계로 진행될 빌딩 확장공사에는 163 가구가 입주할 콘도미니엄과 상가 조성 등이 포함됐으며 2020년 초 입주가 목표. 신축 건물은 윌리스 타워와 이전 존헨콕센터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스카이라인의 중심점이 될 것

[신축 트리뷴 타워 조감도]



자료원: chicago tribune

○ (디트로이트) 미시간 주 도로 개선 및 건설 프로젝트

- 미시간 주에 위치한 I-75, I-94, I-96, I-696 총 4개 고속도로 개선 사업이 진행 중
- (I- 75 고속도로) 2020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N. 13 마일과 N. 쿨리지 구간 도로 현대화 추진 중. 이 외, N. 13 마일과 N. 8 마일에 위치한 매디슨 하이츠, 로얄 오크, 헤이즐 파크, 오클랜드 카운티를 연결하는 총 5.5 마일 구간 도로 개선 사업이 2019년 봄을 시작으로 2023년 가을 완료 될 예정
- (I-94 고속도로) I-94에 위치한 첸 스트리트와 코너 스트리트의 도로 개선 사업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 또한, E. 그랜드 블러바드, 번스 스트리트, 콘레일 레일로드 구간에 위치한 교량 공사가 2020년 시작될 전망

- (라파엣 도개교(Lafayette Bascule Bridge)) 미시간 베이 시티에 위치한 새지나우 강 교량공사 진행 중. 총 4,900백 만 달러 규모의 공사로 도개교 건설에 경험이 있는 시공 업체를 모집 중에 있음
- (골디 호위 국제 다리(Gordie Howe International Bridge)) 미시간교통국 주관 아래, 미시간 디트로이트 시와 캐나다 윈저 시를 연결하는 골디 호위 교량 건설 사업 진행 중

[I-75 도로 위치 및 I-94 교량 조감도]



자료원: MDOT

- (메릴랜드) 메릴랜드 주 고속도로 I-495/I-95, I-270 교통 지정체 개선 사업
 - 메릴랜드의 약 100Km 구간에 걸쳐 교통 지정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I-270의 경우 약 16.7억 달러, I-495/I-95 경우 약 59.1억 달러 규모
 - 동 P3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I-495 및 I-270에 대한 개선을 설계, 구축, 재정,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I-495, I-270 고속도로 개선사업 진행 구간]



자료원: 495-270-p3.com

- (텍사스) 텍사스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The Texas Bullet Train)
 - 텍사스 센트럴은 달라스와 휴스턴을 잇는 240마일 거리의 고속철도 건설 추진 중으로 최종 환경허가 및 적용 규칙을 준비하고 있음
 - 투자규모는 약 150억 달러이며, 홋카이도 신칸센 시스템의 국제 버전인 N700-I 불렛 토탈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
 -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사항으로는 2013년 연방 안전규제 당국의 승인 획득, 2014년 이후 연방 환경영향 조사 중, 2015년 첫 투자금 모금, 2016년 이후 FRA에서 시스템 안전 규칙 검토 중으로 이르면 2019년 착공 가능

[달라스-휴스턴 고속철 건설 계획 노선]



자료원: Texas Tribune

-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트랜짓 센터(Salesforce Transit Center) 건설
 - 미래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고속철도 종착역이자 베이(Bay) 지역 통근열차인 칼트레인(Caltrain)의 연결점 역할을 맡을 세일즈포스 트랜짓 센터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2018년 8월 12일 개장함
 - 현재 이곳에서 SF 뮤니(Muni)버스와 이스트베이에서 베이브리지를 건너오는 버스, 그레이하운드 등 고속버스의 환승이 가능한 상황
 - 이와 더불어 센트럴벨리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고속철도 4단계 건설을 추진 중으로, 애너하임에서 샌프란시스코 전 구간에 대한 건설은 2029년에 완료할 계획임
 - 철도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단계별로 여러 하청 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
 - * 1단계: 2013년 T2P사가 32마일 구간 공사, 2~3단계: 2015년 드라가도스/플랫아이언(Dragados/Flatiron)사가 60마일 구간 공사, 4단계: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 레일 빌더(California Rail Builder)가 22마일 구간 공사

- 사우스베이에서 샌프란시스코 사이의 통근을 담당하는 칼트레인의 환승을 위해 트랜짓 센터에 이미 승강장을 마련해놓은 상태
- 그러나, 현재 칼트레인의 종착역과 트랜짓 센터의 1.5 마일 사이에는 복잡한 도로들과 280번 고속도로의 램프들의 존재로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 향후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더불어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통 당국 및 칼트레인 이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공청회 등 행정적 절차와 연방 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승인에 따라 단계별 완공 시점의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

【캘리포니아주 고속철 건설 구간, 세일즈포스 트랜짓센터 모습】



자료원: MDOT

○ (뉴욕)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로젝트(Evolve)

- 뉴욕주는 뉴욕 전력공사(New York Power Authority)와 공동으로 4,000만 달러를 투입해 2019년 까지 뉴욕 주요 도로 및 공항에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설치기로 함
- 뉴욕주 도심 지역과 주요 고속도로 30마일 구간 단위로 최대 200개의 전기차 직류 급속 충전소 설치할 예정
- 뉴욕 내 주요 공항인 JFK 국제공항과 라파디아 공항 부근에 전기차 직류 급속 충전소를 마련해 뉴욕시 운전자와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차량 공유회사, 렌터카 업체, 공항 및 상업용 차량이 충전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계획
- 커뮤니티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신뢰성, 전력망 효율성이 있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갖춘 지역을 지원할 계획
- 전기차 모델 커뮤니티로 선정된 곳은 더 많은 주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주민 교육을 실시할 예정

[뉴욕시 롱아일랜드시티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자료원: 뉴욕주지사실

라. 스타트업

□ 미국 스타트업의 요람

- 미국 스타트업은 동부 지역에 뉴욕과 서부 지역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을 둘러싼 샌프란시스코반도 초입에 위치한 첨단 기술 연구 단지로, 미 스타트업의 성지로 잘 알려짐
 - 실리콘밸리 내 존재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1만 2,700여개이며, 매년 GDP 4.7~6.6%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간편한 법인 설립 절차 및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개방적인 태도의 초기 수용자가 많아 다양한 아이디어의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 스탠포드,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주 10개의 UC 캠퍼스가 있어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및 연구용이
 - 2018년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인 창업 스타트업은 약 45개
- (실리콘앨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뉴욕시와 뉴욕주의 지원 하에 르네상스 시대를 맞음
 - 1990년 맨해튼 23가 플랫아이언 지역에서 시작됐던 것이 현재는 뉴욕시 전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됨
 -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광고, 미디어를 비롯하여, 핀테크, 푸드테크, 부동산테크 등으로 산업 영역을 넓혀감
 - * 대표적인 기업으로 엣지(Etsy), 텀블러(Tumblr), 셔터스톡(Shutterstock) 등이 있음
 - 컬럼비아, 뉴욕대, 프린스턴, 코넬 등 유명 대학들이 실리콘밸리에 다재다능한 차세대 인재를 보급

- 뉴욕시와 뉴욕주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리소스 및 세제혜택 제공
 - * 뉴욕시는 2000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임기 때부터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메이드인 NY' 캠페인을 전개하고, 맨해튼 루즈벨트 섬에 12에이커(약 48,562평방미터) 규모의 응용과학 부문 기술 단지 추진
 - * 뉴욕주는 '스타트업 NY' 진흥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게 주 세금과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대학과의 산학연계 기회 제공

□ 비자 발급 관련

- 창업 준비 과정에서 스타트업 단계별로 필요한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등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창업 기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는 무비자/B1·B2 상용/관광비자(창업 준비과정)와 L-1 주재원 비자, E-1 무역비자, E-2 투자비자, EB-2 비자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National Interest Waiver) 카테고리, O-1 특기자비자 등이 있음
-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좌초
 - 2017년 1월 17일 미 국토안보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은 7월 17일 시행될 것으로 예측됐음
 - * 동 법안은 일명 스타트업 비자로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 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 이상 투자 받은 외국인에게 비자 및 영주권 발급
 - 하지만 반 이민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창업가 규정은 고지 시행 5개월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음



캐나다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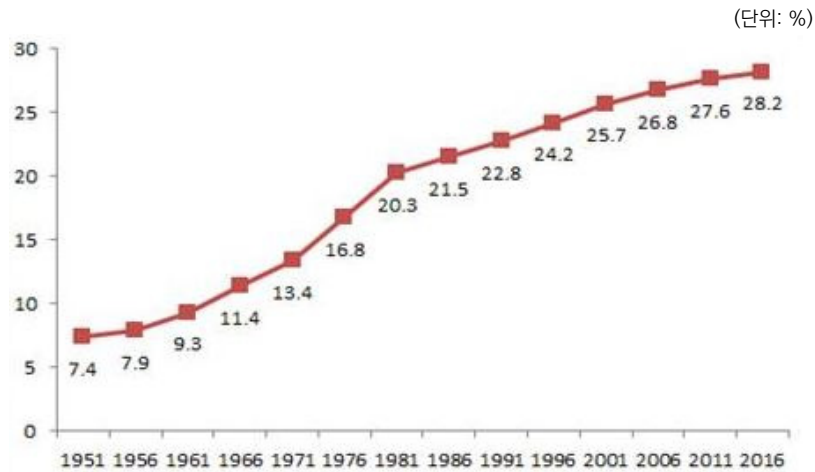
□ 캐나다는 미국과 통합된 시장으로 북미 수출 교두보

- 캐나다는 지리적·경제적 특성상 미국과의 공급망(Supply chain)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한 편
 -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를 비롯한 16개의 캐나다 대도시들은 2시간 내로 미국 국경에 이를 수 있는 곳에 위치
 - 캐나다는 소비재부터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고도로 통합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갖추고 있어 북미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적합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특징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코노미’ 겨냥 제품 인기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처음으로 캐나다의 1인 가구가 각종 가족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 기록
 - 현재 캐나다 전체 가구(1,407만 가구) 중 28.2%(397만 가구)가 1인가구이며, 이는 계속 증가해 2036년도에는 약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간편 식품, RTD(Ready-To-Drink) 커피·음료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 1코노미(일코노미): ‘1인 가구’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뜻하는 경제 신조어. 싱글 이코노미라고도 함

[캐나다 1인 가구 추이]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1코노미와 함께 부상하는 주요 소비 특징으로는 4S가 있음

[1코노미 관련 4S 소비 패턴]

구분	특징
Small(소형화)	• 좁은 주택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니맥스(Mini-Max)트렌드 부상 •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미니멀리즘 선호
Selfish(개인화)	• 소비중심이 가족에서 '자기만족'을 위한 가치소비로 변화 •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방식을 위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강함 • 싱글슈머(Singlesumer), 포미(For Me)족, 혼밥족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주체로 자리매김
Smart(스마트화)	• 실용성, 가성비가 높은 스마트한 제품에 대한 인기도 상승 • ICT 기술이 접목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체 종합

□ 아시아계 이민자 수 증가로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

- 현재의 신규 이민인구 유입 추세가 지속 될 경우 오는 2036년 인구의 약 45%가 이민 1·2세대 일 것으로 전망
 - 캐나다 통계청은, 이민자들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
- 한류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최근 중국, 필리핀, 인도 등의 인구 유입 증가는 K-Beauty를 포함한 한류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통계청은 2036년에는 캐나다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일 것으로 분석

□ 온·오프라인 매장의 경계를 허문 ‘옴니채널(Omni-channel)’ 마케팅 확대

- 캐나다 내 글로벌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확대를 위한 옴니채널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
 - 산업·품목별로는 백화점, 물류, 미용 제품, 운동 기구를 중심으로 옴니채널 도입 활성화
 - * 옴니채널은 각 유통채널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객 서비스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매장, 모바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함
- 대표적인 옴니채널 기업으로는 캐나다의 Lululemon가 있음
 - 캐나다 요가복 기업 Lululemon은 전문 요가 강사, 요가업계 전문가를 매장 직원으로 채용
 - 이를 통해 요가 수업을 운영하거나 매장에서 바로 강습을 받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고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 중임
 - 이와 동시에 모든 수업을 온라인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무료 온라인 요가 수업도 진행하는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 융합에 매우 적극적임
- 아마존(Amazon)의 홀푸드(Whole Foods Market Inc.) 인수 발표(2017.6) 이후 캐나다 식품업계 옴니채널 도입 적극 추진
 -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체인인 홀푸드의 통합이 캐나다 식품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증폭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로블로(Loblaw)는 2017년 12월부터 구매제품을 1시간 이내에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 개시
 - 대형 식품 유통기업 소비스(Sobey's)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나. 교역 및 투자진출

□ 연도별 캐나다 수출입 동향

- 2017년 캐나다 무역수지는 약 US\$ 114억 규모의 적자 기록
 - 수출 및 수입은 전년(2016) 대비 각 7.8%(US\$ 4,209억), 7.4%(US\$ 4,323억) 감소
- 2018년 1~7월 기준 캐나다 무역수지는 약 US\$ 73억 규모의 적자 기록
 -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 8.2%(US\$ 2,623억), 9.3%(US\$ 2,696억) 증가
 -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연도별 수출, 수입 및 무역 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월~7월)
수출	476,940	409,820	390,319	420,931	262,310
수입	463,746	419,271	402,455	432,371	269,625
무역수지	13,194	-9,451	-12,136	-11,440	-7,315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2018년 1~7월 캐나다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 미국과 중국이 캐나다 수입시장의 약 63.4%를 차지

[캐나다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US\$ 백만,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월~7월)
미국	223,140	209,994	222,019	139,010
중국	51,351	48,597	54,621	32,043
멕시코	24,398	25,046	27,343	16,654
독일	13,573	12,999	13,812	8,735
일본	11,555	11,924	13,493	8,193
한국	6,445	8,002	6,706	4,294
영국	7,193	6,233	6,852	4,139
이탈리아	5,759	5,691	6,278	4,054
프랑스	5,296	4,478	4,762	3,300
대만	4,267	3,833	4,191	2,661
총계	419,271	402,455	432,371	269,625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캐나다 투자진출

- 2017년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유치(FDI) 규모는 잔고(Stocks) 기준 C\$ 8,240억으로 전년('16) 대비 0.2% 소폭 감소
 - 북미(4.6%), 아시아/오세아니아(6.5%)로 부터의 투자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럽(-2.6%) 특히, 네덜란드(-5.4%)와 스위스(-8.8%)의 투자가 감소
 - * 주요국 투자 비중: 미국(49%), 네덜란드(11%), 룩셈부르크(6%), 영국(5.8%), 스위스(4.9%), 일본(3.6%), 브라질(2.2%), 독일(2.1%), 중국(2%), 한국(0.3%)

[국가별 對 캐나다 투자액(잔고 기준)]

(단위: C\$ 백만)

순위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미국	334,847	351,788	369,482	388,336	404,473
2	네덜란드	68,523	77,173	92,513	97,140	91,883
3	룩셈부르크	60,808	61,185	51,486	50,954	49,904
4	영국	24,216	39,186	46,781	44,211	47,431
5	스위스	25,041	42,937	32,328	44,113	40,213
6	일본	19,519	22,184	26,452	29,759	29,632
7	브라질	18,870	19,776	19,155	18,859	18,174
8	독일	12,831	12,197	15,005	16,421	17,063
9	중국	13,742	15,617	13,763	15,279	16,432
10	홍콩	13,966	14,654	11,208	12,315	14,431
22	한국	4,127	3,522	1,413	2,515	2,660
총계		688,873	744,671	789,012	825,704	824,035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산업별로는 도매(8.6%), 금융·보험(8.0%) 순으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오일·가스(-7.4%), 제조(-0.3%) 분야에서 약세
 - 제조업 비중의 감소(2008년 32.7% → 2017년 21.4%)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산업 내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12년 이후 미국, 일본 자동차 기업의 설비 투자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시설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석유·석탄 제품 제조업 투자 감소로 총 투자 감소세

[산업별 對 캐나다 투자액(잔고 기준)]

(단위: C\$ 백만)

산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조업	198,820	198,325	179,495	188,483	176,200
경영·관리	113,007	123,467	146,835	150,377	170,885
광산업	147,487	174,412	181,436	187,263	162,230
금융·보험	91,563	99,259	116,974	121,464	136,974
도매업	58,880	54,990	63,140	68,914	74,670
소매업	35,164	38,536	31,567	35,355	35,790
그 외	43,952	55,682	69,565	73,848	67,286
총계	688,873	744,671	789,012	825,704	824,035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미국: 캐나다 제1의 투자국으로 자동차, 부동산, 유통, 요식업, 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투자
 - 자율주행차 개발 연구센터 확대(Uber, U\$ 1.5억), 인공지능 연구소(Google, U\$ 5천만), 자동차 R&D 센터(Ford, U\$ 12억), 숙박공유 시스템(Airbnb, U\$ 3억), 전자결제 시스템(Paypal, U\$ 3억) 등
- 유럽: 제약, 발전, 생명과학, 디지털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 중심 진출
 - 첨단 백신공장(사노피, U\$ 4.3억),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ABB, U\$ 9천만), AI 연구센터(Thales, U\$ 2천만), 가격 전략 컨설팅(Iris, 50% 지분 인수) 등
- 중국: 석유, 가스, 리튬 등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됐던 투자가, 정보통신, 부동산,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 추세
 - 리튬 개발(Tibet Summit Resources, U\$ 2억), 자원 개발(Zijin Mining Group, U\$ 14억), 금 광 개발(Shandong Gold, US\$ 4억 8천만), 제트 여객기 개발(COMAC) 등
- 일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자원, 제약, 정보통신 분야 진출 강화
 - SUV 생산 신규 투자(토요타, U\$ 10억), 자동차 부품 공장 증설(혼다, U\$ 5억), 리튬 광산 개발(Hanwa, U\$ 1,300만), 구리·몰리브덴 광산 개발(JOGMEC) 등

□ 캐나다 투자진출 진입장벽

- 캐나다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 추진
- 2015년 개정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는 완화되었으나, 자국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야는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

* 사례: 2018.5.23,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가 C\$ 2억에 캐나다 대형 건설기업인 Aecon社를 매입하는 것을 미승인

-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별도로 시행하며 검토기간이 최대 200일에 달해 규제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다. 프로젝트

□ 연방정부, 2019년 스마트시티 사업자 선별 및 착공 예정

- 캐나다 연방정부는 4차 산업혁명 조기 실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및 지원을 확대
 - 2017/2018 예산안의 일부로 스마트시티 계획안(Smart Cities Challenge Initiative)을 본격적으로 추진
 - 동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간 교통정보 체계 구축,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등에 C\$ 3억(약 2,626억 원) 투자 예정
 - * 각 프로젝트별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019년 1분기까지 사업 도시를 선정할 계획

☞ 캐나다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추진방향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교통, 전력 등 공공행정 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도시 거주자에 편의성 제공
-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별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정책 집중

[캐나다 스마트시티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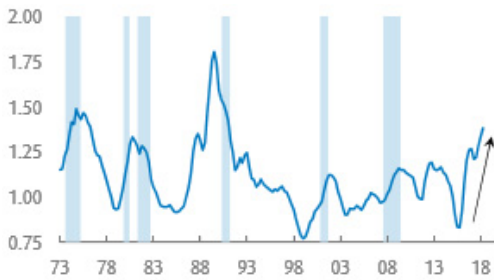


자료원: 캐나다 국토부(Infrastructure Canada)

□ (서부 대중교통 인프라 고도화) 도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 부족문제 증가

- 캐나다 인구, 2018년 2/4분기 3,700만 명 돌파로 전년대비 506,000명 증가
 -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로,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 중
 - 특히 서부 주요 거점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와 앨버타 주는 2017년 인구성장률이 캐나다 평균치를 상회하며 도시 과밀화 현상 가속
 - 해외 이민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2017년 이민자 수는 38만 명
 - *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2016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연 30만 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34만 명으로 늘릴 예정
 -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난 등 각종 도시문제 대두

[캐나다 인구증가율 변화추이]



[캐나다 지역별 인구증가율]

	해외유입 (이민)	국내유입	출생률-사망률	증인구 (천만대비 변화율)
브리티시콜롬비아주	1.1	0.2	0.1	1.4
알버타주	0.8	0	0.7	1.4
사스카툰주	1.3	-0.8	0.5	1
마니토바주	1.4	-0.7	0.5	1.3
온타리오주	1.3	0.2	0.3	1.8
퀘벡주	1	-0.1	0.2	1.1
뉴브런즈윅주	0.5	0	-0.1	0.4
노바스코샤주	0.6	0.2	-0.1	0.7
프린스앨버트주	2	-0.5	0.1	1.6
뉴펀슬랜드주	0.2	-0.6	-0.2	-0.6
캐나다 전체	1	0	0.3	1.3

주: 2017년 기준

□ 문제 해결을 위한 서부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 본격 착수

- 광역 밴쿠버, '교통인프라 10개년 발전계획' 사업 착수
 - 지난 6월 말, 광역 밴쿠버 시의회와 지역교통당국(Translink) 이사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광역 밴쿠버 교통인프라 투자계획 승인
 - 총 C\$ 73억 규모의 사업으로 연방정부(C\$20억 1,000만), 주정부(C\$ 22억 5,000만), 시정부(C\$ 31억)에서 투자할 계획
 -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선 확장 및 10.5km 구간의 경전철(Surrey-Newton-Guildford Line) 건설 예정
- * 향후 추진일정: 2019년 사업자 선정 → 2020년 착공 → 2024년 경전철 운행개시

[광역밴쿠버 교통인프라 10개년 발전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버스	B라인 5개 노선	B라인 2개 노선	B라인 5개 노선
Sky Train	경전철 56량	경전철 108량	고도화 작업
주요 프로젝트	사전작업	Broadway 경전철 건설, Surrey 경전철 건설	Surrey-Langley 경전철 건설

자료원: 광역밴쿠버 시의회

상세 사업내용

- Surrey-Newton-Guildford Line: 써리 타운센터(Surrey towncentre) 세 곳을 잇는 10.5km 경전철 건설
- 경전철 밀레니엄 라인 Broadway까지 5.7km 구간 확장
- 경전철 밀레니엄 라인, 엑스포 라인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
- 도로, 버스 및 지역 교통망 업그레이드

[Surrey 경전철 중기개발 계획(1단계~2단계)]



자료원: 광역밴쿠버 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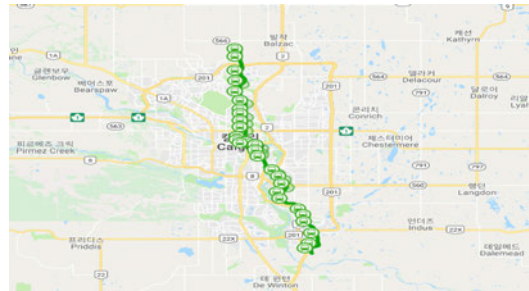
○ 캘거리 그린라인(Green Line)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시 북부-다운타운-남동부를 잇는 총 46km의 경전철망 건설 사업으로 28개의 전철역 단계별 건설 추진
- C\$ 46억 5,000만 규모의 사업으로 이 중 연방정부가 C\$ 15억 3,000만 지원
- 1단계 건설구간: 20km(16 Avenue N~126 Avenue SE 구간)
- * 향후 추진일정: 2020년 봄 1단계 공사착수 → 2026년 완공 및 서비스개시

상세 사업내용

- 20km구간, 14개의 전철역의 경전철 트랙 건설
- 8개의 교량(Elbow River, Blackfoot Trail, Highfield Blvd, 46 Avenue SE, Deerfoot Trail, Bow River, 78 Avenue SE, 90 Avenue SE)
- 3개 역의 차량 주차시설(Lynnwood/Millican, Douglas Glen, Shepard)
- 3개 터널(CN/Highfield, Ogden Road SE, Barlow Trail/114 Avenue SE)
- 4km Centre City 터널(20 Avenue~Macleod Trail 구간)
- 경전철 유지보수 및 격납시설(shepard 역) 건설

[캘거리 그린라인 경전철 프로젝트 조감도 및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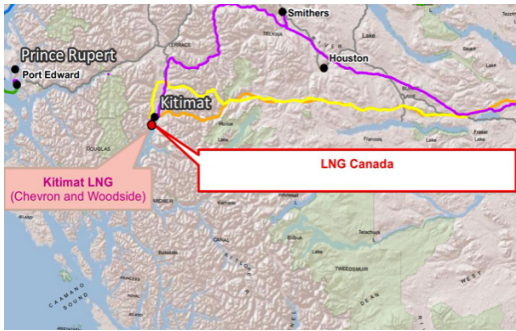


자료원: 캘거리시 '그린라인 경전철 프로젝트'

□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 캐나다 서부, 아시아 시장 진출 거점 발판 마련을 위한 LNG 캐나다 프로젝트(LNG Canada Project) 시행
- Shell Canada(40%), Petronas(25%), PetroChina(15%), Mitsubishi(15%), KOGAS(5%) 등 총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BC)의 북동부 키티마트항(Port of Kitimat, BC로부터 1,400km 거리) 개발
- 단일 사업으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역대 최대 규모인 C\$ 400억 투자
-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세제 감면 등 전폭적인 사업지원을 공약한 만큼 프로젝트 연내 추진전망 낙관
- * 향후 추진일정: 프로젝트 이사회 승인 및 사업투자여부 결정(2018년 말), 연내 착공 → 2024년 완공(목표)

[LNG 캐나다 프로젝트 위치 및 조감도]



자료원: LNG 캐나다 프로젝트

- 캐나다 동부, 유럽시장 수출 전초기지 마련을 위한 Goldboro LNG 프로젝트 진행
 - 주사업자는 Pieridae Energy사로 노바스코샤 주의 헬리팩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km 거리의 지역 개발
 - 일일 최대 8억 입방피트 생산규모의 터미널로 총 투자규모는 US\$ 70억~100억 예상
 - 파이프라인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LNG 선박, 저장탱크, 도로, 접안설비 등 신규건설
 - 현재 독일 에너지기업인 Uniper SE사와 생산량 50%에 대한 20년 장기구매계약 체결을 완료 하였으며, 이탈리아 등 유럽 에너지기업과 추가 장기공급계약을 논의 중으로 사업추진 전망 긍정적
- * 향후 추진일정: 2018년 말 건설 착수 → 2023년 운영 시작

[Goldboro LNG 프로젝트 사업내용]

구성	세부사항
LNG 선박	140,000 - 250,000 m ³
스토리지 탱크	3 x 230,000 m ³
기타 시설	도로, 정박시설, 공사부두
파이프라인	기존 Maritimes & Northeast Pipeline 등 활용

자료원: Goldboro LNG 프로젝트 사이트

[Goldboro LNG 프로젝트 위치 및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원: Goldboro LNG 프로젝트

라. 스타트업

□ 캐나다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캐나다 경제의 핵심도시인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토론토와 워털루 지역에는 15,000여개의 IT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5,2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상생 중
 - 또한, 스타트업 조사기관 Start-up Genome은 토론토, 밴쿠버, 오타와, 퀘벡시티, 에드먼턴 등을 2018년 스타트업 유망도시로 선정
-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캐나다의 노력
 - 2013년부터 연방정부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외 창업자의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 하는 등 해외 스타트업 적극 유치 중
 -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인된 스타트업 68개사 중 인도, 중국, 영국, 이란, 러시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아직까지 스타트업 비자를 취득한 한국 기업은 부재함

□ 유망산업에 대한 창업과 투자 확산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민간기업의 지원
 - 공공기관, 대학교, 민간 투자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중 일부는 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의 직·간접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는 주로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스타트업 기업들은 주로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 관련 제품·기술을 개발
 - 제조업, IT, 금융 등이 활성화된 토론토와 워털루의 경우 인공지능, 첨단제조업, 핀테크 등에 집중
 - 밴쿠버는 청정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몬트리올은 가상현실 및 게임, 오타와는 정보보안, 에드먼턴은 첨단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성행 중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업체



미 국

가. 교역

□ 교역동향

-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과의 교역액은 2017년 이후 성장세
 -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2015-2016년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2017~2018년 대미 수입액이 큰 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44억 달러, 수입은 11.2% 증가한 26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약 80억 달러 흑자
 - 자동차, 자동차부품, 고무제품, 철강관 및 철강선 등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액이 감소함
 - 반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원동기 및 펌프, 건설광산기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함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

[2016~2018(상반기) 대미 무역 실적]

(단위: USD백만)

구분	2016	2017	2018(상반기)
수출	66,462 (-4.8%)	68,610 (3.2%)	34,446 (1.3%)
수입	43,216 (-1.8%)	50,749 (17.4%)	38,696 (11.2%)
무역수지	23,246 (-9.9%)	17,860 (-23.2%)	5,486 (-31.1%)
총 교역액	109,678 (-3.7%)	119,359 (8.8%)	73,142 (21.8%)

주: 괄호 안은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 주요 수출품목 동향 및 전망

- 한국 10대 수출품목(2018년 상반기 기준)

순위	MTI	품목명	수출금액(천달러)	점유율(%)	수출증감률(%)
-	-	전체	34,446,252	100.0	1.3
1	741	자동차	6,313,623	18.3	-19.2
2	812	무선통신기기	2,965,161	8.6	6.9
3	742	자동차부품	2,917,164	8.5	-4.9
4	831	반도체	2,196,784	6.4	45.6
5	133	석유제품	1,638,541	4.8	6.1
6	813	컴퓨터	1,423,250	4.1	42.7
7	711	원동기 및 펌프	812,437	2.4	21.1
8	320	고무제품	751,389	2.2	-6.6
9	725	건설광산기계	706,325	2.1	34.2
10	614	철강관 및 철강선	702,857	2.0	-24.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완성차)

- 대미 수출 규모 1위 품목인 자동차의 2018년 상반기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 국내 완성차 브랜드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미국 소비자의 소형 SUV (CUV)와 픽업트럭 선호 기조 유지로 세단 위주의 국산차 수출 정체

○ 무선통신기기

- 단가가 높게 형성된 갤럭시 S9, G7 ThinQ 등 전략폰 출시 본격화
- 새롭게 대두된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 문제는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 갤럭시노트9, V40 등 전략폰 출시 및 부품 공급 등으로 단가상승과 물량확대가 전망되나 경쟁력화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2018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6.2% 감소 예상됨
- 스마트폰 부품시장 바이어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 소재하던 스마트폰 수리 업체들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이전하여 부품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밝힘

○ 자동차부품

- 대미 수출규모 3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2018년 상반기 수출은 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
- 대중 수입 품목 관세부과(통상법 301조), 미-멕시코 NAFTA 재협상(USMCA) 등 자동차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 현안으로 인해 수출 기회 및 위험요인 혼재, 대응책 마련 필요

- 기회요인: 현지 주요 자동차기업(Tier 1, OEM) 인터뷰에 따르면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산 자동차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신규 차량 프로그램에서 소싱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 위험요인: 18년 8월 미국-멕시코 NAFTA 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역내(미국-멕시코) 생산 비중이 75%(기존 62%에서 13% 증가) 이상 되는 완성차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역내 생산 부품 도입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반도체

-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으므로 국내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수익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관계자)
- 삼성전자는 14.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여 13.8%를 차지한 인텔을 넘어섬(Statista)
-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DRAM 부문은 스마트폰과 시스템 운영용 서버 수요에 의해 당분간은 상승된 가격이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외 주문형 반도체, 비광학 센서,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부문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DRAM Exchange)

○ 석유제품

- 2018년 석유제품의 수출액 증가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의 상승 및 미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
 - * 수출단가 추이: (2017년 상반기) 62.0 달러/b ⇒ (2018년 상반기) 79.2 달러/b, 27.9% 상승
- 미국의 석유제품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 러시아, 인도, 한국, 영국의 순으로 2018년 상반기 기준 점유율 각각 27.4%, 14.1%, 4.0%, 4.0%, 3.6%임
- 석유제품 유통업체 바이어는 미국 정유업체들은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기록적인 물량의 석유 제품을 생산 중이며 2019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힘
- 국제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제품 수출단가 또한 상승할 전망

○ 컴퓨터

- AI, VR/AR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하이엔드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센터 증가로 SSD 수요가 안정적(Western Digital 관계자)
- 미국 경기 호조로 인한 가처분 소득 상승 및 최저 실업률 등 고용시장 회복은 PC 및 컴퓨터 주변기기, 비즈니스 컴퓨터의 대량 판매로 나타남
- 2018년 미국 노트북 소매 판매량은 약 2,250만 대 수준을 보이고 있고(Euromonitor), 이동성에 중점을 둔 경향은 노트북의 판매 증가로 나타남
- 슬림형 노트북 및 스마트폰의 기능 향상으로 태블릿 및 데스크톱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HP 관계자)

○ 원동기 및 펌프

- 2017년 13억 4,320만 달러를 수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2018년 7월 현재 7억 3,58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 2016년 기준 미국 내 엔진, 터빈, 발전기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이 중 10%가 중국산 제품임
- 미-중 상호 관세 부과는 원동기가 포함되는 에너지산업, 자동차, 선박, 항공, 건설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민간 소유 주택 발급된 건설 허가 건수 증가로 2016-2021년에는 펌프, 압축기, 탭 및 밸브 수요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고무제품

- 고무제품에 대한 수요는 주요 시장(예: 자동차 부품) 수요의 약화 및 천연, 합성 고무 투입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산업 성장이 약화됨
- IBIS WORLD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고무 가격의 강세와 다운스트림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2018년 대비 2.9%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나,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대체 제품과의 경쟁, 수입 증가 및 제한된 수요로 인해 향후 2022년까지는 산업 성장의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건설광산기계

- 미국의 건설, 설비 투자에 대한 수요 지속 및 투자 확대는 건설 기계분야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 의한 인프라 투자 활발, 공작 기계 및 건설 광산 기계 금형 등의 수입 수요도 증가
-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 시장 호조로 인한 건설기계 수요 증가
-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 제품 수출의 기회
 - * 미국 주재기업 K사 인터뷰: 중국의 관세 상승으로 인해 대안을 찾고 있음. 시카고 GP 2018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를 희망함

○ 철강관 및 철강선

-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은 철강시장에서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수입산 철강 제품들이 반덤핑 제재를 받고 있음
- 2018년 3월부터 발효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한국산 철강 제품은 한미 FTA 재협상 타결로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 받았으나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어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제한되고 있음
- 2018년 8월 29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브라질산 철강 제품과 아르헨티나 산 알루미늄에 대한 선별적인 쿼터 완화를 허용하는 'Targeted Relief'에 서명
-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량과 제품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쿼터 및 관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쿼터 부과 결정 이전에 건설 공사용 철강 제품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쿼터제로 인해 해당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경우 쿼터 면제가 가능하나 추가 25% 관세가 부과됨
- 2018년 9월 10일,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 개발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동 수정안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의 원유 및 가스 생산업에 의한 메탄가스 배출은 기존 수치에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환경 규제 완화로 미국에는 에너지 개발 붐이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에너지 개발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 등, 철강관 제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미 에너지 정보국인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미국의 원유 생산은 2017년 기준, 약 34억 1,337만 배럴(barrel)이 생산되었으며 2016년 대비 5.6% 증가
 - * 미국의 2018년 6월 원유 생산량은 3억 2,000 배럴에 달함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 완화로 유정용 강관 등 관련 제품의 수요증가가 예측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쿼터제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함

□ 수입규제제도 및 비관세장벽

- (수입 규제) 2018년 10월말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총 26건이며, 반덤핑관세만 부과되고 있는 규제가 17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규제는 7건, 세이프가드 2건이 있음

수입 규제	건수*	규제 내용
반덤핑 관세	17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상계관세	7	수출국 정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2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량제한, 시장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총 계	26	

- 현재 위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 제품에는 대구경 용접강관, 저용점 합성단섬유, 원추 롤러 베어링 등이 있음
-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해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결을 내려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 (10월 18일자, 해당품목 HS Code: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
- (비관세 장벽) 차별적으로 적용 중인 ‘얀(yarn) 포워드 룰’ 및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
 - 미 섬유 원산지 판정기준 ‘얀 포워드 룰’에 의해 의류 제품이 역내 생산을 인정받고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함
 -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섬유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상태이고 우리 기업들은 일부 화학섬유 외에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역내 의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인해 수입통관 시 시간 및 비용의 증가
 - 통관기간 동안 물품 보관비용, 운반비용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짐

□ 미국 수출 성공 사례

① A社

배경	○ K-뷰티 트렌드에 힘입어 미국 시장 진출 희망 - 중국과 영국에서 BRTC와 CL4 등의 A사 브랜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으로 해외 유통망 확대 추진
전략	○ KOTRA 뉴욕무역관 지사화 사업 기업으로 가입해 본격적인 유통망 개척 시작 - KOTRA 뉴욕무역관은 A사와 현지 디스트리뷰터 및 바이어 만남을 주선했으며, 뷰티 관련 전시회 정보 제공, 마케팅 전략을 수립 - 2017년 미국 시장 내 제품 홍보를 위해 서브스크립션 뷰티박스인 입시(lpsy)를 통해 1년 가까이 BRTC와 퓨어힐스 제품을 공급, 회원들에게 꾸준히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바이어들의 호기심을 자극 * 입시는 월 300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매달 회원들에게 맞춤형 샘플을 배송 * 신제품 샘플을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뷰티박스는 시장 트렌드 파악을 위해 정기 구매하는 바이어가 상당수 존재해 뷰티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 동시에 미국 바이어가 참관하는 뷰티 관련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 홍보 및 유통망 개척에 노력을 기울임
성과 및 시사점	○ 디스카운트 스토어 진출 성공 및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에 브랜드 입점 성사 - 미국 뷰티 디스트리뷰터 '심포니뷰티'와 협업을 통해 벌링턴, TJ맥스 등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진출 - 2019년 초 미국 대형 드럭스토어에 브랜드 입점을 앞두고 있음 - A사의 이번 드럭스토어 진출은 K-뷰티 섹션에 특정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장 뷰티 섹션에 브랜드로 입점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있음

② I社

배경	○ 2016년부터 미국 수출 본격화 - 반도체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실시함
전략	○ KOTRA 지사화 사업 참가 및 Semicon West 등 전시회 참여 - 미국 내에서도 실리콘밸리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2016년부터 실리콘밸리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참여를 통해 밀착지원을 제공 받음 - 전반적 반도체 테스트용 소모품 수요와 기존 반도체 테스트와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하여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음 - 샘플 수주 후 다양한 변수 발생에도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바이어로부터 지속적 물량을 확보 중 - 연속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주요 전시회(Semicon West 등)에 참가하며 다양한 바이어들과 접촉 및 네트워크 확대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성과 및 시사점	○ 미국 현지 전시회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 노력 - Semicon West에서 만난 바이어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 성공 *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전시현장에서 다양한 바이어들로부터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feed back을 받을 수 있었으며 바이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성공 - 미국 반도체 산업은 오래전부터 성숙된 시장이고 이미 기존 벤더와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와 신규 진입이 힘들지만, 진입하면 반대로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어진다는 면에서 장점이 큰 시장

③ H社

배경	○ 자동차 부품(단조) 생산 업체 H사는 2017년 하반기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디트로이트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시작 - 동 기업은 아시아권 국가와의 수출 경험은 있었지만, 북미 수출 경험은 전무
전략	○ 디트로이트 무역관은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기업에 제공 - 현지 기업과의 거래 경험을 중요시하는 비즈니스 문화를 고려하여 Distributor(배급 업자)를 포함한 소형 업체를 주 타겟 바이어로 설정, 업체 홍보를 시작 ○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주요 Tier 1 기업과 미팅 한 후 이메일을 통해 H사의 RFQ 제출을 지원 ○ 이후 H사에서 2차례 디트로이트로 출장, 바이어를 만나 조건 협의 ○ H사는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개최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 - 북미 부품 수출 상담회('18.5) 및 현지 전시회 참가하여 업체 홍보 및 바이어와의 최초 미팅을 끌어내는 데 주력
성과 및 시사점	○ (성과)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주선한 미팅을 통해 만난 바이어와 수차례 미팅을 하였으며, 현재 거래 성약을 앞두고 있음 ○ (시사점) 바이어와 미팅을 위해 미국 현지로 해외 영업 관계자가 출장을 오는 등 미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미팅 후 바이어 피드백을 얻는데 노력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H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이번 수출 건을 시작으로 현지 기업과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나. 투자

□ 한국의 투자 진출 현황

- 미국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해외직접투자액 1위
 - 2017년 한국의 대미투자액은 신고금액 기준 약 152억 9,000만 달러로 2위인 케이만군도(49.8억 달러)와 3위인 중국(29.7억 달러)을 합친 액수의 두 배
- 2017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
 - 미국은 전통적인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나 연동별 투자액 변동은 심한 편
 - 2017년까지 미국 시장의 저금리 지속 및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2018년 상반기 기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금액은 약 56억 7,800만 달러에 달함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진출 동향】

연도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금액(백만 달러)	10,776(13.9%)	18,054(21.1%)	13,747(5.3%)	5,678

주: 신고금액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의미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업종별) 2017년 기준,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정보통신업 중심 투자
 - 2018년 상반기에는 금융 및 보험업(28억 달러), 부동산업(12억 달러), 제조업(4억 5천만 달러), 광업(3억 9천만 달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짐

□ 투자 진출 동향

○ 한국의 대미투자진출 꾸준한 증가세 시현

- 한국의 대미 투자액(신고금액 기준)은 2013년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도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은 137억 달러에 달함
- 2018년도 상반기(1월~6월) 대미 투자액은 신고금액 기준, 약 56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대미 투자는 올해 들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부터 활발했던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진출은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생산시설 건립 등이 대미 투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 *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앨라배마 및 조지아 주에 위치한 현지 공장에서의 신차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LG는 테네시 주,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전제품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임

[2015-2018(상반기)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

(단위: 건, 개, USD백만)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5	1,635	549	10,776	2,276	7,042
2016	1,774	522	18,054	2,479	13,554
2017	1,823	533	13,747	2,466	15,287
2018(상반기)	896	291	5,678	1,168	4,61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 투자 유치 동향

- 2017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24.5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유치
 -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국내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대비 25.8% 감소한 7.8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은 56.1% 증가한 21.7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식품(1.3억 달러, +54,473%), 기계·장비(1.7억 달러, +4,013%), 전기·전자(1.9억 달러, +1,135%)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화공(3백만 달러, △81.7%)은 감소
 - (서비스업) 부동산(8.0억 달러, +2,067%), 금융·보험(5.8억 달러, +36,278%), 운수·물류업(1.0억 달러, +7,106%)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2017-2018(상반기) 미국의 대한 투자 실적]

(단위: USD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1분기	2분기	상반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상반기	증감률
미국	365	2,081	2,446	458	1,805	4,710	738	2,276	2,446	23.2

주: 신고금액 기준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투자진출 성공 사례

○ H社

배경	○ 2009년 설립, 전 세계에 초소형 컴퓨터 사업 진행 -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기획,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임. 특히 온라인 기반의 글로벌 유통망 구축을 판매전략으로 삼아 현재 약 150개국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전략	○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현지 진출 전략 시동 -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후 현지 투자시 필요한 법률, 노무 및 마케팅 정보 제공을 받으며 현지 거점 마련. 이후 아마존과 이베이 등 B2C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고 B2B 대상 자사 온라인 판매망 구축함 ○ 현지 물류센터 설립을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 (물류비용절감) 물류비 절감에 따라 소비자 구매가 인하,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 - (제품납기단축) 고객주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 구축, 고객 서비스 강화 - (신규수요발굴) 제품 재고량 확보에 따른 대량 주문 고객 수요 발굴, 매출 확대 - (마케팅강화) 확보된 물량을 바탕으로 현지 영문 잡지 및 커뮤니티 대상 적극 홍보 *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의 영문 잡지 구독자 확보, 2016년 150만 명 중 30만 명이 영문 커뮤니티를 방문
성과 및 시사점	○ 현지 거점 사무소 마련 및 물류센터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시카고 수출인큐베이터 입주를 통해 현지 투자 초기에 필요한 법률, 노무 및 마케팅 관련 컨설팅을 받으며 현지 거점 마련 - 현지 대표 유통 채널을 구축한 이후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한 제품가격경쟁력, 고객서비스 강화, 새로운 타겟층 발굴이 온라인 판매전략의 주요한 성공요인이 됨

○ E社

배경	○ 전자재료 및 정밀화학제품 제조기업인 E사는 반도체기업 S사에 반도체 처리용 화학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현지 제조시설 설립 및 납품 계획 - 대형 거래처가 소재하고 있는 오스틴 인근에 입지 선정, 물류 용이성 확보
전략	○ 무역관의 현지진출 지원을 활용해서 공장설립 준비 및 사업정착에 필요한 주요 네트워크를 소개 받고 방문면담 진행함 (무역관에서 오스틴 출장지원) - 입지 및 각종 허가 관련 시 정부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서 각종 정보 수집 및 협조 요청 - 오스틴에 기 진출한 외국계(H사) 기업을 방문해 성공적인 진출에 필요 요건 관련 논의함. 특히, H사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건설사 및 HR 업체 선정 관련 구체적인 조언 제공 및 중요성 강조 - 오스틴 상공회, 오스틴 아시안 상공회 소개 및 방문면담, 향후 현지 사업정착 및 현지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함 - 텍사스 현지 법인 설립 및 회계 관련 지역전문가 연계 상담 지원
성과 및 시사점	○ 2019년까지 공장건설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납품 예정 - 주요 거래처 인근에 소재함에 따라 안정적인 납품을 위한 기반 마련

□ 수출 실패 사례

○ M社

배경	○ 2007년, 단독 투자 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 -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매장을 오픈한 바 있음 - M사의 한국 모기업은 미국법인 출자 금액으로 약 75억 247만원을 보고한 바 있음 - 미국시장 진출 9년째인 2017년 1월에 미국 시장 철수 발표
실패사유	○ 프랜차이즈 및 노동법 등 현지시장 이해 부족으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누적 적자가 원인 - 적자 누적과 불투명한 시장성을 이유로 철수를 발표 - 모기업인 M사 그룹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과 LA에서의 불법 프랜차이즈 소송에 휘말리면서 추가 손실 및 기업 이미지 타격 발생 - 2007년 진출 이후 지속적인 가맹점 증가에도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미국 시장 철수 결정 - 기본적인 미국의 상법,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또한 미국 프랜차이즈 운영방식과 한국식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이 달라 관련 지식 부족으로 매장 확장 및 신설에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음
시사점	○ 한국과 미국 시장 차이에 대한 이해 필요 - 한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도 미국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철저한 현지화와 꾸준한 투자 필요 - 또한 노동법, 프랜차이즈 법 등 다양한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도 지속적인 시행착오, 관련 소송 및 운영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로 한인 교포 수요에 힘입어 진출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품성이나 시장성은 고려하지 않고 도전하는 경우 실패로 직결될 수 있음.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소비자 뿐 아니라 다문화 소비자들을 고려한 메뉴개발과 가격책정 등 철저한 사전 조사 필수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미국 인프라 시장 확대 기회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모색

- 지난 2월에 발표된 트럼프 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정책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의회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정부는 국내 인프라 재건을 위해 (1) 연방정부 재원 2000억 달러 투입 (2) 사업 인허가 권한을 주지방정부에 대폭 이양 (3) P3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P3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지방 정부와 협력 구축이 선결과제로 제시됨
 - 인프라 사업개발, 인허가, 발주, 사업자 선정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
-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제조업-서비스업-금융사로 구성된 선단형 진출모델을 통해 규모, 기술, 자금력 등 전방위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美 통상정책 피해 감소 위해 한-미 FTA 조속한 비준 필요

- (현황)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둘러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가속화
 - 미국은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USMCA)을 통해 무관세 수혜를 위한 역내 자동차 부품 조달 비율을 62.5%에서 75%로 인상하여 자국산 부품의 생산량 증대 효과 겨냥
 - 자동차 산업의 무역 수지 적자 개선 및 일자리 감소를 근거로 통상법 301조(對中),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발동
- (주요 의제) 2018년 3월 잠정 합의된 한-미 FTA 비준 및 무역확장법 232조의 대상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적극적인 아웃 리치 활동이 요구됨
 - 3월 잠정 합의된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수출 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까지 유지하는 대신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양국 국회 최종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대상 무역관장법 232조 조사가 개시

□ 미-중 통상 분쟁 활용으로 한국으로의 소싱 전환 기회

- 미국의 대중 통상제재인 무역통상법 301조 영향으로 한국으로의 소싱 전환 기회
 -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리스트에는 식품, 화장품등이 포함된 생활소비재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발효 시에는 그동안 중국산 제품들의 강력한 셀링 포인트였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
 -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며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으로 이어져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발효는 올해 말부터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에서 다양한 상품 및 부품들을 조달해 오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중국 상품 대신 인근 경쟁 국가들로부터의 소싱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품질이 중요시되는 부품 및 IT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과 일반 생활 소비재 관련 한국산 제품 소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301조에 의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적용 범위가 4차 리스트까지 발표되는 등 미-중 통상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 중국산 제품의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은 한미FTA 특혜관세와 월등한 품질을 강조하는 등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소싱 전환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차세대 이동통신망(5G) 구축 활용

- (환경)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분야 혁신에 따른 5세대 이동통신(5G)의 필요성 증대
 -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관련 실험 및 네트워크를 통해 5G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기회) 5G 기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과제
 -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삼성전자의 5G장비와 제휴하여 2018년 11월을 목표로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
 -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의 본질이 5G 관련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세대 이동통신망 선점은 미국 정부의 주된 관심 분야임

□ 에너지 분야 협력

- 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
 - 증가하는 미국 셰일가스·원유 개발 및 생산 확대에 따라 대응할 운반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
 - 한-미간 마이크로그리드, 수소차, 에너지저장장치(ESS)등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설계 및 운영, 원전해체, 초초임계압 발전 등 첨단 분야로 협력 범위 확대
- 교역증진
 -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 강구
 - 2017년 한-미간 LNG 교역량은 196만 톤(8억5백만 달러), 한국이 미국산 LNG 도입규모 2위에 해당하는 등 양국간 에너지 협력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대
 - * 미국산 LNG 도입국 순위: 1위 멕시코(20%), 2위 한국(18%), 3위 중국(15%)
 - 우리나라의 높은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추구
 - * 한국의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2016년 기준): 원유 85.9%, 천연가스 47.7%

□ 한·미 반도체 협력

- 2018년 미-중 통상분쟁 발발
 - 통상분쟁 이전에는 미국 인텔과 중국 국영 칭화유니그룹이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생산 및 판매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 견제에 나섬

-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절반에 가까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미국 인텔에서는 중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선 것
-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문제 삼은 이후 관세 보복을 구체화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고조
- * 중국 푸저우(福州)시 법원은 2018년 7월 2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26개 제품의 중국 내 판매금지 예비 명령을 내림

○ 한·미 반도체 협력 방안 모색

- 기업,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SSD의 경우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와 DRAM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AV)·빅데이터 등 미국 테크 산업 발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반도체가 주력이 됨
- 한편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하는 등 한미 양국은 서로 중요한 시장임을 인식한 상황
-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므로 한국 관련 기업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미국과 중국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한 시점



가. 교역

□ 교역동향

- 2015년 1월 1일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으로써 양국은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 2018년 1~7월 기준, 캐나다는 한국의 18번째 수출대상국이고, 한국은 캐나다의 6번째 수입대상국
- 한국은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등 점유율이 높은 반면, 캐나다는 광산물, 화학제품, 농림·수산 등 원부자재 및 중간재 비중이 높아 양국 간 FTA 상호보완성 강화가 예상됨
- 2017년 기준 한-캐나다 교역액은 FTA 발효 이전(2014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18년에 들어서는 한국산 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
 - 2018년 1~8월 우리나라의 對 캐나다 수출은 전년('17) 동기대비 16.3% 증가했으며(C\$ 38억 7,438만), 수입은 17.4% 증가(C\$ 38억 1,494만)로 무역수지 흑자기록(C\$ 5,944만)

[한국의 對 캐나다 교역동향]

(단위: US\$ 천,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8월)
수출	4,916,629(-5.5)	4,623,244(-6.0)	4,884,917(5.7)	4,717,661(-3.4)	3,874,381(16.3)
수입	5,442,591(15.4)	3,983,082(-26.8)	3,942,541(-1.0)	5,040,483(27.9)	3,814,938(17.4)
무역수지	-525,962	640,162	942,376	-324,932	59,443
총 교역액	10,359,220(4.4)	8,606,326(-16.9)	8,827,458(2.6)	9,760,254(10.6)	7,689,319(-21.2)

주: 괄호 안은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은 2018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년 동기대비 승용차(0.3%), 휴대전화(140.9%), 철강관·파이프(165.0%) 등의 수출증가가 성장 견인
 - 8월 승용차 판매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한 180,942대를 기록하여 한국산 승용차 또한 판매가 주춤한 편
 - 휴대전화는 삼성 갤럭시 노트9 모델이 8월부터 출시돼 현지 수요가 높은 편
 - 철강관, 합금강관 등 한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캐나다 철강산업 보호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對 캐나다 주요 품목 수출동향]

(단위: US\$ 천, %)

연번	HS Code	품목	2017년		2018년(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8703	승용차	2,134,785	11.8	1,631,409	0.3
2	8517	휴대전화	214,983	6.1	375,876	140.9
3	8708	자동차부품	203,268	7.9	131,140	-1.7
4	7216	합금강관	63,832	6.4	93,047	85.5
5	7306	철강관·파이프	48,501	130.2	87,942	165.0
6	4011	타이어	100,179	7.1	67,928	-5.1
7	7210	도금강판	61,458	37.3	50,332	4.4
8	8413	산업용펌프	71,672	17.1	46,738	-2.0
9	7208	평판압연제품	29,727	63.6	45,083	155.0
10	8507	축전지	49,615	87.2	41,299	41.5
총 계			4,717,661	-3.4	3,874,381	16.3

주: 2018년 1~8월 증감률은 전년('17)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對 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 동광, 항공기, 철광, 목재펠트 등
 - 항공기의 경우 대한항공이 캐나다 봄바디어(Bombardier)사의 CS300 모델 여객기 10대를 도입하며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철광, 알루미늄괴 등 일부 광물자원은 2018년 1월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캐나다산 광물자원은 중국, 인도네시아, 칠레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은 편

[對 캐나다 주요 품목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연번	HS Code	품목	2017년		2018년(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2701	유연탄(코크스용탄)	1,497,825	125.9	1,194,272	15.8
2	2603	동광	546,926	-1.2	313,251	2.7
3	8802	항공기	34,586	22,270.7	211,223	-
4	2601	철광	254,390	105.8	137,119	-8.6
5	4705	반화학목재펠프	141,277	22.2	130,942	47.0
6	4703	화학목재펠프	119,029	7.8	106,644	36.2
7	3104	칼륨비료	130,114	-6.0	97,332	9.6
8	7601	알루미늄괴	251,027	20.6	85,957	-49.9
9	0203	돼지고기	96,659	18.9	84,101	32.4
10	2844	우라늄	43,452	-42.7	70,316	206.3
총 계			5,040,483	27.9	3,814,938	17.4

주: 2018년 1~8월 증감률은 전년('17)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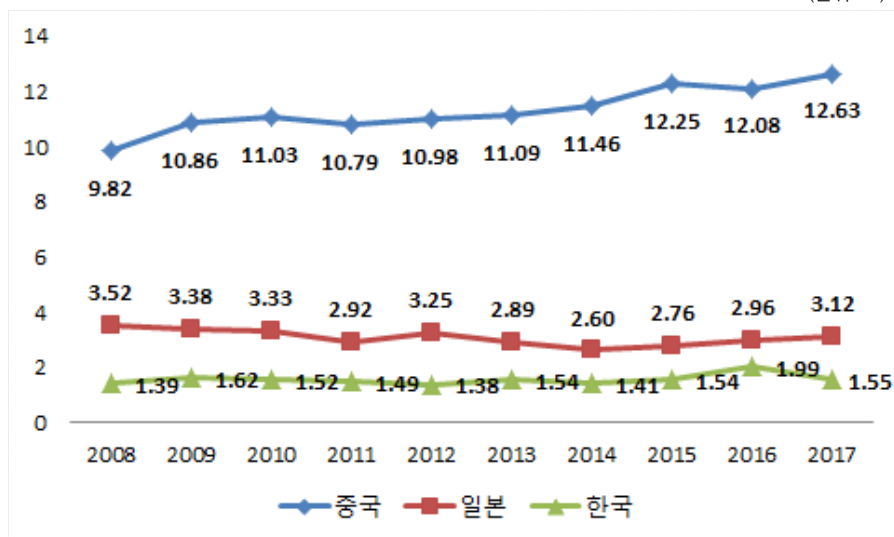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품목 한·중·일 경합동향

- 2017년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2008년 대비 0.16%p 증가한 1.55% 차지
 - 한-캐나다 FTA 발효 전인 2014년에 비해 수입시장 점유율은 소폭 증가
 - 같은 기간 중국산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12.6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일본 또한 2014년부터 점유율이 늘어나 2017년에는 3%대 진입

[캐나다 수입시장 한·중·일 점유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품목별로는 한국산 자동차, 내연기관, 화장품 등이 성장세를 유지해 중국과 일본산 제품을 바짝 추격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반도체, 냉장고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대부분 중국 등의 저가 제품 유입이 늘어난 데 기인함
- 캐나다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11개국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CPTPP)을 지난 2018년 3월 체결하였고, 중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등 무역자유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완전경쟁 수입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
- 우리나라는 중간재와 공산품 외에도 혁신기술 기반의 상품 개발에 주력하여 수출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주요 이유로 우수한 품질을 꼽음

[캐나다 수입시장 한·중·일 경합양상]

(단위: US\$ 백만, %)

품목(HS코드)	2016년 對 캐나다 수출액(비중)				2017년 對 캐나다 수출액(비중)			
	한국	중국	일본	총계	한국	중국	일본	총계
자동차(8703)	1,870 (7.08)	50 (0.12)	2,773 (10.50)	26,410 (100)	2,200 (7.67)	100 (0.35)	3,208 (11.18)	28,684 (100)
자동차부품(8708)	503 (2.45)	1,261 (6.14)	827 (4.02)	20,545 (100)	327 (1.60)	1,418 (6.91)	848 (4.13)	20,511 (100)
휴대전화(8517)	229 (2.55)	5,168 (57.43)	56 (0.63)	9,000 (100)	237 (2.32)	6,552 (64.33)	50 (0.50)	10,185 (100)
타이어(4011)	110 (3.86)	413 (14.48)	263 (9.23)	2,853 (100)	123 (4.03)	523 (17.15)	252 (8.26)	3,050 (100)
반도체(8542)	91 (4.81)	119 (6.32)	49 (2.63)	1,884 (100)	76 (3.84)	158 (7.99)	51 (2.58)	1,982 (100)
합금강관(7216)	76 (15.34)	10 (2.18)	2 (0.35)	494 (100)	63 (11.41)	9 (1.62)	0.5 (0.09)	551 (100)
전동축(8483)	71 (1.92)	171 (4.59)	1,090 (29.30)	3,720 (100)	66 (1.99)	192 (8.76)	1,011 (30.37)	3,329 (100)
내연기관(8407)	59 (1.21)	26 (0.53)	172 (3.53)	4,905 (100)	39 (0.80)	22 (0.47)	167 (3.40)	4,910 (100)
평판압연(7210)	51 (5.58)	133 (14.48)	15 (1.64)	920 (100)	69 (6.16)	247 (21.93)	14 (1.26)	1,125 (100)
냉장고(8418)	48 (3.39)	198 (14.05)	4 (0.28)	1,413 (100)	43 (2.94)	218 (14.77)	5 (0.34)	1,474 (100)
화장품(3304)	37 (2.55)	63 (4.41)	22 (1.50)	1,439 (100)	42 (2.68)	79 (4.98)	27 (1.73)	1,586 (100)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철강 및 금속 9건, 전기·전자 1건으로 총 10건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구 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 목	내 용
구조용 강관	'03.3.21.	'03.11.17.	철강·금속	- 관세율: 89% - 부과기간: 2018.12.19.
동체관연결구	'06.6.8.	'07.1.18.	철강·금속	- 관세율: 0~242% - 부과기간: 2021.12.19.
탄소강 용접관	'12.5.14.	'12.12.11.	철강·금속	- 관세율: 54.2% - 부과기간: 2023.5.6
유입식 변압기	'12.4.23.	'12.10.22.	전기·전자	- 관세율: 34.8~101% - 부과기간: 2022.12.21.
동관	'13.5.22.	'13.11.18.	철강·금속	- 관세율: 5.5~82.4% - 부과기간: 2018.11.17.
후판	'13.9.5.	'14.4.17.	철강·금속	- 관세율: 1.9~59.7% - 부과기간: 2019.4.16.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14.6.13.	'15.1.9.	철강·금속	- 관세율: 13.3~41% - 부과기간: 2019.12.19.
유정용 강관	'14.7.21.	'15.3.3.	철강·금속	- 관세율: 0~37.4% - 부과기간: 2020.3.2.
철구조 부분품	'16.9.20.	'17.4.25.	철강·금속	- 관세율: 9~45.8% - 부과기간: 2022.4.24.
탄소합금강관	'17.6.8.	'17.12.5	철강·금속	- 관세율: 4.1~88.1% - 부과기간: 2022.12.4.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2018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 2건이 진행 중이며 긍정판정 시 대한수입규제조치는 1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는 2018년 5월 25일 한국산 냉연강재, 2018년 7월 26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수입규제 신규조사 품목】

구 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 목	내 용
냉연강재	'18.5.25.	'18.10.31.	철강·금속	- 유형: 반덤핑 및 상계관세 - 대상국: 한국, 중국, 베트남 - 예비판정: 64.3% 잠정관세율 적용
도금강판	'18.7.26.	'19.1.22.	철강·금속	- 유형: 반덤핑 - 대상국: 한국, 중국, 대만, 인도 - 예비판정: '18.10.24.

주: 2018년 9월 기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의 반덤핑 규제대상 품목 중 60% 이상이 철강제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는 추세
- 미국의 철강 관세부와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철강제품 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

□ 수출 성공 사례

- K社, 캐나다 수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준비

배경	○ 캐나다 조미김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진 방안 모색 - 한류 열풍과 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인해 한식에 대한 관심도 상승
전략	○ 지사화 사업 통해 캐나다 시장 집중 공략 - 캐나다 내에서도 온타리오 주는 아시아계 소비자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2013년 10월부터 토론토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고 있음 - 캐나다 조미김 수요와 소비자 구매 성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장조사와 함께 다양한 바이어들과 네트워크를 확대 ○ 품질경영관리 및 해외 인증 조기 획득 - 미주지역의 SQF 인증, 중국의 수산물가공등록 및 동남아 대상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철저하게 수출 준비 - 캐나다로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 라벨링, 알레르기 테스트, 영어 및 프랑스어 이중 표기, 패키지 디자인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준비
성과 및 시사점	○ 캐나다 최대 화교계 유통업체 입점 성공 - K사는 T사와 연간 C\$ 10만~12만 규모의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며, T사의 25개 매장에 제품 진열 ○ 캐나다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 라벨링 등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필수

□ 수출 실패 사례

- G社, 품질, 패키징 및 현지화 문제로 재계약 실패

배경	○ 캐나다 스시김(노리) 시장 진출기반 마련 - 해당 시장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제품이 시장 주도
전략	○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제품 홍보 - G사는 2017년 캐나다 소매·유통 전시회(GIC, Grocery Innovations Canada) 한국관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 - 캐나다 식품 유통기업 S사와 US\$ 7만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캐나다 시장 진출에 성공 - 그러나 이후 제품을 사용한 바이어는 G사의 스시김이 중국산 제품 대비 두께가 얇아 김이 쉽게 터지는 점에 대해 건의 - 나아가 바이어는 중국산 제품은 더블 패키징이라 제품에 문제가 없으나, G사의 제품은 패키징 문제로 사용 전부터 김이 이미 녹록해져있다고 설명 ○ 한국산 제품 특유의 식감 강조 - G사는 한국산 김 특유의 얇고 부드러운 맛을 강조했으나, 캐나다 소비자들은 두껍고 거친 식감의 김을 선호함 - 현지화를 고려하지 않은 G사는 캐나다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어내지 못하는 등 S사와 재계약에 실패
성과 및 시사점	○ 현지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 캐나다는 매년 약 30만 명에 이르는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민족 국가로, 우리 기업은 수출 준비 시 현지화 전략을 구상해야 함

나. 투자

□ 투자진출 동향

- 2017년 우리 기업의 대 캐나다 직접투자는 US\$ 6.3억 규모로 해외 투자국 순위 중 12위를 차지

【 한국기업 투자 통계 현황 】

(단위: 건, US\$ 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건수	90	110	91	112	100
신고금액	883,210	1,596,439	653,779	1,290,705	632,072
신규법인	30	23	26	25	2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업종별 투자의 경우 광업이 주로 50~80%를 차지해 왔으나, 2017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큰 비중(48%)을 차지

【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

(단위: 건, US\$ 천)

업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융 및 보험업	21,075	75,080	62,721	118,322	303,447
광업	776,529	1,243,310	424,139	1,101,978	206,211
제조업	8,782	36,983	69,166	19,421	49,6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352	6,668	3,802	7,863	39,6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01	500	5,772	1,245	23,6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87	209,734	3,858	8,584	8,4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	500
도매 및 소매업	22,698	5,969	16,985	13,392	317
숙박 및 음식점업	1,708	6,280	76	1,373	165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8	-	-	-	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	9,078	56,040	14,278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7,278	370	16,000	2,839	-
교육 서비스업	783	693		342	
운수업	-	-	7	323	-
농업, 임업 및 어업	3,456	653	1,541	-	-
건설업	433	909	793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212	-	-	-
합 계	883,210	1,596,439	653,779	1,290,705	632,072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전체적으로 자원 분야를 제외한 투자는 비중이 적은 편이나 최근 들어 금융·보험, 제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으로의 투자 진출 분야 다양화 추세
- 캐나다의 경우 북미 인공지능(AI)의 허브로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과 함께 글로벌 기업 및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활발
 - 캐나다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C\$ 1억 2,500만 투자
 - 또한, AI센터 구축기업에 투자비용의 15% 세액공제, 캐나다 사업개발은행(BDC)을 통한 C\$ 4억 벤처 지원금 집행 추진

[인공지능(AI) 분야 한국기업 투자 동향]

시기	기업명	내용
2017년 8월	삼성전자	• 몬트리올 AI 연구소 설립 • 몬트리올 대학교와 협력하여 음성·영상 인식, 통역, 자율주행, 로봇 등 AI 핵심 알고리즘 개발
2017년 11월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한화자산운용	• AI 투자 펀드 조성 • 한국기업 3개사가 총 US\$ 4,500만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캐나다 AI 솔루션 기업 Element AI社의 자문을 통해 캐나다 투자 진행
2018년 5월	삼성전자	• 토론토 AI 연구소 설립 • 토론토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딥러닝과 시각이해(Visual Understanding), 차세대 컴퓨팅(Next Generation Computing) 분야 공동연구 계획
2018년 8월	LG전자	• 토론토 AI 연구소 설립 • 토론토 대학교와 음성·영상·생체 인식 등 인식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 등 연구

자료원: 한국·캐나다 언론 자료 종합

[기타 분야 한국기업 투자 동향]

시기	기업명	내용
2018년 2월	뉴프라이드	Viena Capital Corp.에 20% 지분 투자를 통한 의료용 대마 사업 투자
2018년 4월	설빙	Ace Investment Group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밴쿠버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매장 개설 계획
2018년 9월	스톤브릿지벤처스	펠던 테라퓨틱스사의 차세대 항암 치료제 개발 투자
2018년 9월	CJ 4DPLEX	캐나다 극장사업자 Cineplex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 13개 4DX관 오픈 계획
2018년 9월	한온시스템	캐나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 사업부문 인수(약 US\$ 12억)

자료원: 한국·캐나다 언론 자료 종합

□ (캐나다) 투자진출 성공사례

○ 녹십자(퀘벡 주 생로랑 시)



- 2015년 6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 혈액제제 생산 공장을 착공하여 2017년 10월 준공 (2020년부터 연간 100만 리터의 혈액제제 생산 예정)
- 국내 기업이 북미에 직접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설립한 첫 사례로 퀘벡 주정부가 C\$ 2,500만 재정 지원 (차관 C\$ 1,700만, 현금지원 C\$ 800만)
- 퀘벡 주의 혈액 사업 기관인 헤마퀘벡사와 8년간의 제품구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캐나다에서 기반을 다진 후 북미 시장에 본격 진출 예정

○ 삼성물산(온타리오 주 10개 지역)



- 2018년 4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1,369MW(풍력 1,069W, 태양광 3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완료
- 2008년 제안 이후 10년간 3단계에 걸쳐 한반도 5배에 달하는 지역에 발전단지 10개를 순차적으로 건설 (총 사업비 U\$ 50억)
- 기존 프로젝트 진행방식(발주→입찰→수주→건설)을 벗어난 제안형 맞춤형 프로젝트
- 생산전력은 20년간 온타리오 전력청에 판매될 예정으로 안정적 수익 예상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과학기술

-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2016.12.20)에 근거하여 제1차 한-캐나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2017.12.20)됨
 - 이번 회의에는 양국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캐나다 간 과학기술 혁신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진행
 - 에너지·자원 등 캐나다 환경·자원과 우리의 과학기술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확대 추진을 협의함
 - 한국 캐나다 간 경제적 우호관계를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협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기술 확보 및 양국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한-캐나다 공동 R&D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 * 한국측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캐나다에서는 국립연구위원회(NRC,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중심이 되어 진행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이란?

- Agree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
- 한-캐나다 양국 간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양국의 대학, 정부 및 비정부 기구, 연구소, 기업들 간의 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과학기술 및 정책 정보교환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활동 추진 예정
- 2015.7.13 협정을 타결하고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하였으며, 2016.12.20 협정서명, 2017.12.21 제 1차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됨

○ 캐나다, 혁신 슈퍼클러스터(ISI, Innovation Supercluster Initiative) 구축

- 캐나다 정부의 핵심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anada)가 C\$9억 5,000만 투자 계획 발표
- ISI는 참가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큰 경제적 혜택을 얻음과 동시에 캐나다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

[최종 선정된 슈퍼클러스터 분야]



자료원: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anada)

○ 끊임없는 투자와 관심으로 인공지능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캐나다

- 캐나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분야에서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음
- 연방·지방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 양질의 외국 인력 유입 및 민간기업의 투자로 빠르게 성장 중
-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턴 지역 등이 캐나다 내 인공지능분야 선도주자로 손꼽히고 있으며 관련 연구기관 개소*가 계속되고 있음

*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17.3월), 삼성 연구센터(SAMSUNG AI Centre)(‘18.4월), LG전자의 토론토 인공지능연구소(Toronto AI Lab)(‘18.8월) 등 개소

-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는 주력산업으로 시장 확장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 간 협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정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에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진출 방안을 모색해본다면 우리 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 증가
 - 연방정부는 4차산업혁명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안(Smart City Challenge Initiative) 발표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주요도시에 10년 간 총 C\$3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주목적이 있음
 - * 신청서 접수는 만료되었으며('18.4.24) 심사를 거쳐 2019년 최종 사업자 발표
 - 이 외에도 토론토 시정부와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는 토론토 남동부 지역에 북미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인 사이드워크 토론토(Sidewalk Toronto) 건설을 공식 발표
 - 사업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약 US\$10억으로 추산되며,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예정
 - 해당 사업은 2020년 착공 예정으로 2022년부터 주민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 정보의 수집·보안·관리를 위한 하드·소프트웨어 및 폐수 처리 기술 등의 분야 수요 확대가 기대되므로 현지 기업과의 중·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창출 필요

□ 에너지

- 강화된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캐나다의 활발한 교류
 - 한국과 캐나다의 에너지 기술 협력을 위한 한-캐 클린에너지 비즈니스 포럼개최(2016.3.1)로 에너지기술 정책, 연구개발 활동 소개 및 양국 기업 간 B2B 미팅이 이루어짐
 - 또한 동 포럼에 앞서 한-캐나다 에너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갱신(5년)이 완료되었으며 셰일가스 등 자원분야의 협력 내용 새롭게 추가
 - 이 외에도 원전 기술교류를 위한 한국전력기술(KEPCO)과 캐나다 캔두에너지(CANDU Energy)사의 기술협력 미팅(2017.4.24),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주택 기술전수를 위한 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 수퍼-E 사무국의 협약식(2017.11.19) 등 양국 간 활발한 에너지 분야 기술교류 진행 중
- 아시아 LNG 시장 진출 발판마련에 나선 캐나다
 - 캐나다 서부에 아시아 LNG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LNG Canada Project) 준비 중
 - 캐나다 정부의 탈 석탄에너지 정책과 빠른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18년 말 최종 투자여부 결정 예정
-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캐나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양국 간 기술교류, 협력의 강화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진출전략

- (미국) 주요 소비자층인 Z세대와 베이비부머 집중 공략. 기술융합을 활용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IoT 제품, 한류 콘텐츠 활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업기회 모색과 중국 제품 대체수요를 공략하여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현지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타계를 모색
- (캐나다) 변화하는 통상정책에 맞춰 새롭게 캐나다 진출 유망분야·품목 선정 필요. 4차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기회 모색. 한류를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 대상 마케팅 강화



미 국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 점(Strength)

-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 가장 많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
- 미국 경제성장,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

약 점(Weakness)

- 트럼프 당선 이후 정치·인종·사회적 갈등 심화로 불안감 증폭
-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
- 노동비용이 높은 편

기 회(Opportunity)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효과
- K-뷰티, K-팝의 인기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제약 수요 증가
- 5G 무선통신 상용화로 신규 수요 발생
- 첨단 융합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품목 수요 성장

위 험(Threat)

-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로 수출 환경 악화
- 신차판매 부진, 주택시장 성장 둔화로 섬유, 가전, 자동차 등 주요 수출시장 성장 둔화
- USMCA 서명으로 역내 생산 자동차 부품 도입 비중 증가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Z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오프라인의 판매 채널 다각화
ST 전략 (강점 활용)	• 베이비부머를 타겟으로 헬스케어, 실버산업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IT기기와 연결성 강화한 제품으로 첨단시장 공략
WT 전략 (위험 대응)	•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업 기회 모색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공략
	• 미국 내 인지도 있는 기업과의 제휴, 생산시설 투자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타계



진출전략
주요 소비자층인 Z세대와 베이비부머 집중 공략
기술융합으로 신규 수요 창출
미-중 통상분쟁을 기회로 활용
현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미국 진출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자 가전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커넥티드 홈 제품 및 소형가전 시장 공략 • 5G 무선통신 활용을 위해 미국 통신사 및 IT 업체와 협업
의약품	• 복제 및 개량 신약, 바이오 신약, 희귀성 의약품 등 분야 타깃 • 미국 제약사와 전략적 제휴, 아웃소싱을 통한 역량 강화
화장품	•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한 판매 채널 다각화 • Z세대를 겨냥해 온라인 마케팅 강화
섬유 및 패션 의류	• 온라인 유통망 집중적 활용과 통합적 서비스 지원 필요 •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자동차-IT기기 간 연결성 및 디지털 강화 • 해외 투자를 통한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조달률 제고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 해외투자 및 원천기술 인수 및 확보를 통한 진출 • 기능성 소재, 정밀화학제품 및 고기능성 첨단소재 사업 육성
전자상거래	• 식료품, 의약품, 여성용품 및 유아용품의 온라인 판매 유망 •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결제수단 확보 필수
첨단산업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한 반도체, 헬스케어 시장 선점 필요 • 미국 혁신기술의 메카, 실리콘벨리의 입지적 장점 활용
무선통신기기	• 5G 기술의 상용화에 따른 신규 수요 공략 • 미국 통신사 및 중소 IT 업체와 제휴를 통한 공동 R&D
4차 산업혁명과 Z세대의 부상	융합을 통한 기술혁명, 디지털 마케팅으로 승부

가. 소비자 가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의 소비자 가전 시장은 2018년 기준 약 1,074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시장
 - *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7%의 위축을 보였는데 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뒤쳐진 기술로 인식되는 제품군에 대한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전제품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어 프리미엄 제품과 모바일 가전제품을 선두로 향후 더 강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미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18~2023년 미국 가전시장이 연평균 2%의 성장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기기에서 스마트한 기능과 무선 연결성을 기대함에 따라 편리성과 고급화가 미국 소비자 가전의 변화를 주도
 -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해 작업 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제품, 태블릿PC 및 MP3플레이어 등 스마트폰이 기능을 대체한 제품군에 대한 수요가 감소
 - 지난 5년간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 매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평균 단가는 연평균 0.2% 증가를 보여 제품의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3~2015년 가전기기와 모바일 기기의 평균 단가는 각각 연평균 3.9%, 4.6% 성장
- 인터넷 소매 판매의 성장,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부진을 지속
 - 2013-2018년 미국 소비자 가전 시장에서 인터넷 소매 판매액은 연평균 3.3%의 성장을 보였으나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연평균 2.4% 감소
 - 대표적 가전제품 전문 매장 베스트바이(Best Buy)의 경우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마존의 스트리밍 기술을 결합한 베스트바이의 하우스 브랜드 텔레비전을 판매하는 등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모색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커넥티드 홈의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최근 스마트 스피커의 보급률 증가로 소비자들이 음성 어시스트 기능을 더욱 편안히 사용하게 됨에 따라, 커넥티드 홈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폰 등에 연동 가능한지가 시장 확대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5G 무선통신 상용화를 대비해 미국 현지 통신사 및 IT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사업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최신 기술과 가전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회에 참가해 언론과 업계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주목을 끌 수 있어야 함
- 도시 유입 인구 증가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소형 가전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
 - 좁은 아파트에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스틱형 청소기, 부피가 작은 주방용 가전, 다목적 가전(식재료 스팀과 슬로우 쿠커로 활용할 수 있는 밥솥 등) 등이 주목받고 있음
 - 집을 장만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가 소형 가전의 주요 소비층이므로 이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주요 가전 업체들은 기기의 부피를 줄이면서도 기존 제품과 가격을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음

나. 의약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귀결됨
 - * 특히 블록버스터급 약품의 특허 만료가 진행돼 가고, 아직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절대강자가 출현하지 않은 지금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제약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골든타임
- 미국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62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5.6%의 성장을 지속
 - *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시장은 향후에도 성장을 지속해 2022년 시장 규모가 3,08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국 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비용이 급증
 - 미국 내 만성질환자 비율이 2030년도에는 전체 환자 대비 49%까지 증가할 전망
 -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미국 정부는 공공 의료예산 감축, 약가 인하, 복제의약품 확대 등의 노력
- 자체 R&D를 통한 신약 개발의 한계에 봉착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 기술 아웃소싱에 뛰어듦
 - 10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중 아웃소싱 프로젝트 비중은 2013년 16%에서 2014년 33%로 확대
- 2015년부터 바이오의약품의 미국, 유럽 지역 특허가 잇따라 만료를 앞두고 있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등 선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170% 이상 성장할 전망

- 아직까지는 허가에 소극적인 미국이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시작할 경우 관련 시장은 보다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복제 및 개량신약, 바이오신약, 희귀성 의약품 등의 분야를 타깃으로 미국 시장 진출 노력 필요
 - 아직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절대강자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제약시장 선도를 위해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할 적기임
 - 만성질환 환자 증가, 인구 노령화, 건강보험개혁법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 등으로 해당 분야가 높은 시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됨
-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국내기업들은 미국 현지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뿐만 아니라 전문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 역량 강화
 - 국내 제약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과 마케팅 능력 함양이 선결과제임
 - 국내 제약사는 보유품목에 대한 평가 통해 직접 시장진출 또는 협력사와의 제휴를 통한 간접진출 여부를 선택해야 함

다. 화장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의 화장품 및 향장품 생산업은 2017년 기준, 약 501억 9,860만 달러 규모 기록
 - * 전년대비 8.8% 성장했으며 2018년에는 501억 4,2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0.1% 성장 감소 전망
- 한류 인기와 함께 동반 성장해왔던 K-Beauty 수요는 올해부터 다소 주춤하다는 평가
 - * K-Beauty를 내세운 시장진출을 벗어나 브랜드별 제품 차별화 전략과 정체성을 찾아야 할 시기로 분석
- 온라인 판매 확대, 소셜인플루언서 마케팅, 구독서비스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판매 다각화 필요
 - * 미국내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어 오프라인 매장 위주의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 집중 필요. 다양한 판매 전략과 마케팅 방안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어필해야 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국 시장, 최근 3~4년간 K-Beauty 열풍
 - 스킨케어 제품 시장에서 K-Beauty는 뛰어난 품질과 미국보다 앞선 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미국 소비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음

- 그러나 최근 미국시장에서 K-Beauty 인기는 다소 주춤해져 전문가들은 이제 'K-Beauty' 타이틀을 벗어나 브랜드 차별화와 정체성을 강조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
- K-Beauty는 트렌디한 제품들로 사랑을 받았으나 최근 일본의 J-Beauty 제품들이 K-Beauty에 이어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음
 - * 기존 K-Beauty 유통망들이 J-Beauty 제품 소개와 취급을 늘리고 있으며 J-Beauty는 K-Beauty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 스킨케어 제품들로 집중되어 있음. K-Beauty에 비해 시장 트렌드 반영이 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미지와 가격대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미국의 온라인 중심의 유통채널 변화에 맞추어 판매채널 다각화 필요
 - 미국에서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 소매판매가 이제는 온라인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 확대 및 판매 채널 다각화 필요
 - 아마존 등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하여 직접 진출하는 것도 시장 진입 초기에는 유용한 마케팅 전략이나 온라인 중심의 소매판매처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한 대중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 확대 필요
 - 판매채널 다각화에는 무엇보다 통합적인 가격 정책과 제품 구성이 중요하며 배송지원 및 기타 혜택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함. 스마트폰 등 모바일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요소로 꼽힘
-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 주요 소비자 층 집중 공략
 -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 인구)는 미국 최대 규모의 소비 집단으로 2015년 기준, 약 7,540만 명에 달함
 - 베이비붐 세대(1946년부터 1964년 출생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7,490만 명에 달함
 -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은 노화방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스킨케어 제품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꼽힘
 - 베이비붐 세대 역시 외모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속적인 자기관리 및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꼽히고 있음
 - 주요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인플루언서 마케팅,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 마케팅, 구독 서비스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확보에 노력해야 함

라. 섬유 및 패션 의류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의류, 신발 등 패션 아이템들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확산. 오프라인 중심의 주요 의류 소매체인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
 - * 2017년도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주요 의류 소매체인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 정리 (American Apparel, Gymboree, Bebe, BCBG Max Azria, Macy's 등)
- 로스앤젤레스의 자바시장(Jobber's Market)을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 시장 발달
 - * 미국의 패스트패션을 대표하는 한인의류기업 Forever 21등 한인 상권 발달
- 미국의 여성 비만 비율 증가로 플러스 사이즈의 여성 의류 지속적 증가
 - * 미국 여성의 64% 가량이 비만으로 미국의 평균 여성복 사이즈는 2017년 기준, 14로 확인되었으나 2018년 8월 기준, 16에서 18까지인 것으로 조사됨. 2007년도 미국의 평균 여성복 사이즈는 12로 기록된 바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온라인 쇼핑 증가, 오프라인 위기
 - 2017년도부터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주요 의류 소매체인들이 줄줄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음
 - * American Apparel은 두 번째 파산 신청으로 캐나다 기업인 Gildan Activewear에 인수. Bebe, BCBG Max Azria, Gymboree 등이 파산보호 신청함
 - * 미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백화점인 Macy's도 오프라인 판매부진으로 미 전역 68개 매장을 정리 및 폐점. 70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최대 장난감 및 유아용품 기업인 Toys R Us도 올해 3월 미 전역 200개 매장들을 완전 폐점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짐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연성 있는 온라인 판매,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
 -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PC 판매보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 주요 마켓 플레이스 활용과 drop shipping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며 빠르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해야 함
 - 또한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과 현지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연성 있는 온라인 판매망 구축 필요
- 소셜 네트워크 활용 전략
 - 주요 통계 조사기관인 Statista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평균 소셜 네트워크 사용은 하루 1시간 40분으로 조사됨

- 인스타그램(Instagram), 핀트레스트(Pinterest), 트위터(Twistter) 등의 주요 소셜 네트워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In-app Purchase 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한 제품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애플페이(Apple Pay)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더 간편화되고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여건) 세계 3위의 자동차 판매 시장이자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생산 시장으로 여전히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강대국 위상 유지
 - * (판매) 1위 중국, 2위 EU, 3위 미국 / (생산) 1위 중국, 2위 미국 (17년 매출액, 생산량 기준)
- (전략적 가치) 차세대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생태계 재편 예측
 - *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IT기업이 선도하는 패러다임에 발맞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 전략 수립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이슈) 트럼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및 수입규제 등 통상정책 압박으로 인한 수출 환경 변화
 - 미 정부의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 제조업 일자리 회복, 부품 현지 조달 확대* 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
 - * Ford의 멕시코 공장 설립계획 철회(2017.2) 등 Big 3(GM, Ford, FCA)의 자국 생산·조달 요구 강화
 -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301조)가 장기화 될 경우 신규 차량 생산 프로그램에서 소싱 전환의 가능성 존재
- (트렌드) 자동차 산업 관련 환경규제(디젤 제한 등)가 강화되고 기술 혁신이 수반됨에 따라 자율주행 전기차(EV)의 보급·양산 가속화
 - 글로벌 기업이 생산설비 투자, 인수합병을 통해 차세대 기술·서비스 혁신 주도

기업명	내용
GM	배터리 연구, 개발에 2,800억 달러 투자 발표(2018.9)
도요타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500만 달러 투자(2018.8)
FCA	자율 주행차 시험에 3,0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18.9)
Ford	자율 주행 자동차 개발에 2023년까지 4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18.7)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글로벌 기업*의 전장부품 다국적 소싱 대응 및 향후 기술협력 노력 필요
 - 내연기관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자동차-IT기간 ‘연결성 및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전장부품 활용범위 및 완성차 OEM 니즈 확대
 - * (Big3) 모듈간 통합제어, 자율주행 차량용 모니터 등 자율주행자동차 구현을 위한 전장부품 소싱을 희망하며, 충돌방지센서(에어백), 음성인식, 차량용 LED 모듈, 디스플레이 분야가 유망 품목으로 분류
- 해외투자를 통한 자동차 부품의 현지 조달을 제고 필요
 - 조달 부품의 개발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고 관세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는 미국 내 현지 생산시설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선 발굴중(GM 인터뷰)

바.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의 석유 증산활동은 셰일유전 지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 특히 퍼미안 분지의 2012~2017년 사이 업스트림 누적 투자액은 총 1,500억 달러로 향후 미국의 석유 증산량의 대부분이 퍼미안 분지에서 발생할 전망
- 미국내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플랜트 가동 시작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가격 약세 예상
 - * 기존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경기사이클 및 시장 지위, 안정적 원료 소싱 측면에서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미국의 원유 생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석유제품 생산 또한 증가 중
 - 셰일자원 기반의 에너지자원 개발 활발하여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 증가 주도
 - * 미국 원유 생산량: (2017년) 940만 b/d ⇒ (2018년 전망) 1,070만 b/d ⇒ (2019년 전망) 1,170만 b/d
 - 미국 정유업체들은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기록적인 물량의 석유제품 생산 중
- 석유기업들 석유화학사업 투자 확대 중
 - 원가우위 원료를 기반으로 하여 ExxonMobil, Total, Shell 등 석유메이저들이 원료 소싱이 유리한 지역에서 크래커-범용수지 설비 투자 증가
 - * ExxonMobil은 화학사업 전면에 걸쳐 확장 중으로 미국의 저가원료 기반 에탄 크래커부터 대규모 기능성제품 설비 투자 추진 중
 - * Total은 범용품인 기초유분과 폴리올레핀 사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원가우위가 있는 범용사업에 최근 투자 확대 중
 - 경쟁적인 투자과열로 장기 공급과잉 우려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해외투자 및 원천기술 인수 및 확보를 통한 진출
 - 다운스트림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개척
 - 수요구조 차이를 활용한 제품간 수급조정 및 효율적 설비 활용 가능
 - 해외 유전개발 확대로 안정적 원유확보 및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연계 강화
- 범용제품 중심인 석유화학제품에서 기능성 석유화학제품으로 전환
 - 기능성 소재, 정밀화학제품 및 고기능성 첨단소재 사업 육성
 - 신제품 및 고객 개척을 통해 시장지위 강화, 경쟁기업과 차별화 모색

사. 전자상거래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온라인 쇼핑 증가, 오프라인 판매 위기
 - * 미국 유통구조 지각변동은 미 최대 온라인 소매판매처인 Amazon이 주도
-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 구축 필수
 - *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유통채널들을 통합한 옴니채널 구축은 최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동일한 상품구성, 가격정책, 혜택 및 배송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소비자를 고려한 다양한 결제수단 확보 필수
 - * Paypal, Apple Pay, BitPay, Samsung Pay등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소비자들이 결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하여 즉각적이고도 매끄러운 구매 연결이 가능해야 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함께 더 정교해진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견인차 역할
 - 미국의 온라인 상거래는 2017년 기준, 약 4,324억 달러 규모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 13.4% 성장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미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가 6,2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식료품, 의약품, 여성용품 및 유아용품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 전망
 -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식료품, 의약품, 여성용품, 유아용품 등의 소비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

- 육아와 커리어를 병행해야하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식료품 및 육아용품 구독 서비스 및 배달 서비스 활용이 증가
 - 아마존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마트인 Whole Foods를 인수하여 신선식품 시장에서도 온라인 구매와 배송, Whole Foods 매장에서의 제품 픽업이 가능하도록 연결하고 있음
 - 유행에 민감하고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가 수월한 의류, 신발 및 패션 액세서리 제품들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IT 및 가전제품들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본 뒤 온라인으로 가격 및, 구매 후기를 비교 분석하여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패턴으로 전환됨
- 접근성 확보와 함께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결제수단 확보 필수
- 모바일 구매가 PC 구매를 능가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 있는 온라인 판매 전략이 필요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옴니채널(Omni-Channel) 구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
 - 옴니채널 구축에는 동일한 제품 구성, 가격, 혜택 및 배송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In-app purchase 기능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구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애플 페이(Apple Pay), Samsung Pay, BitPay, Paypal등 미 소비자들이 익숙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는 것이 중요한 판매 전략 중 하나로 꼽힘

아. 첨단산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보유
 - * 실리콘밸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부흥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본이 집적된 환경으로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로봇틱스 등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
- 실리콘밸리는 많은 유니콘 기업(1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지니는 기업)들이 탄생하는 발원지
 - *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에 몰리는 이유는 이 곳이 법인설립부터 투자유치, 투자회수까지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
- 한국 기업들은 강점을 보이는 반도체, 컴퓨터 분야를 바탕으로 실리콘밸리에 활발하게 진출 중
 - * 세미콘웨스트, 플래시메모리서밋 등 관련 전시회를 통하여 기술을 홍보하고 네트워킹을 넓히며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협력을 통하여 좋은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반도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반도체의 중요성
 - 반도체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칩 제조, 의료 기술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혁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기술임
 - * 시장조사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대한 압력이 설비 투자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차량,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매출 증가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함
- (SSD)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서 데이터센터 등 엔터프라이즈용으로 확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플래시 메모리로 이루어지는 SSD(Solid State Drive)가 데이터센터용으로 각광받기 시작함
 - 메모리시장은 크게 엔터프라이즈용, 커스터머용, 임베디드·모바일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용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커스터머용 및 모바일용은 가격적 측면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됨
 - SSD 공급에서는 2018년 2/4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3.4%로 선도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통계전문기관 Statista)
 - * 한국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삼성 및 SK하이닉스와의 사업협력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좋은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헬스케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 미국은 1인당 의료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Statista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은 2017년 기준 1만 633달러이며, 향후 2021년까지 연간 3% 증가해 1만 1,982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의 매출은 2016년 기준 약 4억 3,300만 달러, 피트니스 웨어러블 기기의 매출은 7억 5,9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피트니스시장은 앞으로 연간 15.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1년까지 약 24억 4,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최근 많은 약국들이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온라인 약국도 늘고 있는 추세로 Amazon은 이미 약국 체인들과 협력해 온라인 의약품 리테일시장에 진출한 바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시장
 -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안정적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함

- 관련 전시회에서 현장 인터뷰에 의하면 실질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4~5년에 걸친 전시회 참가가 필요함. 한국 기업들은 KOTRA 무역관 등의 지원을 받은 소수의 업체가 있지만, 더 많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전시회 참여를 더욱 권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세미콘웨스트는 북미 최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전시회로 신규 바이어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바이어와의 지속적 네트워킹 기회의 장으로 활용 가능
- 반도체 장비 시장은 반도체 전망에 따라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선행지수에 해당하므로 한국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들은 객관적 분석으로 반도체 경기를 주시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여야 함
- * 한국은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소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미국 반도체 장비 시장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접근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 가능

○ (헬스케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 스마트의류, 스마트운동화, 스마트워치, 자가혈액검사, 스마트콘택트렌즈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한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 미국은 2013년에서 2017년 1분기까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액의 75%를 유치하며 해당 분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끌어들이
- 현재 미국에서는 스마트워치 등 피트니스 관련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바, 앞으로 해당 분야가 계속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 제품이 의료용 진단기 또는 의료기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FDA에 의해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미 FDA의 승인 및 인증 필요.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FDA에 기업정보를 등록해야 함

자. 무선통신기기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5G 무선통신 시대 개막 예고
 - *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5G 무선통신에 수척억 달러의 투자를 지속
 - * 2019년 상반기 상용화가 예상되며, 통신업체간 선두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5G 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교체 수요 및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 통신속도 향상에 맞는 고사양 제품 인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 네트워크 장비 산업분야도 5G 통신망 구축으로 수요 확대 전망
- 5G 통신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부분도 급물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5G 무선통신 개발 투자 지속
 -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5G 무선통신 관련 투자는 2,750억 달러규모
 - 2019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5G 통신 표준규격 확정과 시범운영, 통신망 구축 등 5G 무선통신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
 - 이에 따라 삼성, LG, 소니, ZTE, 화웨이 등 5G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
- 업체간 경쟁 심화
 -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주요 업체들은 신기술 도입, 제품 고사양화 등을 추구
 - ‘베젤리스(Bezelless)’ 디자인을 채택하고 트리플(렌즈 3개) 카메라, 3D Sensing, In-Display 지문인식 등 고사양 부품 탑재 확산
- 새로운 스마트폰 수요 증가
 - 5G 무선통신 서비스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
 - 삼성전자와 중화권 업체의 폴더플(Foldable) 스마트폰 출시 임박. 폴더블이 가능해지면 휴대폰과 태블릿PC를 동시 사용하는 효과 기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무선통신 장비 수요 증가
 - 미국의 주요 통신사는 2019년 초 5G 무선통신 런칭을 목표로 활발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5G 통신 관련 장비 부문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필요
 - 네트워크 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통신사뿐 아니라 중소 I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공동 R&D를 고려할 수 있음
 - 현지 주요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현지 중소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지역시장 공략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유통망 확보
-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 전망
 - 5G 무선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 5G 스마트폰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여 2021년 전 세계 출하량 1억 1천만대 전망
 - 5G 스마트폰 시장 선점을 통한 위한 노력 요구

3.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19년 미국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인프라	① 주·지방정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관련 신속한 정보 확보 • 인프라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각 정부와 협력 강화 ② 철강·에너지·건설 지자체 등 수요 확대 분야 공략 • 인프라 관련 산업 수요 분석 및 현지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강화
신재생에너지	③ 다운스트림 전략을 통한 서비스부분 진출 확대 추구 • 한국 기업 강점을 내세워 수익성을 높이는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 IT 분야 경쟁력을 활용한 발전소 Q&M 분야로 시장 확대 추진
자동차 부품	④ 통상환경 변화를 활용한 기회 포착 • 주요 경쟁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 기업의 소싱 전환 기회를 포착하여, 기업 간 협업 기회 확대 전략 구사
일자리	⑤ 한·미 창업 지원 기관 협업을 통한 교류 추진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 해외진출, 공동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동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
세일자원	⑥ 세일 개발 붐을 탄 시장 기회 확보 •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 • 원유수송을 위한 인프라 관련 제품 수출 유망
첨단	⑦ 미·중 통상분쟁을 이용한 기업 간 협업 •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로 미·중 기업의 협업 불리 • 틈새를 포착하여,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협력을 통한 기회 확보
미국 우선주의 기조 지속	미 보호무역주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협력 전략 구사

가. 미국 인프라 시장 기회 확대에 따른 주지방정부 경제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부흥 정책과 업계의 열의에 힘입어 미국 P3 인프라 시장은 수년 내 비약 성장할 전망. 향후 1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열릴 시장 기회에 주목할 필요
 - * 무디스(Moody's)는 미국이 수년 내 세계 최대 P3시장(연 150억 달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
- 급성장하는 미국 인프라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건설수주 경쟁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금융투자, 수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 제고 기회 확보 가능

□ 트럼프 정부 하반기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확대' 예상

- 미국 인프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건설서비스, 상품 수출, 금융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진출 기회가 열릴 것이 유력시 됨
 - 향후 10년 동안 3,500조 원에 달하는 잠재 프로젝트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기자재 수요증가에 따라 상품수출 시장이 확대 기대
- 우리 기업들의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인프라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지방정부와 경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선결 조건
 - 재원조달 외에도 수요 발굴, 사업 개발, 사업성 검토, 인허가, 사업자선정,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미국 인프라 시장 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건설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 기대

- 우리 대미 수출에서 철강, 에너지, 건설기자재, 운송장비 등 인프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향후 미국 인프라 시장 전개 방향에 따라 수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할 것으로 여겨짐
- 미국이 인프라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할 경우 총 수입유발액은 약 1천억 달러(연평균 200억 달러)로 추정. 이중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향후 5년간 총 25억 달러(연평균 5억 달러) 증가 전망 (국제무역연구원 자료)

나.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 협력 방안 모색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트럼프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청정전력계획을 폐기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다수의 주·시정부가 지원책을 유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 지속
 - * 20개 주와 50개 이상 시정부 대표자들은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공약 준수 의사 표시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협력을 통한 윈-윈(Win-Win) 전략 구사가 필요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따른 진출 기회 확대

- 친환경연료 정책을 지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상관없이 지방정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 정책 지속
 - 주(州)·시(市)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4,0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지원 정책이 존재
 - * (캘리포니아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대 수준 대비 40% 감축 법안 마련
 - * (뉴욕주)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청정에너지기준' 개정안 채택
 - 트럼프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긴급투자계획에 예상 밖 신재생에너지 투자 포함
 - * 와이오밍주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이 포함됨
-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상승세를 기회로 활용한 협력 전략 필요성 증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지방정부와 전략적 협력 방안 모색
 - 한국 기업의 강점으로 꼽히는 분야를 내세워 수익성 및 효율성을 내세운 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
 - 미국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및 기술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진출도 추진 가능

□ 다운스트림 전략을 통해 서비스 부분 수출도 기대

- 가격경쟁력 극복을 위해 다운스트림 방식의 전략으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
 - 완성된 부품을 활용해 발전소를 짓고, 운영 및 보수까지 하는 다운스트림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다운스트림 부문은 수익성이 높고, IT기술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기업이 선진화된 기술로 발전소 Q&M(Operating & Maintenance) 부문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합리적인 가격에 부품 확보가 가능하며, 사후관리를 통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수요 창출도 가능

다. 통상 환경 변화 속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 기회 모색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주요 경쟁국(중국 등)의 제품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Tier1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차량 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소싱 전환 움직임 포착

□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기회 포착 가능성 상승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중국, 캐나다 등 자동차·부품 수출국 및 EU, 터키, 대만 등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에 큰 타격

□ 안정적 한·미 통상 현황 홍보 필요

- 미국 현지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한·미 통상 현황 및 양국 관계의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시행

라. 한·미 기관 간 협력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와 뉴욕주 실리컨앨리를 중심으로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발전 환경이 조성됨
- *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미국 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700여 개의 엑셀러레이터들이 활동 중임. 주요 투자 유형은 엑셀러레이터 외에도 인큐베이터, 엔젤투자(Angel Investor), 하이브리드 등임
- 소프트웨어, 바이오제약 등을 중심으로 투자 단행
- *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유니콘(10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의 기업 가치)이라 불리는 기업이 135개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볼 때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기 위해 평균 5~7년이 소요

□ 끌어주고 밀어주는 미국 창업 생태계

- 미국은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창업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음
 - 엑셀러레이터는 통상 3~6개월의 진행기간 동안 선배 창업자, 투자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디어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유치 방법 등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음
 - 창업자들은 사업개발 등에 있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미국 유니콘 기업들의 공통점으로는 성공적인 창업 경험 보유 여부,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와의 끈끈한 관계를 들 수 있는데,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액셀러레이터를 통하여 탄생함

□ 한·미 창업 지원 기관 협업을 통한 교류 추진

- 한·미 창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 해외진출, 공동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동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개발
 - 양국의 창업 지원기관이 자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유치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
 - 자력으로 경쟁률 높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뚫고 선발된 한국 국적의 창업가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현지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
 - * SendBird(메시징), 미소(홈클리닝), Simple Habit(명상앱), Memebox(뷰티플랫폼) 등
 - 반대로 미국의 창업가가 우리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법인 설립, 사무실 지원 등 KOTRA의 투자유치사업 활용) 우리나라 창업가와와의 공동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육성
 - * 뉴욕 한인 창업가들의 모임인 KSE(Korea Startup Entrepreneurs)와 연계 가능

마. 셰일자원 개발 협력을 통한 진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은 세계 제1위 에너지 생산·소비·수입 국가이자 세계최고의 에너지 기술 보유국가
 - * 에너지 기술 및 노하우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 필요
- 셰일자원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기술 등 신기술 개발, 대량 부존, 낮은 탐사 위험 등의 이유로 셰일 자원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원유생산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필요
 - * 최근 원유생산 증가로 인한 수반가스 처리 문제로 일부 셰일회사들이 원유 생산량 조절 돌입
 - * 송유관 병목현상으로 인한 가격할인이 셰일회사들의 예상보다 낮은 실적으로 이어짐

□ 활발한 셰일자원 개발

- 셰일회사들, 자본투자비 확대에 주력
 - 셰일자원 개발은 대형 생산 설비, 시추공수가 많이 필요한 대규모 개발·생산으로 주변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가짐
 - 미국 셰일회사들은 2018년 자본투자비를 계획보다 증액하여 2019년 생산 증대를 위한 준비 작업에 투입할 전망
 - 2019년 후반 송유관 문제 해결로 수익성이 향상될 때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시추와 인프라 건설에 투자 계획
 - 퍼미안 분지 가스관 증설로 대 멕시코 PNG 수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 한·미 기업 간 제휴를 통한 시장기회 확보

-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
 -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력 확보 가능
 - 보수적인 업계 특징상 시장 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 방안 요구
 - 원유수송을 위한 인프라 관련 제품 수출 유망
 - 향후 원활한 원유수출을 위해서 수출인프라 개선 및 확장이 시급
 - 퍼미안 분지의 업스트림 개발속도에 비해 중류부문인 수송망·정제설비 개발이 지연되어 미드랜드(퍼미안 원유 허브) 지역의 원유가격과 휴스턴 지역 원유가격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2019년 말까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임
- * Midland와 Houston 원유 가격 차이: (2018년 1월) 2.50달러/b ⇒ (2018년 5월) 14~15달러/b

바. 첨단산업 분야 미국의 중국 경제를 기회로 활용한 시장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전역의 차세대 5G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
 - * 소형 셀룰러 전송기, 백팩 크기의 기기 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5G 인프라의 핵심 기능이 될 것
 - *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분야 혁신에 따른 5G 필요성 증대
- 미국 첨단 산업은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상황
 - * 기업,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SSD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미 테크 산업에 삼성 및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개발 및 생산하는 반도체가 핵심적 역할
- 첨단 산업과 관련, 미국의 중국 견제가 한국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

□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무선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장비 시장 진출 추진

- 0.001초의 정보처리 시간
 - 기존의 4G의 실시간 정보처리 시간이 0.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5G는 4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보유함
 - 대용량 콘텐츠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핵심 기술인 다중안테나는 5G 축진의 필수 요소가 될 것
- 다양한 기술과 결합이 가능한 5G
 - 센서를 통해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자율주행차량은 빠른 정보처리 속도가 핵심이며 5G를 활용한 대표적인 품목
 - 다량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은 드론, AI, 지능형 로봇 등의 기술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 (반도체) 미-중 추가관세 조치에 따른 시장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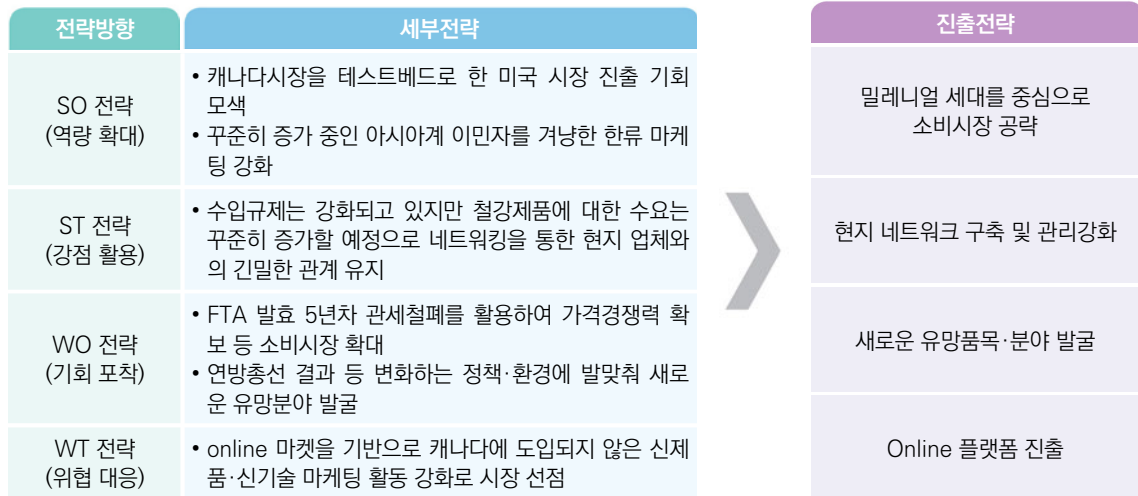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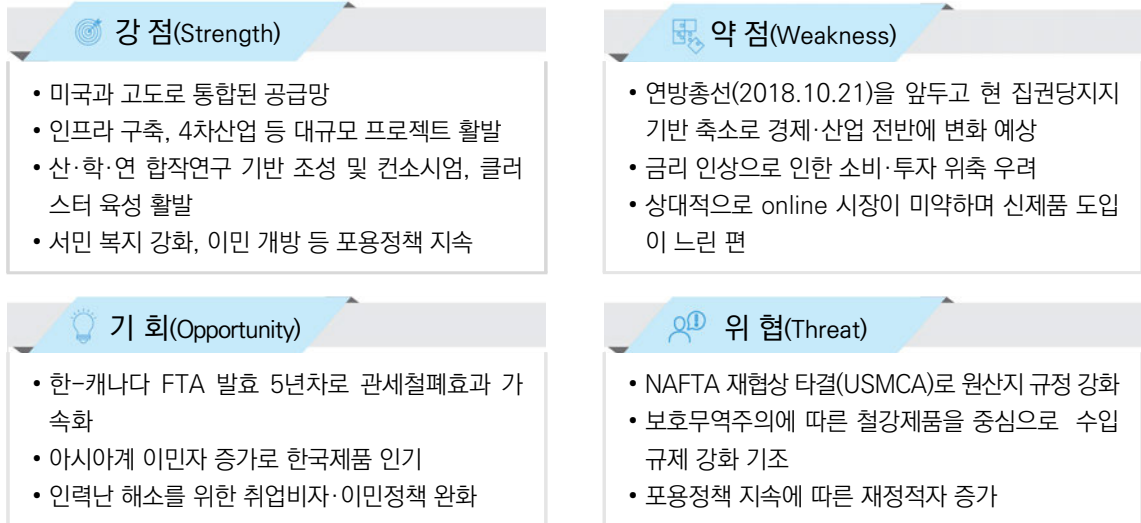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DRAM 등 주력 상품의 꾸준한 수요 증대 예상
 - 시장 지배력이 큰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텔-칭화유니그룹이 협력해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 생산 및 판매 적극 나섬
 - 하지만 미-중 통상분쟁이 이어지면서 미-중 기업 간 협력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미-중 통상분쟁을 기회로 활용한 한·미 기업 간 교류 확대 추진

-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첨단 산업과 관련,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중 기업 간 협력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함
 - 새로운 협업 파트너를 찾고 있는 미국 기업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미 첨단 산업 분야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캐나다 진출전략

이슈·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통상환경의 변화	① 한-캐나다 FTA 특혜 활용 • 시장개방, 공공조달 진출 및 인적교류 확대 가능 ② 중국산 원자재 수입 캐나다 업체 집중 공략 • 캐나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대체 거래선 발굴 본격화
교통인프라 공공 조달시장 확대	③ 현지 유력업체 활용한 경쟁우위 확보 • 진출초기 '다국적 컨소시엄'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이후 자사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④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기술 협력 기회 •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 중·장기적 안목 필요 ⑤ 인공지능 등 혁신분야 상용화에 따른 스타트업 진출 가능성 모색 • 비용, 제도적 측면에서 진출여건 유리
신재생 에너지 관심 증가	⑥ 캐나다 대서양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활발 • 현지정부기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추세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대서양 연안지역 진출
협업을 통한 기회 창출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 가능하도록 캐나다 기업과의 협력 관계 증진

가. 한-캐나다 FTA 특혜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 *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여타 경쟁국에 비해 시장선점에 유리한 위치 확보
 - *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캐나다 또한 한-캐나다 FTA를 활용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한국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Korea Tariff) 적용
 - 2024년까지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품목 수 기준, 3년 내 관세 철폐 비율이 93.2%로, 한-미 FTA(59.3%)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 2018년 3월 서울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성과평과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
 - * 즉시~3년 내 철폐된 품목은 자동차·부품, 가전제품(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냉장고), 화장품 등
- 관세 이외 중요하게 봐야할 한-캐나다 FTA 활용 가능 분야
 - 외국기업이 입찰 가능한 최저 계약금액 기준을 WTO 정부조달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보다 하향조정해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분야 등 전문 직종 자격 상호인정협정 추진 중으로 향후 전문직군 노동시장 영향평가(LMIA) 면제 등 취업비자 발급이 간소화될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조명(LED), 타이어, 알루미늄 자재, 가공식품(소스, 음료), 화장품 등
- 진출전략
 - 발효 5년 차에 접어드는 2019년도에는 특혜품목이 늘어나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 제품 등이 정부조달 시장진출 유망품목

나. 캐나다의 복잡한 통상환경 속 틈새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전망
 - *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오던 캐나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수출을 위해 신규 거래선 발굴 작업 중
 -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율이 높은 품목 눈여겨보아야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업체
 - 캐나다산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시, 제품의 일부분이 중국산일 경우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중국 원자재·중간재 수입에 위험요인 존재
 -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해 기존 중국과의 거래를 한국업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포착
 - * 거래선 교체를 위해 토론토무역관으로 접수된 바이어 문의 품목: 자동차부품(플라스틱 사출금형), 플라스틱 포장지 및 필름, 철강(강판), 중장비용 유압실린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중장비 건설기계, 소비재, 섬유
- 진출전략
 - 향후 거래선 변경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캐나다 바이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강화
 - 자동차 부품의 경우 향후 1년 정도의 재고수입이 완료돼 현지점에서는 수요가 없을 수 있으나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혜품목이 될 수 있으니 예의주시

다. 정부주도의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 증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주요도시의 기반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절실
 - * 전체 인구의 82.2%가 소수 거점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증가로 인한 주요도시 기반인프라 부족문제 심각
- 연방·지방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 대형 공공인프라 사업 발주에 따른 건설사업 확대와 철강, 기계류 등 관련 인프라 수입수요 증가로 한국기업의 캐나다 인프라 시장 진출확대 견인
 - * 경전철, 항공, 항만 사업 모두 공공발주사업으로 대부분 대규모 건설용역 및 물품구매 사업이 병행 추진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캐나다, 2017년 국가 인프라 경쟁력 23위로 전년대비 두 계단 하락
 - 캐나다의 사회기반설비(대중교통, 도로, 항만, 공항 등) 경쟁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열악하고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개선 노력 시급

- 이민자 급증에 따른 인구증가 및 도시화 현상 가속으로 인프라 부족문제 심각
 - 경전철, 도로, 항만 등 운송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 집중 전망
 - 2019년 이후 관련 산업에 정부주도 공공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
 - * 다만, 사업별 자국기업 참여우선 등 제한요건 있을 경우, 해외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측정기기 등
- 진출전략
 - 캐나다 공공인프라 시장은 여전히 우리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현지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업체 간 컨소시엄은 비용감소 및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진출 초기에는 현지 유력업체를 활용한 간접진출 방식이 효과적
 - 이후 지사설립 등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현지 조달 시장의 직접 공략도 가능

라.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 협력 기회 포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진출 여건 양호
 - * 캐나다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경쟁력 5위 규모로, 특히 상용기의 경우 세계 3위 기록
 - *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모두 캐나다 동부(온타리오 주, 퀘벡 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 * 두 분야와 IT기술을 융합한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 활발하게 진행 중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함
 - * 항공우주기업 Thales는 2017년 몬트리올에 인공지능(AI) 연구소를 개소
- 한편,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 부문도 우수한 경쟁력 보유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소기업과 대형 기업이 공존하는 항공우주산업 시장
 - 완제기 제조사(OEM) 및 Tier 1급의 대형 업체와 Tier 2, 3 수준의 중소기업체들이 전체 시장 구도 형성
 - Tier 1 및 2 업체들은 주요 부품 설계 및 개발, 생산을 담당하고, Tier 3 업체들은 개별 부품 제작

- 캐나다 바이오 제약회사, 종양(Oncology) 치료물질 개발에 강점 보유
 - 전체 신약개발의 40%가 종양 치료물질에 집중
 - 이외 중추신경질환(Central nervous systems disorders), 감염·염증, 당뇨, 심혈관질환 등을 중심으로 치료물질 개발이 활발함
 - 한편, 다국적 제약사와 현지 기업간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관계를 형성해 신약개발 외 주가 확대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항공기 부품, 의약품, 보청기, 줄기세포 관련 제품, IT 소프트웨어 등
- 진출전략
 -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Tier 1급의 업체와 협력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공, 조립, 금형 분야에 집중하는 한국기업은 우선 Tier 2, 3급의 현지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 필요
 - 생명과학 분야에는 중소기업의 바이오 제약회사들 많기 때문에 연구외주, 서비스 용역 등이 가능할 전망
 - 또한, 로봇 등 첨단기술이 항공우주산업과 생명과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공동 연구개발, 투자합작 등 중·장기적인 협력방안 모색

마. 인공지능 등 혁신분야 상용화에 따른 스타트업 진출 가능성 모색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
 -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정보보안을 중심으로 기술력 우수
 - *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 세계적 기업들이 캐나다 내 연구소를 잇달아 개소하는 추세
 - * 현재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며 기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과 지원 확대 추세
 - * 2016년 혁신분야 지원관련 전담기관(Innovation Canada)을 설립하고,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과 비교 시 비용과 제도적 진출여건 양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4차산업혁명 조기실현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 및 산·학·연 협력
 - 지역별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 온타리오 주는 인공지능, 첨단제조업, 자율주행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퀘벡 주는 인공지능과 항공우주 연구개발, 서부 지역은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는 양상
 - 또한, 주요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연구개발 추진 중으로 토론토 대학교(인공지능), 맥길 대학교(로보틱스), 워털루 대학교(자율주행차)가 분야별 가시적 성과를 창출
- 스타트업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 창업자 유치(모집)를 위해 2014년부터 캐나다 이민부에서 시행 중
 - 정부가 공식 지정한 주요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이 확정된 경우, 스타트업 비자 지원 후 장기체류 가능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정보보안
- 진출전략
 - 혁신기술을 가진 양국 스타트업 간 기술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
 - 현지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여 및 데모데이 개최
 - 진출여건이 양호한 캐나다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 진출 기회까지 모색

바. 캐나다 동부 지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캐나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 상승
 - * 기존 온타리오 주에 집중돼 있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온타리오 주 정권 교체에 따라 축소됨
 - * 반면, 온타리오를 제외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진출 기회 증가
 - * 현지 정부기관은 한전, 삼성물산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강화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온타리오 주, 신재생에너지 산업 둔화 불가피
 - 온타리오 주총선(2018.6.7)에서 보수당 승리로, 前집권당인 자유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 타격 전망
 - 보수당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758건을 모두 취소하는 등 정책 변화 예고

- 한편 캐나다 동부인 대서양 연안지역(Atlantic Provinces)*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 양상

* 뉴브런즈윅(NB, New Brunswick), 노바스코샤(NS, Nova Scotia),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FL, Newfoundland and Labrador),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Prince Edward Island) 주를 의미

- 최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주 등 캐나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캐나다 대서양 연안지역(Atlantic Provinces) 공략 필요
 - 삼성물산이 추진 중인 PEI 주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업 등을 통한 진출 가능성 존재
 - 특히 PEI 주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한-캐나다 협정을 활용 한 과학기술분야 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캐나다 정부
 - * 혁신 슈퍼클러스터 이니셔티브(Innovation Superclusters Initiative), 사업자 선정발표 등 본격적인 활동 시작
 - *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활용하면 시장진출 기회 확보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로의 발돋움을 위해 막대한 자본 투입 전망
 - 한국과 캐나다는 2016년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2017년 제1차 한-캐나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
 - 캐나다의 환경자원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예정
 - 또한 캐나다는 과학기술분야 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슈퍼클러스터 이니셔티브(Innovation Superclusters Initiative)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
 - * 2017년 5월 동 계획에 대한 투자 규모(C\$ 9억 5,000만)를 발표했으며, 2017년 7월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수혜업체 5곳 선정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ICT, 항공·우주, 에너지, 생명과학
- 진출전략: 시장이 확장되며 기업 간 협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양국 간 체결 협정을 기반으로 캐나다 정부 프로젝트 등에 현지 업체와의 공동 참여 기회 모색

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캐나다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 중
 - * 스마트시티는 4차산업혁명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착수
 - * 연방정부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주요도시에 10년간 자금을 지원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첨단기술 도입에 국가재정 집중
-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도 발표됨
 - * 사이드워크랩스사는 토론토 시정부와 함께 사이드워크 토론토(Sidewalk Toronto) 계획 공식 발표
 - * 북미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토론토 남동부 지역에 건설 예정
- 정보 관리, 폐수 처리 기술 분야의 수요 확대 기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연방정부와 사이드워크랩스는 각각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
 - 연방정부는 스마트시티 계획안(Smart City Challenge Initiative)을 바탕으로 주요도시에 10년간 총 C\$ 3억(약 2,626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이와는 별개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 도시개발 기업인 사이드워크랩스는 사이드워크 토론(Sidewalk Toronto)를 공식화하였으며 2020년 착공 예정
 - 캐나다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효율성 증진,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 기대
- ICT 생태계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등 산·학·연 협력 강화 추세 및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캐나다 4차산업 관련 투자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분야의 하드·소프트웨어, IoT, ICT
- 진출전략
 - 대기업 주도의 컨소시엄 참가로 해외시장 동반진출 도모 및 국제공동연구, 협력 등을 통한 기술개발 기회 포착
 - 캐나다 ICT 업계의 경우 소프트웨어 위주로 발전해 우리 기업들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혁신기술 상용화를 중점으로 진출 도모
 - 한-캐나다 FTA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C\$ 10만 이상의 캐나다 연방정부 물품 및 서비스 조달에 참여 가능하므로 연방정부 공공조달 프로젝트 또한 눈여겨봐야 함
 -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4차산업의 경우 창업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스타트업으로의 진출에도 유리한 편

다. 캐나다 LNG 터미널 프로젝트 추진 박차로 기자재 수요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향상
 - *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기업 현금흐름 개선 및 아시아 국가의 LNG 수요 증가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
- 우리 기자재기업 진출뿐 아니라 국가의 중기적 에너지 수급전략으로 활용 가능
 - * 수요처 확보가 중요한 캐나다와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국,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국가의 LNG 수요 급증
 - 중국은 정부의 탈 석탄 에너지 정책,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으로 LNG 수요 급증하는 추세
 - 2017년 중국 LNG 소비량은 전년대비 15.3% 증가했으며 2017년 LNG 차량 또한 전년대비 40% 증가한 35만대를 기록
 -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LNG 수입량 59% 증가
 - * 중국은 현재의 천연가스 사용량(7%)을 2020년 10%, 2030년 1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20년엔 5천만 톤의 천연가스 수요 예상
 - * 중국 친환경 자동차 정책: 자동차 연료를 휘발유와 디젤에서 LNG로의 전환 추진
 -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2017년 기준 8,300만 톤 수입
 - 또한 일본은 최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타쿠마 리노 (Takuma Lino) 일본 에너지 경제 부국장은 캐나다산 LNG 구매의향을 시사함
 - * 일본의 LNG 주요 수입국: 호주(30%), 말레이시아(17.7%), 카타르(12%)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밸브류, 피팅류, 혼합기, 파이프류, 가스감지기, 열교환기, 고아펌프, 수처리 시스템, 굴삭기, 저장탱크 등
- 진출전략: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술력과 EPC* 기업들과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에서 진행예정인 프로젝트에 EPC 선정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장 진출
 - * EPC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부터 부품·소재 조달,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일괄 공급하는 것을 말함

(참고사항)

- 캐나다 진출을 위해서는 캐나다 광구보유에너지기업 및 EPC 내 벤더 등록* 필요
- 벤더 등록이 반드시 기자재 납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기자재 소싱시 오너 및 EPC 벤더 등록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기본 준비 사항임
- 한편, 캐나다 현지 수출업체는 장기계약을 선호하는 반면 아시아 수입업체는 단기계약을 선호해 장애요인 또한 존재
 - * 벤더 등록을 위해서는 오너, EPC 기준에 맞는 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실사, 품질테스트 등 약 1~2년의 기간 소요



미 국

로봇청소기	HS Code	8508.1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88	대한수입액('17/US\$백만)	1.09
	선정사유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을 이용한 제품들의 정밀도가 높아진 가운데, 로봇청소기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청소구역을 확장하고 효율적 동선을 짤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높아짐		
	시장동향	- 최근 미국 가정에서 천식과 알레르기 등 원인으로 먼지가 많이 생기는 카펫 대신 하드우드나 라미네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걸레 기능을 갖춘 로봇청소기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		
	경쟁동향	- 한국은 7위 수입대상국임에 비해 중국의 경우 생활수준 향상으로 로봇청소기의 내수시장 선전을 바탕으로 ECOVACS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점유율이 74%에 육박함		
	진출방안	- IBIS World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형가전제품의 소비자들은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 좋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함		
미용기기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7,285	대한수입액('17/US\$백만)	162
	선정사유	-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동세안기기, 트리머 등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 미용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됨		
	시장동향	- 2017년 가정용 미용기기 판매는 약 1억 5천 2백만 대가 판매되면서 판매 안정세를 유지함. 2022년까지 연평균 1%의 성장이 예상됨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미국의 가정용 미용기기를 포함한 기타기기의 수입액은 약 73억 가량으로 2016년 대비 0.8% 증가함.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7년 1억 6,200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7.7% 감소, 일본, 대만에 이어 전체 7위를 기록함		
	진출방안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중요한 유통 및 마케팅 수단이 될 것임. 유명 대형 마트로의 진출보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전략은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		
5G 통신장비	HS Code	8517.6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2,778	대한수입액('17/US\$백만)	127
	선정사유	- 늘어나는 데이터 이용량을 수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IoT 등 새로운 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G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술 표준화와 개발이 활발한데, 5G는 통신사들에게는 마케팅 도구가 되고, 통신장비 제조사에는 생존의 수단이 되며, 콘텐츠 업체와 가전, 자동차 등의 사물 인터넷 업체들에게는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		

	시장동향	- 시장조사업체 IHS Markit에서는 2018년 3월 글로벌 모바일 통신 기반시설 분석에서 2G/3G/4G LTE/5G 하드웨어 매출은 2022년 까지 2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또한 5G의 하드웨어 매출은 2022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5G 도입에 뒤이어 2019년 한국과 중국의 5G 상용화로 하드웨어의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들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분석함		
	경쟁동향	- 중국의 경우 관련 산업 수입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2018년에는 47.74%로 절반에 육박하였고, 이는 미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생산을 아웃소싱하여 비용절감을 꾀하기 때문임 - 주요 기업으로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진출방안	- 미국 시장은 국토면적이 넓어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미국에서는 FWA 기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5G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될 것 - 중소기업은 대기업, 정출연 등과 특허관련 협력 계약을 맺고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의 특허를 발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함		
3D 프린터	HS Code	846390	수입관세율(%)	4.4 (한국 무관세)
	수입액('17/US\$백만)	2017/\$103,419 (천 달러)	대한수입액('17/US\$백만)	2017/ \$ 1,012 (천 달러)
	선정사유	- 2017년 미국 3D 프린터 제조 시장 총 규모 30억 달러 - 연간 7.8%의 성장률과 함께 2022년 43억 달러 시장 규모 전망		
	시장동향	-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한 산업 중 자동차 산업이 가장 눈에 띈. 기존 부품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볼트가 필요했지만 적층 (Addictive Manufacturing) 방식인 3D 프린터의 특성상 크기와 형태에 관계없이 일체형 부품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품 수 감소, 원가 절감 및 자동차 무게 감량에 큰 역할을 차지. 이에,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 - 이 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간편히 제품을 설계한 후 3D 프린터로 즉각적인 제작이 가능해진만큼 기존 대량 생산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부품 제작 수요가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 주요 3D 프린터 기계 제조업체 중 Stratasys Ltd가 16.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3D Systems Inc 8.9% 및 기타 74.4% 임 - (Stratasys Ltd) Stratasys 의 3D 프린터는 항공 우주, 방위, 자동차, 의료, 교육, 건축, 소비재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향후 5년간 Stratasys 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3D Systems Inc)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3D Systems는 미국, 유럽 및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D Systems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18.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진출방안	- 3D 프린팅 기술 활용 시 즉각적인 부품 생산 및 소량 생산이 가능함으로 기존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 구매자의 기호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커스텀 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다가 올 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기존 3D 프린터 소재는 금속, 플라스틱 및 고무에 국한되어 왔음. 활용 가능한 소재가 다양해질수록 3D 프린터 시장은 응용 분야 다각화가 가능한 블루오션임에 따라 적극적인 소재와 프린팅 기법 개발로 시장 선점		

에너지저장시스템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3.5 (한국 무관세)
	수입액('17/US\$백만)	2017/ \$ 6,831 (백만 달러)	대한수입액('17/US\$백만)	2017/ \$ 1,009 (백만 달러)
	선정사유	- 2019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 12억 달러 전망 - 2017년 431 MWh 규모의 에너지저장 장치에서 2018년 1,233 MWh 규모로 확대될 전망		
	시장동향	- 최근 美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는 에너지저장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저장된 전력의 단가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 규모 (100KW를 초과하지 않음)를 책정함으로써 미국 전역에 ESS 수요 확대에 기여 - 미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크게 BTM (Behind The Meter, 소비자 측)과 FTM (Front The Meter, 전기공급자 측) 시장으로 구분됨. ESS-FTM이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일반 가정 및 산업에 ESS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미래 ESS-BTM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들이 ESS를 설치함으로써 수동적 에너지 소비에서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 소비, 판매, 저장이 가능한 능동적 에너지 소비로 전환되는 만큼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 기대 * DTE Energy 는 미시간 최대 전력공급회사로 2050년까지 40%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전망		
	경쟁동향	- 에너지 저장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는 스위스의 ABB, 한국의 LG Chem과 Samsung SDI, 일본의 NEC, Panasonic 및 Hitachi, 미국의 Tesla, General Electric, 독일의 Siemens, 네덜란드의 AEG Power Solutions가 있음. 미시간 주에서는 국내기업의 진출이 특히 활발		
	진출방안	-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ESS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한 美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지투자 및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제휴 등 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업체들의 현지화 전략 수립 필요 - 에너지 산업은 각 나라별 정책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에너지산업 정책, 입찰과정, 현지 조달법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제품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성능 인증 서류가 있는지 파악 - 각종 전시회 참가는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알리고, 현지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치과기공장비	HS Code	90184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852	대한수입액('17/US\$백만)	20
	선정사유	- 인구 증가, 기술 진보, 구강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로 성장하는 시장		
	시장동향	- 치과 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65세 이상 미국인 인구 증가로 인해 꾸준히 성장		
	경쟁동향	-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의 대미 치과기공장비 수출이 높음		
	진출방안	- 미국 현지에 판매 법인이 없을 경우 바이어 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고려		

	액정보호필름	HS Code	702000600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7,082	대한수입액('17/US\$백만)	159
	선정사유	- 스마트폰 사용자의 약 80%, 보호 케이스를 구매, 스마트폰 보유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2025년까지 미국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은 연평균 12.86%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66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은 지난 3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현재 일본, 대만에 이어 대미 수출 7위를 기록			
	진출방안	-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액정보호필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			
	보안카메라	HS Code	8525.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970	대한수입액('17/US\$백만)	66.52
	선정사유	-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한 보안카메라를 사용해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고화질 - 영상 촬영이 가능해지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어디서든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IP 카메라가 영상보안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됨			
	시장동향	- 미국 가정용 보안카메라 시장에서도 IP 카메라를 이용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스마트홈과 결합하여 종합적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			
	경쟁동향	- 아마존이 Ring을 인수하고 구글이 Nest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홈 생태계 조성에 보안카메라 시장이 중요해짐			
	진출방안	- 미국 스마트홈 보안카메라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최대 장점이므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보안카메라의 하드웨어에서는 대부분 대동소이, 다만 영상 저장용 클라우드 제공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용이성과 디바이스의 가격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보안카메라 시장 진입의 관건			
	전기오븐 및 조리용 기기	HS Code	8516.6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348.5	대한수입액('17/US\$백만)	76.95
	선정사유	- 한국산 제품의 2017년도 대미수출 12.2% 증가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자 하는 트렌드가 수요 증가로 연결. 조리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영양분을 파괴하지 않는 기능성 제품들이 인기			
	시장동향	- 미국의 주방용품 및 조리기기 오프라인 판매는 약 169억 달러로 집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3.8%씩 성장. 온라인 판매는 41억 달러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6.9%씩 성장. 미국에서도 기존의 가스레인지로 인덕션 등 전기 레인지로 교체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세계적인 가전제품 생산기업인 GE, Electrolux, Whirlpool 등이 진출해 있으며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은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으로 미국의 주요 household brand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진출방안	- 미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Energy Star 인증 획득이 중요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홈 트렌드에 따라 고기능의 스마트 조리기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음. 원격 조정으로 온도 및 전원 제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이 높은 제품으로 시장 진출을 꾀해야 할 것			

운동화	HS Code	6404.19	수입관세율(%)	0~37.5
	수입액('17/US\$백만)	3,927.0	대한수입액('17/US\$백만)	25.46
	선정사유	- 미국의 운동화 수입은 2017년 기준, 약 39억 3,09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07% 증가. 한국산 제품의 2017년도 대미수출 269.18% 증가		
	시장동향	- 미국 패션 시장에서 애슬레저(Athleisure) 트렌드가 인기를 끌면서 운동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 일상생활에서도 장소나 복장에 구애 받지 않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한 운동화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경쟁동향	- 운동화 전문기업인 Nike, New Balance, Red Wing, Converse 등이 시장 선도. 그 외 다양한 패션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운동화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		
	진출방안	-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켜 개성 있는 스타일 연출을 희망하는 미 소비자들의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로 가격에 민감한 미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함		
아스팔트	HS Code	2714	수입관세율(%)	무관세
	수입액('17/US\$백만)	2017/ \$ 84,376 (천 달러)	대한수입액('17/US\$백만)	2017/ \$ 6,856 (천 달러)
	선정사유	- 2022년 미국 아스팔트 시장 규모 260억 달러 전망 - 미시간 정부, 공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8억 달러 투자		
	시장동향	- 2017년 미국 아스팔트 시장 총 규모는 250억 달러로, 미국 경제 회복에 힘입어 향후 5년간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 0.5%의 상승률을 보이며 2022년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McKinsey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인프라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2%인 것으로 나타남		
	경쟁동향	- 주요 아스팔트 생산 기업으로는 Owens Corning 및 CRH plc 있으며, Owens Corning 이 8.8%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Owens Corning) 미국 오하이오 주 Toledo에 본사를 두고 있는 Owens Corning사는 2016년 기준 57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아스팔트 생산 기업임 Owens Corning사의 제품은 Trumbull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 (CRH plc)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있는 CRH Plc사는 전세계 31개국에서 활발히 영업 중임. 특히, 미국에는 43개 주에 걸쳐 총 1,200곳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4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주력 제품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미국 고속도로 유지 보수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진출방안	- 도로 포장공사 업체들은 각 주가 발주하는 도로 개선 사업 프로젝트에 입찰서류 패키지를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됨 * 도로 공사를 주관하는 미시간 교통부 MDOT(Michiga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www.michigan.gov/mdot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 참조 - 품질 좋은 아스팔트 개발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주행과 도로 보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미국은 강도, 내열성, 탄성, 유연성, 내구성을 향상시킨 아스팔트 개발을 통한 도로 개선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물 음료 (Flavored Water)	HS Code	2202.10	수입관세율(%)	0.2 cent/liter (한미FTA 무관세 적용)
	수입액('17/US\$백만)	2,344.4	대한수입액('17/US\$백만)	10.09
	선정사유	- 미국의 향이 가미된 물 음료(flavored water) 시장은 2017년 기준, 30억 1,980만 달러 규모로 집계, 전년대비 12.7% 성장. 2022년까지 연평균 약 8.3% 성장 전망. 한국산 제품의 2017년도 대미 수출 68.52% 증가		
	시장동향	- 건강에 대한 미 소비자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음료도 인기 증가 추세. 비타민 등 건강적인 요소가 추가되거나 과일향 등이 가미된 물 음료들이 탄산음료를 대체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인 Nestle, PepsiCo, Coca-Cola 등의 시장 선도. 유기농 식재료 및 건강 전문 식품 브랜드들의 틈새시장 진출도 눈에 띄고 있음		
	진출방안	-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한 투명 용기나 향을 사용한 과일이나 야채 용기 포장 등 웰빙 열풍에 맞는 제품 포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아야 함. 새로운 맛과 향에 도전해보기를 좋아하는 젊은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셜 인플루언서 또는 소셜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전략 필요		



캐나다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586.4	대한수입액('17/US\$백만)	42.5
	선정사유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한수입규모 지속 증가 - 한-캐나다 FTA 발효 3년차인 2017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 - 한류 열풍에 따른 K-Beauty에 관심도 상승		
	시장동향	- 재생효과, 주름제거 등 다기능과 편의성 강조한 제품 인기 - 천연소재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 - 독특한 디자인(예: 동물 모양 마스크 시트)과 틈새시장 공략한 제품 등 신선한 아이디어 인기 - 가구소득의 증가로 프리미엄 색조 화장품에 대한수요 증가		
	경쟁동향	- 2017년 캐나다의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US\$ 15억 8,640만 기록 - 주요 수입국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이며, 미국이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58.1%) 차지 - 대한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국 중 6위(US\$ 4,250만)로, 최근 3년간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시장점유율 확대 기록 중		
	진출방안	- 제품 세분화와 기능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집중 공략 -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677	대한수입액('17/US\$백만)	18.9
	선정사유	- 캐나다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80%는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진출 가능성이 큼		
	시장동향	- 전체 시장규모는 약 US\$ 67억 추정 - 의료기기 중 특히 치과용 드릴, 인공관절, 보청기 등이 유망품목 - 시장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진단 이미징 장비, 소모 의약품 분야		
	경쟁동향	- 3대 수입국으로는 미국, EU, 중국 - 독일을 포함한 유럽산 제품의 경우 가격이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로 시장수요가 큰 편		
	진출방안	- 캐나다내 브랜드 인지도, 제품에 대한 평가 및 품질 등이 중요함으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고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의료기기 품질평가제도가 2019년부터 변경될 예정으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함		
RTD 커피	HS Code	210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87.4	대한수입액('17/US\$백만)	1.2
	선정사유	-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2017년 캐나다 1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6.2kg로, 전 세계 소비량 기준 10위 수준 - RTD* 커피는 간편함과 휴대성으로 바쁜 현대인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시장동향	- 2017년 캐나다 RTD 커피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 급증한 C\$ 8,400만 (약 708억 7300만 원) 기록		

	경쟁동향	- 2017년 캐나다의 RTD 커피 수입액은 전년 대비 5.15% 감소한 C\$ 1억 3,739만(약 1,202억 원) 기록 - 캐나다의 커피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라질, 독일, 콜롬비아, 헝가리 등 - 2017년 캐나다의 대한 커피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64.5% 증가한 C\$ 116만(약 10억 원) 기록 - 이는 최근 10년 간(2008년~2017년) 연도별 최고 수출액이며, 캐나다 내 아시아계 인구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진출방안	- 한국산 RTD 커피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도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편임 - 우리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 노력과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필요 - 현재 RTD 커피 시장은 Starbucks, Nestlé 등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이상의 시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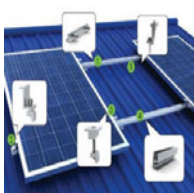
주: RTD 커피는 별도 HS Code가 없는 관계로 수입통계 등 자료는 일반 커피 HS Code로 집계

* RTD(Ready to Drink) 커피: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캔, 컵, 병 등의 형태로 된 커피를 총칭

유기농 음료	HS Code	2201, 220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957	대한수입액('17/US\$백만)	6.8
	선정사유	- 음료시장은 지난 6년간 5%대 안정적 성장 지속 - 특히 건강음료, 커피음료, 탄산수 등 이색음료 소비량 증가로 음료시장 확대 전망		
	시장동향	- 캐나다 전체 음료시장규모 약 US\$117억 - 소매점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72% 이상 차지 - 판매량은 주스, 판매성장률은 커피음료가 최고 - 이색 웰빙 건강음료 판매가 크게 늘면서 향후 시장 확대 견인 기대		
	경쟁동향	- 미국이 전체 수입의 76% 이상을 차지하나, 최근 판매 성장률 감소세 - 다음으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이 주요 수입처 - 대한 수입액은 US\$ 681만으로 최근 3년간 18.1% 증가		
	진출방안	- 소비자의 시각을 사로잡을 창의적 디자인과 포장에 주력 필요 - 가능하면 제품용기 포장 및 라벨 모두 현지 시장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 유리 - 아울러 시장진출 초기 단계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시음행사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필요		

주: 유기농 음료는 별도 HS Code가 없는 관계로 수입통계 등 자료는 일반 음료·차 기준 집계

신발	HS Code	6401~6405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388.4	대한수입액('17/US\$백만)	2.4
	선정사유	- 2017년 캐나다 신발 소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6% 성장한 C\$ 78억 4,050만(약 6조 8,281억 원) 기록 - 캐나다 신발 시장은 향후 2022년까지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시장동향	- 2017년 기준, 여성화의 매출이 캐나다 신발 시장 매출의 절반(51.9%) 이상을 차지 - 캐나다달러 약세로 인한 해외 관광객들의 소비 확대		
	경쟁동향	- 2017년 캐나다의 신발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4% 증가한 US\$ 23억 8,844만 기록 - 캐나다의 주요 신발 수입국은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 2017년 캐나다의 대한 신발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03.29% 증가한 US\$ 240만 기록		

	진출방안	- 저가 시장은 이미 중국, 베트남 등 저임금 국가의 제품이 지배하고 있어 한국산 신발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 우리 기업은 캐나다의 웰빙 트렌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 등을 고려한 기능성 신발이나 등산화 등 고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알루미늄 구조물 및 부분품	HS Code	761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48.2	대한수입액('17/US\$백만)	14.3
	선정사유	- 2017년 캐나다의 대한 알루미늄 구조물·부분품 규모는 전년 대비 108.8% 증가한 US\$ 1,425만 기록		
	시장동향	- 이민자 인구 유입 증가, 저금리 정책 장기화, 건설시장 호황에 힘입어 주거용 건축자재 수요 확대 - 또한 최근 루프탑용 태양광에는 대부분 알루미늄을 활용하고 있으며, 육상 태양광에서도 알루미늄 구조물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경쟁동향	- 2017년 캐나다 알루미늄 구조물·부분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4.2% 성장한 US\$ 3억 4,821만 기록 - 캐나다의 주요 알루미늄 구조물·부분품 수입국은 미국, 중국, 네덜란드, 한국, 멕시코 순임		
	진출방안	- 주택 개발 지역이나 인구 밀도 또는 이민자 유입이 높은 지역을 파악해 시장우위 선점 필요 - 주요 경쟁제품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 내 반덤핑 수입규제가 강화기조가 한국산 알루미늄 구조물에 호조로 작용할 전망 -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 가능성 모색		



미 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선정사유	-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6,307억 달러 규모로 집계. 전년대비 4.6% 성장함 2021년까지 약 8,0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시장동향	- 유튜브를 포함 각종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K-pop, K-drama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류 열풍과 함께 한류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높으며 방탄소년단 BTS의 활동이 특히 눈에 띄고 있음. BTS는 지난 9월 5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국 그룹 최초로 '2018 아메리칸 뮤직어워즈' 후보에 오름
	경쟁동향	- 다양한 미국의 팝 아티스트 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 유명 뮤지션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이 미국시장에서 활동 하고 있음. 미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는 할리우드에는 주요 영화 제작사들인 Sony Pictures, Fox Entertainment, Universal Studios, Warner Brothers 등이 위치해 있음
	진출방안	- 한인 최대 밀집 거주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교두보로 미국 시장 진출 가능. CJ ENM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류 페스티벌인 KCON이 2012년부터 7년째 개최되었으며 2018 KCON에는 약 9만 4,000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하여 한류 열풍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 K-pop 분야에서는 '한류=아이돌'이라는 공식을 깨고 더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뮤지션들의 미국 진출 및 활동이 기대됨. 세계 시장에 맞는 음악성을 기반으로 확실한 정체성과 차별화로 개성 있는 매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함
 콘텐츠(영화)	선정사유	- 2018년 미국의 영화 시장 규모는 약 320억 달러로, 향 후 5년간 연간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61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시장동향	- 미국 영화산업이 전 세계 영화산업 매출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개봉 편수 비중도 타 국가 대비 압도적이며, DVD, 케이블 TV, 넷플릭스, 유튜브 등 배급 창구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경쟁동향	- 미국 영화산업의 약 39.4%가 캘리포니아 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영화산업의 메카인 할리우드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주 정부의 세금혜택이 큰 영향을 미침. 또한, 주요 영화 제작사로는 The Walt Disney가 34.8%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NBC Universal Media 14.9%, AT&T 11.1%, Sony Corporation 9.7%, Viacom 6.5% 순으로 집계됨
 의료 산업	선정사유	- 2018년 미국의 의료 기기 시장 규모는 약 395억 달러로 집계됨
	시장동향	- 미국 연방 센서국은 17년 후인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7,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인구인 7,640명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미국 인구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 IBIS World는 미국 의료 기기 시장이 향 후 5년간 연간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의료산업의 선두기업들이 시장의 7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IBIS World에 따르면 Medtronic 40.2%, General Electric 20.0%, Abbott Laboratories 9.8% 및 Johnson & Johnson 5.5% 순임 * (Medtronic)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분자진단 및 분석시스템 등 500여 종이 넘는 제품을 전 세계 40개국에 판매 중 * (Johnson & Johnson) 세계적인 종합제약업체로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 관리제품 및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음
	진출방안	- 최근 각 주별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미국 내 의료산업 7위인 오하이오 주의 경우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각 주별 투자 유치 기관을 활용한 진출방안 수립 필요 * 3년 이내 최소 10개 일자리 창출 시 세금 공제 * 최저 임금보다 약 150% 이상 지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 공제 혜택 제공
 농업용 애플리케이션	선정사유	- 농업과 사물인터넷(IoT)이 결합한 스마트농업이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 미국 농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용 IoT 솔루션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40억 달러의 규모로 예측됨
	경쟁동향	- 대표적으로 CropX, TempuTech, CLAAS 등의 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센서와 각종 시스템, 드론 등을 활용하여 농업에 IoT를 적극 활용
	진출방안	- 업종에 특화된 참신한 기술 및 노하우를 가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농업용 IoT의 기반이 되는 대형 이동 통신사의 협력 가능성 높음
 서비스스크립션 (정기구독) 서비스	선정사유	- 간편하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삶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
	시장동향	- 과거 우유, 잡지 및 신문 등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가 꽃, 식품, 도서, 화장품, 와인, 의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경쟁동향	- 뷰티, 패션, 식품, 음료, 밀키트, 책, 반려동물 상품 등 다양한 상품 구성과 서비스가 경쟁하고 있음
	진출방안	- 정기구독 모델 활용을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군으로 서비스 확대가 가능. 또한, 정기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관련 앱, 프로그램, 제품 수출 등 다양한 진출 기회
 콘솔게임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 글로벌 게임시장의 경우 모바일게임분야가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콘솔시장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모바일게임의 점유율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
	시장동향	- 2017년 3월 닌텐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승부수로 가정용과 휴대용 게임기가 통합된 Switch를 출시해 10개월 만에 미국에서 480만 대를 판매함으로써 현재 Switch는 미국 콘솔시장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리는 제품이 되고 있는데, 타임지가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전자기기(The Top 10 Gadgets of 2017)'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아이폰X가 아닌 닌텐도 Switch로 이외에도 Switch는 2017년 게임계의 가장 큰 뉴스에 해당
	경쟁동향	- 소니 PS의 경우 GTA, FIFA, 콜오브듀티, 배틀필드 등 압도적인 게임 타이틀 라인업이 장점임.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는 하위호환, 하드웨어의 성능을 강점으로 북미에서 성과를 내고 있음 - 닌텐도 Switch의 경우 하드웨어 성능에서는 PS와 XBOX에 미치지 못하지만, 플레이 스타일을 자유롭게 전환(Switch)해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려 세계 시장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1,000만 대 이상 팔림
	진출방안	- 콘솔게임의 소프트웨어시장에서는 PUB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게임회사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우선 미국 유저들의 게임 내용과 그래픽 선호 성향을 파악해 현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미국 게임시장은 콘솔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어느 정도 개발력이 있고 해외 진출을 고려중인 한국 게임회사라면 PC나 모바일에 구동되던 게임 콘텐츠를 콘솔게임으로 확장하는 것도 좋은 전략

 증강현실(AR) 플랫폼	선정사유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전용기기가 필요한 것에 비해 AR은 별도의 기기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진입장벽 낮음
	시장동향	- 전자상거래(E-Commerce)에서 애플의 ARKit을 이용한 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사례가 점차 증가 - 이케아(IKEA), 아마존(Amazon), 로레알(L'Oréal), 세포라(Sephora) 등이 AR을 통한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중
	경쟁동향	- 애플의 ARKit, 구글의 ARCore, 페이스북의 Camera Effects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증강현실 생태계 조성 중이고, 미국 전자상거래의 일인자인 아마존에서도 애플의 ARKit을 이용하여 Amazon View를 내놓는 등 현재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오프라인 판매를 온라인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AR 기술 활용 모색
	진출방안	- 글로벌 IT 기업들이 일반 사용자에게 다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AR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바탕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같은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캐나다



요식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 2017년 캐나다 식품서비스 시장규모는 US\$ 681억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
- 현지 내 한식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향후 한식 프랜차이즈 유망

시장동향

- 캐나다 프랜차이즈협회(CFA)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2017년 4만 여개에 달함
- 특히, 요식업을 포함한 소비자 관련 가맹점은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의 약 30% 비중 차지
- 음료, 스낵, 커피, 피자, 스시 등 프랜차이즈 유행

경쟁동향

- 캐나다 내 한국계 프랜차이즈는 설빙, 엽기떡볶이, 마이마이치킨 등 다수

진출방안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식품 수요가 높은 핵심 도시 선정하여 가맹점 비용 등 창업비용 꼼꼼히 분석
- 현지 세법, 노동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 필수
- 식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도시의 바쁜 직장인을 위한 아침식사 대응 메뉴를 제공하는 전략 필요



유학·관광업

선정사유

- 캐나다 달러 약세화 (1 CAD = 856원)
- 도깨비 등 TV 방영 후 캐나다 인지도 급상승
-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2~3년) 부여 등 취업여건 양호

시장동향

- 2016년 기준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약 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고, 이중 50% 이상은 토론토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유학생과 관광객은 호텔, 식당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경쟁동향

- 중국, 일본, 베트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학원 증가

진출방안

- 캐나다 지사 설립 후, 한국-캐나다에서 공격적 마케팅 필요
- 주요 어학원 및 대학교와 파트너십 체결 필요
- 반대로 캐나다 내 K-Pop 및 한류열기를 활용하여 캐나다 유학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



디지털광고

선정사유

- 캐나다 전자상거래 시장성장에 따른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강화 필요
-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맞춘 디지털 홍보 투자 효과가 높을 전망

시장동향

- 옴니채널 마케팅과 더불어 온라인, 모바일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광고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
- 홈페이지 제작, 포털 배너, SNS 홍보, 인플루언서 등 기법 발전
- 팔로워 수가 많고 신뢰도가 높은 블로거, 유튜브 영향력도 확대

경쟁동향

-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광고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이외에도 캐나다에 위치해 있는 프로그래밍, 데이터처리 등 디지털 광고 스타트업이 많음

진출방안

- 디지털광고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로 취업 유망
-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SNS 기반의 인플루언서 활용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사이버 보안	선정사유	- 최근 캐나다 업체의 사이버 해킹 피해 사례 급증 -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응체계 및 보안수준은 여전히 미흡
	시장동향	- 2017년 캐나다 업체 10곳 중 9곳은 사이버 보안 피해사례가 최소 1건 이상 발생 - 매년 평균 450회 이상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당 복구비용은 C\$370만 이상 소요 추정
	진출방안	-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신기술 트렌드에 주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
 IoT 스마트 홈 구축	선정사유	- 캐나다 건설경기 호조세 지속으로 스마트 홈 구축 수요 증가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과 맞물려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대 예상
	시장동향	- 유망분야로는 IoT 기반 스마트 홈 네트워킹,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조명 등 - 올해 전세계 스마트 홈/빌딩 시장규모 US\$ 11억 9,000만
	진출방안	- IoT 지원 제품 개발 및 기술력 확보 - 현지 유틸리티 및 시스템 통합(SI)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미 국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담당무역관
1	세계 최대 소비재시장 타깃 수출 지원	• 가전용품 전시회 (IHHS) - 북미 최대 가전용품 전시회	3월/시카고
2		• GMDC 소비자 컨퍼런스 (1차/2차) - 소비자·유통산업 트렌드 대응	6월, 9월/LA
3		• 뉴욕한국섬유전 (KPNY) - 한국산 프리미엄 소재 전문 전시회	6월/뉴욕
4		• K-Beauty in New York - 한국 화장품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	9월/뉴욕
5	ICT 및 전자기기 트렌드 대응	• 라스베이거스 소비자전자 전시회 (CES) - 세계 최대 전자 및 가전기기 전시회	1월/LA
6		• 무선통신 전시회 (MWC) - 전세계 바이어 대상 모바일 기술 전시 및 트렌드 전망	10월/LA
7		• K-Global @ 실리콘밸리 - 미래 ICT 융합 디바이스산업의 기술/투자/수출 지원	11월/실리콘밸리
8		• KOR-US ICT Partnering - 한국 우수 솔루션의 미국 진출 지원	11월/달라스
9	전략품목 수출 지원	• 샌프란시스코 광학 전시회 (Photonics West) - 의료/모바일/군사용 등 광학분야 전문 전시회	2월/실리콘밸리
10		• 필라델피아 바이오 전시회 (BIO International) - 세계 최대의 바이오테크 전시회	6월/뉴욕
11		• 육군 전시회 (AUSA) - 글로벌 방위산업 흐름 파악, 제품 홍보 지원	10월/워싱턴
12		•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RSNA) - 학술 세미나 및 제품 전시 등 복합 전시회	11월/시카고
13		• Select USA 연계 행사 개최(한미 투자협력 포럼) - 미 인프라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 지원	6월/워싱턴
13	공동R&D, 기술제휴 등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 KOR-US Energy Partnering (OTC 연계) - 세계 최대 해양플랜트 전시회 연계 상담회/설명회	5월/달라스
14		• GP USA - 중장비/항공/기계 분야 등 글로벌밸류체인 진입 지원	10월/시카고
15		• Korea Autoparts Plaza (Ford, FCA, GM 등) - 미국 완성차/Tier-1 대상 자동차부품 수출 지원	3월, 6월, 9월, 10월 /디트로이트
16		•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AAPEX) - 애프터마켓 및 악세서리 부품 전문 전시회	11월/LA
17	우리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 지역별 K-Move 취업박람회	5월, 9월/뉴욕, 10월/LA, 디트로이트, 11월/실리콘밸리



캐나다

기간	장소	사업명	사업유형	협업기관
6월	캘거리	2019 캘거리 국제 석유 전시회	전시/상담	-
상반기	토론토	K-Move 멘토-멘티의 날	채용지원	-
상반기	밴쿠버	2019 IT-Tech 로드쇼	수출상담회	OKTA
상반기	밴쿠버	K-Move 밴쿠버 잡페어	채용지원	-
상반기	토론토	캐나다 정부조달 플라자	정부조달	캐나다 중소기업청
하반기	토론토	캐나다 Auto-Parts Plaza	수출상담회	-
연중	토론토	캐나다 소비재시장 진출 테스트마켓 사업	전자상거래	-



미 국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116회 의회 개원	2019.1.3	-
G7 정상 회담	미정	프랑스, 비아리스(Biarritz)
G20 정상회담	미정	일본, 오사카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연방준비위원회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	연중 8회	-
2018 대통령 경제 교서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발표	2월 중	-
미 경제성장을 분기 보고서	매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출입 등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뉴욕 춘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Coterie 2019)	미정	의류, 패션, 악세사리
뉴욕한국섬유전 (Korean Preview in New York 2019)	미정	의류 원단 제품 및 관련 부속품 등
뉴욕 추계 텍스월드 (Texworld USA 2019)	2019/1/21-23	가정용품, 실내외 장식, 인테리어, 섬유, 직물
뉴욕 추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Coterie 2019)	미정	의류, 패션, 악세사리
뉴욕 치과 전시회(Greater New York Dental Meeting 2019)	2019/12/1-4	의료기기, 약품, 위생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2019 SAE World Congress Experience)	2019/4/9-11	자동차, 이륜차
라스베가스 CES 전시회 (2019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2019/1/8-11	소비자 전자제품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2019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 Exposition West)	2019/4/10-12	보안기기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라스베가스 방송기자재 박람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2019/4/6-11	방송, 통신
덴버 소비자 마케팅 컨퍼런스 (General Merchandise Marketing Conference)	2019/6/28-7/2	General Merchandise 품목
라스베가스 국제 보석 박람회(JCK Las Vegas 2019)	2019/5/31-6/3	보석, 광석 관련 제품
LA K-con 2018(K-con 2018)	미정	한국문화
덴버 여름 아웃도어 전시회 (Outdoor Retailer Summer Market)	2019/6/19-6/20	여름 아웃도어 스포츠 및 레저용품
덴버 겨울 아웃도어 전시회 (Outdoor Retailer Snow Market)	2019/1/30-2/1	겨울 아웃도어 스포츠 및 레저용품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obile Aftermarket Products Expo)	2019/11/5-7	엔지니어링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Fime International Medical Expo)	2019/6/26-28	의료기기,약품, 위생
올랜드 NAHB 건축 전시회(NAHB International Builders' Show)	2019/2/19-21	건축, 건설, 빌딩



캐나다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주요 정당
제43대 연방 총선	2019.10.21	현재 자유당 집권여당
제30대 앨버타 주총선	2019.3~5월	현재 신민당 집권
제66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총선	2019.10.7	현재 자유당 집권
제50대 뉴펀들랜드 주총선	2019.10.8	현재 자유당 집권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2018.12.30	-
연방 예산안 발표	2019. 3월말	-
의료기기 품질평가제도 (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변경	2019.1.1	-
식품안전법(Canada Safe Food Act) 발효	2019.1.15	-
노동법 개정안 발효	2019.3.17	육아휴직 5주 추가

□ 유망 전시회 캘린더

구분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에너지	캐나다 가스 컨퍼런스 (Canada GAS&LNG Exhibition&Conference)	2019.5.21~23	개최지: 밴쿠버
	2019 캐나다 솔라 엑스포 (Solar Canada 2019 Conference&Exposition)	2018.5.08~09	개최지: 캘거리
	국제석유전시회(Global Petroleum Show)	2019.6.11~13	개최지: 캘거리
	캐나다 풍력에너지 컨퍼런스 (CanWEA Annual Conference&Exhibition)	2019.10.23~25	개최지: 캘거리
자동차	캐나다 국제오토쇼(Canadian International Auto Show)	2019.2.15~24	개최지: 토론토
	밴쿠버 국제오토쇼(Vancouver International Auto Show)	2019.3.19~24	개최지: 밴쿠버
	전기/수소 자동차 박람회(Electric&Hybrid Vehicle Show)	2019.5.3~5	개최지: 몬트리올
	2019 전기자동차 컨퍼런스 (EV2019VE Conference&Trade Show)	2019.5.6~9	개최지: 퀘벡
	자동차 부품 컨퍼런스(APMA Conference&Exhibition)	2019.6.6	개최지: 윈저
식품	캐나다 요식업 전시회(Restaurant Canada Show)	2019.2.24~26	개최지: 토론토
	서부 식품박람회(Grocery and Speciality Food West)	2019.4.1~2	개최지: 밴쿠버
	프랜차이즈 엑스포(Franchise Expo)	2019.4.27~28	개최지: 밴쿠버
	캐나다 농업 박람회(Canada's Farm Progress Show)	2019.6.19~21	개최지: 밴쿠버
	캐나다 소매·유통 전시회 (GIC, Grocery Innovations Canada)	2019.10.21~23	개최지: 토론토
건설	밴쿠버 건설자재 박람회(Buildex Vancouver)	2019.2.13~14	개최지: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택·정원 박람회 (BC Home&Garden Show)	2019.2.20~24	개최지: 밴쿠버
	캘거리 가구·정원 박람회(Calgary Home&Garden Show)	2019.2.28~3.3	개최지: 캘거리
의류·섬유	캐나다 의류·섬유 소싱 전시회 (Apparel·Textile Sourcing Canada)	2019.8.19~21	개최지: 토론토

담당자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Tel 1-212-826-0900(ex.227)

직책 과장

Email djcho@kotra.or.kr

시장조사팀 박영훈

Tel 02-3460-7583

직책 과장

Email parkyh@kotra.or.kr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유럽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33

- 1. 개요 133
 - 가. 시장 전망 133
 - 나. 주요 경제지표 133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134
 - 가. 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 유럽, 산업혁신 선도 134
 - 나. 2019년 영국 EU 회원국 지위 소멸, 불안요인 지속 가능성 137
 - 다. EU와 미국의 무역협상 진행 138
 - 라. EU의 FTA 추진을 위한 광폭 행보 140
 - 마. EU 내 반난민 정서 확산,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난민 통합방안 모색 143
 - 바.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투자 규제안 발표 144
 - 사.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2018. 5. 25) 144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46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46
- 2. 시장 분석 164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64
 - 나. 수출 170
 - 다. 투자 173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176
 - 가. 교역 176
 - 나. 투자 185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88

III. 진출전략 193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93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194
- 3. 한-EU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7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221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234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239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240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19년, EU 1.9%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 유지 전망

- 고용상황 개선·설비 가동률 증가에 따른 내수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 (실업률) 지속 하향세 기록, 2018년 9월 기준 6.7%에서 2019년 6.6%로 0.1% 감소 전망
 - (내수) 기업투자·고용확대 및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경기 안정
 - * 2019년, 민간소비 1.9% 증가, 설비투자 3.3% 증가 전망(EU 집행위, 2018.11월 발표)
 - (수출입) 글로벌 경기회복 및 내수확대에 따른 수출·수입 증가세 지속 전망
 - * EU 수출(↑11.3%)과 수입(↑13.2%) 모두 증가(2018년 1~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WTa)
- 브렉시트·난민·미국발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EU의 경기둔화 리스크 병존
 - 영국-EU 간 관계 정립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영국의 투자·내수 위축 가능성
 - 중동 난민 유입에 따른 정치불안(테러, 극우정당 지지도 증가 등) 가중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505.1	507.0	508.5	510.3	511.5	512.6	522.8
명목GDP	십억 달러	21,914	22,258	19,103	19,083	20,198	22,896	23,917
1인당 명목GDP	달러	29,773	30,281	25,933	25,853	27,327	30,931	32,282
실질성장률	%	0.3	1.8	2.3	2.0	2.4	2.1	1.9
실업률	%	10.9	10.2	9.4	8.6	7.6	6.7	6.6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0.5	0.0	0.3	1.7	1.8	2.0
재정수지(GDP대비)	%	-0.3	0.3	-0.6	0.4	0.4	-0.8	-
총수출*	백만 유로	1,736,501	1,703,850	1,790,484	1,746,060	1,878,512	1,446,863	3.6**
(對韓 수출)	"	39,911	43,206	47,787	44,124	49,511	37,098	-
총수입	"	1,687,701	1,692,791	1,730,512	1,713,974	1,858,783	1,461,504	3.9**
(對韓 수입)	"	35,837	38,780	42,370	41,654	50,025	38,159	-
무역수지	백만 유로	48,800	11,059	59,972	32,086	19,729	-14,640	-
경상수지	"	137,820	130,528	137,028	202,309	183,239	129,862	3.3**
환율(연평균)	EUR/US\$	0.7532	0.7539	0.9019	0.9039	0.8870	0.8380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446	2,142	6,075	4,650	4,254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474	2,535	5,192	5,310	2,902	-	-

*주: 2018년 총수출입액의 경우 2018년 9월까지의 금액

**주: 2019년도 전망치 경우 '18년 대비 예상 증가율 (총수출입, 경상수지)

자료원: IMF(GDP), OECD(직접투자), ECB(환율), Eurostat(인구, 실질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등)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 유럽, 산업혁신 선도
- 2019년 영국 EU 회원국 지위 소멸, 불안요인 지속 가능성
- EU와 미국의 무역협상 진행
- EU의 FTA 추진을 위한 광폭 행보
- 유럽 내 반난민 정서 확산,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난민 통합
-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투자 스크리닝 규제안 발표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2018. 5. 25)

가. 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 유럽, 산업혁신 선도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열풍 확산, ICT 응용기술제품·로봇산업, 핀테크 등 디지털 융합 분야 협력 수요 확대

- EU, ‘Digitalizing European Industry’ 정책 연계, 총 50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지원(총 5년, 2016~20년), Horizon 2020 정책 연계, 총 770억 유로 R&D 기금 지원(총 7년, 2014~20년)
 - (Digitalizing European Industry)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역량센터(Digital Innovation Hub) 확대, 5G·IoT·사이버 보안 분야 등 표준화, 산학연 공동 R&D 지원 등
 - * 유럽은 통신장비, 로봇틱스, 레이저·센서기술 등 B2B 전문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나, 웹·데이터 플랫폼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부문 취약
 - (Horizon 2020) 핵심 육성분야는 ICT, Robotics, 나노기술, BT
- 유럽 주요국,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 차세대산업 육성 본격화
 - 특히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중심
 - 산학연 연구 클러스터 연계 기술협력·정보공유·범국가 플랫폼 구축 활발

【유럽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정책】

국가명	정책명	육성 산업
독일	Industrie 4.0	스마트팩토리(로봇, 센서, 3D 프린터 등), 스마트서비스
프랑스	Industrie du Futur	전기자동차, 친환경선박, 폐기물재활용, 로봇산업,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
이탈리아	Industria 4.0	로봇, 3D 프린팅,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산업인터넷,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스웨덴	Produktion 2030	로봇산업,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 유럽 주요 글로벌 기업, 산업재편에 따른 기술 고도화 전략 추진 중
 - (자동차) IT 응용기술 중심으로 설비구조 고도화, 화두는 E-Mobility·자율주행
 - * IT 기업과 협력수요 증가세, FIAT-Google, BMW-Baidu(중국 인터넷 기업) 등 자율주행기술 공동개발 중
 - * 그 외 독일 Siemens, 스마트팩토리 S/W 솔루션·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SAP와 기술협력 중
 - (신기술 확보 VC)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신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벤처캐피탈 설립 활발
 - * Siemens(2016년 10월 신기술 스타트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 'Next47' 설립, 향후 5년간 전 세계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총 10억 유로 운영 계획), E-Mobility, 기계자동화, 디지털 기술이 지원 대상
 - * 스웨덴 Ericsson, 전세계 대상 IoT,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 통신·IoT 신기술 스타트업 발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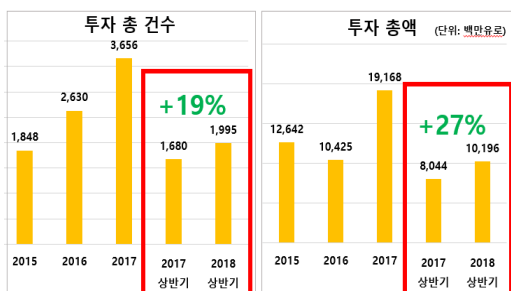
◎ 독일업체 vs. 미국업체의 4차 산업혁명 실행 수준 비교

- 독일 제조업체의 14%가 이미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중이며, 39%가 1~2년 내 도입 예정
- 미국 제조업체의 8%만 스마트팩토리 기술 적용 중, 1~2년 도입 예정 응답비율은 20%에 불과
- * BCG, 'Time to accelerate in the race toward Industry 4.0', 독일 312개사, 미국 315개사 설문결과 (201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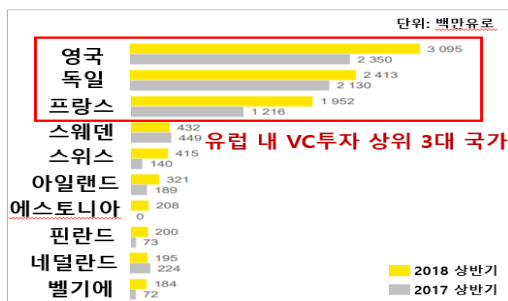
□ 유럽, 기술기반 혁신기업이 모이는 'Tech Start-up Hub' 로 도약

- 2018년 상반기, 유럽 내 스타트업 투자총액 101억 유로 돌파,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기록
 - 주요 투자 대상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주로 서·북유럽에 VC 투자 집중
-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정책에 힘입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로봇틱스,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급증세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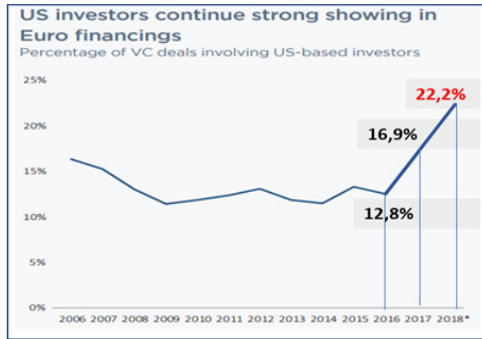
[VC 투자대상 유럽국가 순위 (투자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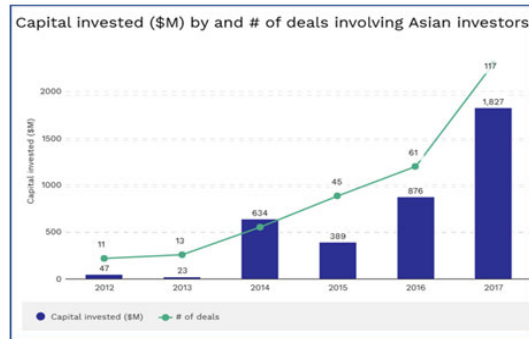
자료원: Ernst & Young (Startup Barometer, '18년 10월 발표)

- AI기술, 소프트웨어, 핀테크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면서 미국,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글로벌 VC의 비중도 증가 추세

[유럽 내 글로벌 VC투자비율 추이 (미국)]



[유럽 내 글로벌 VC투자비율 추이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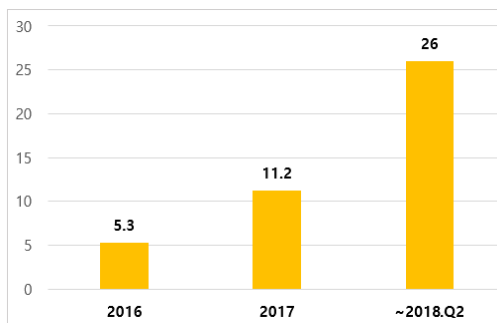


자료원: Pitchbook(European Venture Report 2018Q1) ATOMICO (State of European Tech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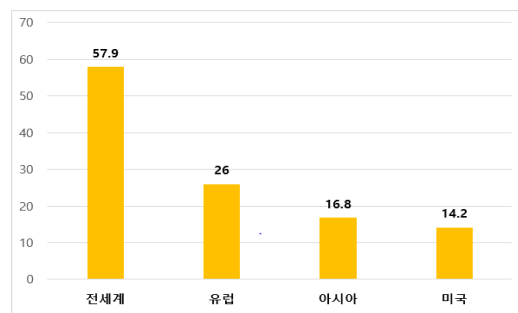
□ 2019년 EU 내 지급결제 서비스 PSD2* 발효(2018.1.13)에 따라 핀테크 산업 지속 성장 전망

- * EU Payment Service Directive II: EU 내 모든 금융기관에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Open API 공유 의무화. 주 목적은 유럽 지급결제 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이며, PSD2의 시행으로 은행이 보유한 시스템을 핀테크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은 API를 기반으로 은행과 고객 간 중개인으로 기능 가능
- 유럽 핀테크산업은 아직 미성숙 단계이나 'Finntech-Hub' 영국의 주도로 꾸준한 성장세 지속
 - 2018년 상반기 유럽 내 핀테크산업 VC투자금액 260억 달러, 사상 최고치 달성(전년 동기대비 534% 증가)
 - * 영국 161억 달러, 독일 32억 달러, 프랑스 15억 달러 순, 영국의 경우 전년대비 8배 증가 (KPMG 2018년 상반기 기준)
 - 2018년 상반기 발생한 10대 대형 투자건 중 5건이 유럽 기업으로, 유럽 핀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 급증세
 - * 영국 2개사(World Pay, IRIS Software Group), 스웨덴 2개사(iZettle, Nordax Group), 덴마크 1개사(Nets)

[유럽 내 핀테크 VC 투자금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전세계 핀테크산업 투자금액(단위: 10억 달러, 2018 상반기)]



자료원: The Pulse of Fintech 2018, KMPG

나. 2019년 영국 EU 회원국 지위 소멸, 불안요인 지속 가능성

□ 영국과 EU 간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협상 난제

-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의 관세동맹 유지 희망, EU 측에서는 영국과의 무역협상에 앞서 브렉시트 합의금 1,000억 유로* 등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3대 쟁점을 먼저 논의할 것을 영국에 요구
 - 영국이 부담하는 2014~2020 EU 예산 분담금(2013년 기 확정분)과 조기탈퇴에 따른 각종 위약금 등 포함
 - 리스본조약에 의거, 영국은 탈퇴방침을 EU에 통보한 2017년 3월부터 늦어도 2년 후인 2019년 3월에 EU 탈퇴 의무
 - 브렉시트 협상의 주요 쟁점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영국 측 요구사항) 확보와 EU 역내 이동의 자유 보장(EU 측 요구사항)으로서 양측 간 합의안 마련
 - *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갖고(합의안 126조), 영국은 해당기간 동안 EU법 준수(합의안 127조),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양측의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전환기간은 한 차례 연장 가능(합의안 132조)
 - * 영국과 EU사이 단일관세지역(a single customs territory)을 설정,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 동일한 관세구역에 위치(합의안 의정서 6조), 전체 또는 부분적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 후 6개월 내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합의안 의정서 20조)
 - * 5년 연속 혹은 EU지침에 명시한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EU 및 영국 시민과 가족구성원은 (전환기간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의) 거주국에 영구적 거주 권한 향유(합의안 15조)
- 양측 간 합의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EU 간 무역관세가 발생함은 물론, 영국이 기존 EU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한국 포함)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관세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18.11.	'18.12.		결 과
브렉시트 협상안 공식 승인 (EU 정상회의)	영 의회(양원) 협상안 비준 진행		(EU 의회 비준 통과 시) '19년 초 영 'EU 탈퇴 협정 법안' 도입
			(EU 의회 비준 거부 시 가능 시나리오) 1) 노딜 2) 브렉시트 재협상 3) 영국 총선 실시 4) 영국 두 번째 국민투표
			영 정부, 21일 내 새로운 협상안 제시 (EU 의회 비준 거부 시 가능 시나리오와 동일)

자료원: BBC

□ 영국과 EU 간 관계 정립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영국에 대한 투자·내수 위축 가능성, 경기 둔화 우려

- 2019년 3월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망, 2018년 전망치 1.6% 대비 0.1%p 하락 예상

- 주요인은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고조되는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 지속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임
- 보호무역주의 분쟁으로 인해 세계경제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2016년 브렉시트 가결 이후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발생했던 수출증대효과가 점차 감소하면서 브렉시트 리스크와 함께 영국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영국의 2023년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브렉시트 이후 예상되는 무역장벽과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반영한 1.6%로 추산

다. EU와 미국의 무역협상 진행

□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EU 보복조치 등 진행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25%), 알루미늄(15%) 수입 관세를 부과한 이후(2018.6.1) EU의 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양측 통상마찰 고조
 - *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입제한조치 시행 가능

◎ 현장 뉴스(로이터)

- BMW,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관세 타격으로 중국 내 가격인상 불가피
 - 미국의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7월 6일부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40% 수입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은 BMW는 중국 판매가격 인상 검토 중
- 특히 미국 스파트버그 공장에서 생산되어 2017년에만 중국에서 10만 대 판매기록을 세운 SUVs X-시리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2018.7.9)

- (EU 대응) ① WTO 제소, ② 보복관세, ③ 세이프가드 조사 등 3단계 대응
 - (WTO 제소) 관세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근거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제소(6.1)
 - (보복관세)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산물(오렌지주스·피넛버터) 및 상징적 브랜드(리바이스·할리데이비슨) 등 총 340개 품목에 보복조치 역공(7. 1)
 - * 미 관세부과에 따른 EU 손실액 64억 유로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① 2018년 7월 1일 28억 유로, ② 2021년 3월 34억 유로 등 단계별 관세 부과
 - (세이프가드) 철강재 수입급증과 미 관세부과에 따른 미국산 철강의 유럽 유입 우려로 한국산 철강재 포함, 총 26개군 283개 철강재 품목에 대해 직권 조사 개시(3. 26)
 - * EU 세이프가드 규정 7.1조: 조사 중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예상될 때 최대 200일 잠정조치 가능
 - * 조사대상품목 對EU 수출국(2017년, 천 톤, Eurostat): 터키(4,625), 인도(3,965), 중국(3,590), 러시아(3,418), 한국 (3,218)

□ EU의 세이프가드로 한국기업 수출 영향 가능성

- EU 집행위,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2019.2.3까지 200일간 시행 발표(2018.7.19.)
 -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23개 품목에 한해, (對유럽 전환 수출증가가 없다고 판단된 품목 5개 제외)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 발효(2018.7.19.), 200일간 시행 예정(~2019.2.3)
 - 현행 조치는 글로벌 쿼터방식(국가구분 없는 선착순,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이 적용됨에 따라, 지리적 인접국이 쿼터 물량을 선점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우리 기업은 수출 전 EU 쿼터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 선행이 요구됨
 - * 23개 품목군의 쿼터량이 소진된 이후, 추가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 25%의 고관세가 부과되므로 쿼터 잔여량에 대한 점검과 선적 스케줄 조정 필요

[참고: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대상 품목군별 쿼터량]

품목	쿼터량 (net tonnes)	품목	쿼터량 (net tonnes)
열연강판	4,269.0	STS선재	32.7
냉연강판	1,318.9	선재	1,058.1
전기강판	178.7	형강	167.8
도금강판	2,115.1	강시판	24.9
착색아연도강판	414.3	레일·궤조	잠정조치 제외
석도강판	367.5	기타 전기용접강관	185.3
후판	1,443.0	백·흑관 전기용접각관	387.3
STS열연	193.0	STS무계목	22.8
STS냉연	476.2	특수용강 배관용 무계목	5.5
STS후판	잠정조치 제외	기타 무계목	잠정조치 제외
방향성전기강판	잠정조치 제외	대형 용접관	258.1
봉·형강	728.3	기타 용접관	296.3
철근	715.0	냉연강재	잠정조치 제외
STS봉·형강	82.2	비합금 강선	393.0
합계	15,133		

자료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18.9.13)

□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로 확산 가능성

- (미국의 조치)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최고 25% 고율 관세부과 검토
- (EU의 우려) 2018.7월, 트럼프 대통령과 EU집행위 위원장(Jean-Claude Juncker)의 회동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수입차 관세분쟁이 재점화, EU는 자동차 분야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피해액은 철강분야에 비해 10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
 - * 미 상무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법적 타당성 및 액션플랜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2018. 11.12), 수입차 관세 부과에 대한 하방 리스크 재부상 (2019.2월까지 조사결과 대통령 보고 예정)
 - * 독 정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독일 자동차 업계는 매년 70억유로 상당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 (독일 GDP의 0.2% 상당)
- (EU의 세이프가드) 전면전으로 전개될 경우에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발동 확률은 낮으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
 - * 자동차의 경우, 완제품으로 중간재인 철강 대비 수입량 급증이 어려워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음
 - *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한국의 對EU 수출 1위(73억 달러) 및 3위(42억 달러)로 세이프가드 발동 시 영향 불가피
- (우리의 대응) 관련 국가 동향 모니터링, 미국·EU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선제 대응 필요
 - * 자동차 232조 발동 관련, 對미 자동차 주요 수출국인 EU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TF 구성해 모니터링 시행 중

라. EU의 FTA 추진을 위한 광폭 행보

□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와의 FTA 2019년 발효 예상

- 2019년 EU의 통상정책은 기존 협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들과의 통상협상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
 - ASEAN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지역과의 관계 또한 심화한다는 계획
 - * EU-호주, 뉴질랜드 FTA 협상 신규 개시('18.6월) EU-뉴질랜드 3차 FTA 협상('19.2월), EU-인도네시아 7차 FTA 협상('19.3월) 개최 예정
 - 2016년 6월 20일 발표된 'EU의 무역투자 장벽 및 보호주의 트렌드(Trade and Investment Barriers and Protectionist Trends)' 보고서에서 집행위는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EU는 한-EU FTA 이후 북미, 아시아, 남미 지역으로 협상대상국의 범위를 확대, 관세 철폐에 그치지 않고 무역·투자 규범과 환경·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

[2018년 협상 진행 중 및 2019년 발효 예상 주요 FTA 현황]

FTA명	단계	현황	비고
EU-캐나다(CETA)	체결	2009년 4월 협상개시, 협상 체결(2016. 10. 30)	2018년 EU 비준완료 목표
EU-일본	체결	2012년 12월 협상개시, 최종 서명 (2018. 7. 17)	2019년 발효 예상
EU-싱가포르	체결	협상체결(2014. 10), 협정문 발표(2018. 4. 18)	2019년 발효 예상
EU-베트남	체결	협상체결(2015. 12. 2), 협정문 발표(16. 2. 1)	2019년 발효 예상

자료원: EU 집행위

◎ **현장 뉴스(Spiegel)**

- EU 집행위 위원장(Jean-Claude Juncker)은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아프리카의 경제관계가 더 이상 개발-원조 관계가 아닌 경제적 파트너로서 관계 재편을 희망,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 계획
- 아프리카와 EU는 공동관심사인 '개발투자'를 지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언급

□ **일본과 EPA 체결(2018.7.17), 2019년 1분기 내 발효 예상**

-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공식 서명(2018.7.17), 2019년 3월 발효 목표
- * EPA 비준 동의안 유럽의회 상임위 표결 통과 (2018.11.5),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예정(2018.12.10)
- * EU-일본 FTA: 전 세계 GDP의 30% 차지, 일본은 EU의 제6위 수출대상국, 6위 수입국(2018. 6/WTa)

[EU-일 EPA 주요 품목 관세양허]

EU	일본산 수입품목 99%에 대해 관세철폐 자동차: 협정 발효 7년 후 관세철폐(현 관세율 10%) 자동차부품: 92%의 품목은 발효 후 즉시 철폐(현 관세율 3~4%) 전자제품: TV 제외 즉시 철폐, TV는 5년 후 철폐(현 관세율 14%)
일본	EU산 공산품, 농산물 등 94%에 대한 관세철폐 와인: 발효 후 즉시 철폐(현 관세율 15%) 치즈: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현 관세율 29.8%) 소고기 및 돼지고기: 10년에 걸쳐 차액관세 철폐(현 관세율 4.3%)

자료원: EU 집행위

- EU-일본 FTA 발효 시 한국과 일본의 對EU 주력 10대 수출 경합품목인 승용차, 자동차부품, 불도저그рей더에서 한국의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
- * 승용차(한국 및 일본의 對EU 수출 1위 품목), 자동차부품(한국 및 일본의 對EU 수출 3위 품목), 불도저그рей더(한국의 對EU 수출 8위, 일본의 對EU 수출 7위 품목)/(HS코드 4단위 기준, 2016년 K-Stat 수출통계)

- 한국과 일본의 對EU 수출규모가 큰 경합품목 외에도, 현재 EU의 對한국(FTA체결국)대비 對일본 수입관세율 격차가 높은 품목에서 한국제품의 수출에 영향 가능성
- * EU의 수입관세율(2017년 9월 기준): 화학제품(對한국 0%, 對일본 4.4%), 섬유류(對한국 0%, 對일본 6.6%, 전기기기(對한국 0.1%, 對일본 3.1%), 기계류(對한국 0%, 對일본 1.9%, KITA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7월 발표치)

[한국·일본의 對EU 10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한국						일본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2016	2017	2018.9	HS 코드	품목명	관세율	2016	2017	2018.9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8703	승용차	0%	53.3	74.5	66	8703	승용차	5~10%	101.3	109.6	90.6
8708	자동차부품	0%	31.4	31.9	25.7	8708	자동차부품	3~4.5%	42.3	47.2	37.2
8542	전자집적회로	0%	19.8	25.4	20.1	8429	불도저, 그레이더	0%	16.1	19.8	18.6
3002	혈액	0%	6.7	20.3	20	8443	인쇄기, 복사기	0~1.7%	101.3	109.6	90.6
8901	선박	0%	22.2	55.7	18	8542	전자집적회로	0%	42.3	47.2	37.2
8507	축전지	0%	11.2	17	15.7	8711	오토바이	6~8%	16.1	19.8	18.6
8473	사무기기부품	0%	4.7	8.4	11.1	9027	물리화학용기기	~0.6%	13.1	14.3	8
7210	평판압연제품	0%	7.2	9.4	10	8411	터보제트	~4.1%	13.3	13	6.9
4011	타이어	0%	6.8	7.7	7.6	9018	의료용기기	0%	13.9	14.7	6.8
8429	불도저, 그레이더	0%	7.1	8.5	7.2	8414	기체펌프	~2.2%	10.9	11.5	6.2
10대 수출품목 합계			170.4	258.8	201.4	10대 수출품목 합계			256.5	280	228.7
수출총계			458.6	563.5	453.4	수출총계			732.8	774.2	629.7

주: 음영은 겹치는 품목 표시

자료원: World Trade Atlas(2018년 1~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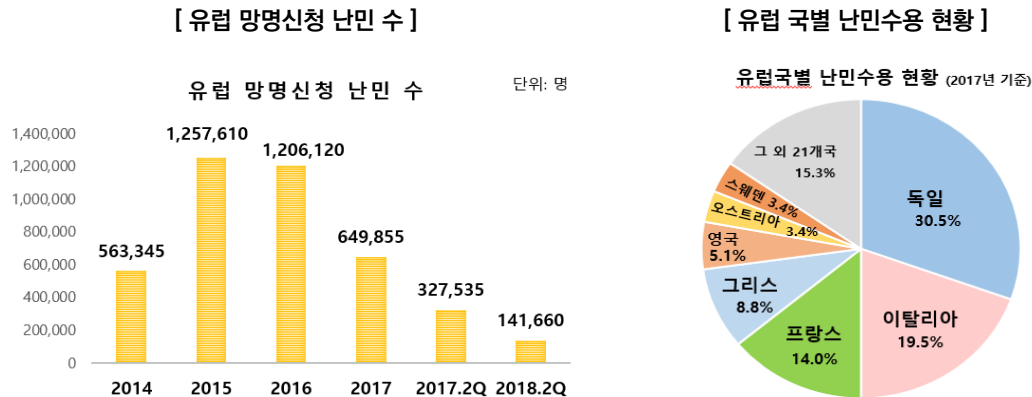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U의 FTA 확산에 따른 우리 제품의 對유럽 수출경쟁 악화 가능성 대비
- 가격경쟁력을 뛰어넘는 유럽 기업과의 심도 높은 협력관계(R&D 등) 구축 중요성 증가
- EU-일본 FTA 체결 시의 對EU 수출 수혜품목군의 중간재를 타킷팅, 對일본 수출 확대 가능성

마. EU 내 반난민 정서 확산,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난민 통합방안 모색

□ (난민 EU 유입 여전) 난민 유입 정점이던 2015~2016년 이후 점차 유입 난민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 유지 (2018년 2분기 기준 약 14만 명)

○ EU에 유입된 난민 수는 2014년부터 2018년(2분기)까지 381만 명 (자료원: EUROSTAT)



자료원: Eurostat

- (EU 내 갈등) 난민 유입정책에 대한 국가별 내부 갈등 심화
 - 2018년 6월 EU 16개국 '비공식' 정상회의 개최, 불법이민을 줄이고 부담을 공유하기로 대외적으로 합의했으나 EU 자국 내 갈등 양상 고조
 -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세 지속
 - * 유럽 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급증한 난민 유입 및 IS 테러와 높은 상관관계
 - * (프랑스) 지지율 2위 국민연합 정당은 EU 탈퇴, 난민정책 반대 및 국가주의 주장(AP통신)
 - * (이탈리아) 2018년 3월 반난민 성향의 우파정권(오성운동당)이 32.7% 지지율로 집권, 난민이 처음 도착한 EU 국가에 '난민망명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더블린 조약' 개혁 요구 (AP 통신)
 - 유럽 주요국 총·대선 결과, 극우정당이 '핵심 야권'으로 등극

□ (난민통합 사례 주목) 독일은 난민을 위하여 일자리 및 기타 통합 교육 제공

- 독일은 난민 통합이 비교적 잘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다수 나옴(독일 고용노동부 발표)
 - 2018년 5월 기준 고용상태의 난민 수 약 30.6만 명(2017.5. 20만 명, 전년대비 50.4% 증가)
- 현재 독일의 난민지위자(150만 명) 중 구직자 수는 48만 명에 육박

바. 중국을 겨냥한 외국인투자 규제안 발표

□ 중국의 EU 기업 사냥에 따른 유럽 분열 조장 우려

- 급증하는 중국의 對EU 투자로 전략기술 유출, 유럽의 분열 조장 등의 우려 대두
 - 중국의 對EU 기업인수 투자금액은 2006년 기준 44억 달러(투자건수 40건) 수준이었으나 10년만인 2016년 사상 최고치인 858억 달러를 돌파하며 19배 이상 급증(투자건수 309건)
 - 기술 유출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 對EU 중국 기업인수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8% 감소한 149억 달러 기록
- * 중국의 對EU 투자건수 추이: 40건(2006), 138건(2013), 165건(2014), 209건(2015), 309건(2016), 247건(2017), 111건(2018. 6) / EY, Chinesische Unternehmenskäufe in Europa 2018

□ ‘Made in China 2025’와 일대일로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

- 중국은 2012년부터 중동부 유럽 16개국과 무역·투자 협력을 위한 ‘16+1’ 정상회의 운영, 중동부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EU의 對중국 정책 무력화 시도
 - 2017년 중국은 중동유럽에 개발협력자금으로 20억 유로 투자, 10억 유로 협력펀드 조성계획 발표
- 중국의 무차별적인 EU 기업 사냥을 막기 위해 스크리닝 강화와 회원국 간 공조체계 구축
 - (제한 분야) AI, 로봇데이터 등 첨단기술, 인프라, EU 프로젝트(Horizon 2020), 금융 등

【 중국의 EU 기업 주요 인수 사례 】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분야	거래규모
중국화공	신젠타(스위스)	종자	430억 달러
메이티	쿠카(독일)	로봇	45억 유로
데일리파운드	글로벌스위치(영국)	데이터	24억 파운드
코스코	피레우스(그리스)	항만운영	3.7억 유로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사.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2018. 5. 25)

□ 유럽 진출 기업에게 영향을 주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 (도입 배경) 정보 주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고,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공통의 법제 환경 제공
- (적용 대상) EU 내 설립 회사뿐만 아니라, EU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EU 정보 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

- (주요 조항)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규정, 특히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EU 역외 이전을 가능토록 규제
 - *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 (현지 기업) EU 기업 대부분은 GDPR 준수 수준이 아직 미흡
 - * 세계 각국의 기업 중 약 29%만이 GDPR 발효 후 관련 규정을 무리 없이 준수 (ISACA, 2018)
 - * EU 역내 기업 역시 약 34% 정도만이 GDPR 준수가 가능한 수준 (vpnMentor, 2018)
- (우리 기업) 국내 기업의 61%는 GDPR 발효 시점에도 준비 애로 제기(Veritas 2017)
- (우리 정부) 정부 차원에서는 대내적으로 가이드 발간, 교육을 통하여 유럽 진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적정성 평가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도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우리 기업이 GDPR의 주요 조항을 쉽게 이해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GDPR 가이드북을 발간(2018.8)
 - 우리나라는 2017.1. ‘적정성 평가’ 우선 검토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1차 ‘18.6.12. / 2차 ‘18.9.12.)하는 등 적정성 채택을 위한 준비 중
 - * 우리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역외 이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적정성 결정 대상국으로 채택 필요
- (향후 전망) GDPR 도입 취지와 달리,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독점 강화 우려
 - GDPR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인력 및 투자비용 소요

◎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한국인터넷진흥원)

- GDPR 적용 여부, 개선 소요시간 등을 고려, 3단계로 나누어 준비
 - (1단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GDPR 적용 대상인지 확인
 - (2단계) GDPR 적용 대상인 경우 기 배포된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DPO) 지정 등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 이행
 - (3단계) GDPR 기준에 적합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동의 획득 절차 등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영향 평가 등에 소요되는 예산, 조직 등 보완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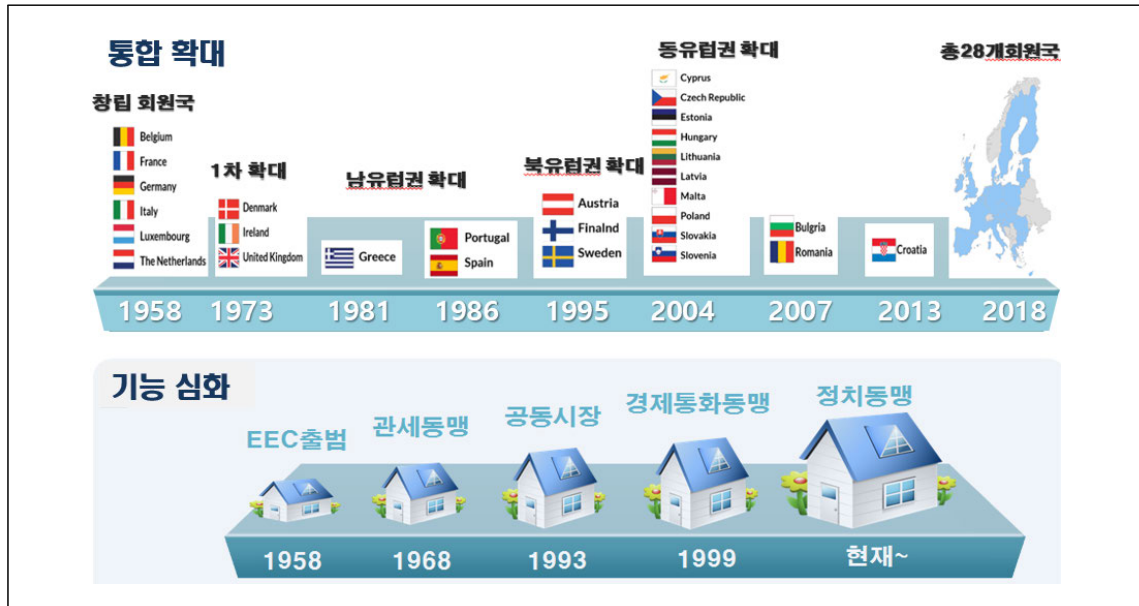
- EU,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정치공동체'
- 브렉시트와 난민유입으로 촉발된 EU의 내부 분열 해소가 주요 당면 정치과제
- 2019년, 완만한 경기호조세 지속 전망
- 브렉시트·미국발 무역분쟁 등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EU 경기둔화 리스크 병존
- EU GDPR,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엄격
- EU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II) 개정안 발표(2019.9.22. 발효)

가. 정치 환경

□ EU,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정치공동체'

- (지역확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국가 간 적대요인 해소, 유럽 결속 강화를 위해 1958년 서유럽 6개 주요국 중심으로 창립된 이래, 남·북·동유럽·발칸지역 순으로 통합 지속 확대
 - * 가장 최근 가입국은 크로아티아(2013년 7월), 현재 세르비아가 2012년 3월 EU 후보국 지위 획득 후, 2020년 EU 가입 최종 승인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기능심화) 1958년 '역내국가 간 관세인하·공동대외관세적용'의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이후 '역내관세 철폐, 공동대외관세적용'의 관세동맹(1968년)에서 '4대(인적·상품·자본·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제를 철폐하는 공동시장(1993년), '단일통화 유로화 도입, 공동 통화·금리정책'의 경제통화동맹(1999년)으로 기능 심화, 현재 공동 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시행, 내무·사법 분야 협력 강화 등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사회 분야로 통합 심화

[EU의 통합과정(28개 회원국)]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정리(2018)

□ 브렉시트와 난민유입으로 촉발된 EU의 내부 분열 해소가 주요 직면 정치과제

-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공식 탈퇴일 2019. 3. 29)에 따른 EU 결속력 약화
 - 영국과 EU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양측 간 협상 난항, 향후 관계정립 불확실성 지속
 - * 협상 주요 쟁점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확보 요구와 EU의 역내 이동의 자유보장 요구 사이의 충돌로 양측 간 협상이 파행을 맞이할 경우(노딜 브렉시트) 영-EU 간 무역관세 부과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기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관세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독일에 이어 EU의 GDP 점유 상위 2위 국가(2018년, EU 총 GDP의 14.9% 점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EU 재정기여금 4위 국가(EU 총회원국 재정기여금의 11.06%)
 - * EU 회원국별 분담금 기여도(2017): 1위 독일(20.62%), 2위 프랑스(17.41%), 3위 이탈리아(12.48%), 4위 영국(11.06%), 5위 스페인(8.68%) / Amending Budget No 6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17, EU 집행위)
 - * 브렉시트 여파로 장기적으로 EU의 재정수입이 연간 100억~120억 유로 감소 → EU의 지출절감 및 회원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 특히 독일의 경우 연간 수십억 유로가 늘어날 전망
- (난민) 중동계 난민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EU 회원국 분할 수용 원칙'에 대한 이견차로 EU 회원국 간 내부 갈등 증대
 -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3국, EU 집행위 난민정책에 따른 할당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됨(2017. 12. 7)

- (극우정당의 부상)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세
 - 유럽 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는 2015년부터 급증한 난민 유입 수와 2016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IS 테러 건수와 높은 상관관계
 - 2017~2018년 유럽 주요국 총·대선 결과, 극우정당이 '핵심 야권'으로 등극. 소외계층 등 국민의 불안감·불만족을 정책에 반영하여 내부분열을 해소하는 집권정당의 '대통합'의 국정운영 여부가 향후 안정적인 EU를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2017~2018년 EU 주요국 총대선 결과]

국가	선거일자	임기	결과
스웨덴 (총선)	2018. 9. 9	4년 (총리)	• 사회민주당이 승리(28.4% 득표)하였으나, 반EU-반난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정당 스웨덴민주당이 지난 총선 대비 13석 증가한 62석을 확보하며 약진, 17.4% 높은 지지율로 제3당으로 등극
이탈리아 (총선)	2018. 3. 4	5년 (총리)	• 반EU 및 포퓰리즘 정책을 주장한 오성운동당은 32.7%로 제1당 등극
독일 (총선)	2017. 9. 24	4년 (총리)	• 중도우파 기민당/기사연합(CDU/CSU) 승리, 메르켈 총리 연임 확정 • 반면, '반난민·반EU' 극우정당 대안당(AfD) 득표율 12.6%로 창당 이래 최초로 원내 진입 성공 및 지지율 제3위의 당으로 등극
프랑스 (대선)	2017. 4. 23(경선) 2017. 5. 7(결선)	5년 (대통령)	• '친EU, 시장개혁'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 당선(5. 7) • 반면, 최종 경선(4. 23) 결과 'Frexit' 주장의 극우정당 소속 마린 르펜이 총 대선후보자 11명 중 2위의 지지율로 마크롱과 결선 진출에 성공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나. 경제 환경

□ 2019년, 완만한 경기호조세 지속 전망

- 내수·수출호조에 따른 견고한 경기성장세 지속
 - '19년 EU 회원국 모두 플러스로 전환,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 신회원국 플러스 성장 전망
 - * 독일(1.8%), 영국(1.2%), 폴란드(3.7%), 루마니아(3.8%), 스페인(2.2%), 그리스(2.0%) 등
 - * (2018. 6. 21) 유로그룹회의에서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금융체제 종료에 합의, 2018년 8월 제3차 구제금융 종료로 기점으로 8년간의 그리스 구제금융체제 공식 종료(2010. 5~2018. 8)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Moodys, S&P, Fitch) 일제히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유럽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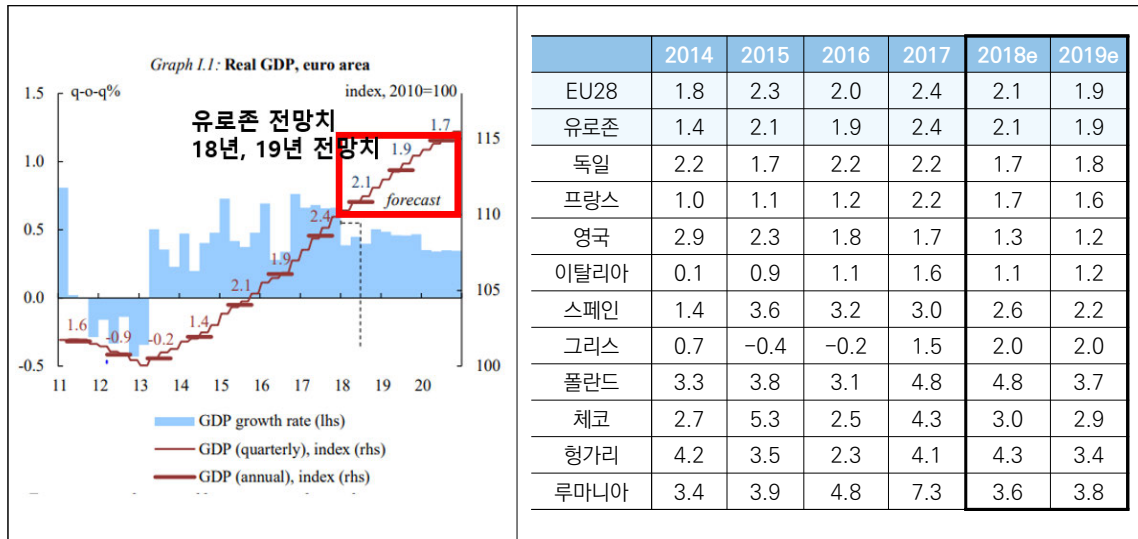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e	2019e
GDP 성장률	EU 28	0.3	1.8	2.3	2.0	2.4	2.1	1.9
	유로존	-0.3	1.4	2.1	1.9	2.4	2.1	1.9

자료원: EU 집행위 경제전망보고서(2018년 11월 발표치)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호조, 내수시장 회복에 따른 소비·설비투자 확대 전망
 - * 2018년 1~9월 기준, EU의 수출액(↑ 11.6%)과 수입액(↑ 13.2%) 모두 증가(전년 동기 대비, WTA)
 - * 2019년 민간소비 1.9% 증가 전망(독일 2.1%, 프랑스 1.6%, 폴란드 3.8%, 루마니아 4.6% 등)
 - * 설비투자는 3.3% 증가 전망(독일 2.9%, 이탈리아 2.6%, 루마니아 6.5%, 그리스 18.5% 등)

[주요국 GDP 성장을 변화]

(단위: %)



자료원: EU 집행위 경제전망보고서(2018년 11월 발표)

- 실업률은 6.7%(2018.9)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 기록, 지속 하향세 (자료원: Eurostat)
 - 최저치 체코 2.3%, 독일 3.4%, 최고치 그리스 19.0%, 스페인 14.9%
 - 에스토니아 제외(변동 없음), 27개 회원국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감소 기록

□ 브렉시트·미국발 무역분쟁 등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EU 경기둔화 리스크 병존

- 영국-EU 간 관계 정립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영국에 대한 투자·내수 위축 가능성
 - * 도이치뱅크 런던지점, 자산 4,500억 유로 독일 이전 발표(2018. 9. 18), HSBC, JP모건 등 런던 대체 EU 지역 물색 중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전쟁으로 통상환경의 불안정성 가중

[참고] 유럽 2020 전략(2010~2020)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유럽연합(EU)의 10개년 전략프로그램으로 EU의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유럽성장모델의 보강하고 스마트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성장 환경 창조를 목표

- 5개 주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7개 주도 계획(flagship initiatives)을 스마트 성장, 지속적 성장, 포괄적 성장, 세 개의 전략테마로 나누어 구성
 - ① 고용률 증대 : 20~64세 연령대 인구의 75%가 고용될 것
 - ② R&D 투자 확대 : EU GDP의 3%가 R&D에 투자될 것
 - ③ 기후변화/에너지 : '20/20/20 기후·에너지 전략'의 목표 달성
 - ④ 교육률 증진 : 조기퇴교율이 10% 이하로 감소될 것과 청년인구 40% 이상이 대학 및 동급의 교육 기관 학위를 보유할 것
 - ⑤ 빈곤 퇴치 : 빈곤위험에 처하는 인구를 2천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

[7개 주도 계획(flagship initiatives)]

전략테마	주도계획명	목표내용
스마트 성장 (Smart Growth)	혁신연합 (Innovation Union)	혁신적 아이디어가 상품·서비스화 되어 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및 지원금 접근성의 향상
	청년인적자원의 활성화 (Youth on the move)	교육시스템의 성능향상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촉진
	유럽 디지털 아젠다 (A digital agenda for Europe)	고속인터넷의 보급 속도 증가 및 디지털 단일시장의 해택확보
지속적 성장 (Sustainable Growth)	자원 효율적인 유럽 (Resource efficient Europe)	저탄소경제 달성을 목표로 한 자원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 등을 통한 경제와 자원소비 간의 분리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중소)기업환경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하고 지속적인 산업기반 개발 지원
포괄적 성장 (Inclusive Growth)	신기술·일자리 아젠다 (An 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노동참여 증가 및 노동수요와 공급의 조절방식 개선을 목표로 한 노동이동성 향상,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노동력 강화 및 노동시장 현대화
	빈곤퇴치를 위한 유럽 플랫폼 (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사회적·지역적 통합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해택 확산 및 빈곤과 사회소외를 겪고 있는 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독려

다. 산업 환경

[국가별 대표산업 선정 기준]

- ① 유럽 국가의 10대 수출산업 도출(HS코드 2단위, WTA, 2018년 6월 기준)
- ② 도출된 수출산업 중 한국산 제품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30위권 이내이며,
- ③ 한국으로부터 수입증가율이 2018년 6월 기준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한 산업군

□ 서유럽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독일	자동차* (87)	기계* (84)	전자 기계* (85)	의약품* (30)	광학의료 기기 (90)	플라스틱 (39)	철강 제품* (73)	천연 역청 (27)	철, 철강* (72)	화학 제품 (38)
영국	기계 (84)	자동차 (87)	보석, 메탈 (71)	천연 역청 (27)	의약품 (30)	전자 기계 (85)	항공기 (88)	광학의료 기기* (90)	플라스틱 * (39)	유기 화학* (29)
프랑스	기계* (84)	자동차* (87)	항공기 (88)	전자 기계* (85)	의약품* (30)	플라스틱 (39)	화장품 (33)	음료 (22)	천연 역청 (27)	철, 철강* (72)
네덜란드	기계 (84)	천연 역청 (27)	전자 기계 (85)	의약품* (30)	광학의료 기기 (90)	자동차* (87)	플라스틱 * (39)	유기 화학* (29)	철, 철강* (72)	수목 (06)
벨기에	자동차 (87)	의약품 (30)	천연 역청* (27)	유기 화학 (29)	플라스틱 * (39)	기계 (84)	보석, 메탈 (71)	철, 철강* (72)	전자 기계 (85)	광학의료 기기 (90)
오스트리아	기계 (84)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의약품 (30)	철, 철강* (72)	플라스틱 (39)	철강 제품 (73)	목재 (44)	종이 (48)	광학의료 기기 (90)
스위스	보석, 메탈 (71)	의약품 (30)	기계 (84)	시계류* (91)	유기 화학 (29)	광학의료 기기 (90)	전자 기계 (85)	플라스틱 * (39)	화장품 (33)	철강 제품 (73)

주: *는 국가별 2년 연속(2017년, 2018년) 한국산 제품 수입이 연속 증가한 산업

국가	對EU 국가별 한국의 유망 산업군(2017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독일	① 자동차(34.64%, 23.01%), ② 기계(54.55%, 30.98%), ③ 전자기계(67.64%, 3.28%), ④ 의약품(1,082.16%, 35.48%), ⑤ 철강제품(5.23%, 6.97%), ⑥ 철, 철강(43.69%, 29.61%)
영국	① 광학의료기기(9.68%, 49.74%), ② 플라스틱(6.28%, 14.44%), ③ 유기화학(26.70%, 31.76%)
프랑스	① 기계(15.49%, 11.65%), ② 자동차(60.84%, 47.57%), ③ 전자기계 (2.76%, 6.57%), ④ 의약품(43.06%, 619.13%), ⑤ 철, 철강(0.43%, 17.63%)
네덜란드	① 의약품(9.56%, 10.673%), ② 자동차(122.63%, 101.37%), ③ 플라스틱(6.85%, 60.60%), ④ 유기화학(58.55%, 40.20%), ⑤ 철, 철강(56.07%, 47.81%)
벨기에	① 천연역청(1.37%, 15.77%), ② 플라스틱(8.72%, 17.23%), ③ 철, 철강(56.06%, 33.82%)
오스트리아	① 자동차(4.31%, 0.32%), ② 전자기계(9.65%, 34.49%), ③ 철, 철강(18.55%, 29.86%)
스위스	① 시계류(4.75%, 40.94%), ② 플라스틱(5.93%, 38.18%)

□ 북유럽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스웨덴	기계* (84)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천연 역청 (27)	종이 (48)	의약품 (30)	철, 철강* (72)	플라스틱 (39)	생선류 (03)	목재 (44)
덴마크	기계 (84)	의약품 (30)	전자 기계 (85)	천연 역청 (27)	광학의료 기기* (90)	생선류 (03)	육류 (02)	자동차* (87)	가구 (94)	유제품 (04)
핀란드	종이 (48)	기계 (84)	전자 기계 (85)	천연 역청 (27)	자동차* (87)	철, 철강 (72)	목재 (44)	광학의료 기기* (90)	펄프 (47)	플라스틱 (39)

주: *는 국가별 2년 연속(2017년, 2018년) 한국산 제품 수입이 연속 증가한 산업

국가	對EU 국가별 한국의 유망 산업군(2017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스웨덴	① 기계(15.88%, 10.77%), ② 자동차(35.98%, 56.67%), ③ 철, 철강(57.58%, 67.05%)
덴마크	① 광학의료기기(3.63%, 38.25%), ② 자동차(14.35%, 18.30%)
핀란드	① 자동차(84.65%, 31.87%), ② 광학의료기기(6.64%, 13.66%)

□ 남유럽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이탈리아	기계* (84)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의약품 (30)	플라스틱 (39)	철강 제품 (73)	천연 역청 (27)	철, 철강* (72)	가구 (94)	광학의료 기기* (90)
스페인	자동차* (87)	기계* (84)	천연 역청 (27)	전자 기계 (85)	플라스틱 (39)	의약품* (30)	과일 (08)	의류 (62)	채소 (07)	철, 철강* (72)
그리스	천연 역청 (27)	알루미늄 (76)	기계 (84)	의약품 (30)	플라스틱 (39)	통조림 (20)	전자 기계* (85)	과일 (08)	식용기름 (15)	구리 (74)

주: *는 국가별 2년 연속(2017년, 2018년) 한국산 제품 수입이 연속 증가한 산업

국가	對EU 국가별 한국의 유망 산업군(2017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이탈리아	① 기계(21.11%, 31.15%), ② 자동차(45.40%, 27.57%), ③ 철, 철강(3.97%, 33%), ④ 광학의료기기(1.79%, 15.78%)
스페인	① 자동차(54.53%, 20.03%), ② 기계(25.23%, 21.72%), ③ 의약품(51.38%, 162.01%), ④ 철, 철강(84.76%, 13.8%)
그리스	① 전자기계(3.56%, 2.85%)

□ 동유럽

국가	10대 수출산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헝가리	전자 기계 (85)	기계* (84)	자동차* (87)	의약품* (30)	플라스틱 * (39)	광학의료 기기* (90)	천연 역청 (27)	고무 (40)	유기 화학 (29)	가구 (94)
폴란드	기계* (84)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가구 (94)	플라스틱 * (39)	철강 제품* (73)	천연 역청 (27)	고무* (40)	육류 (02)	목재 (44)
체코	자동차 (87)	기계* (84)	전자 기계 (85)	철강 제품* (73)	플라스틱 (39)	가구 (94)	철, 철강* (72)	고무* (40)	광학의료 기기 (90)	천연 역청 (27)
루마니아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기계 (84)	천연 역청 (27)	가구 (94)	광학의료 기기* (90)	고무* (40)	철강 제품 (73)	철, 철강* (72)	의류 (62)
불가리아	전자 기계 (85)	구리 (74)	기계* (84)	천연 역청 (27)	자동차* (87)	의약품 (30)	플라스틱 (39)	시리얼 (10)	의류 (62)	철강 제품 (73)
슬로바키아	자동차 (87)	전자 기계* (85)	기계 (84)	철, 철강 (72)	천연 역청 (27)	플라스틱 (39)	고무 (40)	철강 제품 (73)	가구 (94)	알루미늄 (76)
세르비아	전자 기계* (85)	자동차* (87)	기계* (84)	철, 철강* (72)	고무 (40)	구리 (74)	과일 (08)	가구* (94)	종이 (48)	철강 제품 (73)

주: *는 국가별 2년 연속 (2017년, 2018년) 한국산 제품 수입이 연속 증가한 산업

국가	對EU 국가별 한국의 유망 산업군(2017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헝가리	① 기계(109%, 1.76%), ② 자동차(24.40%, 56.04%), ③ 의약품(13.15%, 188.09%), ④ 플라스틱(10.05%, 2.64%), ⑤ 광학의료기기(16.24%, 108.02%)
폴란드	① 기계(46.52%, 13.34%), ② 자동차(19.87%, 24%), ③ 플라스틱(6.32%, 33.61%), ④ 철강제품(17.20%, 11.57%), ⑤ 고무(11.29%, 28.75%)
체코	① 기계(13.22%, 35.06%), ② 철강제품(2.14%, 33.08%), ③ 철, 철강(13.91%, 60%), ④ 고무(1.17%, 15.47%)
루마니아	① 자동차(22.90%, 13.12%), ② 광학의료기기(26.28%, 8.28%), ③ 고무(16.74%, 15.79%), ④ 철, 철강(20.47%, 11.51%)
불가리아	① 기계(42.47%, 62.22%), ② 자동차(27.07%, 12.92%)
슬로바키아	① 전자기계(4.67%, 42.03%)
세르비아	① 전자기계(11.80%, 36.67%), ② 자동차(21.79%, 103.56%), ③ 기계(14.68%, 228.24%), ④ 철, 철강(820.08%, 96.91%), ⑤ 가구(309.9%, 37.81%)

【참고】대표산업별 주요 글로벌 기업 동향

□ 서유럽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최근 동향
자동차	독일	Mercedes Benz	생산, 판매, R&D	• 2017년 E 클래스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 2025년까지 총 10개 전기차 모델개발에 100억 유로 투자 계획 • 2017년 9월 프랑크푸르트 국제모터쇼(IAA), 수소연료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F-Cell EQ 파워 모델 첫선 •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과 긍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국산 핵심부품 및 전장부품 아웃소싱 확대 계획
자동차	독일	Volkswagen	생산, 판매, R&D	• 미래 사업방향 슬로건 Together-Strategy 2025: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대량생산 계획. 핵심부품인 배터리 기술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 R&D 확대 계획 • 아우디 자율주행차 자회사, Autonomous Intelligent Driving GmbH사 설립 • 중국 Hefei사와 투자 협정체결, JV 설립. 중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 전망 • 디지털 팩토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멘스, 6개의 스타트업과 협업 중(생산/물류 부문 VR 기술) • 신흥시장 아프리카 진출 확대 계획(르완다)
자동차 부품	독일	Continental	생산, 판매, R&D	• 'Mobility redefined' 캐치프레이즈 바탕, 자율주행, e-모빌리티, 디지털화 혁신사업 방향 모색 • 중국에 자율주행 플랫폼 확립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2025AD.cn 런칭, 바이두사와 스마트커넥티드카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EasyMile사에 투자 등
자동차부품	독일	Bosch	생산, 판매, R&D	• 전기자동차 부품개발 및 대량 생산체제 구축에 총력 • 늦어도 2019년에 모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트랜스미션(변속기) 등 세 종류의 파워트레인 컴포넌트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e-엑셀'을 양산할 예정임. 주요 타겟 고객층은 소규모 전기자동차 전문제조사로서, 올인원 시스템 탑재 시 3개의 컴포넌트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 저비용 효과를 볼 수 있음.
기계	독일	Schunk	생산, 판매, R&D	• 자동화 부문 세계 최대기업 중 하나, 클램핑(Clamping) 기술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만여개 제품 보유 • 공장자동화 관련 로보틱스 기술 개발 확대 및 각종 산업에 필요한 로봇팔 연구 개발에 주력
기계	독일	SEW Eurodrive	생산, 판매, R&D	• 자체 공장 내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 도입 •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립, 핸들링 및 운송 자동화 관련 모바일 보조 시스템 도입
의약/화장품	독일	Beiersdorf	생산, 판매, R&D	• 2016년 총 매출 67억 유로(8조 3,000억 원), 세계 화장품 시장 3위 기록(1위 로레알, 2위 행켈) • 인공 지능과 분석기술 도입으로 1인 맞춤형 스킨케어 신제품 개발 중, 2017년 피부 이미지 사진 인식으로 노화를 측정하는 '스킨핵 1.0' 개발, 단순 이미지 분석이 아닌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활용 • 한국 스타트업 초위스컴퍼니(CHOWIS: 휴대용 피부, 헤어 진단기 개발)와 기술협력 중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최근 동향
의료기기	영국	NHS (영국 보건청)	서비스	- 최근 예산절약을 위해 혁신적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 공조달 소싱에 대한 관심 증대 - 텔레케어, 텔레헬스, 엠헬스, 헬스케어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
자동차	프랑스	RENAULT	생산, 판매, R&D	- 이란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 공장 설립 중 - 중국 동평사와 저가 전기차 공동개발 중(2019년 판매 목표) - 미츠비시사와 제휴, 세계 최대 완성차기업으로 부상
자동차 부품	프랑스	FAURECIA	생산, 판매, R&D	- 플라스틱부품 매각으로 부채 청산 - 거래처 다변화로 매출, 영업이익 각 7% 증가 기대 - 아시아 시장진출 강화
자동차 부품	프랑스	VALEO	생산, 판매, R&D	- 지멘스와 전기차 동력 개발 위해 합작투자 - R&D 투자 20% 증가로 2021년 매출 210억 유로 목표 - 미래차용 조종석과 수소엔진 R&D 투자 강화
자동차 부품	프랑스	PLASTIC OMNIUM	생산, 판매, R&D	- 하이브리드, LPG, 수소연료 탱크, 에너지 저장용 플라스틱 소재 R&D 강화 - SUV용 플라스틱부품 개발로 영업실적 21.5% 증가 - NOx 배출량 감소 부품(SCR), 미국 판매 57% 증가
화장품	프랑스	L'OREAL	생산, 판매, R&D	- 로레알파리 브랜드 혁신으로 자국시장 공략에 박차, 고객 니즈파악 및 디지털 운영을 위해 파리에 로레알파리 브랜드 '첫 메이크업샵' 오픈 - 미국 기업과 협업에 이어, 프랑스 스타트업과 파트너십 체결, 모발 생성을 위한 모낭개발 연구 착수
천연역청	네덜란드	Shell	refinery, 판매, R&D	2016년에는 LNG 충전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5번째 LNG 트럭 충전소 개소 - 최근 그린 에너지 관련 2개(GRC SinoGreen Fund III, SET Ventures) 펀드 운영, 신기술분야 투자 집중
전자/기계	네덜란드	Philips	생산, 판매, R&D	- 필립스 LED 원예 식물 등 조명 2.0 출시, 2017년 두바이에 2백만 개 납품 - 필립스 조명, 2016-20년 새로운 지속성장 사업 개발 발표
플라스틱	네덜란드	Wavin	생산, 판매	네덜란드 최대 도로 건설사인 KWS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로드'라는 지속가능 도로건설 프로젝트 추진
기계	오스트리아	Andritz Hydro	생산, 판매, R&D	2018년부터 안동댐 공사 시작 -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수력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다수 진행 중
자동차 부품	오스트리아	Magna Steyr	생산, 판매, R&D	2018년 가을부터 BMW의 새로운 로드스터 Z4 모델 생산 예정
자동차 부품	오스트리아	Magna Powertrain	생산, 판매, R&D	아시아 지역 등 역외산 소싱 확대 계획
자동차	오스트리아	Rosenbauer	생산, 판매, R&D	2018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자체 제작 차량 소방차 브랜드 Avenger 생산

□ 북유럽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자동차	스웨덴	Volvo	생산, 판매, R&D	- 북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신규 공장 설립 중 - 비용절감 목표 연간 60억 유로
전자/기계	덴마크	Vestas Wind Systems A/S	생산, 판매, R&D	2019년 내에 풍력 V120 생산 계획 - 잉여 생산 풍력에너지 저장을 위해 Tesla 등 전기배터리 업체와 협업 가능성 타진
광학 의료기기	덴마크	Mediq Danmark A/S	판매	- Systagenix(미국 상처 케어 회사)로부터 신제품 수입 예정 및 Systagenix의 판매 인력 인수에 집중 계획 2018년 Heine Optotechnic(독일 직장경 검사회사)에서 신제품 수입
자동차	덴마크	Semler Group A/S	판매	- Volkswagen 신제품 론칭: T-Roc(소형 SUV), Touareg(대형 SUV), 전기차는 2019년 발표 추진 - Audi 신제품 론칭: A8(럭셔리), Q3(중형 SUV), 전기차는 2019년 발표 계획 - Seat 신제품 론칭: Aurona(중형 SUV) - Skoda 신제품 론칭: Karoq(대형 SUV), Polar(중형 SUV)
전자기계	핀란드	NOKIA	생산, 판매, R&D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력하여 5G 기술 표준화 작업 및 5G 기술 도입 장비 개발 중 2021년까지는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산업에 집중하고, 그 이후 주력 분야를 IoT/소프트웨어로 전환할 계획 - 인텔과 가상 네트워크 공동연구 진행, 클라우드 기반 OSS/BSS 분야 대규모 투자 등 S/W 기술개발에 적극적
자동차	핀란드	Valmet	생산(OEM)	- 벤츠 소형차 신규생산 시작으로 사업 확장(2017.3) 2018년 출시될 벤츠 신차 생산 시작에 대비하여 3,000여 명 신규 고용 및 4천만여 유로 투자

□ 동유럽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기계	헝가리	National Instruments	생산, R&D	- 데브레첸(Debrecen) 공장에 19.6억 달러 상당 증액투자를 계획 - 생산시설 확장 및 IT를 기반으로 한 R&D 시설 투자 확충이 주내용
기계	헝가리	Dana Hungary	생산	미국계 회사로 죄르(Gyor) 지역에 4,600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초부터 Bent Bevel Gear 제작공장 설립
자동차	헝가리	Daimler	생산	- 케츠케메트(Kecskemet) 지역에 생산시설 50% 확대를 위해 11억 달러 증액투자를 진행 - 부품공급체계 현지화를 위한 원가절감 검토 중. 이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자동차	헝가리	Audi	생산	죄르(Gyor) 지역에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1.1억 달러 증액투자 진행
자동차	헝가리	BYD	생산	중국계 전기버스 생산업체로 야스베니사루(Jaszfenyszaru) 지역에 2,200만 달러 규모 신규투자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자동차	헝가리	Bosch	생산, R&D	• 케츠케메트(Kecskemet) 지역에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1,200만 달러 증액투자 진행 중 • 헝가리에서 무인자동차 연구를 위한 주행도로 등 R&D 투자 진행 중
플라스틱	헝가리	ECKERLE	생산	• 최근 헝가리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산업 성장으로 Baranya 지역에 8.5만 유로 투자. 공장 확장 • 최근 플라스틱 수요가 늘고 있어 추가적으로 4.5만 유로 생산투자 프로젝트 검토 중
플라스틱	헝가리	Graboplast	생산, R&D	• 최근 차량용 프레임 보호를 위한 특별 코팅기술 개발 완료 • 시제품화를 위해 3,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Tatabany 지역에 신공장 건설 및 Kecskemet 지역 공장 확장 계획
광학 의료기기	헝가리	Bionic Innovation Center	R&D	• 2016년 9월부터 분자 단위의 영상진단장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광학 의료기기	헝가리	MEDISO	R&D	• 2015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4.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PET를 결합한 New NanoScan Plus MRI 제품 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화학	헝가리	Bridgestone	생산	• 헝가리 공장에 2020년까지 180만 달러 투자 • 연간 720만 타이어를 생산 계획
화학	헝가리	MOL Petrochemicals	생산	• 2017년 완공을 목표로 2015년 11월부터 연간 6만 톤 가량 생산이 가능한 합성고무 공장을 건축 중
자동차	체코	스코다	생산, 판매, R&D	• 2017년 하반기 코디악 SUV 초기생산가동 • 예티(Yeti) 모델생산 단계적 중단, 콤팩트 SUV 카루크(Karoq) 생산예정 • 2019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양산 돌입 예정
자동차	슬로바키아	PSA Group	생산, 판매	• 2017년 800명 추가 고용, 2018년부터 엔진 250,000/연 이상 생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 • 엔진 자체 생산을 위한 플랜트 확장 진행 중
자동차	슬로바키아	Jaguar Land Rover	생산, 판매	• 2018년 하반기부터 JLR Slovakia(30만대 플랜트) 양산모델 런칭 예정(연 15만 대)
자동차 부품	슬로바키아	ZKW	생산, 판매	• 2017년부터 핵심부품을 제외한 단종차량 부품, 램프 등 아웃소싱
자동차 부품	슬로바키아	Continental	생산, 판매, R&D	• 2018년 브레이크 캘리퍼 생산모델 다변화 수요
전자 기계	슬로바키아	Philips HealthTech	생산, 판매	• 진단용 영상기기, 초음파 진단기, 환자 모니터기기, 병원용 환기 시스템, 원격 심박 모니터링 등 생산
의료기기	슬로바키아	Ekom	생산, 판매	• 피에스타니(Piestany) 지역에서 1992년도에 설립, 190명 고용 중 • 주요 생산품목: 치과용 콤프레서, 의료용 콤프레서(호흡기, 마취용), 흡입기, 여과기, 압력 조절장치 등 • ISO 9001, 13485 인증보유, 매년 1만 4,000대의 콤프레서를 생산, 99%의 생산량을 유럽, 아시아, 중동과 미주에 수출
전자 기계	세르비아	Telenor (노르웨이)	판매, R&D	• 이동통신 가입자수 시장점유율 34% • 국영통신사 MTS에 이어 2위 4G 도입에 3천만 유로 투자 예정
전자 기계	세르비아	Microsoft (미국)	판매, R&D	• 2018년 SW개발 엔지니어 300명 추가 고용 예정
자동차	세르비아	Fiat (이탈리아)	생산, 판매, R&D	• 2017년 예상 매출액 12억 유로, 2016년 세르비아 시장점유율 1위, 16% • 임금인상 노사분규로 20일 파업(7월) 후 2017년 인상을 3%, 2018년 인상을 6%로 협상 종료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가구	세르비아	IKEA (스웨덴)	판매	• 2017년 베오그라드 외곽 지역에 1호점 개점 후 2018년 니쉬에 2호점 출점 준비 중 • 현재 로컬 납품업체 단 1개사이나 확대 추진 중
자동차	슬로바키아	PSA Group	생산, 판매	• 2017년 800명 추가 고용, 2018년부터 엔진 25만/년 이상 생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 • 엔진 자체 생산을 위한 플랜트 확장 진행 중
자동차	슬로바키아	Jaguar Land Rover	생산, 판매	• 2018년 하반기부터 JLR Slovakia(30만 대 플랜트) 양산모델 런칭 예정(연 15만 대)
자동차 부품	슬로바키아	Continental	생산, 판매, R&D	• 2018년 브레이크 캘리퍼 생산모델 다변화 수요
전자 기계	슬로바키아	Philips HealthTech	생산, 판매	• 진단용 영상기기, 초음파 진단기, 환자 모니터링기, 병원용 환기 시스템, 원격 심박 모니터링기 등 생산
의료기기	슬로바키아	Ekom	생산, 판매	• 피에스타니(Piestany) 지역에서 1992년도에 설립, 190명 고용 중 • 주요 생산품목: 치과용 콤프레서, 의료용 콤프레서(호흡기, 마취용), 흡입기, 여과기, 압력 조절장치 등 • ISO 9001, 13485 인증보유, 매년 1만 4,000대의 콤프레서 생산, 99%의 생산량이 유럽, 아시아, 중동과 미주에 수출
전자 기계	세르비아	Telenor (노르웨이)	판매, R&D	• 이동통신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34% • 국영통신사 MTS에 이어 2위 4G 도입에 3천만 유로 투자 예정
전자 기계	세르비아	Microsoft (미국)	판매, R&D	• 2018년 SW개발 엔지니어 300명 추가 고용 예정
자동차	세르비아	Fiat (이탈리아)	생산, 판매, R&D	• 2017년 예상 매출액 12억 유로, 2016년 세르비아 시장점유율 1위, 16% • 임금인상 노사분규로 20일 파업(7월) 후 2017년 인상을 3%, 2018년 인상을 6%로 협상 종료
가구	세르비아	IKEA (스웨덴)	판매	• 2017년 베오그라드 외곽 지역에 1호점 개점 후 2018년 니쉬에 2호점 출점 준비 중 • 현재 로컬 납품업체 단 1개사이나 확대 추진 중

□ 남유럽

업종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017년, 2018년 주요 동향
발전설비 (기계)	이탈리아	Ansaldo Energia	생산, 판매, R&D	• 발전설비(터빈블레이드) 전문 생산업체로 지속적으로 A/S용 부품 생산업체 발굴 중
자동차	이탈리아	Brembo	생산, 판매, R&D	• 아시아 생산공장 및 판매법인 설립 진행 중 • 신규 생산공장 부품공급을 위해 업체 발굴 중
자동차	스페인	Ford (미국)	생산, 판매	• 對미국 모터 수출 확대를 위해 스페인 공장에 4천만 유로 투자 (2017. 1)
자동차	스페인	Volkswagen (독일)	생산, 판매	• 스페인 공장에 자체 개발한 MQB(Modular Transversal Toolkit) 모듈러 플랫폼 도입, 연간 70만 대 생산 계획(2017. 7)
신재생	스페인	Siemens (독일)	판매	• Siemens-Gamesa, 2020년까지 206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신재생	스페인	GE (미국)	제조	• 스페인 Grupo Forestalia와 공급계약 체결, 동 기업이 건설하는 풍력단지에 터빈 및 블레이드 등 납품 예정

라. 정책·규제 환경

□ EU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엄격

- (적용대상) EU 내 설립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EU 거주자에게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GDPR 규정 의무 준수, 위반 시 과징금 처벌
- (보호책임) 우리나라의 경우 CPO를 책임자로 선정하지만, GDPR에서는 담당자의 관련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 중시
 - * EU 내에 사업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EU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 (기록대상)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 및 관련 세부내역까지 모두 기록
- (영향평가)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정보 리스크 보유 민간 영역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EU GDPR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 EU 내 정보처리자, 수탁자의 활동 - EU 내 설립되지 않는 정보처리자가 EU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EU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활동을 감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 부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자격조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 위반 시 처벌 가능	- 자격요건: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 등 - 위반 시 처벌 가능
기록대상	
- 정보처리자, 대리인, 담당자 등의 이름, 연락처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및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범주 및 국가 - 적절한 안전조치에 대한 문서 - 위반 시 처벌 가능 ※ 단, 250인 미만 기업이나 조직에는 미적용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 보관 - 위반 시 처벌 가능
개인정보 영향 평가	
- 개인정보 처리 유형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간 영역도 영향 평가 실시 의무 부여 - 위반 시 처벌 가능	- 공공기관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향 평가 실시 -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 운영 시 - 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와 연계 시 - 5만 명 이상의 민간정보, 고유 식별정보 운영 시 -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위반 시 처벌 가능

자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EU, 2030 자동차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안 발표

- (도입 배경) CO₂ 배출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럽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확산
- (적용 대상)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차량 중량 3.5톤 이하, 형식승인 N1로 분류된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2018년 EU 의회와 이사회 검토 후 2019년 1/4분기 내 법안 승인 예상
- (절감 목표)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감축,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30% 감축
 - PA 컨설팅, 2021년 동 규정 시행 시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완성차 기업에 대한 벌금이 총 4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새로운 EU 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₂ 배출 감축 목표 추진하고,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비용 부담 최소화 필요

[2021년 EU 내 주요 완성차별 CO₂ 예상 방출량 및 예상 벌금 규모]

(단위: g/km, 억 유로)

완성차명	2021년 예상 방출량	2021년 목표	예상 벌금
피아트크라이슬러	101.2	91.1	13
폴크스바겐	100.3	96.3	12
PSA	95.6	92.6	5.7
BMW	104.7	100.3	5
포드	96.1	93	4.55
현대기아	94.9	91.7	2.9
다임러	102.1	100.7	2
볼보	83.1	103.5	0

자료원: Automobilwoche 및 PA 컨설팅

□ EU 신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RDE)를 모든 신규 차량에 도입(2018.9.1~)

- 연이은 독일 완성차기업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실 주행테스트 (Real-Driving-Emission, RDE) 신규 모델에 한해 부분적 도입 (2017.9.1.~)
 - * 동 주행 테스트는 EU 차원에서 2017년 9월 이후 신규 차량 모델 승인에 적용
 - 2017년 8월 2일 정계, 유관협회, 완성차기업이 함께 한 디젤 관련 대책회의에서 형식승인 유로 5등급(Euro 5)과 6등급(Euro 6) 차량 530만 대의 소프트웨어 교체 결정
 - * VW,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및 기타 완성차기업이 총 1,200만 대 디젤 자동차 리콜 시행
 -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디젤 차량에 대한 판매 금지 논의도 화두로 부상

- 2018년 9월 1일부로 RDE 테스트 방식을 모든 신규 차량에 적용 중
 - RDE 테스트 방식이 기존과 다른 점은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가능한 한 실제 주행 조건하에서 측정한다는 것
 - 실제 주행상황에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만을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미세먼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Euro 6c 기준하에 새로 개발된 가솔린 승용차 모델은 1,011/km의 6배, 6,000억 개 입자상 물질까지 허용되며, 이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 또한 가솔린 승용차에 현재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도 의무화

[EU의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연도/배출가스 기준	디젤		가솔린	
	PM(매연입자)	PN(입자상 물질)	PM(매연입자)	PN(입자상 물질)
2000년: Euro 3	50	-	-	-
2005년: Euro 4	25	-	-	-
2009년: Euro 5	5	-	4.5**	-
2014년: Euro 6/6b	4.5	6×10 ¹¹	4.5**	6×10 ¹²
2017년: Euro 6c	4.5	6×10 ¹¹	4.5**	6×10 ¹¹

주1: 단계별로 차종에 확대 적용, PM의 단위는 mg/km PN의 단위는 1/km

주2: Direct injection engine(직접분사 엔진) 장착 차량만 해당

자료원: EU 집행위/독일자동차청(KBA), Die Zeit

- 신 RDE 테스트 도입은 對EU 자동차 수출에 강화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신기준에 맞는 친환경 차량을 개발해 시장 내 선도적 입지 구축 필요

□ EU 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II) 개정안 발표 (2019.9.22. 발효)

◎ 용어 정의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RoHS는 2006년 7월 1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는 목적하에 발효된 유럽의 강제 규제로서, 전자제품의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

- EU는 RoHS 인증 대상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
 - 2014년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카테고리 9)*
- * 적용 품목: 화재경보기, 온도조절계, 동작감지기, 온도계, PH 테스트기(산성/알칼리성 수치 측정기기), 미디어 콘솔, 기타 측정기기, 무게측정 및 조정기기 등

- (개정안) 2017년 지침 개정안(EU) 2017/2102를 통해 지침 일부 개정
 - 이에 따라 이미 유통기업에 배송된 신규 제품이 아닌 시장 내 최초로 출시된 제품에 한해 RoHS 요구사항 적용 명시
- 주요 인증요건
 - 2005/618/EC에 따라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s) 내 여섯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 허용농도(maximum concentration value)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문서 구비 필요
 -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적합성 증빙 획득 필요
 - 재질과 제품 시험 이행이 의무
 - 부적합한 재질과 부품은 교체 필요
 - RoHS 지침 준수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상 변경 필요(특히 무연 솔더, Pb-free soldering)하며*, 현재 최소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향후 자동차, 항공, 의료, 군사 산업 분야에 이어 기계 분야의 경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 전기, 전자부품이나 제품 제작 시 부품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던 납을 사용하지 않는 기법을 의미
 - 10년간 유효, 국내 시험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취득이 가능,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약 1~2개월 정도. 제품 심사는 제품의 재질별로 수행되며, 시험 비용은 이를 기준으로 책정
 - 제조사는 동 인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품의 유통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
- RoHS II는 전기전자제품의 對EU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사전예방 개념 강화

□ 유럽 내 유통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규제·감독 강화

- 최근 Medical Devices Regulations 승인(2017년 4월)에 따라 EU 내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임상실험 결과 제출 의무화 예정
 - 의료기기는 2020년부터, 체외진단기는 2022년부터 시행
- 지금까지는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the equivalence)에 의거하여, 유사품목 제조업체의 임상실험 결과 사용 가능

□ 관련 수입규제로 관세 확정

- EU 집행위, 2017년 5월 3일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톤당 104.46유로 관세 확정)
 - 국내 제지업체의 주요 수출국은 북미, 남미, 아시아 등으로 對유럽 수출비중이 크지 않아 피해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

- 2016년 8월 3일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테레프탈산 및 그 염의 경우 반덤핑 조치 없이 조사 종료
- 이 외 총 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우회덤핑 규제 중
 - EU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경한 입장 유지 전망, 국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주의 요구

[EU의 對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유형	조사 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2001. 6. 1	2002. 8. 24 최종판정
철강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중국)	2009. 8. 12	2010. 5. 11 최종판정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중국)	2006. 4. 20	2007. 1. 19 최종판정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2014. 8. 14	2015. 10. 30 최종판정

자료원: EU 집행위

[참고] EU 「Industrial Policy Strategy」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의 하나로 ‘산업정책전략(Industrial Policy Strategy)’을 발표 (9.18)
- (배경) EU 집행위 차원에서 산업발전과 관련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여 추진함으로써 성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성장의 결실을 회원국간 공유 및 확산
 - * EU 산업은 선도적 입지를 통해 ‘13년 이후 EU 수출의 2/3를 차지함과 동시에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와 3,200만명의 고용을 창출
- (주요 내용) 동 전략은 EU 산업과 연관된 EU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디지털화 확대, 저탄소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포함
 - (통상·투자) 균형있고 진보적인 통상정책과 함께 보안 또는 공공질서 위협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 투자감시제도를 추진
 - (자동차 관련) 청정·경쟁력·상호연계 이동성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강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액션플랜 마련, △자율주행 차량 육성계획 등을 포함
 - (핵심원료) EU 제조업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하게 원료를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원료 목록을 수정

- (비개인정보 활용증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산업을 현대화하고 새로이 공용 유럽 데이터 공간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
 - * 동 이슈는 '자율주행차, IoT, 5G 응용개발' 등이 포함된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
- (순환경제) 플라스틱 전략을 포함해 재생가능한 생물학적 자원과 바이오 기반 제품 및 바이오에너지로 전환가능한 자원의 생산을 촉진할 신규 조치를 시행

2. 시장 분석

- 세계 최대 및 최고의 선진시장
- 개방, 다양성, 협력, 통합의 '가치 공동체(Community of Values)'
- 진입장벽이 높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
-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시장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최고의 선진시장

- (시장)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으로 거대 내수시장과 첨단산업의 본고장
 - 2018년 GDP 기준 세계 2위(18.7조 달러/2위)

[세계 주요 내수시장 규모]

(단위: 조 달러)

미국	EU	중국	일본	독일
20.5(1위)	18.7(2위)	13.4(3위)	5.0(4위)	4.03(5위)

자료원: IMF

- (투자) 세계 1위의 In·Outbound 해외직접투자 경제권
 - 해외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유럽의 투자진출 활발
 - 기술·브랜드파워 확보를 위한 해외기업의 유럽 진출 활발

[세계 주요 투자동향]

(단위: 달러)

2017	EU	미국	중국
투자(Out)	1위(4,254억) * 전 세계의 30%	2위(3,626억) * 전 세계의 26%	3위(1,019억) * 전 세계의 7%
투자(In)	1위(2,902억) * 전 세계의 20.4%	2위(2,868억) * 전 세계의 20.2%	3위(1,682억) * 전 세계의 10%

자료원: OECD FDI in Figures (2017년 기준, 2018년 4월 발표치)

○ (소비) 1인당 국민소득 최고의 선진시장(1인당 명목 GDP 기준)

- 상위 20위권에 유럽 12개국 포진

* 룩셈부르크 10만 5,803달러(1위), 스위스 8만 591달러(2위), 노르웨이 7만 4,941달러(3위), 아일랜드 7만 638달러(4위), 덴마크 5만 6,444달러(9위), 스웨덴 5만 3,582달러(11위), 네덜란드 4만 8,346달러(12위), 오스트리아 4만 7,290달러(14위), 핀란드 4만 6,017달러(15위), 독일 4만 4,550달러(17위); 2017 기준 (IMF 2018.4월 자료)

○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 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정밀화학·기계자동차·항공(독일, 스위스, 프랑스), IT·전자(영국, 핀란드, 스웨덴), 패션(이탈리아)
- 글로벌 경쟁력 보유 선도기업 유럽에 최다 포진

* Fortune Global 500대 기업(145개사, 29%), 히든챔피언 기업(1,948개사, 72.5%) 유럽에 소재

□ 개방, 다양성, 협력, 통합의 '가치 공동체(Community of Values)'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유럽의 핵심 포인트는 '가치 공동체'

- 유럽 28개국 국민이 뽑은 유럽의 3대 핵심가치는 '평화/인권, 민주주의, 법치(Rule of Law)'임

* 응답자의 39%가 '평화', 33%가 '인권', 32%가 '민주주의', 22%가 '법치(Rule of Law)'를 선택

- '가치소비'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

* ① 웰니스, ② 에너지 절감/친환경, ③ 기능성을 갖춘 혁신제품, ④ 실용적인 아이디어 제품

[What are the values that best represent the EU?]



주: EU 28개국, 758명 대상 설문조사, 3개 복수응답 가능

자료원: EUROBAROMETER(2018년 3월, European Citizenship Autumn 보고서)

□ 진입장벽이 높은 ‘선택과 집중’의 시장

- 한국의 유럽 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2.6%, 주요 수출권역 대비 낮은 점유율
 - * 한국의 해당 권역 내 수입시장 점유율: EU 2.6%(독일1.0%, 체코 1.7%등) vs. 중국 9.9%, 미국 3.1%, 일본 4.1% (WTA, 2017)
- 한국의 5대 수출권역 중(중국, 미국, 일본, ASEAN, EU)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낮은 시장
 - 한국의 총 수출중소기업 수는 9만 2,357개사(100%), 對유럽 수출중소기업 수는 1만 8,972개사(21%)
 - * 對ASEAN 6만 594개사(66%), 對중국 3만 1,455개사(34%), 對미국 1만 9,529개사(21%), 對일본 1만 9,244(21%) 등
 - 한국의 총 제조업 중소기업(58만 518개사) 중 對유럽 수출기업 비중은 3.2%에 불과
 - 수출 레퍼런스 보유가 중요하여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의 초기 진출이 어려운 시장

[한국 중소기업의 對세계 및 對유럽 수출기업 수와 비중(2017년)]

(단위: 개, %)

	제조업 중소기업 수	수출중소기업 수
총계(비중)	580,518(100)	92,357(15.9)
對유럽		18,97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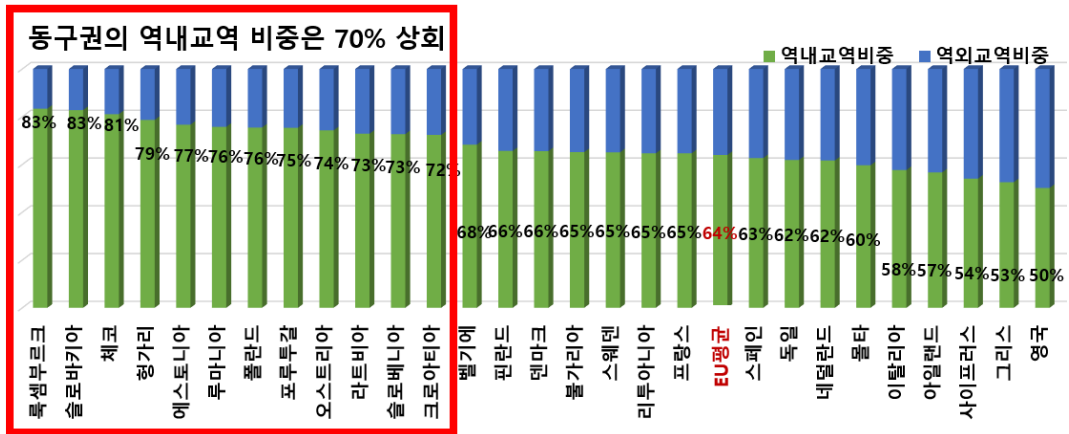
자료원: 관세청(수출중소기업 수), 중소기업벤처부(중소기업 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준)

- 보수적 구매 관행으로 초기진입이 어렵고 내부정보 획득이 어려운 시장
 - 면밀한 기회요인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접근이 필요한 시장
 - 유럽의 역외수입, 對한국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 타깃 등 차별화된 품질과 기능으로 틈새시장 공략을 요하는 시장

□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 시장

- 권역별 분업구조 기반 역내교역 중심의 시장
 - EU 역내 교역비중 64%(2017), 최근 7년간 증가세
 - * 57.5%(2011), 56.3%(2012), 57.2%(2013), 62%(2014), 63%(2015), 63.9%(2016), 64%(2017)
 - 對유럽 투자진출 강화에 따라 역내교역은 향후 더욱 증가 전망
 - * 2017년 유럽에 대한 투자진출 프로젝트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전 세계 투자대상국(inbound) 기준 3년 연속 1위 유지(FDI 투자액 기준/OECD 2018년 4월 발표치)
 -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배송, A/S가 중요

[유럽국가의 역내 교역 비중]



자료원: EUROSTAT(2017년 기준, 2018년 6월 발표치), KOTRA 유럽지역본부 정리(2018)

□ 다양성을 보유하고, 권역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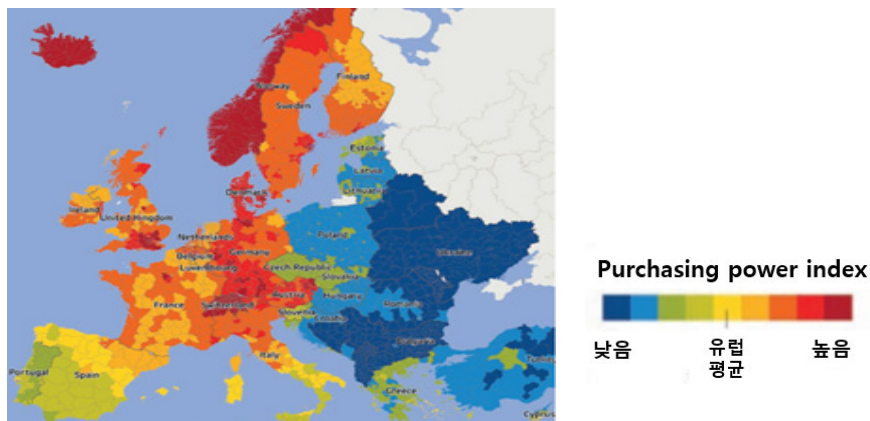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남유럽
주요소비 거점	자동차조립 등 제조기지	에너지, 기계, 조선해양	건설, 패션 등 소비재

○ 권역별로 산업구조, 소득분포 차이가 현저

- 28개 회원국, 24개 언어 사용, 높은 격차의 소득수준
- 특화산업, 시장규모, 소득차이에 따른 구매수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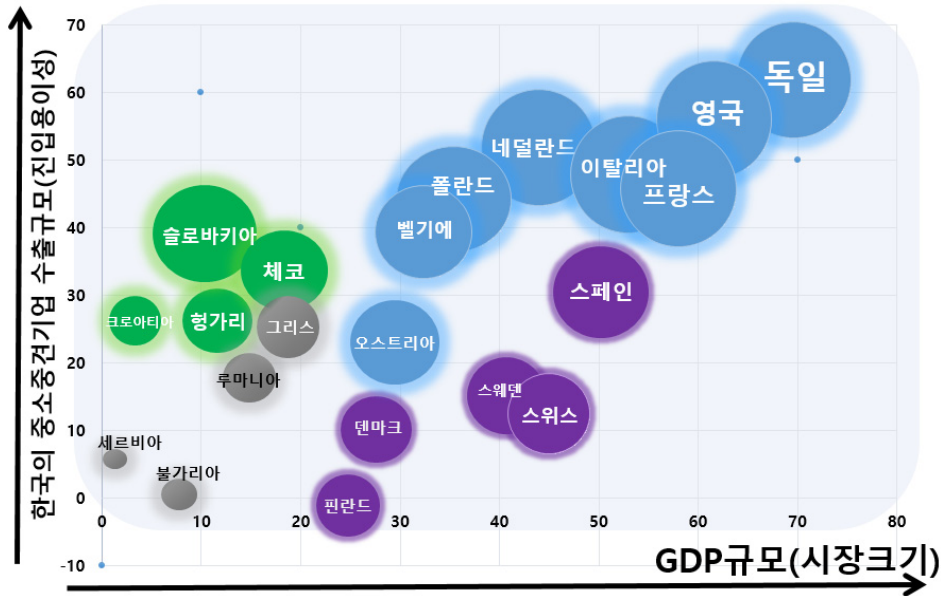
* 북서유럽 중심으로 높은 구매력, 룩셈부르크 10만 9,198달러 vs. 불가리아 2만 3,207달러(IMF, 2018년 통계치)

[유럽국가의 구매력]



자료원: European Retail in 2018, GfK Study

[유럽 국가별 권역분류 및 권역별 특징]



주: 코트라 유럽지역본부 관할국 총 21개국 기준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최상 60점, 최하 1점)

자료원: 코트라 유럽지역본부 분석(2017년도 한국의 對해당국 중소기업 수출액 및 해당국 GDP 총액 기준)

권역 구분		특징 및 시사점
●	주력시장	• 유럽의 전통 주력시장(서유럽+동유럽 주력시장 폴란드+남유럽 주력시장 이탈리아) • 유럽 국가 중 시장규모도 크고,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도 상위권 (해당국 시장규모와 한국의 수출규모 간 격차가 10p 미만) ☞ 우리 기업의 주력 타겟 시장
●	유망시장	• ‘유럽의 공장’(슬로바키아, 체코 등 유럽의 생산거점인 동유럽권) • 유럽 국가 중 시장규모 대비,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규모가 상위권 (해당국 시장규모 대비 한국의 수출규모가 10%p 초과 상회) ☞ 우리 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장
●	틈새시장	• 1인당 GDP가 높은 북유럽권과 스위스 등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시장 • 유럽 국가 중 시장규모 대비, 한국의 중소기업의 수출규모가 하위권(해당국 시장규모 대비 한국의 수출규모가 10p 미만 하회) ☞ 틈새전략이 필요한 시장
●	개척시장	• 유럽의 신흥시장(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 발칸국가) • 해당국 시장규모 및 한국의 수출규모 모두 하위권 • (해당국 시장규모와 한국의 수출규모 간 격차가 10p 미만) ☞ 신규 시장개척이 필요한 시장

	유럽의 4대 권역별 진출 유망시장 및 산업			
	주력시장	유망시장	틈새시장	개척시장
국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시장특징	1인당 GDP	(상) * 29,747~43,786US * 최저 이탈리아, 최고 오스트리아 * 폴란드 12,722달러	(중) * 12,046~18,534달러 * 최저 크로아티아, 최고 체코	(최상) * 42,612~79,242달러 * 최저 핀란드, 최고 스위스 * 단, 스페인 26,643달러	(하) * 5,376~17,806달러 * 최저 세르비아, 최고 그리스
	혁신 지수	(상)	(중)	(최상)	(하)
		주: R&D 인력, 정부의 지원인프라, 기업 R&D 투자비중, 지재권 자산규모, 상용화 수준 등 총 10개 평가항목 기준 자료원: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EU 집행위, 2018년 6월 발표치), 2010년 대비 2017년 평가결과			
	우리 기업투자 진출 형태	판매거점 • 유럽 진출 판매법인의 71% (175개)가 '주력 시장' 소재 * 유럽 진출 총 판매법인 246개	제조거점 • 유럽 진출 제조법인의 52%(88개)가 '유망시장'에 소재 * 유럽 진출 총 생산법인 170개(폴란드 59개, 루마니아 7개, 불가리아 1개)	R&D 거점 • 유럽 진출 연구개발 법인의 43%(10개)가 '틈새시장'에 소재 * 유럽 진출 총 연구개발 법인 23개(독일10개, 영국 10개, 프랑스1개)	거점 취약 • 유럽 진출 판매법인의 6%(15개), 제조법인의 5%(9개)가 '성장 시장'에 소재 * 연구개발법인은 0개
	EU 결속기금 배정 2016~2020	없음. * 단, 폴란드만 배정 (폴란드 배정액 232억유로)	총 결속기금의 30% (190.1억 유로) * EU 결속기금 총액 633.9억 유로	없음.	총 결속기금의 20% (124.6억 유로) * EU 결속기금 총액 633.9억유로 * EU 가입후보국인 세르비아의 경우, EU에서 별도 15억 유로 배정 (2016~2020, EU Pre-accession fund)

유망시장 (권역별)	• 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 • 지역본부 & 판매거점형 투자진출 • 기술보유기업 M&A * 단, 폴란드의 경우 공공 프로젝트시장도 유망	• 기계류 등 중간재 시장 • 공공프로젝트 • 공공조달시장 • 생산법인형 투자진출	• 공공조달시장 • 핀테크 등 스타트업 창업 • R&D형 투자진출	• 공공프로젝트 • 공공조달시장 • 인프라 투자형 투자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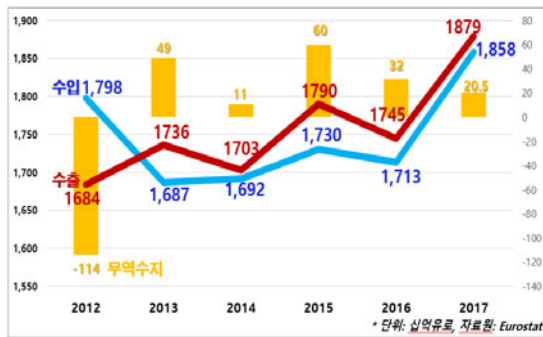
유망산업 (공통)	• 소비재, 기계설비 등 유럽의 경기호조세 활용 분야 • 환경, 그린설비 등 유럽의 에너지정책 활용 분야 • ICT 등 범유럽 ICT 인프라 개선 정책 활용 분야

자료원: EUROSTAT 통계치(2017) 기준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치(2018)

나. 수출

[EU의 역외 수출입 규모 추이(10억 유로)]

- 수출 1조 8,791억 유로, 수입 1조 8,586억 유로(2017)
- 무역수지 흑자 205억 유로
- 2012년 유로존 경제위기에 따른 수입 급감 후, 경기회복 강화에 따라 수입 증가세로 전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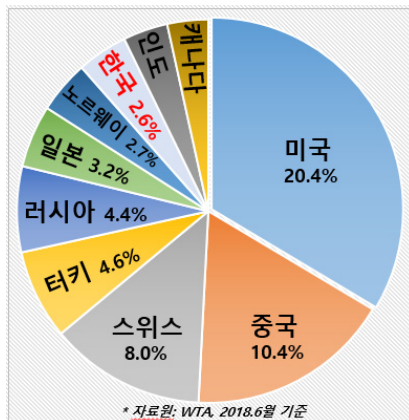


[EU의 10대 수출입품목(WTA, 2018년 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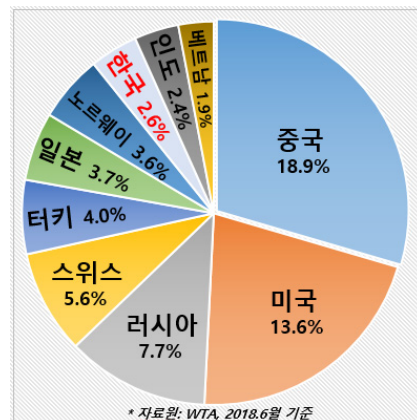
* EU의 총 역외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입품목(HS코드)	수입 비중	수출품목(HS코드)	수출 비중
1	석유, 연료(27)	20.8%	기계류(84)	16.9%
2	전자기기(85)	12.3%	자동차 및 부품(87)	10.9%
3	기계류(84)	11.6%	전자기기(85)	8.5%
4	자동차 및 부품(87)	4.7%	의약품(30)	8.3%
5	의약품(30)	3.5%	석유, 연료(27)	5.8%
6	금속(71)	3.3%	광학기기(90)	5.0%
7	광학기기(90)	3.2%	금속(71)	3.8%
8	유기화학(29)	2.9%	항공기(88)	3.3%
9	플라스틱(39)	2.3%	플라스틱(39)	3.0%
10	의류및섬유(62)	2.2%	유기화학(29)	2.9%
	계(10대 품목)	66.8%	계(10대 품목)	68.4%

[EU의 10대 수출대상국(EU의 수출액 점유비중)]



[EU의 10대 수입대상국(EU의 수입액 점유비중)]



[역외(EU 비회원국 대상) 수입액 규모가 큰 상위 10대 국가]

총계	국가명	EU의 총역외수입액 점유비중
1위	독일	18.9%
2위	영국	14.7%
3위	네덜란드	14.7%
4위	프랑스	9.0%
5위	이탈리아	8.6%
6위	벨기에	6.9%
7위	스페인	6.8%
8위	폴란드	3.2%
9위	스웨덴	2.1%
10위	오스트리아	1.9%

[역내(EU 회원국 대상) 수입액 규모가 큰 상위 10대 국가]

총계	국가명	EU의 총역내수입액 점유비중
1위	독일	20.8%
2위	프랑스	11.8%
3위	영국	9.0%
4위	이탈리아	7.3%
5위	네덜란드	7.2%
6위	벨기에	7.1%
7위	스페인	5.6%
8위	폴란드	4.4%
9위	오스트리아	3.7%
10위	체코	3.4%

[역외수입비중이 '낮은' 상위 8대 국가]

* 해당국의 총수입액 중(역내+역외) 역외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명	역외수입비중
1위	룩셈부르크	17.1%
2위	에스토니아	19.0%
3위	슬로바키아	20.2%
4위	라트비아	21.4%
5위	체코	22.0%
6위	크로아티아	22.3%
7위	오스트리아	22.7%
8위	포르투갈	23.6%

[역외수입비중이 '높은' 상위 8대 국가]

* 해당국의 총수입액 중(역내+역외) 역외수입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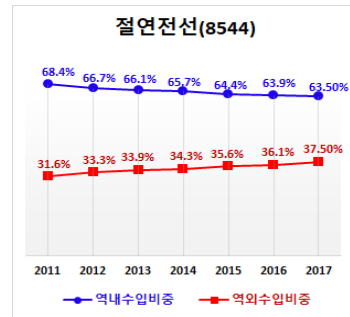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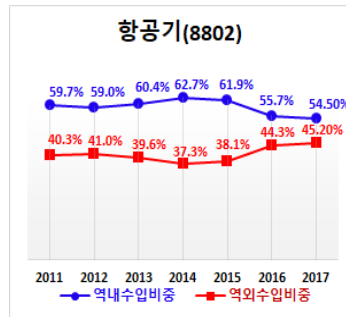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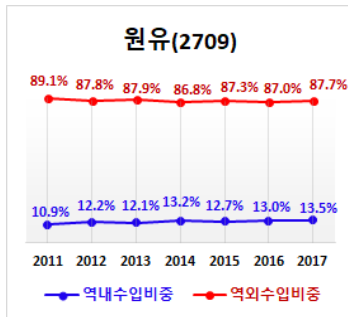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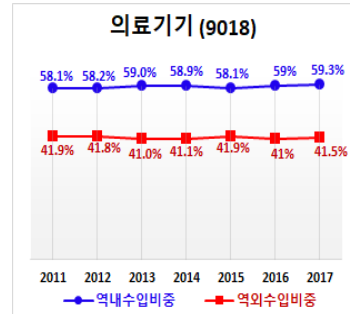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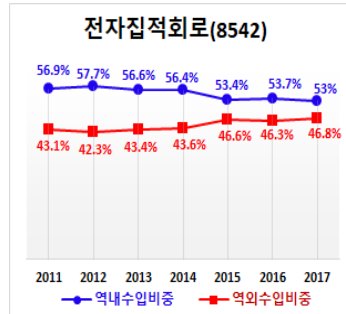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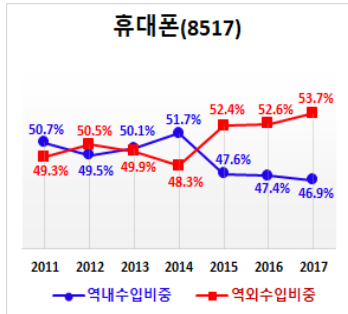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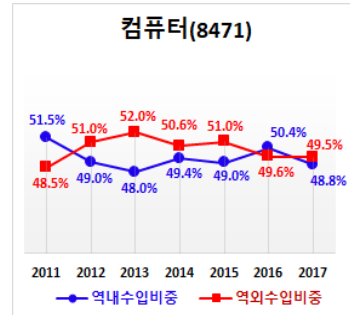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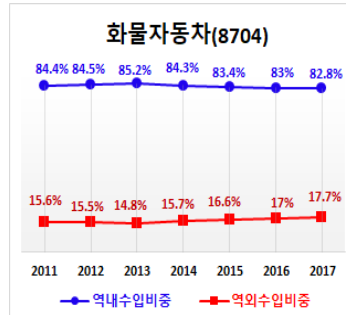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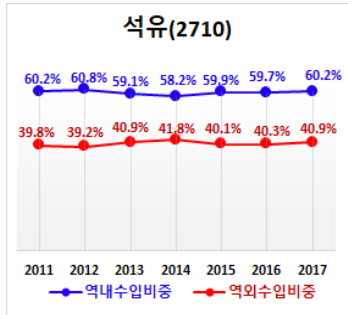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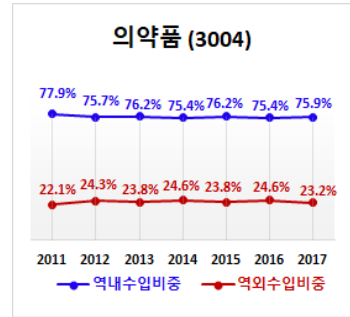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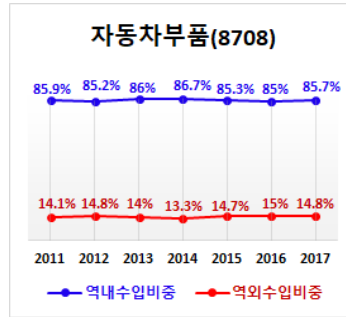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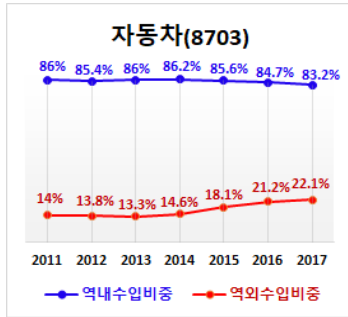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역외수입비중
1위	네덜란드	53.7%
2위	영국	48.1%
3위	그리스	48.0%
4위	스페인	40.5%
5위	이탈리아	39.9%
6위	몰타	37.8%
7위	불가리아	36.0%
8위	벨기에	35.7%

자료원: EUROSTAT 통계치(2017) 기준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치(2018)

◎ 동향 요약

- EU의 역내교역은 지속 증가세; 57.2%(2013) → 62%(2014) → 63%(2015) → 63.9%(2016) → 64%(2017)
-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물자동차, 의료기기 중심으로 높은 역내조달비중과 역내/역외 조달 순위 간 큰 격차 기록
 - * 역내조달비중: 자동차 83.2%, 자동차부품 85.7%, 의약품 76%, 화물자동차 82.8%, 의료기기 59.3%
- 반면 휴대폰, 컴퓨터, 원유는 역외조달비중이 역내조달비중을 상회
 - * 역외조달비중: 휴대폰 53.7%, 컴퓨터 49.5%, 원유 87.7%(세부내역 다음 그래프 참조)

[EU 역내수입 상위 12대 품목의 역내조달 비중 추이(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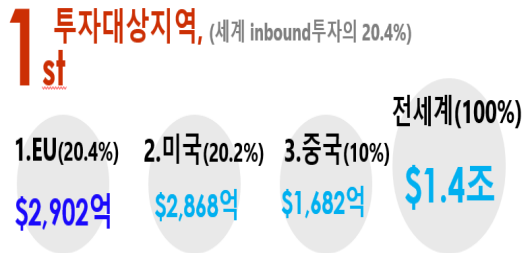


자료원: EUROSTAT(2018년 6월 발표)

다. 투자

[세계1위의 투자진출 대상지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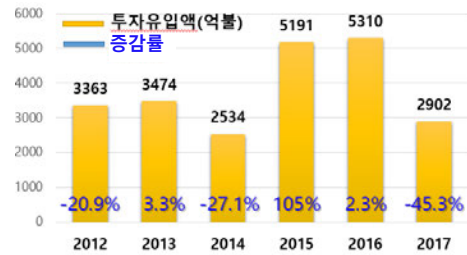
전세계 해외투자의 20.4%가 유럽에 투자



자료원: OECD FDI in Figures 2017 (2018.4월 발표치)

[최근 5개년 對유럽 투자진출 추이]

유럽의 경기회복에 따라 2년 연속 역대 최고치(5,821억 달러, 2016년) 기록 후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45.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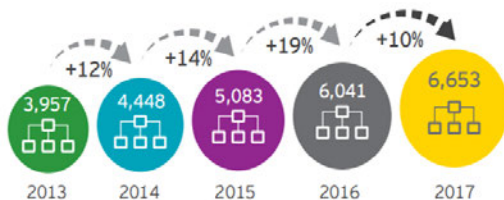


자료원: OECD FDI in Figures 2017(2018년 4월 발표치)

[최근 5개년 FDI 프로젝트 건수 추이]

외국인직접투자(FDI) 프로젝트건수 지속 증가세

유럽 내 FDI 프로젝트 건수



자료원: EY's Attractiveness Survey Europe(2018. 6)

[유럽 내 주요 투자대상 지역(2017)]

총 프로젝트(6,653건)의 50%가 영, 독, 프에 집중

유럽 내 FDI 대상 국가 순위

	투자건수		비중(%) 증감률(전년대비)	
	2016	2017	Share (2017)	% change
UK	1,138	1,205	18%	6%
Germany	1,063	1,124	17%	50%차지 6%
France	779	1,019	15%	31%
Netherlands	409	339	5%	-17%

자료원: EY's Attractiveness Survey Europe(2018. 6)

【참고】유럽의 주요 경제지표 FACT SHEET

(단위: %, 달러, 달러, %, 천 명, %, 백만 달러, %)

GDP 순위	국가	EU GDP 점유비 (2018)	GDP (2018)	1인당 GDP (2018)	경제 성장률 (2018/2019)	인구수 (2018)	한국의 해당국 수입시장 점유율 (2018. 6)	한국의 해당국 수출금액 (2018. 9)	한국의 對EU 수출비중 (2018.9)
E U		100	18.76조	36,736	2.2	512,596	2.59	41,680	100
1	독일	21.47	4조	48,669	1.9	82,850	1.03	7,111	17.0
2	영국	14.97	2.8조	42,260	1.4	66,186	0.74	4,188	10.0
3	프랑스	14.89	2.79조	42,930	1.6	67,221	0.69	2,553	6.1
4	이탈리아	11.1	2조	34,349	1.2	60,484	0.96	3,507	8.4
5	스페인	7.66	1.4조	31,059	2.7	46,659	1.06	2,289	5.5
6	네덜란드	4.85	9,098억	52,931	2.8	17,118	1.08	3,671	8.8
7	스웨덴	2.96	5,546억	53,867	2.4	10,120	0.61	759	1.8
8	폴란드	2.93	5,494억	14,468	4.4	37,976	1.27	3,134	7.5
9	벨기에	2.86	5,360억	46,978	1.5	11,413	0.64	2,560	6.1
10	오스트리아	2.45	4,594억	51,707	2.8	8,822	0.55	803	1.9
11	아일랜드	1.95	3,664억	75,192	4.7	4,838	0.79	459	1.1
12	덴마크	1.89	3,546억	61,226	2	5,781	2.07	812	2.0
13	핀란드	1.47	2,765억	50,068	2.6	5,513	0.39	222	0.5
14	체코	1.30	2,445억	23,085	3.1	10,610	1.66	1,825	4.4
15	루마니아	1.28	2,394억	12,189	4	19,523	0.52	366	0.9
16	포르투갈	1.27	2,379억	23,175	2.3	10,291	0.62	412	1.0
17	그리스	1.16	2,180억	20,311	2	10,738	1.57	810	1.9
18	헝가리	0.83	1,563억	16,016	4	9,778	1.76	1,238	3.0
19	슬로바키아	0.57	1,069억	19,642	3.9	5,443	4.73	2,054	4.9
20	룩셈부르크	0.37	689억	113,954	4	602	0.16	21	0.1
21	불가리아	0.34	636억	9,080	3.6	7,050	0.05	134	0.3
22	크로아티아	0.32	599억	14,637	2.8	4,105	-	169	0.4
23	슬로베니아	0.29	549억	26,586	4.5	2,066	3.18	2,054	4.9
24	리투아니아	0.28	524억	18,856	3.5	2,808	0.28	221	0.5
25	라트비아	0.18	342억	17,634	3.7	1,934	0.12	46	0.1
26	에스토니아	0.16	295억	22,416	3.7	1,319	0.38	72	0.2
27	키프로스	0.13	239억	27,864	4	864	0.38	70	0.2
28	몰타	0.08	142억	30,555	5.7	475	0.72	717	1.7
-	스위스	3.78	7,091억	83,583	3	8,482	0.29	360	0.9
-	세르비아	*0.25	476억	6,814	4	7,001	0.98	117	0.3

주: 한국 1인당 GDP 32,046달러(2018년 기준)

자료원: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IMF 발표치, 2018년 기준)

인구수(EU 집행위, 2018년 7월 발표치)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World Trade Atlas 2018년 6월 기준)

한국의 수출금액 및 비중(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 2018년 9월 기준)

3. 한국과의 경제교류

-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지, EU 경기회복에 따라 對EU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세
- 對EU 수출, 여전히 13대 수출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 반면, 소비재·의료·기계·ICT 등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유망 수출품목 부상
- 한-EU FTA 수혜 효과 가시화
- 현지화가 중요한 유럽 시장, 한국의 투자진출 증가세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는 유럽 권역의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
- EU 기금(2014~2020) 연계 공공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 한국기업의 새로운 기회시장으로 부상하는 EU의 공공조달 시장

가. 교역

□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지, EU 경기회복에 따라 對EU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세

- EU는 중국·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상대('18. 1~9월)
 - (수출) 내수확대, 유로화 가치 상승세로 인한 수출여건 개선으로 0.4% 소폭 증가한 417억불 기록
 - (수입) 유가상승 영향에 따른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으로 10.7% 증가한 469억 달러 기록
 - (수지) 2012년부터 적자 기록 중이나, EU의 경기회복으로 적자폭은 지속 감소추세
 - * 2011년 對EU 무역수지: 83억 달러 흑자
 - ** 한국의 수출증감률 對세계 4.7%, 對중국 19.9%, 對미국 0.5%, 對베트남 1.0%, 對일본 13.1%(2018년 1~9월 누계 전년 동기 대비)

[對유럽(EU)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1~9)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출	51,658	5.7	48,079	△6.9	46,610	△3.1	54,038	15.9	41,680	0.4
수입	62,394	11.0	57,199	△8.3	51,902	△9.3	57,279	10.4	46,861	10.7
수지	△10,736	-	△9,120	-	△5,292	-	△3,241	-	△5,181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13대 주력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
 - 對EU 상위 13대 수출품목(수출총액의 54.8% 차지) 중 자동차부품, 선박,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외한 10대 수출품목이 모두 증가('18년 1~9월 전년 동기비)
 - * (호조품목) 승용차, 합성수지, 축전지, 집적회로반도체, 건설중장비, 의약품, 아연도강판, 타이어, 기타정밀화학 원료, 보조기억장치 10개 품목(수출총액의 38.1%)
 - * (부진품목) 자동차부품,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3개 품목(수출총액의 16.7%)

- 한국산 인지도 개선, 품질 안정화, 유가 영향 주력품목의 수출단가 상승이 호조요인. 선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감소요인은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수주 부진, 중국산 제품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분석

- EU의 수입시장 기준, 對한국 수입증가율은 상위 10대 수입 점유국 중 7위 기록
- EU의 총 역외 수입액은 13.2% 증가, 對한국 수입액은 9.2% 증가하여 EU 수입시장 점유 상위 10대국 중 경합국인 일본에 비해 높은 증감률 기록 (일본 8.0%)

【 EU의 수입 상위10대국 대상 수입 증감률 】

(단위: %)

점유순위	국가	EU의 對해당국 수입증감률	점유순위	국가	EU의 對해당국 수입증감률
1	중국	10.18	6	일본	8.01
2	미국	8.84	7	노르웨이	17.51
3	러시아	23.48	8	한국	9.2
4	스위스	2.34	9	인도	12.26
5	터키	16.52	10	베트남	10.25

자료원: WTA(2018년 1~9월, 전년 동기비 기준)

□ 對EU 수출, 13대 수출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 한국의 對EU 13대 수출품목 비중, 對EU 수출액의 54.7%를 차지(2018년 1~9월 기준)
- 대기업 품목군(13대 수출품목)이 對유럽 수출호조세를 견인
 - 對유럽 13대 수출품목은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하여 2년 평균 17%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액(13대 수출품목 제외 기준)의 2년 평균 증가율은 10%를 하회
 - * 자동차(소울, 소렌토, 스팅거, B-SUV 등 국내 생산 모델에 대한 유럽 내 인기 증가), 반도체(유럽 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산업재편 연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IT 융합기술의 핵심부품 수요 확대; 삼성 및 SK의 차세대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수요 급증)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 기록

【 한국의 對유럽(EU) 13대 수출품목 수출 증감률 】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9)
총수출액 증감률	△1.0%	5.7%	△6.9%	△3.1%	15.9%	0.4%
13대 품목 증감률	△7.8%	8.1%	△0.2%	△8.1%	19.0%	4.2%
기타 품목 증감률	7.1%	3.3%	△14.1%	3.3%	12.5%	△3.7%
13대 품목 비중/총수출액	50.7%	51.8%	55.5%	52.6%	54.0%	54.7%
기타 품목 비중/총수출액	49.3%	48.2%	44.5%	47.4%	46.0%	45.3%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치 기반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품목은 MTI 4단위 기준)

* 13대 품목군: 승용차, 자동차부품, 선박, 합성수지, 축전지, 집적회로반도체, 건설중장비, 의약품, 평판디스플레이, 아연도강판, 타이어, 기타정밀화학원료, 보조기억장치

-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무선전화기,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비중은 현지생산 증가 등으로 감소세, 반면 축전지, 건설장비, 아연도강판은 10대 수출품목군에 신규로 진입하여 상향세

[한국의 對유럽 10대 주력 수출품목군의 변화]

순위	1988	1995	1998	2005	2008	2013	2017	2018.9월
1	식물제외류	전자응용기기	승용차	승용차	선박	승용차	승용차	승용차
2	신발	승용차	반도체(직접)	무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선박	선박	자동차부품
3	라디오	반도체(직접)	모니터	선박	승용차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4	편직의류	모니터	선박	반도체(직접)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해양구조물	반도체(직접)
5	혁의류	선박	보조기억장치	칼라TV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축전지
6	컴퓨터	타이어	금	디스플레이	반도체(직접)	제트유등유	축전지	아연도강판
7	반도체(직접)	철구조물	타이어	건설장비	제트유등유	합성수지	반도체(직접)	디스플레이
8	전자레인지	포리메스트작물	편직제의류	모니터	경유	반도체(직접)	건설장비	건설장비
9	VCR	편직제의류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칼라TV	칼라TV	디스플레이	기타기계류
10	모니터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타이어	광학기기부품	건설장비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치 기반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

□ 소비재·의료·기계·ICT 등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유망 수출품목 부상

- 유럽 시장의 내수회복과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개선으로 對유럽 중소중견기업 품목군의 수출 절대액은 적은 비중이나, 점진적 증가 추세(6개년 평균 2.0% 증가율 기록)
- 2013~18년(9월) 6개년 증감률 평균치 기준, 對유럽 중소중견기업 품목군의 수출비중 증가율은 對세계 중소중견기업 품목군 수출비중 증가율을 상회(對유럽 ↓0.1%, 對세계 ↓0.7%)

[對유럽 총 수출액 중 중소중견기업 품목군(13대 수출품목군 제외)의 점유 비중과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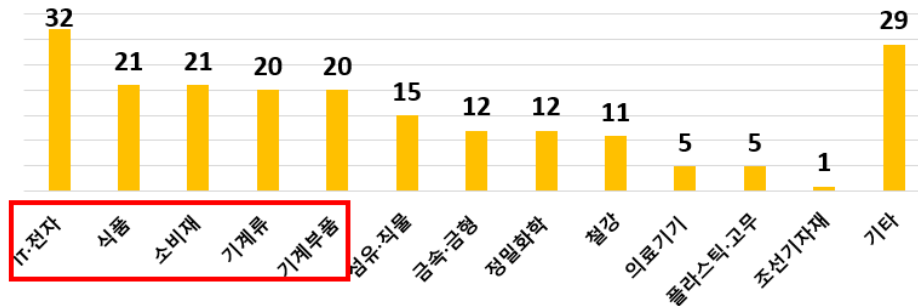
		2013. 9	2014. 9	2015. 9	2016. 9	2017. 9	2018. 9	증감률 (2013~2018 평균)
對 세 계	수출비중 (총수출액에서 비13대수출품목군 점유 비중)	56.7	56.7	55.1	55.6	54.2	52.5	↓ 0.7
	수출액 (13대 수출품목 제외)	234,389	240,867	218,671	201,799	233,103	236,488	↑ 3.7
對 유 럽	수출비중 (총수출액에서 비13대수출품목군 점유 비중)	47.8	48.5	44.9	50.1	47.2	45.3	↓ 0.1
	수출액 (13대 수출품목 제외)	17,517	19,363	15,881	16,954	19,595	18,860	↑ 2.0

주: 수출액은 각 해당연도 1~9월 누계, 13대 수출품목 제외 기준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

○ 소비재·식품군, IT·전자, 기계류, 기계부품류, 의료기기 위주로 對유럽 수출 2개년 연속 호조세

[2017~18년(9월) 對유럽 2년 연속 수출증가 품목건수]



주: MTI 4단위 기준 205개 품목 도출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통계치 기반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

품목군	세부품목
IT·전자(32건)	축전지, 집적회로반도체, 보조기억장치, TV카메라및수상기, 컴퓨터, 접속기 및 차단기, 유선통신기기부품, 전자현미경, 센서, 컴포넌트, 스피커, 집적회로반도체부품, 방송용통신기기, 개별소자반도체부품 등
식품(21건)	면류, 음료, 버섯류, 소스류, 효모류, 당류, 사탕과자류, 대구, 채소류 등
소비재(21건)	문구, 화장품, 위생용품, 취미오락기구, 신발, 기타악기, 기타가구, 스포, 포크, 비누, 안경, 보온용기, 조화 등
기계류(20건)	금속절삭가공기계, 펌프, 공기조절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금속 성형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광학기기, 기타기계류 등
기계부품(20건)	광학기기부품, 베어링,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금속공작기계부품, 기타기계류부품 등
섬유·직물(15건)	폴리에스테일섬유, 나일론사, 부직포, 재생직물, 나일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금속·금형(12건)	합금철, 플라스틱금형, 알루미늄조가공품, 동조가공품, 기타철강금속제품 등
정밀화학(12건)	합성수지, 기타정밀화학원료, 윤활유, 합성고무,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석유제품 등
철강(11건)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강선, 철강및비합금강형강, 고철, 기타철강제품 등
의료기기(5건)	의약품, 의료용전자기기, X선및방사선기기, 의료용기기, 기타의료위생용품
플라스틱·고무(5건)	플라스틱갈개 및 벽피복, 고무판, 플라스틱관,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고무제품
조선기자재(1건)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기타(29건)	필름류, 무기류부품, 기타 잡제품, 기타목재류, 서적, 주화, 사료, 합판, 고지, 마찰제품, 제재목, 안전유리, 석면제품 등
총 205건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K-STAT 통계), MTI 4단위 기준(전수조사 총 514개품목) 2년 연속 수출증가 품목 도출

□ 한-EU FTA 수혜 효과 가시화

○ 2012년 발발한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FTA(2011.7월 발효) 수혜효과가 미미하였으나, 경제회복기에 접어든 2015년부터 무역적자는 감소추세

- 한국은 1998년부터 EU와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 유지해 왔으나, 2011년 7월 FTA 발효 이듬해인 2012년에 적자로 전환하여, 2018년까지 무역적자 지속 중
- 단, EU의 경제회복으로 2015년부터 무역적자폭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 유가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으로 적자폭이 다소 확대, 2018년 9월 기준 52억 달러 기록

* 무역수지 8,303(2011), △1,003(2012), △7,373(2013), △10,736(2014), △9,120(2015), △5,292(2016), △3,241(2017), △5,181(2018.9)

◎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무역적자 3대 요인

① 2012 유로존 재정위기 발발, EU의 수입수요 둔화

* 유로존 경제성장률: 1.6%(2011), -0.9%(2012), -0.3%(2013), 1.4%(2014), 2.1%(2015), 1.9%(2016), 2.4%(2017), 2.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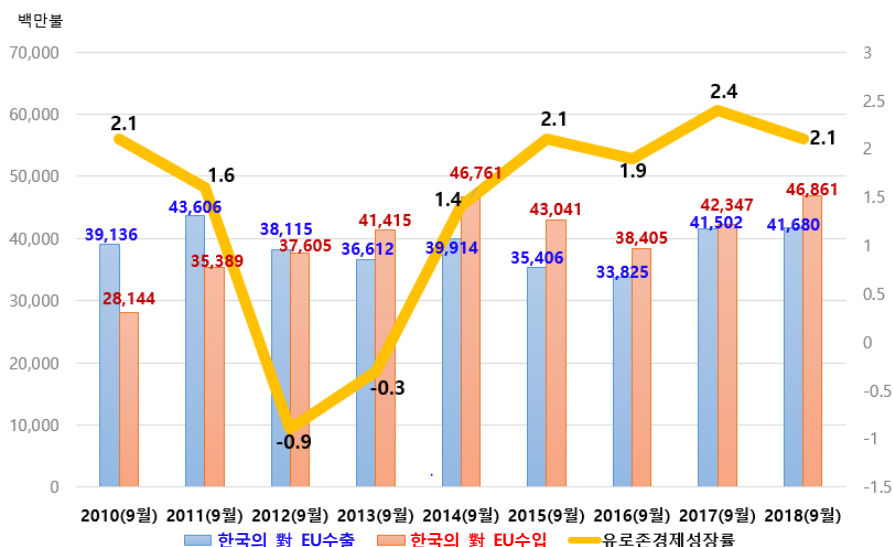
② 선박 등 한국의 대표 수출품목 부진, 자동차, 전자제품의 해외 현지생산 증가

* 對유럽 선박 수출증감률: -37%(2012), -28%(2013), 11%(2014), 30%(2015), -37.3%(2016), 5.9%(2017), -33.5%(2018. 9)

* 對유럽 무선전화기 수출증감률: 42%(2012), 9%(2013), -27%(2014), -49%(2015), -69%(2016), 100%(2017), -37%(2018. 9)

③ 이란 경제 제재로 인한 한국의 영국산 북해산유 대체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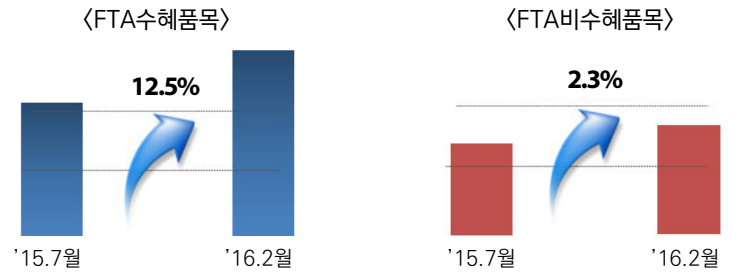
[유로존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對EU 수출입 추이(2010~201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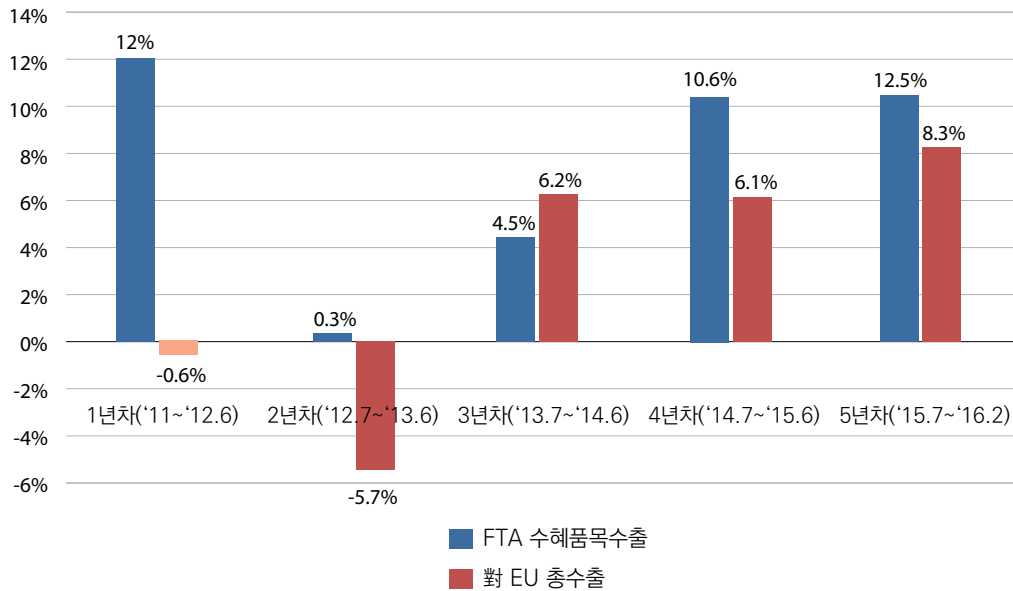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 FTA 수혜품목군은 비수혜품목군 대비 높은 수출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업계에 FTA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FTA 수혜품목/비수혜품목 수출증가율 비교]



[FTA 수혜품목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 정리

【참고】한·중·일 품목 경합도 분석

EU의 對 한국 15대 수입품목			EU의 對 일본 15대 수입품목			EU의 對 중국 15대 수입품목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순위	HS 코드	품목명
1	87	자동차	1	84	기계류	1	85	전기전자
2	85	전기전자	2	87	자동차	2	84	기계류
3	84	기계류	3	85	전기전자	3	94	가구류
4	39	플라스틱/제품	4	90	광학의료기기	4	62	의류(편물제외)
5	72	금속및철강	5	29	유기화합물	5	95	잡품
6	30	제약	6	39	플라스틱/제품	6	61	의류(편물제)
7	89	선박	7	40	고무와제품	7	39	플라스틱/제품
8	90	광학의료기기	8	71	귀금속	8	29	유기화합물
9	29	유기화합물	9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9	90	광학의료기기
10	40	고무와 제품	10	30	제약	10	73	철강제품
11	27	광물성원료	11	86	철도차량	11	64	신발류
12	73	철강제품	12	73	철강제품	12	87	자동차
13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13	32	염료,안료	13	42	가죽제품
14	88	항공	14	95	잡품	14	63	기타섬유제품
15	82	비금속제 공구	15	37	사진, 영화재료	15	40	고무와제품

* World Trade Atlas, 2018년 9월 기준, 경합품목 음영표기

[한·중·일 경합도가 높은 품목군 도출]

HS 코드	품목명	일본, 중국과의 경합도 여부	
		일본	중국
87	자동차부품	○	○
85	전기전자	○	○
84	기계류	○	○
39	플라스틱/제품	○	○
30	제약	○	X
90	광학의료기기	○	○
29	유기화합물	○	○
40	고무와 제품	○	○
73	철강제품	○	○

HS 코드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 순위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	경쟁국의 EU 수입시장 점유 순위 (전년 대비 수출증감률)		EU의 역외수입증감률 (전년 대비 기준)
		일본	중국	
87	4위 (+17.39)	2위 (+10.31)	5위 (+16.29)	+11.71
85	7위 (+8.91)	6위 (+8.65)	1위 (+10.67)	+12.02
84	5위 (+28.14)	3위 (+9.28)	1위 (+13.74)	+12.55
39	3위 (+18.71)	7위 (+10.44)	1위 (+11.31)	+10.94
30	6위 (+57.97)	10위 (+17.63)	7위 (+65.32)	+8.14
90	7위 (+6.14)	4위 (+9.84)	2위 (+6.85)	+6.37
29	9위 (-0.07)	6위 (+25.70)	2위 (+22.36)	+10.85
40	6위 (+21.31)	4위 (+9.77)	1위 (+1.47)	+5.98
73	7위 (+8.14)	8위 (+1.31)	1위 (+12.35)	+12.2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8.9 기준

【별첨1】한-유럽 무역 통계치

【對EU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		2018(1~9)	
			증감		증감
	총계	54,038	15.9	41,680	0.4
1	승용차	7,292	35.8	5,587	1.8
2	자동차부품	4,222	△4.8	3,276	△0.2
3	선박	5,412	5.9	2,775	△33.5
4	합성수지	2,499	17.3	2,301	22.1
5	축전지	1,696	43.9	1,708	35.9
6	집적회로반도체	1,503	41.6	1,444	30.7
7	건설중장비	1,259	16.7	1,004	10
8	의약품	1,083	27.3	944	50.3
9	평판디스플레이	1,187	21.6	907	△0.4
10	아연도강판	849	42.6	901	43.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對EU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		2018(1~9)	
			증감		증감
	총계	57,279	10.4	46,861	10.7
1	승용차	6,671	1.1	5,974	32.3
2	반도체제조용장비	3,645	104.3	3,526	32.6
3	의약품	2,865	4.3	2,328	8.5
4	원유	2,011	159	1,644	30.2
5	자동차부품	1,768	1.1	1,271	△7.6
6	기타정밀화학원료	1,281	3.5	1,230	26.1
7	가방	1,150	14.7	997	20.2
8	나프타	543	8.3	821	88.6
9	펌프	1,107	16	764	0.8
10	합성수지	946	2.3	754	0.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의 對EU 10대 수출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		2018(1~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4,038	15.9	41,680	0.4
1	독일	8,484	31.7	7,111	9.6
2	영국	8,122	29.2	4,188	△39.3
3	네덜란드	4,649	21.7	3,671	0.4
4	이탈리아	3,758	18.8	3,507	26.2
5	폴란드	3,116	7.0	3,134	38.6
6	벨기에	2,795	15.2	2,560	22.0
7	프랑스	2,995	21.3	2,553	13.4
8	스페인	2,791	19.8	2,289	10.1
9	슬로바키아	2,773	△5.2	2,054	△6.2
10	체코	2,212	1.7	1,825	10.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한국의 對EU 10대 수입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7		2018(1~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총계	54,038	15.9	46,861	10.7
1	독일	8,484	31.7	15,539	7.1
2	네덜란드	4,649	21.7	5,632	23.2
3	영국	8,122	29.2	5,053	14.3
4	이탈리아	3,758	18.8	4,707	11.2
5	프랑스	2,995	21.3	4,424	1.4
6	스페인	2,791	19.8	1,677	11.9
7	오스트리아	959	14.2	1,452	25.5
8	스웨덴	896	11.4	1,397	9.2
9	벨기에	2,795	15.2	1,156	21.6
10	아일랜드	693	22.7	87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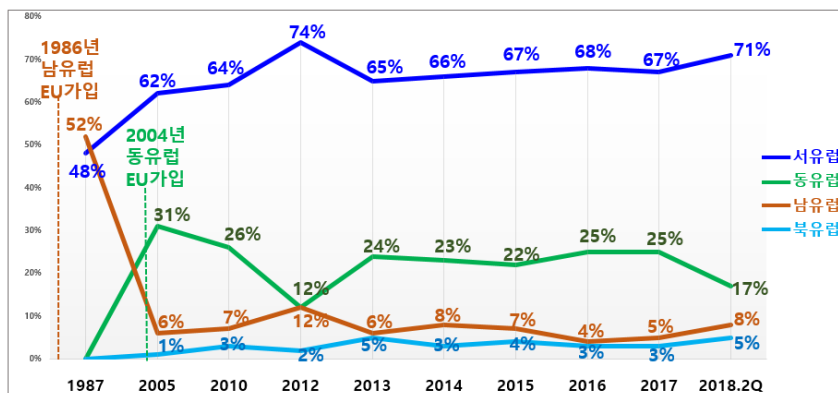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K-Stat

나. 투자

□ 현지화가 중요한 유럽 시장, 한국의 투자진출 증가세

- 서유럽권은 판매거점지, 동유럽권은 생산거점지로 기능
 - 진출형태는 판매법인(33%), 생산법인(22%), 서비스법인(14%), 연락사무소(14%), 지점(17%) 순
 - * 동유럽은 생산기지(유럽 진출 한국 생산법인의 90%), 서유럽은 마케팅 거점(유럽 진출 한국 판매법인의 59%, 연락사무소의 69%) 중심
- 우리나라의 최근 5개년 對유럽 직접투자는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동유럽의 비중이 점차 증가세이며, 남유럽은 점차 하향세
- * 한국 대기업의 동유럽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이 주요 요인
- * 2004~2013년 기간 이루어진 동유럽권의 EU 편입으로 남유럽의 생산거점으로서 경쟁력(인건비, 임대료 등)이 동유럽으로 이전

【 한국의 對유럽 권역별 해외투자건수 점유비중 추이(신규 법인 설립건수) 】



자료원: 수출입은행 통계치 기반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2018)

【 한국의 對유럽 직접 투자규모(권역별) 】

(단위: 건수, 백만 달러)

국 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Q		누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2014~2018 2Q*	
유럽	146	3,241	148	2,449	168	2,929	213	3,990	129	3,277	804	15,885
서유럽	96	2,799	100	2,135	110	2,310	145	3,417	74	2,762	525	13,424
동유럽	31	130	30	144	40	456	34	424	33	391	168	15,442
북유럽	4	36	5	17	5	45	10	64	2	3	26	164
남유럽	10	261	11	29	8	23	16	22	15	58	60	393

주: 1) 서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2) 동유럽: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3)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남유럽: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자료원: 수출입은행

- 한국의 유럽 생산거점으로 신흥 동유럽권(발칸)이 부상 중
 - 기존 V4 동유럽권(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생산비용이 저렴한 발칸 지역이 '유럽의 공장'으로 점진적 전환 중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는 유럽 권역의 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

- 동유럽은 생산기지, 서유럽은 판매거점으로 유럽에 총 749개사가 진출
 - (권역별) 판매법인의 62%가 서유럽, 생산법인의 96%가 동유럽에 소재
 - (업종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물류, 기계류, 조선해양 순

[진출형태별 우리나라의 對유럽 투자기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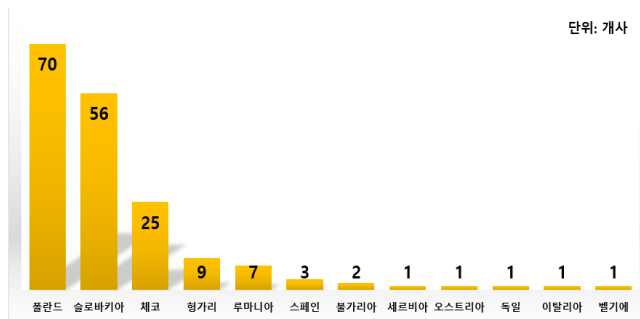
진출형태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남유럽
생산법인	2	96	0	2
판매법인	62	27	3	8
지점	56	22	6	15
서비스법인	48	45	1	5
연락사무소	61	21	2	16

자료원: KOTRA, 2018년 해외투자진출디렉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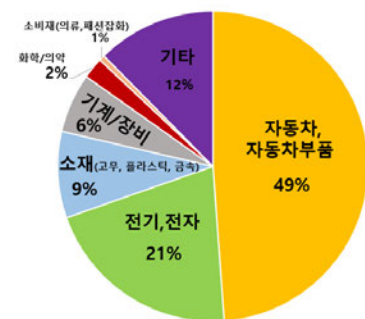
□ 유럽에 진출한 생산법인의 96%가 동유럽에 포진, 폴란드 1위

- 유럽 소재 한국의 생산법인은 총 181개사로, 이 중 96%(173개사)가 동유럽에 진출
 - 근거리 서유럽 시장, 낮은 인건비, 저렴한 임차료가 동유럽의 장점
 - * 동유럽 평균 임금 월 1,380유로(8.2달라x8시간x21일 기준), 서유럽의 34% 수준(서유럽 평균 임금 4,070유로) / EUROSTAT
 - 업종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소재(고무, 플라스틱, 금속) 순으로 진출 대기업에 대한 공급체인 위주
 - * 기아자동차(슬로바키아), 현대자동차(체코), 삼성전자(폴란드, 슬로바키아), 삼성디스플레이(슬로바키아) LG전자(폴란드), LG디스플레이(폴란드), LG화학(폴란드), 한국타이어(헝가리), 포스코(이탈리아, 폴란드), 넥센타이어(체코)

[유럽 국가별 한국 생산법인수]



[유럽 진출 한국생산법인의 업종분포도]



자료원: KOTRA, 2018년 해외투자진출 디렉토리

[참고] 한국의 對세계 수출 및 투자진출 추이

[한국의 수출추이]

(단위: 개수, 백만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수출 기업수	91,450	2.3	92,008	0.6	92,997	1.1	95,290	2.5	95,817	0.5
수출액	559,632	2.2	572,665	2.3	526,757	△8.0	495,426	△5.9	573,694	15.8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기업수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수출액 (비중)	수출 기업수	수출액 (비중)
유럽	17,907	↓ 48,848 (8.7)	18,233	↑ 51,658 (9.0)	18,380	↓ 48,079 (9.1)	18,628	↓ 46,610 (9.4)	18,972	↑ 54,038 (9.4)
중국	32,986	↑ 145,869 (26.1)	33,091	↓ 145,288 (25.4)	33,918	↓ 137,124 (9.1)	34,701	↓ 124,433 (25.1)	33,360	↑ 142,120 (24.7)
일본	21,986	↓ 34,662 (6.2)	21,630	↓ 32,184 (5.6)	20,775	↓ 25,577 (4.9)	20,550	↓ 24,355 (4.9)	20,863	↑ 26,816 (4.6)
미국	19,458	↑ 62,052 (11.1)	19,606	↑ 70,285 (12.3)	20,189	↓ 69,832 (13.3)	20,792	↓ 66,462 (13.4)	21,230	↑ 68,610 (11.9)
ASEAN	58,785	↑ 81,997 (14.7)	59,142	↑ 84,577 (14.8)	61,254	↓ 74,824 (14.2)	64,239	↓ 74,518 (15.0)	66,624	↑ 95,248 (16.6)
세계	91,450	↑ 559,632 (100)	92,008	↑ 572,665 (100)	92,997	↓ 526,757 (100)	95,290	↓ 495,426 (100)	95,817	↑ 573,694 (100)

[한국의 투자진출 추이]

(단위: 개수, 백만 달러, %)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6		누 계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법인 설립	투자 금액	2014-2018.6	
유럽	146 (5)	3,241 (12)	148 (4)	2,449 (8)	168 (5)	2,929 (7)	213 (7)	3,990 (14)	129 (7)	3,277 (14)	804 (6)	15,885 (11)
중국	704 (25)	3,180 (11)	712 (24)	2,955 (10)	675 (22)	3,299 (9)	533 (19)	2,964 (10)	241 (14)	1,596 (7)	2,865 (21)	13,994 (10)
베트남	433 (15)	1,616 (6)	519 (17)	1,579 (5)	643 (21)	2,272 (6)	709 (25)	1,955 (7)	395 (22)	1,971 (9)	2,699 (20)	9,393 (7)
일본	155 (6)	421 (2)	177 (6)	1,762 (6)	183 (6)	262 (1)	260 (9)	836 (3)	125 (7)	681 (3)	900 (7)	3,962 (3)
미국	486 (17)	5,760 (21)	519 (17)	6,815 (22)	495 (16)	12,895 (37)	533 (19)	15,287 (54)	291 (16)	4,617 (20)	2,324 (17)	45,374 (31)
세계	2,814 (100)	27,858 (100)	2,978 (100)	30,365 (100)	3,084 (100)	34,986 (100)	2,878 (100)	28,409 (100)	1,764 (100)	22,686 (100)	13,518 (100)	144,304 (100)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분석치, 관세청(수출기업수) 및 수출입은행통계치(법인설립수)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019년, EU 기금(2014~2020년) 연계 공공 프로젝트 발주 가속

- 2014~2020년 기간 EU 회원국 전체에 배정된 금액은 총 3,518억 유로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루마니아(6.5%), 체코(6.2%), 헝가리(6.2%), 크로아티아(2.4%), 불가리아(2.2%) 순
 - 2016년 초부터 프로젝트 발주 개시, 2019년에는 약 17건 프로젝트 발주 예정

◎ EU의 프로젝트 기금

- EU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14~2020년 기간 중 총 3,518억 유로 규모 기금 배정 (농촌 해양기금 1,013억 유로 제외)
- * 전체 EU 기금 중 76%가 공공 프로젝트 관련 기금
- 2014~2020년 EU 기금 연계 프로젝트 발주는 2016년부터 개시

- 우리 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 해외 수주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시아·중동 중심
 - 한국의 총 해외수주액은 2017년 기준 29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4배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이 93%를 차지하며, 유럽 지역의 경우 1.1%에 불과
 - * 해외 수주액: (2004) 75억 달러 → (2011) 591억 달러 → (2013) 652억 달러 → (2016) 282억 달러 → (2017) 290억 달러

[지역별 해외 프로젝트 수주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11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1) 중동	16,530	35.8	10,694	37.9	14,578	50.3	8,570	35.5
(2) 아시아	19,720	42.7	12,675	45.0	12,492	43.1	12,752	52.8
(3) 중남미	4,532	9.8	1,618	5.7	362	43.1	711	2.9
(4) 아프리카	750	1.6	1,225	4.4	698	2.4	702	2.9
(5) 태평양·북미	3,648	7.9	1,380	4.9	554	1.9	1,033	4.3
(6) 유럽	964	2.2	600	2.1	320	1.1	399	1.7
합계	46,144	100	28,192	100	29,005	100	24,169	100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 최근 IT,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수주 성공사례 창출*
 -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공모델 확산 노력 필요
 - * 포스코건설, 폴란드 생활폐기물처리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2.5억 달러(2012년)
 - * KT, 폴란드 초고속인터넷망 프로젝트 수주, 1.2억 달러(2013년)

【참고】EU 회원국별 기금 배정 현황(2014~2020년)

(단위: 백만 유로, %)

	결속 기금 (CF)	유럽지역 개발기금(ERDF) & 사회기금(ESF)				ERDF 지역간 협력	ESF 유럽사회 기금	총계 (비중)
		개발 지역	전환 지역	선진 지역	외곽·저밀집 지역			
벨기에	-	-	1,039.7	938.6	-	263.2	42.4	2,283.9
불가리아	2,278.3	5,089.3	-	-	-	165.6	55.2	7,588.4 (2.2)
체코	6,258.9	15,282.5	-	88.2	-	339.7	13.6	21,982.9 (6.2)
덴마크	-	-	71.4	255.1	-	226.9	-	553.4
독일	-	-	9,771.5	8,498.0	-	965.4	-	19,234.9
에스토니아	1,073.3	2,461.2	-	-	-	55.4	-	3,590.0
아일랜드	-	-	-	951.6	-	168.8	68.1	1,188.6
그리스	3,250.2	7,034.2	2,306.1	2,528.2	-	231.6	171.5	15,521.9
스페인	-	2,040.4	13,399.5	11,074.4	484.1	617.5	943.5	28,559.5
프랑스	-	3,407.8	4,253.3	6,348.5	443.3	1,089.3	310.2	15,852.5
크로아티아	2,559.5	5,837.5	-	-	-	146.1	66.2	8,609.4 (2.4)
이탈리아	-	22,324.6	1,102.0	7,692.2	-	1,136.8	567.5	32,823.0
사이프러스	269.5	-	-	421.8	-	32.7	11.6	735.6
라트비아	1,349.4	3,039.8	-	-	-	93.6	29.0	4,511.8
리투아니아	2,048.9	4,628.7	-	-	-	113.7	31.8	6,823.1
룩셈부르크	-	-	-	39.6	-	20.2	-	59.7
헝가리	6,025.4	15,005.2	-	463.7	-	361.8	49.8	21,905.9 (6.2)
몰타	217.7	-	490.2	-	-	17.0	-	725.0
네덜란드	-	-	-	1,014.6	-	389.7	-	1,404.3
오스트리아	-	-	72.3	906.0	-	257.3	-	1,235.6
폴란드	23,208.0	51,163.6	-	2,242.4	-	700.5	252.4	77,567.0 (22.0)
포르투갈	2,861.7	16,671.2	257.6	1,275.5	115.7	122.5	160.8	21,465
루마니아	6,935.0	15,058.8	-	441.3	-	452.7	106.0	22,993.8 (6.5)
슬로베니아	895.4	1,260.0	-	847.3	-	62.9	9.2	3,074.8
슬로바키아	4,168.3	9,483.7	-	44.2	-	223.4	72.2	13,991.7
핀란드	-	-	-	999.1	305.3	161.3	-	1,465.8
스웨덴	-	-	-	1,512.4	206.9	342.3	44.2	2,105.8
영국	-	2,383.2	2,617.4	5,767.6	-	865.6	206.1	11,839.9
기술지원 등								2,161.0
총계								351,854.2

자료원: EU 집행위

□ 한국기업의 새로운 기회시장으로 부상하는 EU의 공공조달 시장

- EU, 세계 최대 공공조달시장
 - 공공조달 규모, EU 전체 GDP의 약 14%(약 9,315억 유로) 차지
 - 회원국별 시장규모는 독일(전체의 22.9%),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순
- 서비스 및 물품 분야의 높은 공공조달 비중
 - 입찰건수 기준, 서비스(47%)와 물품(36%) 분야가 전체의 83%를 차지, 공사 분야는 17%
 - 입찰공고 평균 금액, 서비스 및 물품 분야(180만~200만 유로), 공사 분야(600만 유로)
- 전자조달 의무화, 입찰공고문 무료번역 서비스 도입, 주요국별 원가절감 추세 증가세
 - (전자조달 의무화) 2016년 4월부터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투명성 제고, 물리적 제약 감소)
 - * 전자통지(e-notification) 및 조달 서류의 전자적인 접근 의무화
 - (무료번역 서비스) 2016년 1월부터 EU 관보(TED)에 공지되는 모든 입찰공고문에 대한 무료 자동 번역시스템 도입(각 회원국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문 확인 가능)
 - (원가절감) 영국 NHS 등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가격경쟁력이 주요 의사 결정요인
- 최근 IT 융합 분야(의료기기·교육기자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성공사례 창출
 - 한-EU FTA의 이점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용이
 - * 관세 감축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입찰참가 및 낙찰 시 과거 조달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

[유럽 무역관이 선정한 주요국별 공공조달 유망분야]

국가	유망분야	비고
독일	LED	• 공공기관의 친환경 절전형 제품 교체 추세 지속
	프린터 및 복합기	• 공공기관 내 꾸준한 교체 수요 발생 • 친환경인증(Der Blaue Engel) 및 가격경쟁력 보유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에 따라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 상승세
프랑스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 연결기기	• 국가예산 비용 절감을 위해 프랑스전력회사(EDF), '원격 전기계량기' 보급
	로봇, 메디컬 로봇	• 최근 연간 20%의 고성장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연계 신규 조달수요 발생
	의료영상기기	• 공립병원 의료설비 및 기기를 조달하는 공동구매센터(UniHA)의 발주 증가 • 특히 고성능 초음파기기의 경우 프랑스에서 호황, 7~8년마다 교체 수요 발생
영국	의료기기, 의료소모품(디지털 헬스케어)	• 인구고령화, NHS(국민보건서비스)의 사상 최대 예산 적자로 원가절감 강화 정책, 고품질 가격경쟁력 보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조달수요 증가세
	교육장비기자재	• 최근 전자책판으로 대형 교체 수요 발생 • 직업학교 교육용 3D 프린터, 선반 등 교육용 기자재 수요 급증
이탈리아	모바일헬스(IoT 결합 웨어러블 의료장비)	• 정부 주도 'Human Technopole' 프로젝트 연계, IoT 적용 의료기기 수요 증가세
덴마크	의료기기	• 2020년까지 70억 달러를 투입, 8개의 슈퍼병원 포함 총 16개 신규 병원 건립 중 • 공공기관 재정긴축 및 의료 제조기반 취약으로 역외산 의료기기 수요증가세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 4차 산업혁명 연계 ‘민관합동’ 한-유럽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급

- 중국과 일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표준화 등 전방위 영역에서 Industrie 4.0 선도국인 독일과 국가협력 추진 가속화
 - (중국) 4차 산업혁명 관련 양국(중국·독일) 정부 주도의 협력기반 구축, 산학연 기술 협력 활발

[독-중 4차 산업혁명 경제협력 현황]

	내 용
정부협력	• 인더스트리 4.0 국가 간 협업을 위한 MOU 체결(2015년 7월) - 중국의 Made in China 2025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분야 연계 공동 협력관계 강화 협의(독 연방경제 에너지부- 중 산업정보통신부) - 2016년 11월부터 연례 차관급 심포지엄 공동 개최(로봇, 표준화, IT 보안 분야) - 독일 정부 운영 4차 산업혁명 범국가 플랫폼인 'platform industrie 4.0'에 China 데스크 운영, Sino-German Company Working Group 구축 → 중국·독일의 산업계 대표, 연구소 참가 협력방안 논의(1차 회의는 2016년 10월 18일 베이징 개최) - 독일 4차 산업혁명 기술표준화 전담조직 Standardization Council Industrie 4.0과 중국 기술표준청(SAC) 간 기술표준화 협력(2017년 6월 26~28일 1차 회의, 2차 회의는 2017년 11월 개최 예정)
기술협력	• 독일 대표 스마트팩토리 기술 클러스터 SmartFactoryKL와 중국 화웨이 기술협력 • 독일 대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it's owl과 베이징기술연구소 간 기술협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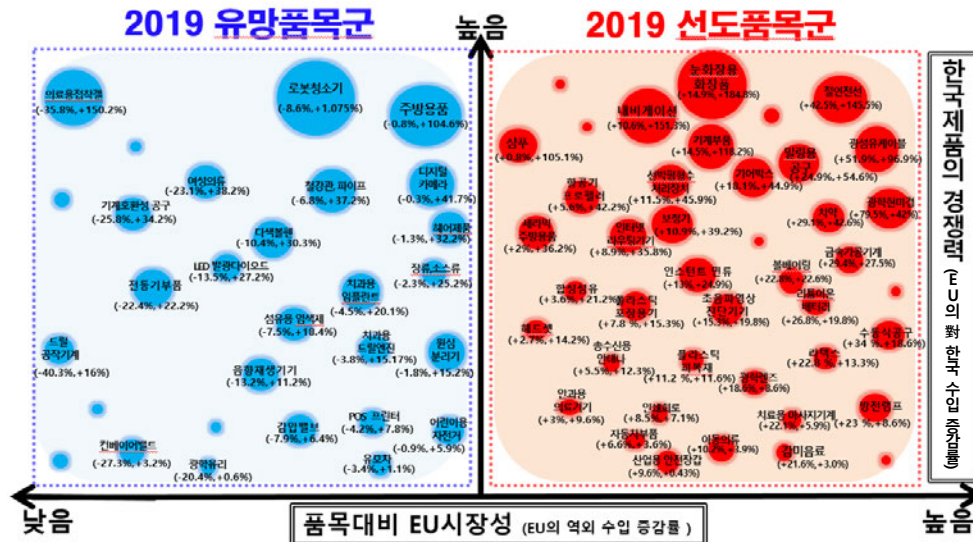
- (일본) 기술 표준화, 사이버보안, 중소기업 육성을 일본-독일 간 협력 중점과제로 선정

[독-일 4차 산업혁명 경제협력 현황]

	내 용
정부협력	• 인더스트리 4.0 국가 간 협업을 위한 하노버공동선언 발표(2016년 4월) - 독일 경제에너지부-일본경제산업성, 독일 platform industrie 4.0-일본 로봇혁명이니셔티브 - IoT 분야 기술표준화 협력, 사이버 보안, 중소기업 교육이 중점 전략과제 - 독일 4차 산업혁명 기술표준화 전담조직 Standardization Council Industrie 4.0과 기술 표준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기술협력	•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와 일본 히타치(Hitachi) 간 기술협력 등

- 4차 산업혁명 기회선점은 정부, 산업계, 연구계 등 민관 합동대응이 필요한 범국가 어젠다
 - 정부 차원의 정부 간 국제협력 기반 구축 필요
 - * 독일 4차 산업혁명 기술표준화 조직 Standardization Council Industrie 4.0은 중국, 일본과는 공식 협력 플랫폼이 있으나 한국과는 없음
 - 특히 EU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의 발효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난항이 예상되고 있어 적정성 평가 등 정책 지원 필요
 - * EU 개인정보 보호 담당 LIBE 위원회에서 10월 30일 방한, 방통위와 '적정성 평가' 논의
 - * 한-EU '적정성 평가'에 의거, 우리 기업은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입 등 처리 가능
 - 한-유럽 국가 간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 공동기술 개발 참여 확대
 -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지부,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Smart Factory 컨소시엄인 SmartFactoryKL의 회원; Smart Factory 관련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공동 연구, 표준화 노력
 - IT 기술이 접목된 공정 최적화 기술, IoT 응용 기술, 텔레매틱스 기술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 네트워크 확보가 중요

품 목 군	내 역
● 선도 품목	• EU 시장성 및 한국제품의 경쟁력 부문 모두 상위권
● 유망 품목	• EU 역외 수입은 감소했으나, 한국제품의 경쟁력 부문 상위권 기록



자료원: World Trade Atlas(2018년 9월 전년 동기비 EU의 역외수입증감률, EU의 對한국 수입증감률 기준)

- ① (수출직결) 선도품목 위주로 단기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집중
- 화장품, 인스턴트 면류, 내비게이션, 인터넷라우팅기기, 초음파 영상치료기기 등

	품목군	품목	EU 역외수입 증감률	대한국 수입증감률	한국의 해당 품목별 EU 수입시장 점유순위
선 도 품 목	소비재	인스턴트 면류(HS190220)	11.2%	33.88%	5위
		눈화장용화장품(HS330420)	8.72%	139.76%	3위
	기계류	자동차부품(HS392190)	6.6%	3.6%	8위
	ICT	인터넷라우팅기기(HS851762)	10.23%	25.72%	13위
		내비게이션(HS901480)	7.97%	85.87%	8위
	의료	초음파 영상진단기기(HS901812)	11.6%	19.05%	3위

- ② (신규유망) 유망품목위주로 중기수출, 마케팅 기반 강화
- 치과용 의료기기, 주방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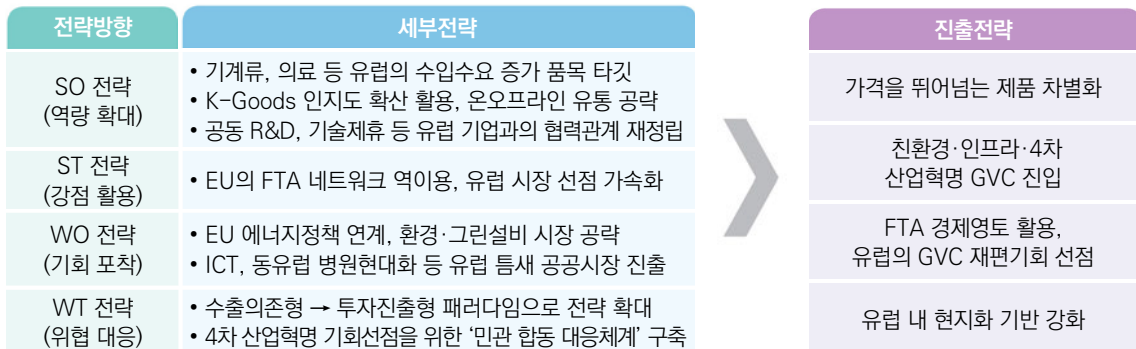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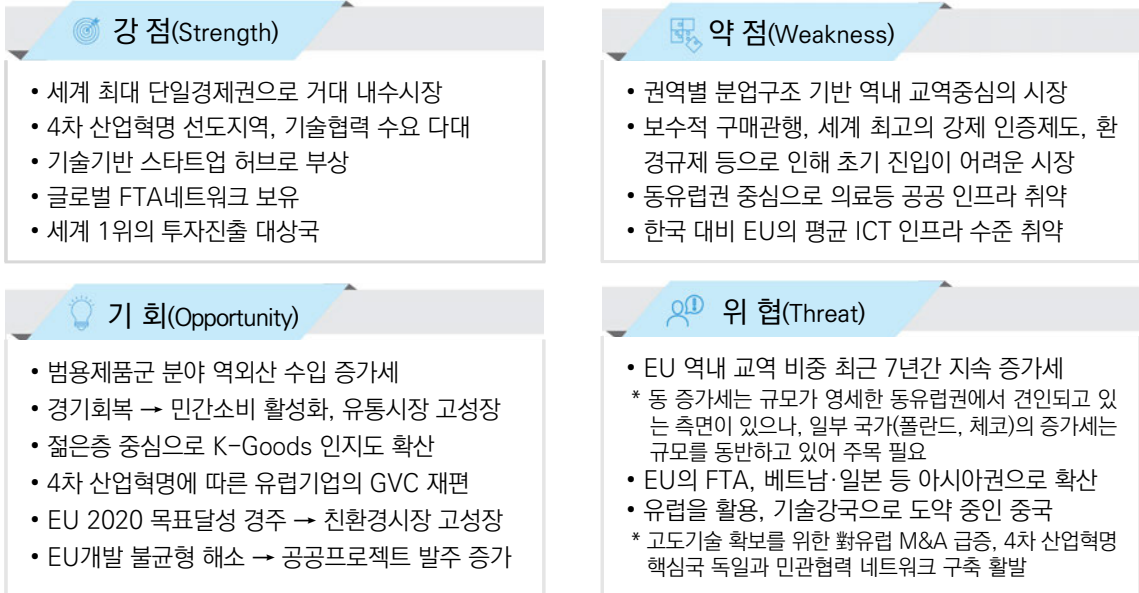
	품목군	품목	EU 역외수입 증감률	對한국 수입증감률	한국의 해당 품목별 EU 수입시장 점유순위
유망 품목	치과용 의료기기	치과기기 드릴엔진(HS901841)	-12.5%	17.36. %	5위
		치과용 임플란트(HS902129)	-5.7%	10.4%	4위
	소비재	주방용품(HS821520)	1.78%	105.7%	15위
		어린이용자전거(HS950300)	-1.63%	12.91%	22위

III 진출전략

- 가격을 뛰어넘는 제품 차별화, 4차 산업혁명 GVC 진입을 통해 분야별 유럽 진출 차별화 달성
- FTA 경제영토 활용, 유럽 내 현지화 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유럽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이슈·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온라인 공략, K-Goods 진출 확장	①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K-Goods 판로 확대 - 전자상거래가 정착된 서유럽,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동유럽 -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한국산 의류, 화장품 시장 공략
중국의 유럽 선점 가속화	② ‘수출의존형’에서 ‘투자진출형’ 전략으로 패러다임 확대 필요 -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여건 속 M&A, 현지창업을 통한 역내기업화 추진 - 유럽 내 A/S 거점, 전문세일즈랩 활용 등 현지 대응체계 강화
신기술 개발, 자동차 부품 공략	③ 현지 원가절감 추세 및 경량화·전장화·친환경 부품수요 대응 - 전기/무인자동차 및 경량화 소재 등 관련 부품 -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 노력 강화 및 현지 거점 보유
의료기기 활용, 동유럽 진출	④ 동유럽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역외산 수요 공략 - 고성능 초음파 영상기기, IoT결합 의료장비 등 디지털 헬스케어 - 유럽 내 임상실험 레퍼런스 확보, 의료기기 전문벤더 활용
A/S형 조선	⑤ 현지 선주의 A/S기자재 직구매 수요, 친환경 기자재 시장 진출 확대 - A/S기자재, BWTS(평형수 처리장치), SOx·NOx, CO₂ 저감장치 등 - 조선소·에이전트·선주사에 대한 동시 마케팅 추진, 현지거점 보유
블루오션 진입, E-교육기자재	⑥ 유럽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E-교육기자재시장, 현지화로 공략 - E-교육기자재(교육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 전문 네트워킹 행사 참가, 스타트업 현지 창업 등
분야별 유럽 진출 차별화	- 가격을 뛰어넘는 제품 차별화 - 유럽 내 현지화 기반 강화

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K-Goods 진출 시장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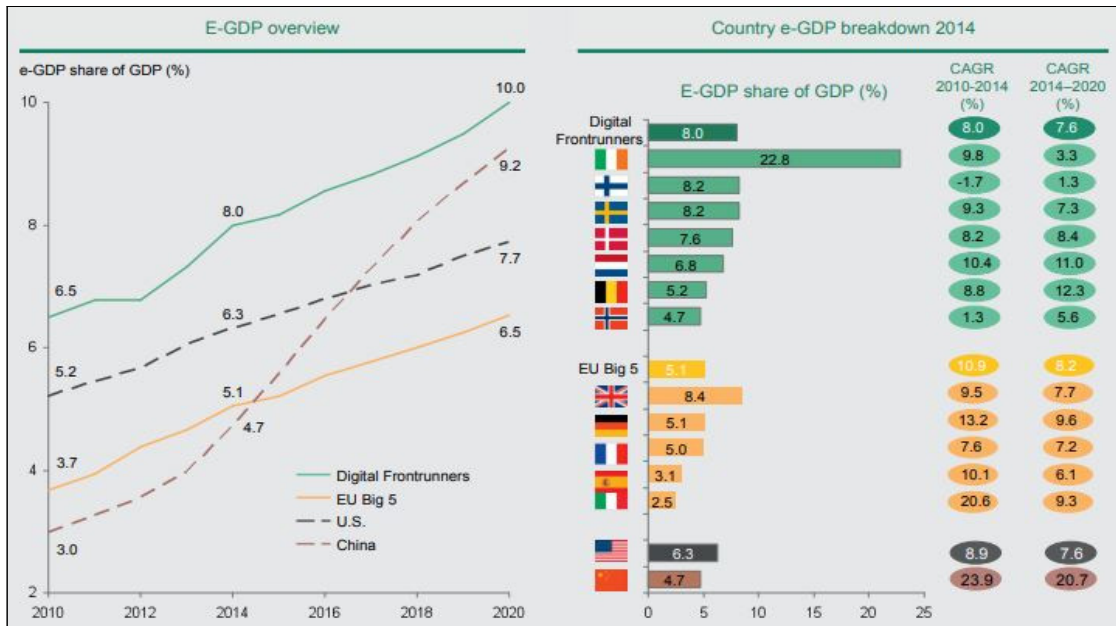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 경기호조·소비시장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 지속 급증세
 - * 2018년,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의 매출액 6,020억 유로 달성 전망(전년 대비 13%증가 전망)
- 한국 소비재, 가격경쟁력·기술력 상승과 맞물려 유럽에서 인지도 확산
 - * 한국산 소비재의 對유럽 수출 지속 상승(2017년 화장품 41.5%, 유아용품 17%, 주방용품 13% 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전자상거래 유통이 정착된 서유럽,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동유럽
 - 2018년 유럽 E-Commerce 시장의 매출액 6,020억 유로 달성 전망(전년 대비 13% 증가)
 - * 2017년 유럽 전자상거래 매출의 68%가 서유럽에서 발생(영국이 33%),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 고급인프라, 구매력을 기반으로 온라인 매출액 주도, 동·남유럽의 경우, 북·서유럽 대비 낮은 매출규모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대폭 상승(루마니아 37%, 포르투갈 23%, 그리스 22%, 이탈리아 17%, 스페인 15%, 헝가리 13%/European ECommerce Report 2018)
 - EU 전자상거래 시장 중에서도 'Big 5' 중 하나인 영국을 선제 공략하는 것이 관건
 - * 영국은 전자상거래 규모, 1인당 구매력 수준 등을 종합할 때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

[EU 국별 GDP 대비 전자상거래(e-GDP) 규모]



주: BCG에서는 EU 회원국을 'Big 5'(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디지털 선두국 7개'(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로 구분

자료원: Boston Consulting Group(2016년 5월 발표)

[EU 국가별 1인당 구매이력 비교]

(단위: 유로)



자료원: Statista 2017년 기준

- 유럽 주요국, 젊은층 중심으로 한국산 의류, 화장품 인기몰이
 - 독특한 디자인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K-Pop팬 젊은 여성층 중심으로 단골 고객층 형성 중
 - * 독일 대표 일간지 Die Welt(2017. 9. 3); 한국 화장품의 4대 인기요인으로 ① 천연자연성분, ②고품질·저렴한 가격, ③ 혁신성, ④ 아기자기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지목
 - * 화장품 유통업체 Sephora 주요국 매장에 K-뷰티 섹션 운영 중(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 K-Pop 열풍에 힘입어 젊은 감각의 한국산 스트리트패션 주요 유통망 입점 성공사례 확산
 - * 영국 최대 의류 유통망 ASOS에 한국 중소기업 6개사 신규 납품 성공
- (진출확대) 그간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기계류에서 유망품목인 화장품, 안경테, 가공 식품류 등 소비재 산업으로 고객저변 확대
 - K-Beauty로 촉발된 문화 한류를 K-Food 등 타 산업 확산을 통한 경제 한류로 발전 추진
 - (새로운 수출방식) 기존 오프라인, 단순 매치메이커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지원에서 전자상거래(O2O) 플랫폼 활용,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기능 강화
 - 아마존 등 유명 전자상거래 O2O 플랫폼 활용 강화를 통해 내수기업, 영세수출 기업, 아이디어 제품 제조기업 등의 유럽 시장 초기진출 기회 제공
 - * 런던무역관(아마존) 입점사업(2017년) 사업에 이어 2018년에는 독일(QVC, 아마존), 프랑스(아마존), 스페인(EI Corte Ingles) 등 8개 무역관으로 시범사업 확대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소비재
 - 유럽의 4대 소비트렌드(웰니스, 친환경, 혁신성, 실용성)에 부합하는 제품
 - * 화장품(천연 마스크시트), 친환경 완구류, 기능성 주방용품 등

◎ 성공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마스크팩 수출 A사(독일 홈쇼핑 채널 입점 계약 추진 중)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요인: ① (인증획득) 유럽 화장품시장 진출의 필수요소인 CPNP 등록과 인증을 모두 사전에 확보, ② (소비 트렌드 파악) 최근 유럽 내 불고 있는 K-Beauty 열풍과 유럽인들의 화장품 소비 트렌드를 파악, 타사와 차별화된 유기농 성분과 품질 우수성을 강조하며 어필, ③ (현지 홈쇼핑 유통망 공략)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이 주최한 유통망사업에 참가하여 현지 유명 홈쇼핑채널 구매담당자와 미팅 성사 후, 지속적인 1:1 미팅을 통해 입점계약 추진 중

- (진출전략) 인증확보, 현지 전문 에이전트 활용, 타깃권역 수요에 따른 시장접근
 - (강제인증) CE(공산품), LFGB(조리용기구, 부엌용품), RoHS(전자제품), CPNP 등록(화장품)
 - (Sales Rep. 활용) 현지 취향에 맞는 디자인, 브랜드이밍, 유통 네트워크 보유한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 활용
 - (타깃권역별 시장접근) 권역별 소득, 경쟁사 제품, 온/오프라인 채널 등 타깃시장별 구별 접근
 - * 저가 제품의 경우 온라인 B2C 시장을 우선 공략, 시장호응도 사전 점검

나. '수출의존형'에서 '투자진출형' 전략으로 패러다임 확장

시장·산업여건

- EU, 역내교역 비중 지속 증가세
 - * 57.5%(2011), 56.3%(2012), 57.2%(2013), 62%(2014), 63%(2015), 63.9%(2016), 64%(2017) / EUROSTAT
- 유럽 바이어, 한국기업의 가장 취약한 점으로 '유럽 내 현지화 기반'을 꼽음
 - * 유럽바이어의 65%가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우수하나, 51%가 유럽거점 보유(생산, 판매, A/S 거점 등) 부문이 취약하다고 응답(2017.9. KOTRA 유럽지역본부 설문, 대한민국 수입바이어 51개사)
- 중국의 유럽시장 투자진출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을 '기회'로 활용, 선제적인 인수 확대 필요
 - * 2016년 중국의 對유럽 M&A는 역대 최대치(309건) 기록 후 감소(2017. 247건 → 2018. 상반기, 111건) / EY
 - * 최근 EU는 중국의 과도한 역내 투자진출을 경계하기 위해 첨단기술, 인프라 분야의 인수 규제 추진 중

□ M&A, 현지창업을 통한 역외기업의 역내기업화

○ 유럽 국가별 투자환경에 맞는 진출형태 선택 필요

- (서유럽) 연락사무소, 판매법인, 기업인수
- (동유럽) 생산법인, 자산인수
- (북유럽) 창업, R&D 센터 등

* 동유럽은 생산기지·서유럽은 마케팅 거점 중심으로 한국기업 진출(총 765개사),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은 EU 28개 회원국 중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3위국으로 선정**(고급인력, R&D 지원체계 등)

**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EU 집행위)

○ 전문분야인 M&A의 경우 현지 로펌, 컨설팅 업체와 초기 단계부터 협업 중요

- KOTRA M&A 지원센터, 유럽현지 부티크, M&A 자문사 등을 통한 매물정보 입수
- 현지 M&A 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

* 현지 무역투자진흥기관, KOTRA M&A 지원센터에 문의 요망

[유럽 지역 무역관 선정 M&A 유망분야]

구 분	유망분야
영 국	자동차부품, 에너지, 인프라 건설, 하이테크, 문화 콘텐츠
독 일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가공, 태양광, 풍력발전 부품
이탈리아	패션, 제약, 기계 및 자동차부품, 식품
폴란드	기계부품, 제약, IT, 건설,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
헝가리, 체코	자동차부품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 진출전략 활용 투자진출 성공사례: 차량용 전자 클러치 생산 Y사(헝가리 자산인수형 M&A)

- (내용) 차량용 전자 클러치 생산업체 중소기업 Y사는(부다페스트 무역관 지사화 업체),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납품 확대를 위해 유럽 내 생산법인 설립, 법인설립 후 유럽 내 추가 거래선 발굴
- (지원절차) 인허가 취득단계 축소 및 초기 설립비용 감축을 위한 '현지 자산매물'(현지 기 설립된 공장)에 대해 관심. 코트라 부다페스트 무역관은 본사 M&A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현지 에이전트 고용 및 16건 매물검토를 통해 공장인수 M&A를 지원, 코트라 본사를 통해 매물실사 및 취득비 지원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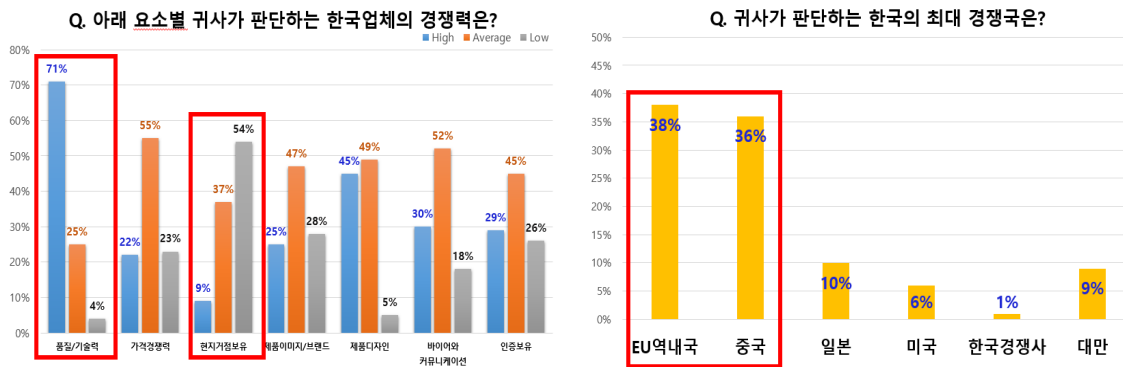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요인

- ①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출기업과 가장 적합한 진출형태의 선정할 것(서유럽: 기업인수형, 동유럽: 자산(공장) 인수형), ② M&A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트라 M&A 지원센터를 통한 매물 발굴, 계약, 실사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것, ③ 현지거점 구축 후 현지대응 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지속적인 거래선 확대를 시도할 것

□ 유럽 내 A/S 거점, 전문 세일즈랩 활용 등 현지 대응체계 강화

- 유럽은 분업구조 기반 역내교역 비중이 높은 시장
 - 현지 거점구축을 통한 소량 다품종 주문에 대응, 신속한 배송, A/S가 중요
 - 자체 거점이 없을 경우, 세일즈랩·에이전트 적극 활용
- 유럽 바이어, '한국업체의 기술력은 우수·현지 대응체계는 미흡'으로 평가
 - 현지거점은 유럽 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
 - 중국의 유럽진출 강화(M&A 및 기술격차 축소), 일본의 EU와의 FTA 체결(2018년 체결완료, 2019년 발효 전망)에 따라 우리 업계의 단순 '수출 의존형' 접근전략에서 탈피 시급

[유럽 바이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설문조사 결과(2017. 9. 4(월)~18(월), 유럽 지역 바이어 78개사)

◎ 진출전략 활용 성공사례: 자동차 내장재용 사출성형기 R사(체코 현지 A/S 파트너 활용)

(내용) 내장재용 사출성형기 생산업체 중소기업 R사는, 유럽 현지 생산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UDI·BENZ 등에 최첨단품 성공(연간 30만 달러 성악 지속 발생). 현지 유지보수체계 구축(현지 A/S 파트너)을 통한 안정적인 대응기반 구축과, 신속한 납기대응을 위해 한국 본사공장 내 자동차 cell-line 구축(24시간 무인 가동시스템) 등 기술혁신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요인

① 제품 특허 보유, 장기간의 내수(LG 1차 벤더) 및 아시아 지역 납품 레퍼런스, ② 현지 유지보수체계(현지 A/S 파트너)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현지 대응기반 구축, ③ 금형공장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cell-line 구축, 24시간 무인가동시스템(기술혁신)을 통해 물리적 거리 극복, 바이어의 단납기 요구에 대응

다. 자동차부품: 원가절감 VS. 경량화·전장화·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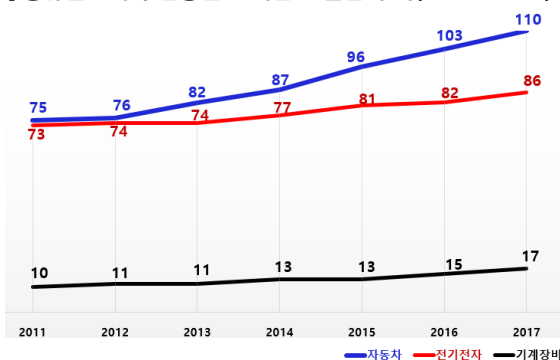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범용제품) 글로벌경쟁 심화에 따라 원가절감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
 - * VW(2015~2017년 총 50억 유로), Audi(연간 20억 유로), BMW(연간 5억 유로) 등
- (차세대부품소재) IT 응용기술 중심으로 설비구조 고도화, E-Mobility와 소재경량화
 - * (VW) 2025년까지 총 50개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계획 발표, (Benz) 경량화소재, 텔레매틱스 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술협력 파트너 물색(Jaguar) 2018년 하반기부터 전기자동차 양산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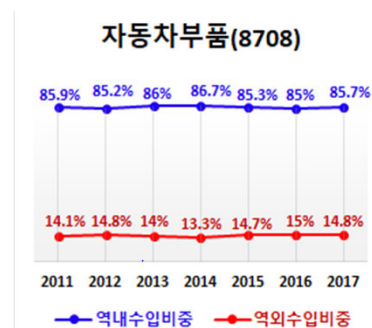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범용제품)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원가 절감이 최대 화두
 - 동유럽 진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조공장 중심으로 원가 절감 소싱 확산
 - * 슬로바키아(VW, PSA, KIA, JLR), 체코(스코다, 현대), 헝가리(Suzuki, Audi, Daimler)
 - 원가 절감 차원에서 동유럽 역내 생산기반이 있는 공급업체로부터(유럽, 제3국) 소싱 증가 추세, 한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도 동유럽 생산거점 투자 증가세
 - * 과거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인 자동차부품은 현지화 생산 증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2017년에 들어 對유럽 10대 수출품목 중 유일하게 직수출 감소세로 전환
 - * 자동차부품은 EU의 제2위 역내조달 품목, 역내조달 비중은 무려 85%(2016년 역내 수입액 기준), 특히 2017년 연내 체결, 2019년 발효 예정인 EU-일본 FTA에 따라 우리 기업의 FTA 선점효과가 약화될 전망으로, 유럽 내 현지화 강화 등 대응전략 시급

[동유럽 4개국 업종별 현지법인 설립 추이(2011~2017)]



[EU의 자동차부품 역외/역내 조달 추이]



주: 동유럽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자동차부품 역외/역내 조달추이는 EUROSTAT 통계치 기반 분석(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1968~2017 법인설립건수 누적치

- (차세대부품소재) EU의 환경 규제 연계, 경량화소재·전기/무인자동차 개발 경쟁 본격화
 - Benz, 2020년까지 자동 고속도로 주행 옵션을 탑재한 무인자동차 출시 계획
 - 중국 CATL사, 독일 에어푸르트에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 설립 계획(2018년)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전기 및 무인자동차 및 관련 부품, 경량화 소재 등
- (진출전략) 동유럽 진출 한국 부품업체와 협력관계를 기존 한국 메이커에서 글로벌 OEM으로 확대 필요, 시장의 재편기회 적극 활용해 경량소재 및 친환경 기술부품 분야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 노력 강화, 현지 거점보유는 필수사항

* (7대 납품 결정요인) ① 개발, 생산, 검사능력, ② 기술 능력(인증, 특허), ③ 생산제품 목록, ④ 공급레퍼런스, 고객목록, ⑤ 대응신속성, ⑥ 혁신적인 제품, ⑦ 물류 컨셉트

【유럽 지역 무역 협력수요】

기업명	2018년 동향	사업수요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Benz (독일)	- 전장부품, 텔레매틱스, 차량 간 통신분야 기술협력수요 - 기술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	Info-tainment, commercial electronics, 신소재 《R&D, 소싱》	- ISO 9001, ISO 14001, TS 16949 - R&D팀 보유,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보유
PSA (프랑스)	- 경유차 생산체제를 가솔린차로 전환, 협력업체 발굴 중 - 프랑스본부에서 구매전략 수립 및 결정	자동차부품 전 분야 조립라인설비, 프레스금형 등 《소싱》	- ISO 9001, ISO 14001, TS 16949 - PSA 표준 준수(Code of Conduct 포함 가이드라인 등) - 벤더 온라인 등록 필수
Jaguar (영국)	- 對한국 협력수요有 - 재규어의 구매전략인 에너지 절감, 차량 경량화에 적합한 파트너 발굴 중	알루미늄 소재 자동차 부품 《소싱》	- R&D팀 보유,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보유 - 물류비 절감 및 신속한 A/S 지원이 가능한 유럽 내 인프라 보유 선호
Brembo (이탈리아)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업체 발굴 중	브레이크부품 《R&D, 소싱》	- R&D팀 보유,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보유 - 신속한 A/S지원이 가능여부
스코다 자동차 (체코)	2017년 하반기 코디악 SUV 초기 생산가동, 콤팩트 SUV 카루크(Karoq) 생산예정 2019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양산 돌입 예정 2025년까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5개 모델 생산 계획	자동차부품 전기자동차 부품 스탬핑 다이 프레스금형 등 《소싱》	- 브랜드와 부품에 따라 구매권한이 스코다와 폴크스바겐 본사로 구분돼 부품에 맞는 구매담당자와 연락이 중요 - 정기적인 제품 및 공정에 대한 품질검사를 충족해야 함
Daimler Benz (헝가리)	- 헝가리 생산공장 확장을 위한 1.1억 달러 증액투자 결정 후 원가절감(Cost Down)을 위한 신규 납품사 발굴 중 - 헝가리에 생산라인을 가진 기업 선호	자동차부품소분야 베어링 등 《소싱》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대한 납품 레퍼런스 등
Jaguar Land Rover (슬로바키아)	- 對한국 협력수요 다대 - 전장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공급업체 발굴 중	전장부품, 배터리팩, 부동액, 샤시일부 《소싱》	- 구매 담당자와 직접 미팅 가능하나 구매 결정권한은 런던 본사에 있음. - 카테고리별 부품인증 보유, 전장부품 분야 인증은 필수 -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CEE지역 기반 생산업체 발굴 희망
PSA (슬로바키아)	2017년, 한국업체와 1차 협력 미팅 진행 - 전기차 일부부품 공급업체 발굴중	와이어링하네스, 배터리팩 《소싱》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보유
ZKW (슬로바키아)	히트싱크, 헤드램프, 헤드라이트 모듈케이스 A/S 부품 아웃소싱 수요有	Headlight Parts Outsourcing 《소싱》	영문 소통 가능 전문 엔지니어 보유

자료원: KOTRA 유럽지역본부

라. 의료기기: 동유럽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활발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동유럽 중심으로 의료기기 공공조달 수요 증가세
 - * EU 기금 활용, 국공립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따른 의료기기 조달 수요 지속 증가세
- 사회복지가 발달된 영국과 북유럽권, 예산절감을 위해 역외산 수요 증가
 - * 영국 NHS 역대 최대 예산적자, 덴마크 인건비 절감을 위해 ITS 융합 원격의료기기 수요 급증 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동유럽)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활발
 - 서유럽 브랜드 대비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세
 - * 한국산 의료기기 대표 수출효자 품목으로 등극
- (북유럽) 보건복지가 발달된 영국과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등) 중심으로 역외산 조달에 개방적으로 전환
 - 의료기기 분야, 제조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기존 서유럽 수입을 역외산으로 전환추세)
 - 의료서비스 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해 ICT 융합제품 등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세
 - * (영국) NHS의 적자심화에 따라 구매단가를 낮추고 산하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제품을 통합구매하는 등 구매패턴 재편 중. (덴마크) 8개 슈퍼병원(Super Hospitals)을 포함, 16개 신규 병원 건립 중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고성능 초음파 영상기기, IoT 결합 웨어러블 의료장비 등 디지털 헬스케어, 동유럽권의 경우 치과기기 및 의료용 소모품 포함
- (진출전략)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한 유럽 현지 산학연 클러스터·전문병원 관계자와 협업, 공동검증(임상실험), 의료기기 전문벤더를 통한 공공시장 간접 진출
 - 유럽 시장 내 임상실험 레퍼런스 확보로 고품질·고가라인 공략 가능
 - * 최근 Medical Devices Regulations 승인(2017년 4월)에 따라 EU 내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제조업체는 임상실험 결과 제출 의무화 예정(의료기기는 2020년부터, 체외진단기는 2022년부터 시행)
 -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공공조달 시장 특성상, 조달경험이 있는 전문 벤더와 협업 중요

◎ 성공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국내기업 A사, 치과용 의료기기(자가치아 이식 기술제품) 임상실험 연계 마케팅 추진
- 헝가리 Semmelweis대학교와 임상실험 및 공동 R&D 진행 후, 유럽 전역에 수출 예정
(유럽 여러 병원에서 구매에 관심 표명 중)
- 헝가리 에이전트 고평가: “유럽 내에서도 전무한 혁신기술이다. 현재도 유럽 내 유통할 수 있지만 1년간 임상실험으로 유럽 내 레퍼런스가 확보되면 보수적인 유럽 고가 의료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실적 전망”
- 성공포인트: ① 한국 정부로부터 ‘글로벌 마케팅 과제’ 지원사업 R&D 기금 확보, 혁신제품 개발, ② 헝가리 보건복지부 추천 업계 최고 권위자인 Semmelweis대학교 교수와 임상실험 추진
- 헝가리는 의대/치대, 노벨상 수상자 다수 보유 등 유럽 내 높은 역량. 반면, 인건비가 저렴하여 서유럽이나 한국 대비 R&D 비용, 임상실험비용 저렴(한국의 약 1/6 비용)

[유럽 무역관이 선정한 주요 의료기기 바이어 리스트 (한국산 구매 관심)]

국가	바이어명	취급품목	주요 수입국가	홈페이지
핀란드	Steripolar Oy	초음파장비, 자동수액주입기	미국, 유럽, 아시아	steripolar.fi
	Hammasvaline	치과 임플란트, 치과용 진단장비	전 세계	hammasvaline.fi
덴마크	APGAR	복강경 등 수술장비, 환자 모니터링 장비, 산부인과, 방사선 장비	스웨덴,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apgar.dk
	H. Dam Kaegaard	각종 일회용 수술기기(군병원 포함 공공조달 시장에도 참여 중)	독일, 네덜란드, 한국	damkaergaard.dk
	Reamed	심박 측정기, 임신 테스트기	영국	reamed.dk
	GM Medical	레이저, 마취 용품, 수술 및 살균 장비 (덴마크 공공 및 민간운영 병의원에 납품 중)	미국, 유럽 중심, 아시아 국가에서도 소량 수입 중	gm-medical.com
영국	NHS Supply Chain	의료 마스크, E-헬스케어 (영국 공공구매기관)	중국, 인도, 태국, 한국 등	supplychain.nhs.uk
	Olympus UK Ltd	복강경 수술 캡슐, 정밀 수술 확대경	영국 등	olympus.co.uk
	Bunzl PLC	의료 마스크, 장갑 등 (한국산 구매 관심 보유)	미국, 호주, 영국, 아일랜드 등	bunzl.com
루마니아	SOFMEDICA	의료, 수술 장비 및 기구; 자외선 또는 적외선 장치,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리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sofmedica.com/ro
	TECHNO ELECTRO MEDICAL	의료, 수술 도구 및 기구	NA	temco.ro
슬로바키아	TIMED	Glucometers	미국, 영국, 독일 등	timed.sk
	E-BA tpz	electrosurgical unit	미국, 독일, 일본 등	erbe-ba.sk
크로아티아	Medika	의약품, 기타의료기기(혈당계 등)	이탈리아, 독일, 미국 등	medika.hr
	SALVUS	혈당측정기, 치료용호흡기	스위스, 미국 등	salvus.hr

국가	바이어명	취급품목	주요 수입국가	홈페이지
폴란드	KENDROMED	전기식 진단용 기기	NA	kendromed.pl
	PROMED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내시경	NA	promed.com.pl
헝가리	FRONT-DENT Kft	치과용 진단장비, 임플란트	NA	frontdent.hu
	Teva Zrt	혈체어, 기타의료기기(혈당계 등)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eva.hu
불가리아	Top Hospital Service JSC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주로 유럽국가	ths.bg
	ELI Medical Ltd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elitmedical.com

마. 조선기자재: 선주의 A/S 기자재 직구매 수요, 친환경 기자재 수요 증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세계 조선기자재시장의 최대 수요처
 - * 상선보유 상위 25개국 중 EU 내 10개국 소재(그리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등)
- 유럽 선주사의 역외산 구매 관심 확산 추세, 對유럽 조선기자재 수출의 적기
 - * 친환경 조선기자재, A/S 선박기자재 등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선주의 A/S 기자재 직구매 수요 증가
 - 신조 축소에 따른 반작용으로 구선 O&A를 위한 A/S 선박기자재 수요는 증가 추세
 - 비용절감 위해 선주사의 EU 역외산 직구매 확대(무역상사 의존 탈피)
- IMO(국제해사기구) 등의 규제강화에 따라 CO₂ 절감 등 친환경기자재 수요 확대
 - IMO의 친환경협약, 2015~2020년 동안 단계별 발효
 - 특히 북구 등 유럽 ECA 지역은 IMO 일반 규제보다 엄격한 환경 규제 적용
 - * ECA(Energy Control Area): 황, 질소산화물 배출 집중 억제 해역(스칸디나비아, 발틱해, 북해, 영국해협)
 - 선박평형수 처리(2017년), CO₂(2017년), 황산화물(2020년) 배출 등 잇단 규제 발효, 관련 기술 보유한 국내기업에 기회로 작용
 - *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생산 중소기업 A사, 네덜란드 선주 79척에 납품계약 성공(2016년)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A/S 기자재, 친환경기자재, 고부가 선박기자재
 - (A/S 기자재) AS용 부품 및 장비, 선박용 가구, 어플라이언스, 선용품 등
 - (친환경기자재) BWTS(평형수 처리장치), SOx·NOx, CO₂ 저감 장치, 스크러버, LNG 선박용 펌프, 열교환기, 배관기자재
 - (고부가기자재) 크루즈, 스마트선용 e-네비게이션, e-페리, 시뮬레이션 장비
- (진출전략) 조선소·에이전트·선주사에 대한 동시 마케팅, USCG 인증 필수, 현지 거점 보유
 - 선주사(건조, 운영비 절감 관심), 조선소(건조비 절감 관심), 트레이딩컴퍼니(A/S 기자재 소싱 관심)
 - 선주사는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자체 제조 업체 명단을 작성하여, 조선소의 기자재 구매에 대해 직접 간접 영향력 행사
 - * (Maersk) 핵심기자재 90여개 카테고리별 5개 내외의 제조 업체 명단을 보유, 여타 범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선소에 구매 권한을 일임(엔진, 펌프, 모터, 수처리장치 등 70개 카테고리에 150여개 국내 기자재기업 등록)
 - USCG, ISO 9001, ISO 14001 등 품목별 필요한 인증 보유
 - 긴급 시 적기에 부품 공급 가능 현지거점(현지법인, 물류창고 등) 보유 중요

◎ 성공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국내기업 A사,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유럽 선주 79척에 약 1,650만 달러 상당 납품 성공(2016)
- 성공포인트: ① 로테르담에 지점개소(2012), ② EUROPORT, SMM, Norshipping 등 유럽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선주대상 마케팅, 브랜드 홍보, ③ 한국 정부로부터 R&D 지원, 기술혁신

바. E-교육기자재: 유럽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산업수요 다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교육기자재 산업, 유럽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산업수요 다대
 - * EU 집행위, 향후 15년간 유럽의 이러닝 시장이 현재 대비 1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기자재 단순 납품 외에, 대표적인 스타트업 진출유망 분야로 급부상 중
 - *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벤처캐피털의 Ed-tech 분야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히 진행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EU App산업, 짧은 기간에 유럽 내 최대 급성장 산업으로 부상
 - 2018년 유럽 온라인 App산업의 매출은 630억 유로 기록 전망
 - * 2014년 대비(17.5억 유로) 무려 260% 성장 전망, EU 집행위는 App산업을 유럽의 차세대 스타트업 유망 진출분야로 지목 / EU 집행위 “The amazing scale of the European app economy”
 - EU 디지털 어젠다 정책 연계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Digitalizing European Industry 정책 연계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 EU Opening Up Education 이니셔티브 연계 유럽 초중등·대학교 E-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E-교육 열풍 확산
 - * 2020년까지 EU 전 가정의 50% 이상에 최소 100Mb/s 속도의 인프라 구축, 회원국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역량센터(Digital Innovation Hub) 설립 확대, EU 집행위 Open Education Europa 웹사이트에 학교/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 e-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무료 개방
- E-교육기자재 산업, 유럽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산업수요가 큼
 - EU 회원국의 만 9세 이상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60%가 아직 디지털 교육기자재(디지털 교과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EU 집행위, 향후 15년 기간동안 유럽의 E-교육기자재가 전체 교육기자재 시장 매출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교육용 게임 소프트웨어 등
- (진출전략) E-교육기자재 전문 전시회, 유럽 내 개최 스타트업 네트워킹 사업 참가, 유럽 대기업 /정부 운영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 유럽의 대표적인 신성장 분야로 공식 네트워킹 행사 참가를 통한 현지시장 트렌드 파악, 회사 인지도 제고, 핵심 네트워크 확보가 관건
 -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독일 경제에너지부 운영 대학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EXIST, EU 집행위 운영 European Pioneers 펀딩 프로그램 등
 - * 유럽 대표 이러닝 분야 스타트업: Alison(아일랜드), Future Learn(영국), iversity(독일)

◎ 성공사례로 보는 진출전략

- 국내기업 P사, 전자책 제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독일 국제도서전 참가를 통해 對유럽 첫 수출에 성공
- 성공포인트: ① 일반 대중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책 제작 앱(app)을 개발,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전자책 소프트웨어(복잡한 코드 사용법)와 차별화, ② 유럽 대표 전시회 참가로 회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바이어로부터 ‘혁신제품’으로 고평가, ③ 아직 성장단계인 유럽의 틈새시장 개척

3. 한-EU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공동 R&D, 기술제휴 등 유럽기업과의 협력관계 재정립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열풍 확산
 - * ICT 응용기술제품·로봇산업, 핀테크 등 디지털 융합 분야 협력 수요 확대
- 유럽, 기술기반 'Start-up Hub'으로 부상 중
 - * 집중 투자분야는 E-Commerce, Fintech, Software 등 디지털 산업분야

□ 로봇기술, IoT, 핀테크 등 차세대 협력분야 기회 선점

- 유럽 업계, 4차 산업혁명 연계 산업혁신 본격화
 - 제조업이 발달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5개국 중심으로 범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본격 추진
 - * 독일(Industrie4.0), 프랑스(Industrie du Futur), 영국(4IR), 이탈리아(Fabrica Intelligente), 스페인(Industria Conectada 4.0, 스웨덴(Produktion2030)
- 산학연 클러스터, 창업, VC 투자유치 등 신마케팅 경로 적극 활용
 -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으로 핵심 기술분야 공동 R&D, 표준화, 상용화 노력 추진
 - * 중국기업 화웨이, 독일 Smart Factory KIE 회원사로 가입, 독일기업과 공동 R&D 추진 등

◎ 유럽의 4차 산업혁명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 (독일) 독일 대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Smart Factory KL; 독일 인공지능연구센터(DFKI) 주도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술협력, 총 45개 산학연 회원
- (프랑스) Aquitaine Robotics 클러스터; 회원사 89개, 미래형 공장 기술(로봇기술) 공동 연구, 상용화
-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스마트공장 협회; 131개 기업, 13개 대학/연구소, 10개 고용주 연합 참여, 스마트공장 기술 공동연구(EU 집행위 R&D 기금 지원)
- (스페인) 로봇생산자동화기술협회; 13개 기업 및 3개의 기술연구소, 7개 대학으로 구성

- (창업, VC 투자) 유럽 주요 스타트업 행사 참가, 유럽 현지 파트너와 함께 기술공동개발 아이디어 제안 시 채택 가능성이 높음
 - * 유럽 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유관행사에 지원

◎ 진출전략 활용 성공사례: 3D 증강현실 모델링 기술 개발 D사(공동 R&D 및 유관행사 활용)

- 증강현실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2016년 6월 영국법인 설립 이후 현재 영국 직원 5명 채용 중
- 현재 영국 정부가 2,000억 원을 투자한 5G Innovation Centre 및 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으로 영국 정부 R&D 과제를 진행하는 등 영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 중
- MWC 2018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공동 주제관인 이노베이션 시티, 보더폰 부스 등 동시 5곳의 부스에서 5G 기반 홀로그램 혼합현실 통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공개
- 2018년 말까지 초고화질화 연구 및 상용화를 파트너사와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요인

- ① 차세대기술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하면서 유럽 기업과 협력관계 정립
- ② 회사와 기술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시연 이벤트 등을 개최
- ③ KOTRA가 마련한 한국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공식적인 네트워크 확장
- ④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직접 대면 회의를 진행, 무엇보다 유관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와 기술을 알리고, 폭넓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나.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유럽 틈새시장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공공조달) 전자조달 의무화, 입찰공고문 무료번역 서비스 도입, 주요국별 원가절감 추세
 - * 전자조달시스템 도입(2016년 4월), EU 관보(TED) 입찰공고문에 대한 무료 자동 번역시스템 도입(2016년 1월)
- (프로젝트) 동유럽, 지방정부 중심, 그린시장, 의료 및 ICT 분야 프로젝트 발주 활발
 - * 기금의 상당부분이 주(州) 단위의 운용 프로그램에 배정됨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프로젝트 발주 전망

□ (공공조달) 스마트 의료기기 등 유럽의 공공조달 신규 수요에 대응

- 최근 IT 융합 분야(의료기기·교육기자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EU 진출 성공사례 창출
 - 한-EU FTA의 이점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시장 진출확대가 상대적으로 용이
 - * 관세 감축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입찰참가 및 낙찰 시 과거 조달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
 - * 한국기업 주요 성공사례: (H사) 이탈리아 전력송배선공사(TERNA) '변압기'(2010), (I사) 영국 Leeds 치과기관 '치과용 의료 영상 저장전송시스템'(2013), (S사) 프랑스 국립병원 '초음파 영상설립관리'(2016)
- 우리 기업의 진출유망 분야는 의료기기, 교육기자재 등 ICT 융합 스마트기기 분야
 - 동유럽 중심으로 EU 보조금의 활발한 유입으로 공공립병원의 현대화 및 고급 민간병원의 의료기기 조달 수요 지속 증가세
 - * 고성능 초음파 영상기기, IoT 결합 웨어러블 의료장비 등 디지털 헬스케어

- 보건복지가 발달된 영국과 북유럽(덴마크, 핀란드 등)권 중심으로 역외산 조달에 개방적으로 변화
 - * (영국) 인구노령화 등에 따른 NHS의 적자 심화에 따라 구매단가를 낮추고 산하의료기관에 제공되는 제품을 통합 구매하는 등 구매패턴 재편 중, (덴마크) 8개 슈퍼병원(Super Hospitals)을 포함, 총 16개 신규 병원 건립 중, 북유럽 의료기기 분야 제조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
- 그 외, EU 디지털화 정책('Digital Single Market'), 친환경 정책('EU 2020')과 연계, 공공기관의 ITS 장비, 디지털 교육기자재와 친환경기자재 조달 수요 증가세
 - * 초고속인터넷 통신장비, 3D 프린터, 하이브리드 PC, LED 등
- 단, 초기진입이 어려운 EU 조달시장의 특성상, 공공시장 입찰·수주경험이 있는 현지 정부 벤더와 협력해 간접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
 - 신속한 A/S 등을 위해 현지 대응체계 확보가 매우 중요(현지법인, 창고 등)

◎ 사례분석: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비(FTTH) D사

- 2개 지방정부에 장기계약 공급 체결
- 프랑스 정부의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지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참여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한 수입증가율 (2016)	對한 수입증가율 (2017. 6)
854470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비(FTTH)	-7.43%	+3.73%

- 제품의 비교우위: 광통신 가입자단말기(ONU)의 글로벌 표준기술 인증(BBF.247)을 획득하여 품질이 타 경쟁 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특히 D사의 현지 법인 설립으로 거점을 보유한 것이 현지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및 지방정부와의 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됨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BBF.247
성약 소요기간	계약 시부터 7년 / 첫 접촉부터 계약까지 약 1년 이상 소요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 경제사절단 참여
바이어 D/B	프랑스 중앙 및 지방 정부 프로젝트 발표
유망전시회	SIDEC, REXEL EXPO, JRES, FTTH CONFERENCE 등 전문 전시회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품질 및 AS가 매우 중요함. 현지 법인 설립과 기술력 확보, 표준 기술인증 획득으로 후발 국가와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유럽 지역 무역관이 선정한 2019년 진출유망 공공조달 프로젝트]

국가	분야	유망사유(시장동향 등)	조달기관/ 납품 벤더	URL	조달세부품목
영국	의료기기	NHS의 역대 최대 예산적자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 강화(유럽 역외산 조달에도 개방적) 디지털 의료장비 등 혁신제품 수요 증가	NHS (영국 국가 보건 서비스)	www.supplychain.nhs.uk/	텔레케어 (ICT 활용 원격케어), m헬스 (App과 IoT) 등
영국	고속철도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HS2 Ltd (정부산하기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igh-speed-two-limited	건설기자재
영국	교육 기자재	공립학교에 디지털화 교육과정 도입이 확정되면서 디지털 교육장비 수요 다대. 실험기자재의 경우 저가의 중국시장, 고가의 독일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가성비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	CPC (크레센터 콘소시엄)	www.thecpc.ac.uk	교육용 기자재
이탈리아	의료기기	고성능의 초음파 영상기기, 7~8년마다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지속적인 수요 시장	조달청 및 지방자치기관	www.acquistinretepa.it	의료장비
이탈리아	교육 기자재	디지털스쿨 프로젝트로 디지털 교과서 채택이 필수, 태블릿, PC, 전자칠판 등 수요 다대	조달청 및 지방자치기관	www.acquistinretepa.it	디지털 교육용 장비
이탈리아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선도국으로 재생,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프로젝트 발주 다대. 스마트미터기 교체사업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다수	조달청 및 지방자치기관	www.acquistinretepa.it	전기부품
벨기에	의료기기	약 76.1%의 의료예산이 공공기금으로 OECD 평균인 72%보다 훨씬 높으며, 예산의 2.8%가 의료기기에 사용. 2016년, 전체인구의 약 18%가 고령화 인구가 정형외과 관련기기, 건강보조장비 등의 조달 수요 성장세	Mercurhosp (Mutualisation Hospitaliere) (공립병원 공동구매협회)	http://mercurhosp.be/	의료장비
벨기에	신재생	2013년부터 유럽 내 백열전구 판매가 금지되면서 LED 전구 수요가 급증. 인근 유럽 국가(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와 달리 고속도로, 국도, 기타 작은 도로에도 가로등을 많이 보유. 지방정부별로 공공장소의 전구와 신호등용 전구를 점차적으로 LED 교체로 검토 중	Cofely Fabricom	www.cofelyfabricom-gdftsuez.com	LED
헝가리	의료기기	부다페스트시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Healthy Budapest Program(HBP)'를 계획. 30억 유로 전액 국고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Super Hospital 3개, 위성병원 21개에 대한 리노베이션 계획. 의료장비 공공조달 입찰 예정	AEEK (헝가리 보건진흥원)	www.aEEK.hu	의료장비

국가	분야	유망사유(시장동향 등)	조달기관/ 납품 벤더	URL	조달세부품목
헝가리	의료기기	지방도시 병원 현대화를 위해 총 1.6억 유로 EU 기금(헝가리 정부 매칭비율 23.4%) 결성. 4개 지방도시(세게드, 페치, 커포슈바르, 니레지하저)에서 병원현대화, 신축건립 추진예정	지방도시	-	의료장비
루마니아	의료기기	2018년 의료기기 구매 총예산규모는 약 393만 유로. 포이쇼르병원(Foisor Hospital)은 유명한 정형외과병원으로 의료기기 납품 시 레퍼런스로 유용	포이쇼르병원 공공병원납품벤더 (Adion, Medical Finance, Rombiomedica, Novaintermid)	www.foisor.ro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루마니아	의료기기	콜체아병원(Coltea Hospital)은 중앙치료전문 주요 수술 병원이지만,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노후화되어 신규교체 수요 다대.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로, 납품 시 루마니아 내 레퍼런스로 매우 유용. 2018년 의료기기 구매 총 예산규모는 약 253만 유로	콜체아병원 공공병원납품벤더 (Adion, Medical Finance, Rombiomedica, Novaintermid)	www.coltea.ro	MR영상장비, 초음파영상장비, 자동분석기, 감마 방사선 조사장치 등
핀란드	의료기기	지역별 공공 의료기관들이 당뇨측정기와 소모품인 검사용 시험지를 제공(연간 시험지 소비량 1억 개). 소모품이 필요 없는 비수술적 혈당측정기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잠재수요 발생	Berner Oy (공립, 사립병원 납품 벤더)	www.berner.fi	의료장비
핀란드	건설자재	향후 10년간 100억 유로 이상의 인프라 건설계획 추진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특히 물과 다른 종류의 흙(모래와 자갈 등)을 구분하는 지오텍스타일 수요 증가 전망	Viacon (인프라 개발 자재 납품벤더)	www.viacon.fi	지오텍스타일
덴마크	의료기기	북유럽 사회주의권으로 5개 지방정부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기는 76%(2015 기준)를 수입산으로 충당. 2020년까지 71억 달러를 투입, 8개 슈퍼병원을 포함, 총 16개 신규 병원이 건립 중으로 의료기기 조달 수요 증가세	5개 Region별 지방정부 납품 벤더	www.rm.dk	의료, 재활 기기, 로봇류
덴마크	전력장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따라 ESS(전력저장시스템) 등 첨단 전력장비 수요 증가세.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력선 지중화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역외산 케이블 구매 수요 증가	Dong Energy (전력공사) Energinet (송전공사)	dongenergy.dk energinet.dk	ESS, 전력케이블 등

□ (프로젝트) ICT, 에너지 등 한국기업 진출유망 프로젝트 타깃

- (유망분야) SOC 중심의 공공 프로젝트 수주에서 ICT, 수처리, 폐기물 발전사업 등 규모는 작지만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집중
 - * ICT, 수처리 등 에너지발전 분야 등 개발수주 경험분야
- (진출방향) 역량 있는 로컬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비즈니스 모델 선제안
 - 레퍼런스 보유 로컬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 필요
 - * 프로젝트 입찰이 현지어로 진행되고, 유럽 현지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상 경험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핵심
 - * 발주처, 수주경험 보유 현지 유망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현지에 정통한 컨설턴트와 협력, 입찰 전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선제적 사업모델 제안
 - * 동유럽 정부(지자체 등)에서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아 EU 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
 - * 동유럽 소재 컨설턴트, EBRD 등 프로젝트 개발단계의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프로젝트 수주 성공사례 분석: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 프로젝트 진출(약 256억 원)

- 수주기업: 한국원자력연구원
- 발주처: 네덜란드 델프트공대원자로연구소(RID. 원자로, 원자력조사장치, 방사선리서치기구를 가동하는 핵지식센터)
- 내용: 연구용 원자로 부문 잠재력 개발과 확장을 위해 시작된 델프트공대 대표 프로젝트
 - 2012년 1월 시작된 오이스터는 향후 10년간 방사선동위원소생산, 중성자방사화합분석, 양전자소멸분광분석, 중성자산란 및 조영분야 연구와 교육 중점
 - 유럽 17개국이 ESS 건설 및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20억 유로가 들 것으로 추정, 현재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인프라 프로젝트
- 추진경과
 - 2017년 2월 23일 델프트공대는 한국 KHC 컨소시엄과 오이스터 프로젝트 협정 체결
 - KHC 컨소시엄은 2015년 10월 원자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친 후 2017년 3월 실제 기기 제작·설치·시운전을 수행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
- 수주의의
 - 한국업체 최초 EU 원자력 기술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 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기술교류가 기대되며,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팔라스 프로젝트) 등 추가 수출에도 청신호
 - 수주 레퍼런스 확보로, 유럽 현지 발주처 및 유관기업들이 한국기업들에 주목하고 협력을 타진하는 계기로 작용

◎ 프로젝트 수주 실패사례 분석: 펠에사츠 대교 건설 프로젝트(컨소시엄 구성 및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킹 중요성)

- 입찰기업: 국내 A사
- 프로젝트 내용: 펠에사츠 반도 해상대교 건설을 통한 남부 해안지역 접근성 강화
 - 기술사항: (길이) 2,404m, (폭) 22.5m, (면적) 54,000㎡, (최대해심) 27~28m
 - 총 사업비 4억 2천만 유로 중 85%를 EU 기금으로 활용
 - 사업 일정: 2018년 시공, 2022년 완공 목표
- 추진경과
 - A사는 스페인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가하여 동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
 -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스페인 기업 B사가 내부경영진 교체를 겪으면서 PQ 서류 제출을 누락
 -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사는 발주처를 설득해보았지만 입찰에 실패
- 의의
 - 컨소시엄 협력업체의 실책으로 입찰에 실패한 특수 사례
 - 파트너사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 필요
 - 입찰 공고 이후 입찰서류 준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현지 대리인을 통해 프로젝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유럽 지역 무역관이 선정한 2018년 발주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발주규모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일정
헝가리	헝가리 철도 통신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NIF 인프라개발공사	1억 달러	입찰 준비	2018년 1분기 발주 예정
헝가리	헝가리 전자 교통결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NM	6천만 달러	입찰 준비	2018년 1분기 발주 예정
헝가리	헝가리 소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4건, 부다페스트 등)	NM	7백만 달러	입찰 준비	2018년 1~3분기 발주 예정
체코	OSRAVA ITS 프로젝트	ostrava municipality	9만 달러	세부계획 수립 중	2018년 하반기 입찰공고 예정
체코	BRNO ITS 프로젝트	BRNO CITY MUNICIPALITY	4,100만 달러	세부계획 수립 중	2018년 하반기 입찰공고 예정
슬로바키아	보야니(VOJANY)시 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프로젝트 (Biomass, Biofuel 등을 활용한 친환경 발전소로 변경)	TEG	2천만 달러	세부계획 수립 중	2018년 연중 발주 예정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수의계약 형태)
크로아티아	Krk섬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LNG크로아티아	3.6억 유로	입찰서류 준비 중	2018년 2분기 발주 예정
크로아티아	NGN Backhaul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OiV	9.8억 유로	기본계획 수립 중	2018년 3분기 발주 예정
크로아티아	리예카-자그레브-보토보 철도 구축 프로젝트 (TEN-T 유럽횡단 교통망)	철도공사	3억 유로	구간별 입찰 진행 중	2018년 1분기 발주 예정
크로아티아	펠에사츠 대교 건설 프로젝트 (아드리안-이오니안 하이웨이)	교통국	420만 유로	PQ 마감 및 입찰 준비	2018년 1분기 발주 예정
크로아티아	도심 교통 관제 프로젝트	자그레브시	2백만 유로	기술서류 준비	2018년 2분기 발주 예정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발주규모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일정
크로아티아	Crocodile II 프로젝트	고속도로공사	1천만 유로	기술서류 준비	2018년 3분기 발주 예정
불가리아	소피아시 RDF 열병합 발전소	소피아시 (난방공사)	1억 3,500만 유로	입찰 준비	2018년 상반기 발주 예정
불가리아	Kalotina~Sofia 고속도로 프로젝트	도로인프라공사	2.8억 유로	입찰 준비	2018년 발주 예정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시 생활용수 공급 프로젝트	건설교통 인프라부	4,500만 유로	입찰 준비	2018년 연중 발주 예정
세르비아	Waterfront 건설 프로젝트	중앙정부 및 베오그라드시	200억 유로	투자자 모집 중	2015년 발주 후 파이낸싱 애로로 공사진행 어려움
세르비아	다뉴브강 항구도시 건설 프로젝트	건설교통 인프라부	4.5억 유로/PPP	입찰 준비	2018년 상반기 발주 예정
세르비아	해양폐기물처리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건설교통 인프라부	8천만 유로/PPP	입찰 준비	2019년 발주 예정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시 수처리 프로젝트	베오그라드 시청	2.8억 유로/PPP	입찰 준비	F/S 완료. 2018년 1분기 발주 예정
세르비아	도심 공영주차장(4개) 건설 프로젝트	베오그라드 시청	5천만 유로	입찰 준비	F/S 추진 중
세르비아	화력발전소 열공급관로 건설 프로젝트	베오그라드 시청	8천만 유로	입찰 준비	2018년 발주 예정
세르비아	사바강 교각 건설 프로젝트	베오그라드 시청	3천만 유로	F/S 준비	발주시기 미정

다. FTA 네트워크 활용, 유럽 시장 선점 극대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7년, 한-EU FTA 연계 EU의 對한국 수입 관세율 100% 철폐(2016. 7. 1~)
- 한-EU FTA 수혜 수출유망 품목 집중 공략
 - * EU-일본 FTA 2019년 발효에 따른 일본과 對EU 경합품목 수출타격 최소화 노력 필요
- EU-베트남 FTA, 2015년 12월 체결 후 2019년 연내 발효 예상
 - * EU-베트남 FTA를 우리 기업의 EU 시장 확대 전략으로 적극 활용(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

□ EU의 경기호조세를 활용, FTA 수혜 분야 수출유망 품목을 집중 공략

- FTA 주요 수혜품목의 對EU 수출증가율은 꾸준히 증가세
 - 주요 FTA 수혜품목(자동차부품, 승용차, 축전지, 기계류 분야)은 발효 5년 기준 12.5% 증가
 - * FTA 수혜품목 對EU 수출증가율: 12%(발효 1년), 0.3%(발효 2년), 4.5%(발효 3년), 10.6%(발효 4년), 12.5%(발효 5년)
 - * FTA 수혜품목의 2018년 수출증가세/보조기억장치(29.9%), 축전지(12.2%), 베어링(19.4%), 기타합성섬유(26.5%), 기타플라스틱제품(3.2%) 등(2018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무역협회)

- EU-일본 EPA 발효 전망에 따라 한-EU FTA 선점효과 상쇄 최소화 대비책 필요
 - 2019년 협정 발효 시 주요 경합품목인 국내 공작기계, 의료용 화학제품 부문에서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영향 가능성
 - * EU 100대 수출품목 중 한·일 경합품목은 자동차, 기계, 전기제품 등 업종에서 44개
 - * KOTRA 설문조사 결과, 일-EU EPA 발효 후 일본 수입 확대·기존 거래선 변경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23.7%로 집계
 - 일본의 對EU 수출 수혜품목군 중간재 타깃팅, 對일본 수출 확대 노력

진출전략 활용 수출 성공사례: 태양전지 생산업체 S사(프랑스 수출 사례)

- 프랑스 글로벌 태양광기업 U사에 고효율 단결정 태양전지 64MW 공급계약 체결(~2020)
- 프랑스의 對한국 태양전지 수입은 전년 대비 13,167% 증가(2018년 7월 기준, World Trade Atlas 통계치)
- S사는 프랑스 진출을 위해 1년 전부터 인증 획득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
- (FTA 효과)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으로 품질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중국산과 차별화 성공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TUV, UL
성약 소요기간	3년 / 2015(지사화 가입, 첫 접촉)~2018. 9(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
바이어 D/B	• Kompass, 인터넷
유망전시회	• Energie Expo, Pollutec, ERA 등 전문 전시회(1년 주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수출 성공요인:** 프랑스는 프로젝트 규모가 100KW 이상일 시 입찰구매를 통하는데, 이때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를 통과해야 함. S사는 이를 위해 다수의 샘플테스트를 진행하여 고효율 단결정 태양전지 품질을 검증받았고, 최근 중국산 수입규제 종료로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우위와 FTA 관세면제 혜택에 힘입어 입찰 성공

□ EU-베트남 FTA 발효 시, 베트남을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발판으로 적극 활용

- 우리 기업의 기계·전자업종 분야 베트남 공장 진출기반을 통한 생산비 절감효과, EU-베트남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
 - 유럽 시장 진출 시 중국 등 신흥시장 대비 취약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쇄
 - *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총 외자유치 금액 중 29.6%가 한국, 2015년), 베트남의 월 최저임금은 137달러로 중국의 54% 수준에 불과(2015년)

[한국과 베트남의 對EU 수출 경합품목 비교]

한국의 對EU 10대 수출품목			베트남의 對EU 10대 수출품목		
순위	HS코드	품목명	순위	HS코드	품목명
1	87	자동차	1	85	전기기기
2	85	전기기기	2	64	신발
3	84	기계	3	84	기계
4	39	플라스틱	4	62	의류
5	72	철, 철강	5	09	커피,차,향신료
6	30	의약품	6	94	가구류,조명기구
7	89	선박	7	61	의류
8	90	광학기기	8	42	가죽제품
9	29	화학제품	9	08	과일,견과류
10	40	고무	10	03	해산물

자료원: World Trade Atlas(2018년 1~9월 기준), 음영은 겹치는 품목

- 한국의 FTA 허브 입지 활용, ‘투자진출-수출’ 연결형 분업체계를 기반으로 수출성과 극대화
 - ①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 베트남 등 아시아권 소재 한국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품소재 수출 확대(한-베트남 FTA, 2015년 12월부터 발효 중)
 - ② 베트남-EU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활용, 베트남에서 생산한 한국 완제품의 유럽시장 선점

사례분석: 베트남을 활용한 對유럽 의류 수출 확대(Fabric Forward 원산지 규정)

- EU-베트남 FTA, 의류품목 원산지 규정에 ‘Fabric(직물) Forward’ 규정 적용. 베트남 직물을 사용한 의류만 베트남 산으로 인정, EU로부터 관세혜택을 받음. EU의 FTA 체결국이 아닌 중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는 역외산으로 분류, 관세혜택에서 제외(Fabric Forward 규정 취지: 중국 등 역외산 제품이 베트남 우회수출을 통해 유럽에 무관세 유입되는 것을 방지)
- 한국은 EU와 FTA 체결국으로, 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제작된 의류는 역내산으로 인정
- EU-베트남 FTA 발효 시 한국의 베트남 경유 의류 수출 확대 전망

라. EU 에너지 정책 활용, 환경·그린설비 수출 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EU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 친환경기자재 수요 확대
 - * EU 전 회원국, Europe 2020 정책 연계, 2020년까지 친환경·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 의무
- 규제 강화에 따라 전방위 산업분야에서 친환경 제품 수요 급증
 - * (자동차) EU, 2020년까지 1km당 95g, CO₂ 배출가스 기준 규제강화, (조선) 2017년부터 선박에 대한 CO₂ 절감 등 IMO의 규제강화, (전자제품) 2019년 7월 22일 이후 EU의 전기전자제품 환경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 RoHS II, 시장 내 최초 출시된 제품에 대해 적용 예정

□ LED, 조선기자재 등 한국기업 경쟁력 보유 분야 집중 타킷

- (LED) 2018년 9월 1일부터 EU 할로겐 전구 판매금지 규제 발효, LED 제품 수요 급증
 - 2018년 상반기 EU 역내 LED 제품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56.2% 증가, EU 내 교체 대상 백열전구는 약 80억 개로 추산(자료원: WTA, 2018년 1~6월 기준)
- (조선기자재) IMO의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2017년 9월)에 이어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 협약 체결 전망(2020년 내 발효 예상)
 - * 선박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현재 3.5% m/m 에서 0.5% m/m 까지 제한하는 협약 체결 검토 중
 - 스크러버(배기가스 세정설비),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CO₂ 절감 친환경 조선 기자재 수요 확대
 - 한국제품의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5%로 세계 1위
- (풍력·해상전력) 유럽 주요국, 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발주 활발
 - (네덜란드) 2019년 연내, 네덜란드 Borssele 및 Hollandse kust 지역에 700MW급 이상의 세계 5대 해상풍력단지 건설 예정
 - * Hollandse kust 지역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2019년 초 진행 전망
 - 북해 접경국(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국영기업(TenneT) 주도로 북해연안 전력시장 통합 프로젝트 추진. 향후 10년간 육상 및 해상전력 인프라에 약 250억 유로 투자
 - * 풍력발전기, 변환기, 풍력터빈 수출 증가세

□ '유럽 맞춤형 제품개발'로 글로벌 친환경시장 선점

-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 개발

◎ 사례분석: 친환경 조선기자재 수출 P사(유럽의 환경규정에 대응한 기술개발)

- (내용) 2017년 9월 발효한 IMO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 R&D 지원금을 지원받아 친환경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개발. 신제품 개발로 기존 일본, 중국 중심의 수출을 유럽(독일, 네덜란드)으로 확대에 성공, 유럽에 대한 납품 레퍼런스를 근거로 CIS 선주대상 신규 수출에도 성공
- (기업이 말하는 성공포인트) ①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과감한 기술투자, 신제품 개발, ② 유럽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마케팅·홍보 강화

마. 혁신 스타트업의 유럽 창업지원 및 육성 지원

경제 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EU,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 연계, 산업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 500억 유로 투자, 범유럽 차원의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역점
 - * 각 회원국 정부 차원의 자체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및 지원정책 시행 활발
- 유럽 내 VC 유입 지속 증가, 글로벌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벤처캐피탈 설립 활발
 - * Telefonica(스페인, 정보통신 분야), Bayer(독일, 생명과학 분야), Ericsson(스웨덴, 정보통신 분야)

□ 경제발전전략 및 주요 이슈

- 유럽 스타트업 3년 연속 눈부신 증가세 시현, 'Tech Startup Hub'로 부상
 - EU 주도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육성정책에 힘입어 AI, IoT,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기반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요 급증
 -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전략 연계, 공공·민간산업의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역점, 약 500억 유로 투자
 - * 유럽 스타트업 투자건수 추이: 1,848건(2015) → 2,630건(2016) → 3,656건(2017) / EY, Startup Barometer Europe 2018
- VC 투자는 서북유럽 국가에 집중(전체 비중의 80%), 권역별로 특화된 주요 투자분야 존재
 - 서유럽은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중심, 북유럽은 게임, 남유럽 패션 및 모바일, 동유럽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 스타트업 VC 투자 강세
 - * 국가별 유럽 스타트업 VC 투자액 점유율: 영국 33.5%(64억 유로), 독일 22.3%(42.7억 유로), 프랑스 13.3%(25.6억 유로), 스웨덴 4%(7.5억 유로) / EY, Startup Barometer Europe 2018
- 유럽 내 주요 글로벌 기업 및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기술 확보를 위한 자체 벤처캐피탈 설립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활발
 - 글로벌 기업과 차세대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기술협력 수요 다대
 - * 유럽 주요 글로벌의 CVC: Telefonica(스페인), Bayer(독일), Ericsson(스웨덴), HSBC(영국) 등

□ 협력의제 및 진출전략

- (협력의제) 한-EU 스타트업 상호진출 민간 공동 플랫폼 구축 필요
 - 양국 기업, 정부 및 스타트업 진흥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양국 간 스타트업 상호진출 교류 모델 개발, 양국 간 스타트업 상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
 - * Go Austria / Go Seoul: (Go Austria) 오스트리아 연구진흥원(FFG) 및 경제진흥원(AWS)의 공동 TF 조직인 Global Incubator Network(GIN)가 운영하는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최근 3년간 한국 스타트업 6개사가 선정되어 참여, (Go Seoul)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행사로 비즈니스 멘토링, 한국 투자가 대상 피칭 진행
- (진출전략) 현지 스타트업 행사를 통한 CVC 협력수요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 모색
 - CVC 협력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핵심 네트워크 확보가 관건, 현지 스타트업 포럼 및 VC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트렌드 파악, 자사 기술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유럽 각국이 시행하고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창업지원
 - * 선발 스타트업에게 각국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Open Innovation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 기술컨설팅을 통한 spillover 효과 유도
 - * (사례) Poland Prize: EU 역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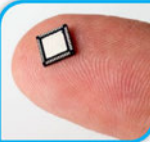
[자동차 분야]

 A/S부품 · 경량화소재	HS Code	8708/87089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4,844.96	대한수입액('17/US\$백만)	3,190.86
	선정사유	- (오스트리아) 현지 신차시장의 꾸준한 성장세 및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심 지속 - (독일) 국내산 자동차부품(엔진&트랜스미션)의 독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 독일 1차 벤더의 기존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 예상, 차체경량화를 위한 탄소복합재, 알루미늄 등 경량 신소재를 이용한 엔진부품 수요 확대 - (이탈리아) 현지 제조시설 확충으로 제조 증가, AS 시장 확장 - (그리스) 지난 5년간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출증가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 자동차부품 시장은 2017년 기준 총 85억 유로 규모, A/S 용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부문이 꾸준한 성장세 -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산업의 성장세 지속 - 자국 완성차 생산업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슈타이어마크주 소재 자동차 조립업체인 Magna Steyr사가 BMW, 크라이슬러 등 완성차업체들의 주문을 받아 일부 모델을 조립 생산 - (이탈리아) 자동차시장이 성장하며 부품수요 증가, 현지 제조기업의 리쇼어링과 신차판매 증가로 완성차부품 및 AS 부품 등 전반적 시장성장 추세		
	경쟁동향	- (오스트리아) 다양한 자동차부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국산 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음. - 완성차 제조 관련 자동차부품: 기어, 로드 휠, 내비게이션, 안전벨트, 핸들, 범퍼, 서스펜션 시스템, 차량용 램프 등 - A/S용 자동차부품: 자동차용 배터리, 타이어 등 - E-Mobility 등 미래형자동차 관련: 배터리, 경량화 관련 제품 - (이탈리아) 완성차 부품은 현지기업 및 독일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하며, AS 부품은 중국 및 유럽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		
	진출방안	- (오스트리아) 현지 업체와 중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개선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현지 도소매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꾸준한 접촉 및 카탈로그 송부 등을 통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 - 제품별로 정확한 타깃 고객층 설정 및 공략 또한 중요한 요소 - A/S용 부품의 경우, 가격대에 따라 유통 채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 가격대에 적합한 유통 채널 선택이 중요. 예컨대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중고차 제품은 자동차용품 전문매장 등의 경로를 통해, 반대로 가격경쟁이 치열한 중저가 제품은 DIY용품매장, 온라인매장 등의 경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 - 완성차 부품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 완성품 제조업체인 Magna사나 Voest Alpine사 등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 - (이탈리아) 빠른 시장대응을 위해 현지화가 필요. 완성차용 부품은 Tier 1 업체, AS부품은 AS전문 바이어와 접촉이 중요 - (독일) 주요 바이어를 집중 공략하여 꾸준한 교류로 제품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전략 요구 - 연비 향상, 경량화 부품을 접목한 혁신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되는 경량화 소재 및 기술부품은 독일 바이어의 1순위 선호 아이템		
	유망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프레스금형	HS Code	82073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985	대한수입액('17/US\$백만)	201.68
	선정사유	- 볼보의 신모델 개발 추진 및 NEVS(구 Saab)의 전기자동차 생산계획 등으로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 연간 2천만~6천만 달러 시장규모로 추정되며, 자국 내 생산이 없는 관계로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 프레스금형은 스웨덴 완성차 업체가 해외 직구매하는 품목으로서, 공급선을 대외비 관리하기 때문에 경쟁업체 확인이 불가하나 일본과 독일 등 유럽산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		
	진출방안	- 스웨덴 완성차업체들이 원가절감 압박으로 공급선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한국산 차의 호조세를 뒷받침하는 한국 부품업체를 잠재 공급선으로 검토하고 있어 면밀한 대응 필요		
 리튬이온 배터리	HS Code	850760, 85078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155.02, 207.42	대한수입액('17/US\$백만)	1,340.19, 7.49
	선정사유	- (영국) 전기차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증가 - (스웨덴) '18.7. Bonus-Mallus 시스템 발효로 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 - (프랑스) 전기자동차 및 재충전식 하이브리드카 수요 확대에 따른 축전지 수입·수요 지속 증가세		
	시장동향	- (영국) 국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약 1만 4,000개소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영국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장려 - (스웨덴) 리튬이온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관련시장의 30% 내외 차지 - 자동차용 배터리로 수명이 다한 4년 이상 중고품의 경우, 태양광발전 시 축전모듈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요 증가추세		
	경쟁동향	- (영국)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2010~17년간 약 80% 감소, 이는 전기차 완성차 가격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 - (프랑스) 스페인, 중국산 제품이 강세였으나 한국산도 2년 전부터 한국기업의 R&D 제고에 따른 제품 품질력 향상으로 강세		
	진출방안	- (영국)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처, 시장선점의 기회로 활용 - (스웨덴) 신규제품의 경우 완성차업체 공급이 유리. 중고제품의 경우, 관련 바이어는 한국이 리튬배터리 제조강국인데다 전기자동차 운용도 많으므로 최우선 협력국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페리튬배터리를 수집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프랑스) 유럽 주요 브랜드 제품과 한국·중국 등 OEM 제품으로 시장이 양분, OEM 시장과 A/S 시장 동시 공략 필요 - 브랜드 제품 공급을 위해 현지 판매·물류망 및 A/S체제 구축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등이 제공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적극 이용해 적기 납기 및 운송 부담 최소화 필요		
 자동차 와이퍼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014.23	대한수입액('17/US\$백만)	75.97
	선정사유	- 유럽 브랜드보다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는 바이어 증가 추세		
	시장동향	- 자동차는 유지·보수가 필수로서, 애프터마켓에 대한 투자 지속		
	경쟁동향	- Bosch, Valeo 같은 유럽 브랜드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		
	진출방안	- 네덜란드 내 자동차 수리센터 및 온라인 유통업체가 유력 바이어		
	유망국가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유망국가	네덜란드, 독일		

 차량용 안마의자	HS Code	9401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76.56	대한수입액('16/US\$백만)	0.94
	선정사유	-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시장 성장		
	시장동향	- 체코, 독일, 폴란드, 영국이 시장 점유, 아시아산 제품은 미비		
	경쟁동향	- 체코(32.34%) 독일(26.88%), 폴란드(18.80%)		
	진출방안	- 유럽 제품에 없는 기능(온도 조절, 압박점 이동 등)을 탑재한 유사가격 모델은 경쟁력 있음		
	유망국가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차량용 내비게이션	HS Code	85269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847.29	대한수입액('17/US\$백만)	237.04
	선정사유	- 유럽, 특히 슬로바키아 사람들은 중고차 구매 성향이 강한데, 이때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신차 구매 시에도 모든 옵션을 빼고 사서 애프터마켓에서 내비게이션을 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		
	시장동향	- 기능이 제한적인 저가제품이 가장 선호됨. 프랑스산 수입 급증		
	경쟁동향	- 독일 28%, 프랑스 19%		
	진출방안	- 유럽 내 운행되는 차종에 스티어링 휠 컨트롤러 호환 여부, 지도 어플리케이션 호환(판매자 계약)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유망국가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독일		

[IT·전자기기 분야]

 스마트 센서	HS Code	9024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61.04	대한수입액('17/US\$백만)	0.37
	선정사유	- 세계 스마트시티 기술시장은 2023년 274억 달러에 달할 전망으로, 스마트 센서 시장의 성장전망도 높음 - 전세계 많은 도시가 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 이에 각국의 정부 및 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사례 증가 추세		
	시장동향	- 독일에서는 세밀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외 온도감지용 센서, 다용도 센서, 최소형 센서, 모바일기기용 센서, 레이저 센서 등이 주를 이룸 - 2020년 스마트 센서 판매량은 290억 개로, 2016년 180억 개 대비 60% 이상 증가 전망		
	경쟁동향	- (첨단센서 기술 솔루션): Eletron, Belimo, Infineon - (스마트시티 플랫폼): Siemens, Bosch Engineering - (벤치마킹 및 상호협력): DFKI(독일인공지능연구소), SENSORIK Bayern (독일 최대 센서 클러스터)		
	진출방안	- Sensor+Test 전시회, 하노버 산업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 홍보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럽 바이어 발굴 기회로 활용 - 해외기업의 진출 제한 등 진입장벽 사전파악 필요		
	유망국가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IT 통신기기 (라우터 등)	HS Code	85176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25,249.51	대한수입액('17/US\$백만)	100.89
	선정사유	- (핀란드) 5G 수요 증가에 따른 통신기기 수요 확대 예상 - (루마니아) 정부 차원의 IT 분야 현대화 계획 활발히 추진,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음		
	시장동향	- (핀란드) 발달된 ICT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5G 시장 주도 - Telia·Elisa 등 주요 통신사들은 2019년 중 5G 상용화 계획 발표 - (루마니아) 브로드밴드 및 LTE 보급으로 관련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		
	경쟁동향	- (핀란드) 네덜란드·스웨덴·중국 등이 기존 시장의 약 60% 점유 - (루마니아) 2014년 기준 스웨덴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40% 이상 차지, 그다음으로 에스토니아가 23% 이상을 차지		
	진출방안	- (핀란드) 유럽 내 주요 ICT 전시회인 MWC에서 핀란드 바이어 발굴 가능 - (루마니아) 무선제어 자동화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수요 대응		
	유망국가	핀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스페인, 독일		
 IT 융합 소비재	HS Code	N/A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N/A	대한수입액('17/US\$백만)	N/A
	선정사유	- 한국산 IT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바이어들의 기대심리가 높은 편		
	시장동향	- 체코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증가, 유럽 시장 진출 시 체코 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 가능		
	경쟁동향	- 소량 MOQ를 선호하는 현지시장 특성을 고려하며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		
	진출방안	- 유럽에서 필요한 인증(CE, RoHAS) 획득은 기본이며 A/S, 현지 언어 적용 등 서비스 제공 필요		
	유망국가	체코, 독일, 스페인, 헝가리		
 태블릿 무선키보드	HS Code	851718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598.97	대한수입액('17/US\$백만)	4.38
	선정사유	- 코트라 빅마켓에 따르면, HS Code 851718에 대한 네덜란드 수출시장의 매력도와 접근성 모두 상중 단계로 평가. 현재로서는 한국 업체의 진출이 거의 전무하지만 경쟁력 있는 품질과 디자인을 결합한다면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시장동향	- 태블릿 기기 시장은 2015년부터 꾸준한 성장추세. 2015년 기준 태블릿을 소유한 가구가 약 10%(51% → 61%) 정도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따라 향후 태블릿 액세서리 또는 관련기구에 대한 시장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네덜란드 태블릿 무선(블루투스) 키보드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로지텍, Belkin 등. 네덜란드 내 대표적인 전자제품 취급 매장인 Mediamarkt와 Coolblue사 매장에서 위의 제품들은 대략 50~100유로 가격대에 판매 중		
	진출방안	-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실용성뿐 아니라 심미적인 기능(디자인 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 기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경쟁업체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접이식 키보드라는 실용성뿐 아니라 디자인의 다양성을 갖춰 차별화 필요		
	유망국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친환경 분야]

 전기자전거	HS Code	871160,87120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910.49, 1,213.24	대한수입액('17/US\$백만)	0.02, 0.06
	선정사유	- (오스트리아) 건강/웰빙 및 친환경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와 맞물려, 레저 및 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시장 성장세 지속 - (독일) 전기자전거 판매량 급증추세. 對한 수입액 2017년 382달러에서 2018년 6월 기준 2,677달러 수출로 601% 증가 - 배터리와 모터기술 발전, 디자인 다양성 및 관련시장 활성화 - (크로아티아) 정부는 레저관광 육성 및 지역개발 전략으로 전기자전거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 및 CO₂ 저감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 증가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 2017년 총 12만 대의 전기자전거 판매 - 전년(8만 6,500대) 대비 38.7%의 증가율 기록,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9년 판매량의 10배에 해당 - 국민들의 성향 및 정부의 정책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오스트리아 전기자전거 시장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 지속 예상 - (독일) 일반자전거 판매 수는 최근 감소한 반면, 2017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72만 대로 전체 자전거 판매의 18.7%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19% 증가 - 전기자전거 유형별 매출 점유율은 도시용 38.5%, 트레킹용 35.5%, 산악용 21.5% 순 - (크로아티아) 페달보조방식(PEC) 자전거가 주요 유통모델 -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임대서비스가 확대, 수요증가로 Greyp Bikes, Grunner 등 현지 생산업체 수도 증가 중		
	경쟁동향	- (오스트리아) 스위스(Biketec, Dolphin E-Bike 등), 독일(Kalkhoff, Riese und Müller 등) 등 수입제품들이 주, 오스트리아 업체로는 KTM의 모델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음. - 전기자전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Biketec사의 'Flyer' 시리즈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 및 제품 선택이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는 추세 - (독일) 주요 경쟁기업으로는 Kalkhoff, Prophete, Haibike, Bulls, Winora, Raleigh, Alu-Rex, KTM, Kettler 등 - 그중 Kalkhoff와 Prophete, Haibike 등이 인지도가 높은 편 - 가장 인기 있는 전기자전거 모터는 보쉬이며 시장 내 90% 이상 차지, 그 뒤로 시마노, 야마하, 브로제 모터가 인기 - (크로아티아) 2017년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제1수출국이 됨. - EU는 중국산에 반덤핑 관세 잠정부과(최대 83.6%, 6개월) - 2019년 1월 조사만료 후 확정관세 부과 결정 예정		
	진출방안	- (오스트리아)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여 온라인숍, 생활용품 할인점 등 '틈새 유통망'을 공략하여 제품을 알리는 노력 필요 -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스포츠용품의 경우, 계절별 카탈로그 제작 등 마케팅에 따르는 사전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 이러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금, 기술 지원 등 현지 업체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장기적 전략이 필요 - 기능성 및 디자인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현지에 적절한 제품 개발이 우선과제. 이를 위해 스포츠용품 전문 잡지에 광고, 오스트리아 및 유럽에서 개최되는 스포츠용품 관련 전시회 참여 등도 고려해 볼 방법 -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빈에서 열리는 오스트리아 최대 규모의 관련 전시		

		회인 'ARGUS Bikefestival Wien'을 비롯하여, 툴른(Tulln)에서 개최되는 'Bike-Austria Tulln('19.2.1~3)', 벨스(Wels)에서 개최되는 'Bike Festival Austria('19.2.9~10)' 등 - (독일) Eurobike와 같은 전시회에 적극 참가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꾸준한 교류 및 제품홍보 필요 - 독일 현지 제조사 및 유통업체들은 전기자전거 보쉬 또는 시마노 모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를 선호하므로, 모터 브랜드가 시장진출에 중요한 열쇠 - 현지 연구기관 또는 주요 기업들과 경량화·배터리 수명연장 등 연구개발 협업 추진 - (크로아티아)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적정 유통사 발굴 필요 -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등 인근국가를 모두 담당 할 수 있는 유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장 확대에 유리		
	유망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LED 전구	HS Code	8541 4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5,446.65	대한수입액('17/US\$백만)	334.01
	선정사유	-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EU의 백열전구 및 할로겐 램프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대표적인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제품인 LED 전구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노르웨이)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현재 노르웨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터널용 LED 램프 수요 증가 추세 - (스페인) 할로겐 등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전구의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추세로, 공공입찰 시 고효율 전구인 LED 전구 우대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 공공 및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였으나, 최근 일반 소비자의 LED 전구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시장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높은 제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세 예상 - (스페인) 스마트조명 등 높은 수준의 LED 조명 수요 증가 - (크로아티아) 전체 조명기기 시장에서 서유럽 제품이 강세이며, 시장 수요가 높아 다양한 유통사들이 활동 중		
	경쟁동향	- (오스트리아) LED 제품 시장은 대표적 토종기업인 Zumtobel과 Osram, Philips, GE Lighting 등 글로벌 메이커들이 시장 주도 - (노르웨이)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33%로 1위 - (스페인) Philips, Osram 등 현지 판매법인을 보유한 유럽계 대기업 시장 장악, 중국산 제품 수입시장 54% 점유 중 - (크로아티아) 서유럽 기업들이 시장장악. Philips(네덜란드), Modular(벨기에), Massive(UK) 등이 인기 브랜드		
	진출방안	- 한국산 제품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협상 필요. 대부분의 바이어가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노르웨이) 성공적 북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제품과의 가격·품질경쟁이 관건. 한·EU FTA 관세혜택을 심분 활용하고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CE 인증획득이 우선돼야 함 - (스페인) LED 조명 수입 전문업체 대상 납품 및 현지 조명 제조업체에 반제품 판매 - (크로아티아) 중국산 저가 제품과 대기업 제품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 필요 - 저가시장 혹은 스마트 조명 등 차세대 프리미엄 시장 공략		
	유망 국가	오스트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소비재 분야]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710.61	대한수입액('17/US\$백만)	152.49
	선정사유	- (독일) 2017년 對한 수입액이 전년에 비해 92.48% 증가하여 성장률과 수입액 모두 최대치 기록 - 최근 3년 연속 EU 화장품 시장규모 1위로 중요한 시장 - (폴란드) 서유럽에 비해 가격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산업이 크게 성장 중 - (스웨덴)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올렌스 백화점, 화장품 전문매장인 Sephora, H&M사 등에서도 마스크팩 등 한국산 기초 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 - (프랑스) 한국산 對프랑스 수출 4년간 높은 증가세(2014년 76%, 2015년 53.8%, 2016년 92.8%, 2017년 14.7%, 2018년 7월 61.9%) - 프랑스 생산 능력 한계로 수입 지속 증가세(2014년 13%, 2015년 14.8%, 2016년 12.7%, 2017년 17.8%) - (크로아티아) 최근 전체 시장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확대, 서유럽에서 성공을 힘입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시장동향	- (독일) 화장품 시장은 지속적인 확장세를 시현, 2018년 매출 약 170억 유로가 예상되는 등 꾸준한 성장 - 천연화장품 인증(BDIH)을 받은 제품이 전체화장품 매출의 19%를 차지하는 등 천연화장품 선호,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비건(Vegan) 화장품도 새로운 트렌드 - 건조한 날씨로 인해 보습, 주름관리, 선크어 등 가성비 높은 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많음 - (이탈리아) 약 100억 유로의 시장으로 대형유통망이 내수소비액의 41% 차지. 최근 온라인 판매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체의 2.9% 차지 - (폴란드)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8%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 - (크로아티아)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저조. 대개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메이크업 제품보다 높은 것을 고려 시, 스킨케어 제품수요 증가 예상 - (스웨덴) 스킨케어와 색조화장품 등 대다수 화장품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시장 형성		
	경쟁동향	- (독일) 보수적인 소비성향으로 자국의 검증된 브랜드를 선호 - 독일제품 Dr.Hauschka, Weleda, Lavera, Logona 등 4대 브랜드가 천연 화장품 시장의 약 70% 이상 점유 - 로레알의 Perfect Match, Yves Roucher, The Body Shop 등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점 점포도 최근 성장추세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잠식한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현지 화장품 편집숍에 입점 - (폴란드) '90년대부터 L'Oreal, Nivea, AVON 등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투자진출해 생산, 내수공급 및 수출 진행 - (크로아티아) 메이크업, 향수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명 브랜드가 장악.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시장은 치열한 경쟁 - (스웨덴) 글로벌 브랜드 점유율이 높은 시장		

	진출방안	- (독일) 최근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시장을 선도할 만한 대표 브랜드 마케팅 부족 - 프랜차이즈 진출도 고려해볼 만함 - 현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현지화된 패키징, 인증 획득이 필수 - 현지에서 인기 있는 기능성 원료(히알루론산, 캐비어) 및 아시아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원료(녹차, 홍삼, 달팽이)로 차별화 - (폴란드) 관련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거래선 발굴, 또는 온라인 마켓 벤더나 현지 디스트리뷰터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진출 타진 가능 - (이탈리아) 전시회,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시장진출 가능.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CPNP가 필수적 - (크로아티아) 병행수입, 온라인 마켓 소비자의 호평에도, 직수입자는 소수에 불과. 적절한 수입상을 선정하여 독점거래 추천 - (스웨덴) EU 화장품 규제(No. 1223/2009) 준수 및 인증 취득 필요.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에코인증도 중요		
	유망국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인조 가발	HS Code	6704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1.63	대한수입액('17/US\$백만)	4.12
	선정사유	- 한국은 중국에 이어 독일의 인조가발 수입국 2위, 주요 수입국으로서 입지를 굳힘 - 2017년 對한 수입규모는 약 128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05% 증가		
	시장동향	- 독일 인조가발 시장은 주로 의료 보조용 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발을 주문 - 따라서 소비자는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질병을 겪기 전 원래 본인 머리카락과 비슷한 가발을 원하는 경향이 강함 - 미용 목적의 경우 유행을 타기도 함. 독일내 한 인조가발 온라인 유통업체의 정보에 따르면 '18년 유행은 짧은 숏컷 스타일		
	경쟁동향	- 단가 문제로 독일 내에서는 거의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시아 국가 내 생산 공장을 통해 OEM 형태로 제조 - 중국이 2017년 224만 달러로 독일의 인조 가발 수입국 1위를 기록했으나 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은 지속 감소		
	진출방안	- 다양한 인조가발을 개발하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서양인은 동양인에 비해 모발에 가늘고 약함. 또한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므로 이에 맞는 모발 색상, 두께, 스타일 등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 가발 사이즈, 스타일, 모발 길이 등 주요 정보가 담긴 라벨을 제작하여 잠재 바이어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요소로 활용 - 중국산 및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단가가 낮으나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 현지 중·고급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설정 - 의료 보조용으로 사용되는 인조 가발은 단순제품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고려한 감성 제품으로 어필할 필요		
	유망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인스턴트 면류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43.26	대한수입액('17/US\$백만)	37.74
	선정사유	- (독일) K-Food 수출 중 상위는 라면, 조미김, 김치, 냉동만두 등이며, '17년 한국 라면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2% 증가 - (스페인) 대도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라면 각광 - (프랑스) '07년 한국 식품매장 체인이 설립된 이후 한국 인스턴트 면류 수요 증가세		
	시장동향	- (독일) 최근 유통체인에서 아시아 식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아시아 식품 판매 증가 - 한국 라면은 진출 초기 5~6개 종류만 유통되었으나, '18년 4월 현재 30종 이상이 독일 내 유명 아시아마켓에서 유통 - (프랑스) 면류 수입시장 한국 점유 순위: 3년째 13위 유지 - 한인교포 인구가 2만 명으로 적으나, 1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교포 인구나 매운 맛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인스턴트 면류 소비자층이 두터워짐 - (스페인) 인스턴트 라면 판매 '11년 1,300만 개에서 '15년 4,000만 개로 대폭 증가		
	경쟁동향	- (독일) 아시아 식품이 독일에 진출한 지 10년 정도, 보편적인 아시아 식품은 중국, 일본, 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함 - 일본의 스시와 후토마키(일본식 김밥) 등이 테이크아웃(Take Out) 메뉴로 각광받고 있으며, 중국식 볶음밥, 국수는 이미 간단한 한 끼(To Go) 식사로 자리매김 - (스페인) Gallina Blanca, Nestle 등 현지 식품제조업체가 90% 이상의 시장 확보 중. 한국 및 아시아 제품은 주로 한인·중국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		
	진출방안	- (독일) 현지 구매 담당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한국 식품은 아시아 식품 중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편이므로 한국 식품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 홍보전략 필요 - 현지 소비자가 한식을 단순히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데일리 푸드로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구상 - 대도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테이크아웃 메뉴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 (프랑스) 순하고 다양한 소스 개발로 현지 대형유통망 공략 - (스페인) 아시아산 식품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계 대형유통상 공략 - 현지 식품가공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해 현지인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		
	유망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시럽류	HS Code	1702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53.02	대한수입액('17/US\$백만)	5.33
	선정사유	- 백설탕을 대체하는 당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 특히 초청과 같은 자연발효법 제품에 관심이 높음(5월 암스테르담 무역관 특화사업 초대 바이어 상담 내용)		
	시장동향	- 백설탕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코넛 설탕, 용설란(Agave) 시럽 등 다양한 대체품이 출시되고 있음. 유기농, 백설탕 함유량이 낮고 화학적으로 가공된 부분이 적은 제품의 인기가 높음		
	경쟁동향	- 글로벌 제조사도 설탕 대체품을 출시, 경쟁이 있을 수 있음		
	진출방안	- Clean label(유해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성분도 간소화한 제품) 강조		
	유망국가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장류, 소스류	HS Code	210310, 21039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79.63, 585.61	대한수입액('17/US\$백만)	1.72, 6.79
	선정사유	- (독일) 아시아 식품 선호 증가에 따른 꾸준한 수요 상승 - 대형 슈퍼마켓에 한국 식품 진출로 수요확대 전망 - (스페인) 동양문화 관심 확대로 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 수요 증가		
	시장동향	- (독일) 2017년 기준 소스 시장 규모 39억 유로(한화 4조 8,956억 원), 2012년부터 꾸준히 연평균 2% 성장 - 2022년까지 소스 시장은 12% 성장한 43억 6,000만 유로(한화 5조 4,7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대표적 아시아 소스로 간장, 불고기 소스가 인기 - (스페인) 현지 소비자 입맛의 세계화로 아시아 식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 -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K-푸드 확산, 고추장 및 한국식 소스류 수요 증가		
	경쟁동향	- (독일) 유니레버가 시장점유율 10.8%를 차지하며 식품기업 중 1위, 그 뒤로 알디(8.9%), 칼퀴네(7.4%), 마기(6.7%) 순 - (스페인) 스페인 및 유럽계 식품기업 현지시장 장악 - 對아시아 수입의 경우, 태국 및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편		
	진출방안	- (독일) 아시아 제품으로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한국적인 디자인과 함께 제품포장에 영문/독문 표기 필수 - 현지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식행사를 기획하여 자주 제품을 노출할 필요 - (스페인) 식품 물류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독일을 통한 우회수출 가능 - Alimentaria 등 현지 대형식품박람회 참가		
	유망국가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웰빙·의료·미용기기 분야]

 피트니스 장비	HS Code	9506 9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607.64	대한수입액('17/US\$백만)	3.47
	선정사유	- 웰빙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2010년대 들어 피트니스 센터가 증가추세이며 관련 장비 시장도 꾸준히 성장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 피트니스 센터 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운 증가,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된 회원 수는 7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6%의 증가율을 기록 - 피트니스 장비 관련, 빠른 속도로 고객층 확대 - 과거에는 젊은층 고객들이 피트니스 붐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노인층이 새롭게 주목받는 소비자 군으로 등장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노령층 고객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는 만큼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50+' 시장에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의 중점을 맞춰 가고 있는 추세 - 노인층 고객들은 기존의 고객들과는 다른 구매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가격보다는 피트니스 장비 및 서비스의 품질 또는 우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 소비층 다양화 추세에 힘입어, 피트니스 센터용 대형 장비들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개인용 중소형 장비들이 빠르게 시장규모 확대		

	경쟁동향	- 이탈리아 브랜드인 TechnoGym이 오랜 시간 선두 자리를 유지 - 러닝머신부터 자전거, 크로스트레이너(Crosstrainer), 스텝퍼, 근력 운동장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피트니스 장비를 공급, 대부분의 피트니스 센터들이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 - 가정용 및 기타 장비의 경우 Kettler 등 독일의 유명 브랜드부터 Horizon, Tunturi, U.N.O. Fitness 등 중저가 브랜드까지 가격/기능별로 다양		
	진출방안	- 장비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필요 - 가정용제품의 경우 가격, 기능별로 다양한 고객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의 경우 다수의 무명 브랜드 제품들도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타깃층에 맞는 마케팅·유통 전략 필요 - 피트니스 센터용 제품의 경우, TechnoGym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아 진출이 쉽지 않지만, 최종 수요자(피트니스 센터)를 대상으로 한 직접 마케팅 활동이 보다 효과적		
	유망국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건강주스 블렌더	HS Code	85094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119.2	대한수입액('17/US\$백만)	27.52
	선정사유	- 유럽 시장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건강 주스 블렌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특히 한국으로부터 블렌더 공급업체들을 찾는 바이어가 늘고 있는 추세		
	시장동향	-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의 블렌더들이 현지시장에 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현지시장의 수입점유율은 중국이 1위이며(65%) 한국은 5위(4.5%)		
	경쟁동향	- 주요 브랜드는 Philips, Magimix, KitchenAid, Vitamix, Solis, Hurom - 새로운 브랜드가 점차적으로 증가, 주로 새로운 기능과 사용이 간편한 모델의 제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		
	진출방안	- 새로운 기능과 현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진출할 경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유망국가	독일, 베네룩스		
 미용용 의료기기	HS Code	9013.20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1,026.45	대한수입액('17/US\$백만)	14.91
	선정사유	- (체코)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프라하무역관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 창출 - (루마니아) 점차 건강, 웰빙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이 발달		
	시장동향	- (체코) 의료용 기기는 거의 수입에 의존, 기존설비 노후화 - (루마니아)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주로 도시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관리 기기 및 제품 시장이 성장		
	경쟁동향	- (체코) 주요 수입처는 EU 국가이며 스위스나 독일 등 제품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편 - (루마니아) 수입시장의 건강관리용 기기 및 미용기기 점유율은 독일 38%, 미국 9.6%, 중국 6.7% 순		
	진출방안	- (체코) 한국산 의료기기는 EU 품질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 제시 및 CE 인증 획득이 중요 - (루마니아) 혈당측정기나 체성분석기(Hi-tech body analyzer), 슬로 우푸드를 위한 소형가전에 대한 수요 성장, 이러한 수요에 대응 필요		
	유망국가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컴퓨터 단층촬영 의료기기	HS Code	90221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64.1	대한수입액('17/US\$백만)	1.41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 의료기기 수입이 매년 3~6%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EU 기금 공급에 따른 의료장비 현대화 가속 - (폴란드)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 구입 확대 - (영국) NHS가 지속되는 예산적자로 혁신적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공공조달 기회 가능성이 증가.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크로아티아) 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 등 대형장비 수요 포화 - 개인 정형외과의원을 중심으로 소형장비 수요 확대 중 -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 2014~19년 연평균 5% 성장 전망 - (영국)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NHS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기술 대중화를 통한 영국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경쟁동향	- (크로아티아) Siemens(독일), GE(미국)가 시장을 주도. 이 외 Philips(네덜란드), Toshiba, Shimadzu(일본) 제품 공급 - (폴란드) 80% 이상이 수입제품, 주로 글로벌 기업 제품 선호 - (영국) 최근 처방전 앱, 원격케어서비스 등이 진출하여 영국 내 의사·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		
	진출방안	- (크로아티아) EU 내 데모교육센터를 통한 제품 홍보 필요 - 제품 홍보를 위한 단기 렌탈도 고려대상 - (폴란드) 현지 벤더를 통한 진입이 효과적 - (영국) 가격경쟁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NHS 조달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NHS를 통해 영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타 유럽 시장 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		
	유망국가	영국, 폴란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		
 미용시술용 봉합실	HS Code	901832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339.05	대한수입액('17/US\$백만)	9.32
	선정사유	- 비절개 미용시술에 대한 수요 증가 - 한국산 제품의 높은 품질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동향	- EU와 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장변화가 빨라 신규 제품 수요 상존 - 소수의 한국기업이 수출 중		
	경쟁동향	- Aesthetic Dermal RRS(스페인), Juvederm(미국) 등의 제품이 주요 공급제품		
	진출방안	- 기존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관세율은 0%이나 높은 부가세(25%)를 고려해야 함 - 사절단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조선기자재 분야]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HS Code	84212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607.35	대한수입액('17/US\$백만)	22.79
	선정사유	- IMO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		
	시장동향	- IMO는 모든 국제항해 선박에 평형수 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		
	경쟁동향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주된 업체로 Wärtsilä가 있으며 뒤이어 NK, Panasia, Alfa Laval 등의 제작업체들도 자리매김 하고 있음. 그리스 현지 제조업체로는 'ERMA First'가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선주와 네트워크 구축,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을 내세워 현지시장 내 우위 선점		
 선박 디젤엔진 부품	HS Code	84099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7/US\$백만)	4,426.46	대한수입액('17/US\$백만)	293.15
	선정사유	- 그리스는 전 세계 대형선박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선박 디젤엔진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		
	시장동향	- 그리스 내 엔진 부품은 주로 전문업체 혹은 선주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유통		
	경쟁동향	- 디젤엔진 부품의 주요 수입업체는 새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MAN, Wartsila이며, 일본업체 Daihatsu, Yanmar와 한국업체 STX, Doosan이 있음		
	진출방안	- 한국기업이 선박부품 산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기술력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야 함. 효과적 네트워크를 위해 그리스 현지 에이전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공유 자동차·자전거 서비스

공유 자동차·자전거 서비스	선정사유	- (스페인) 대도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협업소비를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소비 트렌드로 인식, 자동차, 사무공간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각광 - (독일) 대기오염 및 도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유 자전거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증가
	시장동향	- (스페인) 소비자 중 19%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카셰어링 서비스 제공 중 - (독일)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이용자 증가추세 * 잡라드(Jobrad) 고객사 현황: 2017 상반기 4,800개사, 2018년 상반기 7,500개사 * 잡라드: 독일 자전거 임대분야 선두 B2B 기업으로 기업에 임대자전거 솔루션 제공
	경쟁동향	- (스페인) 독일 다임러 그룹의 Car2G, PSA푸조-시트로엥, 르노, 기아 등 다수의 자동차 제조기업이 카셰어링 서비스 출시 - (독일) DB Call a Bike, Limebike, Mobike, Nextbike, Fordpass Bike사 등이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 외 Limebike(미국), Mobike(중국)사가 있음 * 우버(Uber, 미국)는 2018년 4월 자전거 셰어링 스타트업(Jump, 미국)을 인수, 연내 베를린을 기점으로 전기 자전거 셰어링을 시작할 예정
	진출방안	- (스페인) 직접진출 또는 현지파트너를 통해 대도시 중심 서비스 확산 가능 - (독일) 독특한 디자인 및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부터 연계 애플리케이션, A/S 까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유럽 및 독일 시장 진출에 용이 -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소요, 충분한 준비 필요 - 유로바이크 등 관련 전문전시회 참가를 통한 인지도 상승 및 유망 바이어 발굴
	유망국가	독일, 스페인
모바일 결제서비스 · SW	선정사유	- (스페인) 모바일앱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핀란드) 발달된 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
	시장동향	- (스페인) 스페인 국민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90%를 어플리케이션에 할애 - 국민 중 61%가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사용 중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 평균 수준(53%)을 상회 - (핀란드) Danske 등 주요은행은 NFC 기반 모바일 결제시스템 운용. Alipay는 2018년 2월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해외사업 시작
	경쟁동향	- (스페인) 무선인터넷서비스 통신사별 시장점유율(2017년 4분기): 텔레포니카(33.4%), 보다폰(25.9%), 오렌지(25.9%) 순 - (핀란드) Danske·Alipay 등이 주요 경쟁사
	진출방안	- (스페인) 스페인계 글로벌 통신사인 텔레포니카와의 기술협력 등을 바탕으로 유럽, 중남미 시장 진출 - (핀란드) 한인 관광객 수요가 높은 여행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을 추천
	유망국가	스페인, 핀란드



모바일 결제서비스
·
SW

 게임 · 콘텐츠	선정사유	- (영국) 모바일게임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9.0% 성장할 전망 - (프랑스) 2017년 기준, 게임 콘텐츠 시장은 26.1억 유로로 전년 대비 16% 증가할 기록, 향후 3년간 6% 성장세 전망 - (스페인)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e-sports 시장 형성
	시장동향	- (영국) 2017년 기준, 유럽 내 가장 큰 모바일게임 시장 보유, 서유럽에서 게임 다운로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 - (프랑스) 비디오게임이 강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동 분야에 약한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럽 게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짐 - 게임 이용자 수는 약 3,535만 명으로 총 인구의 53%에 해당 - 스마트 기기 소비는 유럽 내 2위로 영국 다음으로 큰 시장 형성. VR 고글 등을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 게임족 증가 - (스페인) 비디오게임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3.6억 유로로 전년 대비 16.9% 증가
	경쟁동향	- (스페인) EA, Sony, Nintendo 등 미국·일본 기업이 시장 장악 - (프랑스) 모바일 게임은 영국 Kings, 프랑스 Ubisoft 등 글로벌 게임 업체가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게임 선호도가 높음 - 또한 콘솔과 PC 게임에 강한 면을 보여 왔으나, 최근 기존 게임 개발자들이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어 높은 수준의 모바일게임 개발 중
	진출방안	- (영국) 게임 관련 전시회 혹은 행사에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게임사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을 위한 톨로서 게임 콘텐츠를 통한 진출도 노력할 만함 - (프랑스) 애플 핸드폰 사용자 비율이 높아 안드로이드 및 애플 두 개의 버전 개발 필요. 언어 현지화 필수 - 단순한 구성을 선호,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없으므로 소량의 데이터 소모 게임이 선호 - 게임 관련 전시회 혹은 행사에 참여해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게임사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 -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제휴 필요 - (스페인) Barcelona Games World 등 현지 전문 박람회 참가
	유망국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전자의료 원격서비스	선정사유	- (프랑스) 전 세계 eHealth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600억 달러로 2010~15년 중 연평균 성장률 16% 기록 - 국가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ICT화를 위해 '19년 전년 대비 2.57% 늘린 4억 유로 예산 책정 및 '20년까지 공공의료 시스템 정비에 34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핀란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시간 건강·검진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프랑스) 대규모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4.2억 유로를 병원 디지털화에 투자 * DB 구축에 1억 유로 및 전국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에 5천만 유로 투자 등 * France eHealth Tech 협회는 현지 59개 스타트업 회원 업체들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 - (핀란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6년 20% → 2030년 26% 전망, 정부의 원격진료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관련 기업의 진출 활발
	경쟁동향	- (핀란드) Business Finland에 따르면 250여개의 Connected Health 기업이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 (프랑스) 독일의 지멘스 헬시니어, 프랑스 사노피, 스위스 로슈 등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e-Health 시장 선도 -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는 당뇨환자 원격진료 솔루션(Diabeo)을 스타트업체 및 연구소와 공동 개발해 17개 지방의 환자 700명 관리 중 -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와 프랑스 파트너사 La Paillasse는 암 및 전염병 솔루션 연구를 위해 오픈 빅데이터 및 데이터 챌린저를 이용한 연구 프로그램(6개월) 운영 중 - 미국 Alere사는 여러 공공병원들과 함께 심장 질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감시 프로그램 운영 중

	진출방안	- (프랑스) 현지 IT 기업과 기술협력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 (핀란드) MEDICA 등 유럽 내 주요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주요 바이어 발굴 가능 - 인터페이스 현지화, 공공입찰 참가를 위해 현지 파트너 발굴 필수
	유망국가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
 IT ·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선정사유	- (영국) 최근 IT 시장 및 금융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른 사이버 보안 문제 대두, IT 및 금융 분야에서 보안관련 기술이 각광받고 있으며, 관련 전시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프랑스) 4차 산업혁명으로 사이버 보안 및 IT 산업 성장 - '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EU 회원국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개인·사생활 정보보호 의무화로 모든 기업에 규제준수 의무 발생
	시장동향	-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사이버 위협, 보험 솔루션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프랑스) 미래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시설의 ICT 융합 자동화 추진으로 컨설팅 수요 증가 - (이탈리아) 인더스트리아 4.0을 통해 생산시설의 ICT 융합 자동화 추진으로 컨설팅 수요 증가
	경쟁동향	- (이탈리아)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경쟁 치열. 주로 독일,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형성
	진출방안	- (영국)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사절단 참가 등을 통한 진출 - (이탈리아) 현지어 프로그램 구축 등 현지화 전략 필요 - (프랑스) 현지 거래선 발굴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사절단 참가 등 필요
	유망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 (프랑스) 온라인 유통시장, 5년째 연평균 12% 이상 성장(2013년 12.5%, 2014년 12.4%, 2015년 13.5%, 2016년 12.4%, 2017년 11.6%) - (이탈리아)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시장동향	- (프랑스) 네트워크 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시장 지속 증가. 위생용품,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짐 - O2O, O4O 유통 시스템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옴니 채널화가 가속화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성장세 - (이탈리아) 현지 네트워크 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식품·건강 제품의 온라인 시장은 36% 성장
	경쟁동향	- (프랑스) 프랑스 굴지의 대형유통업체들의 플랫폼과 함께 Amazon, eBay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 확장 중
	진출방안	- 유럽에 단독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글로벌 플랫폼 입점으로 인근 유럽국의 시장 동시 공략 - 단독 입점 혹은 한국 상품관을 구성하여 입점하는 등 제품의 입점과 홍보 병행
	유망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핀테크	선정사유	- (독일) 핀테크는 최근 5년간 독일내 스타트업 투자가 가장 활발 - 브렉시트 이후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독일로 이동할 가능성 - (영국) 금융, IT,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강점, 현지시장 활용 가능
	시장동향	- (독일) 2018년 상반기 독일 핀테크는 3.9억 유로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며, 20%의 꾸준한 성장 - 독일 소비자(25~35세) 핀테크 사용률 증가: 인터넷 사용자의 56%는 핀테크 서비스 이용 - (프랑스) 2017년 기준 529개의 핀테크 기업이 존재, 그중 103개사는 은행, 기업 대상의 B2B 사업

	경쟁동향	- (독일) 핀테크 산업은 기존 금융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등 새로운 분야 진출을 모색 중 -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은 SolarisBank, N26, Kreditech, Figo 등 - (프랑스)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은 Hipay, Impak France, Kaiko, Monetrack, Origami Network 등 - 정부 주도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 및 현지기업 주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이 활성화 - Accenture, Paypal 등 글로벌 회사들이 경쟁 중
	진출방안	- 각종 핀테크 포럼 및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 -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기업과의 협업 - 바클레이즈 등 금융기관의 핀테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유망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물류 · 창고대여 서비스	선정사유	- (독일) 유럽 물류·유통산업 선도(유럽 물류시장의 25% 차지) - 지리점 이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교통인프라, 최신 물류기술 및 전자상거래 트렌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이탈리아) 소량 다품종 교역국으로 한국 수출업체에 대한 창고 및 물류서비스업 진출 유망 - (오스트리아)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유럽, 특히 동유럽 현지 생산기지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이들 현지 생산기지에 공급되는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
	시장동향	- (독일) 물류창고·스토리지 사업이 2020년까지 연 133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 예측 - 물류산업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① 디지털화, ② 3D프린팅, ③ 자율주행, ④ 로봇 도입, ⑤ 정보사회, ⑥ 다각화, ⑦ 서비스 중심, ⑧ 지속가능성 - (이탈리아) 고정비용이 높아 소규모 무역업체의 단독 창고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인근 유럽국과 미국 등의 물류기업이 창고대여 사업에 진출해 있으나,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고대여 서비스 제공업체는 없음 - (오스트리아) 지정학적 위치 및 우수한 육상 운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 항공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인근 동유럽 한국 생산법인에 공급되는 항공물류 대부분이 빈 국제공항을 통과 - (스웨덴) 2018년 기준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대한항공 카고(항공), 현대상선(해운), 범한판토스 등 3개사
	경쟁동향	- (독일) 연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물류기업 중 독일 기업 3개사 포진 * Deutsche Post DHL Group(1위), DB Mobility Logistics AG(5위), Kuehne+Nagel(10위) - (이탈리아) 한인 물류업체가 존재하나, 창고대여 서비스는 병행하고 있지 않음 - (오스트리아) Cargo Partner, Schenker, Gebrueder Weiss 대형 현지업체들과 한국계 대형 물류회사들 이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소 규모의 물류 및 포워딩 회사들이 다수 존재
	진출방안	- (독일) 현지 관련 분야 박람회 CEMAT(국제 물류운송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및 마케팅에 활용 - 진출지로 유럽 제3의 항구인 함부르크, 내륙 운송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고려 가능 - 빅데이터 활용 및 물류산업 8대 트렌드 활용으로 경쟁우위 확보 - (이탈리아) 항만 혹은 물류가 용이한 장소에 창고 대여로 현지 한인 물류업체와 협업 가능. 통관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을 경우 용이 - (오스트리아) 고정 거래처 확보가 필수조건 - 가격 못지않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시되는 추세 - (스웨덴) 남부와 중부 지방을 잇는 물류단지에 진출하는 것이 유력
	유망국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건설 · 플랜트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 EU 기금 활용 각종 프로젝트 추진 중 - (스웨덴) 건설 분야 전문인력 부족 심각
	시장동향	- (크로아티아) EU 기금 활용경험 부족으로 타 국가 대비 기금 활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많은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진행 중 - (스웨덴)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각하여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조 확대가 필요하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스웨덴 건설업계 애로
	경쟁동향	- (크로아티아) 건설, 플랜트 입찰 시장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현지 실적을 다수 보유한 EPC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EU 기업 보호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사업분석 필요 - (스웨덴) 건설현장 인력은 라트비아 등 발틱국가에서 충당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
	진출방안	- (크로아티아) 현지 로컬 EPC 기업의 경우, 기술수준이 우수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어, 이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주처 접촉을 통해 신뢰구축을 사전에 이루는 것도 필요 - (스웨덴) 전기배선, 배관 등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부문 진출 유력
	유망국가	크로아티아, 스웨덴, 폴란드
 지능형교통체계(ITS)	선정사유	- 폴란드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교통시스템 개발 추진 중
	시장동향	- EU 기금 기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다수 계획
	경쟁동향	- 주로 자국기업이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진출방안	- 폴란드 지자체, 현지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유망국가	폴란드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유럽의 수입수요 증가 유망품목 타깃	• K-Beauty@London 팝업 스토어 및 수출 상담회 * 화장품 분야 영국 B2C, B2B 마켓 진출 지원 사업	3분기/ 런던
2		• 폴란드 소비재 Online 유통망 진출 사업 * 폴란드 온라인 벤더 초청 온라인 유통망 입점 설명회	2분기/ 서울, 바르샤바
3		• 한국 의료기기 로드쇼 * 유망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중소기업 초청 1:1 상담회	2분기/ 베오그라드
4	공동 R&D, 기술제휴 등 유럽 기업과의 협력관계 재정립	• 한-폴 스타트업(Startup) 플라자 사업 * 기술협력·투자교류 공동세미나	4분기/ 바르샤바
5		• NOKIA Global Partnership * 5G 상용화 기회 선점, 기술 및 투자협력 파트너링	2분기/ 헬싱키
6		• GP Volvo 및 GP Scania *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파트너링 지원사업	연중/ 스톡홀름
7		• 산업 4.0 한-이탈리아 상생협력 상담회 * ITS 등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유망분야 상담회	4분기/ 밀라노
8	해외창업, 일자리 창출	• Korean Company Job Fair 2019 * 1:1 취업상담회, 취업·노무세미나, 워크숍 개최	2분기/ 암스테르담
9		• Vivatech 연계 한국 스타트업 현지 창업 지원 사업 * 국내 스타트업 IR 투자유치 설명회, 개별 상담회	2분기/ 파리
10	환경, 그린설비 수출 강화	• 친환경 선박기자재 파트너링 플라자 *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B2B 상담회	1분기/ 아테네
11		• 국제해양展(METS) 연계 친환경 선박기자재 수출상담회 * 유럽 선주, 벤더 대상 친환경 선박기자재 개별 상담회	4분기/ 암스테르담
12	투자진출형 전략 패러다임 확대	• 유럽 M&A 및 투자진출 지원사업 * 유럽 유망기업 매물 발굴 지원, 투자진출 컨설팅	연중
13		• 동유럽 진출기업 납품처 다변화 지원 상담회 * 동유럽 진출기업 대상 현지 발주처와의 핀포인트 상담회	4분기/ 부다페스트
14		• 글로벌 OEM, Tier 1 핀포인트 상담회 * 동유럽 V4 현지진출 자동차부품업체 대상 납품 지원 사업	연중/ 브라티슬라바
15	공공 프로젝트 참여	• 한-폴 PPP 프로젝트 플라자 * 지방정부 발주 공공프로젝트 설명회, 개별 상담회	2분기/ 바르샤바
16		• 세르비아 프로젝트 시장 진출 설명회 및 상담회 *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상담회	2분기/ 서울, 베오그라드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	2019. 3. 9(잠정)	-
(EU) EU 정상회담	2019. 3. 22~23	-
(핀란드) 총선	2019. 4. 14	-
(영국) 지방선거(England)	2019. 5. 2	-
(EU) EU 유럽의회 의원 선거	2019. 5. 23~26	임기 5년
(오스트리아) 포랄베르크 주의회 선거	2019. 9	-
(스위스) 제51대 총선	2019. 10. 20	매 4년 실시
(그리스) 총선	2019. 10(잠정)	-
(폴란드) 총선	2019. 11	임기 4년
(크로아티아) 7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2019. 12. 21~2020.1. 20	기간 내 하루 실시
(루마니아) 루마니아 대선	2019. 12	-
(독일) 작센주 주의회선거	2019 여름	-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선거	2019 가을	-
(독일) 튀링겐주 주의회선거	2019 가을	-
(스위스) 국민투표	2019. 2. 10 / 5. 19 / 10. 20 / 11. 24	연 4회 실시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EU) 영국 EU 탈퇴	2019. 3. 29	브렉시트 전환기간 2019. 3. 29~2020. 12. 31 (영-EU 탈퇴협정 체결 시)
(EU) 일본 경제협력협정(EPA)	2019년 연내 발효 예상	2018. 7. 17 체결
(EU) 베트남 FTA	2019년 연내 발효 예상	2015. 12. 2 체결
(EU) 캐나다 FTA	2019년 연내 발효 예상	2016. 10. 30 체결, 각 회원국 의회의 최종 승인 후 최종 발효 가능
(EU) 호주·뉴질랜드 FTA 협상	2019년 연중	2018. 7 협상 개시
(EU) 정상회담	2019. 3. 22~23	-
(그리스) 2019년 사회복지법 개정(기초연금 삭감)	2019. 1(잠정)	2019~2022년 중기 재정전략 (2018. 6 국회통과)
(스위스) 부가세법 개정안 발효	2019. 1	-
(불가리아) 불가리아 총리 방한	2019. 2	-
(스웨덴) 정부 예산발표	2019. 6	-
(헝가리) 2020년 예산심의	2019. 6	-
(스위스) 2020년 예산발표	2019. 8	-
(영국) 2019/2020 예산안 발표	2019 가을	-
(프랑스) 2020년 예산 발표	2019년 12월 하순(잠정)	-
(그리스) 2019년 민영화 추진(총 12억 유로)	2019 연중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 조건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자동차 부품	자동차부품 전반	프랑스 자동차부품 박람회 (Equip Auto 2019)	10. 15~19/파리
IT	빅데이터, PC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전시회 (CeBIT)	6. 24~28/하노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컴퓨터 게임	독일 쾰른 게임 전시회 (Gamescom 2019)	8. 20~24/쾰른
	ICT 융합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Smart City Expo Congress)	2019. 11/바르셀로나
신소재 · 산업기기	항공, 운송, 에너지 건설업 전반 신소재	프랑스 국제복합 및 신소재박람회 (JEC Europe Composites Show)	3. 12~14/파리
	산업용 소프트웨어, 기계부품, 산업자동화	독일 하노버 산업 전시회 (Hannover Messe)	4. 1~5/하노버
	산업자동화 시스템	오스트리아 국제자동화기기 전시회 (Smart Automation Austria)	5. 14~16/린츠
	첨단기술 및 제품 자동화 등	폴란드 중동부유럽 첨단기술 컨퍼런스 (Impact CEE)	5. 21~22/크라쿠프
	금속가공 공작기계 공구류	독일 슈투트가르트 금속가공 전시회 (AMB)	9. 18~22/슈투트가르트
광학	대포, 총류, 탄약, 로켓 경찰무기 등	제27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9. 3~6/키엘체
	안경 프레임, 렌즈, 안경 케이스, 렌즈클리너 등	이탈리아 광학 전시회 (MIDO)	2. 23~25/밀라노
	광학기기, 사진기자재	독일 쾰른 영상 및 광학기기 전시회 ((Photokina 2019)	5. 8~11/쾰른
	광학정밀기기, 안과용 렌즈, 선글라스, 안경 프레임 등	독일 뮌헨 광학 전시회 (Optik & Design)	6. 24~27/뮌헨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광학제품	프랑스 광학 및 안경 박람회 (SILMO)	9. 26~29(잠정)/파리
패션 · 섬유	카펫, 벽지, 커튼, 가구용 원단	독일 실내장식용 직물전시회 (Heimtextil)	1. 8~11/프랑크푸르트
	캐주얼 의류, 여성, 남성복 패션액세서리	프랑스 춘계 캐주얼 패션 전시회 (Who's Next)	1. 18~21/파리
	섬유, 기능성 섬유 약세서리, 섬유기계	프랑스 춘계 직물 박람회 (Texworld Paris 2019)	2. 11~14/파리
	기능성/중고급 원단 최첨단 신소재	프랑스 고급원단 박람회 (Premiere Vision)	2. 12~14/파리
	여성복	프랑스 트라노이 여성복 박람회 (TRANOI FEMME)	1월, 3월, 6월(잠정)/파리
전기·전자	통신장비, 무선통신기기, IT기반 전자기기 전반	스페인 월드모바일콩그레스 (MWC)	2. 25~28/바르셀로나
	전기, 전자부품, 시스템, 부품응용분야	독일 뮌헨 전자생산기술 전시회 (Electronica 2019)	11. 12~15/뮌헨
의료기기 · 의약	의료, 의약 전반	크로아티아 국제 의료, 제약 컨퍼런스	2. 16~27/자그레브
	치과 장비, 치과기자재	독일 쾰른 국제 치과기기전시회 (IDS 2019)	3. 12~16/쾰른
	치과 의료기기 전반	헝가리 치과기기 전시회 (Dental World 2019)	2019. 10/부다페스트
	의약품, 의약외품, 의약 원료제 및 포장재, 제약 관련 기자재 전반	세계 의약품 전시회 (CPhI Worldwide 2019)	11. 5~7/프랑크푸르트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선박·조선	조선기자재, 해양장비, 선박부품	독일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 기자재 전시회 (SMM)	9. 8~11/함부르크
건축자재 · 건설장비	건설자재, 건축기계	슬로바키아 국제 건축박람회 (Coneco Racioenergia)	3. 27~30/브라티슬라바
	건설장비 전반	독일 뮌헨 국제 건축, 건설기계 전시회 (Bauma 2019)	4. 8~14/뮌헨
	건축자재, 조명, 건축작업장비	프랑스 파리 국제 건축박람회 (Batimat 2019)	11. 4~8/파리
소비재	식품, 음료 및 식품 포장재	그리스 아테네 식품 & 음료 전시회 (Food Expo)	3. 16~18/아테네
	건강, 기능성식품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Vitafoods)	5. 7~9/제네바
	고급 식음료	영국 고급 식음료 전시회 (Speciality&Fine Food Fair 2019)	9. 1~3/런던
	화장품, 미용용품	슬로바키아 국제 미용박람회 (INTERBEAUTY)	2. 8~9/브라티슬라바
	화장품, 향수, 헤어, 네일제품	볼로냐 미용박람회 (COSMOPROF)	3. 14~17/볼로냐
	미용, 헤어, 네일제품	그리스 아테네 미용 전시회 (Beauty Greece)	4. 13~15/아테네
	미용용품 및 헤어제품	폴란드 뷰티 데이즈 (Beauty Days)	2019년 하반기/바르샤바
	스포츠, 레저용품, 의류패션, 액세서리	뮌헨 국제 스포츠용품 전시회 (ISPO Munich 2019)	2. 3~6/뮌헨
	스포츠, 레저용품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 아웃도어 전시회 (European Outdoor Trade Fair)	6. 23~26/프리드리히스하펜
	디자인 가구, 인테리어 소품	프랑스 메종오브제 박람회 (Maison & Objet)	1. 18~22(춘계)/파리 9. 5~9(추계-잠정)/파리
	문구, 선물류, 완구, 주방용품 등 각종 소비재	영국 춘계 소비재 전시회 (Spring Fair 2019)	2. 3~7/버밍엄
	가정용품, 사무기기 인테리어용품, 각종 소비재	영국 추계 소비재 전시회 (Autumn Fair 2019)	9. 1~4/버밍엄
	아동, 유아, 의류·패션 악세서리, 완구·게임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KIND+JUGEND)	9. 19~23/쾰른
스타트업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	핀란드 창업 컨퍼런스 (SLUSH Helsinki)	2019. 12/헬싱키
	스타트업 컨퍼런스	스페인 스타트업 컨퍼런스 (South Summit)	2019. 10/마드리드

담당자

유럽지역본부 윤유현

Tel +49-69-2429-9218

직책 과장

Email yunyh@kotra.or.kr

유럽지역본부 이주혜

Tel +49-69-2429-9257

직책 대리

Email juhyelee@kotra.or.kr

시장조사팀 김정곤

Tel +82-02-3460-3368

직책 전문위원

Email jgkim@kotra.or.kr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일본



CONTENTS

2019 일본 진출전략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245

- 1. 개요 245
 - 가. 시장 전망: 2019년 경제성장기조 지속되나, 성장세 둔화 전망 245
 - 나. 주요 경제지표 245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46
 - 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간 융합(Connected Industries) 가속화 246
 - 나.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248
 - 다. 소비세 추가 인상조치에 따른 개인소비 둔화 우려 249
 - 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활용에 특화된 소비층의 급성장 251
 - 마.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과 인바운드 소비 8조 엔 달성 목표 253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255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255
- 2. 시장 분석 267
 -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68
 - 나. 수출 270
 - 다. 투자진출 272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75
 - 가. 교역 275
 - 나. 투자 278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0

III. 진출전략 284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4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85
- 3. 한-일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3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320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327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329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31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19년 경제성장기조 지속되나, 성장세 둔화 전망

□ 해외 수요는 유지됨에도 일본 내수침체로 인해 경제성장을 전년대비 소폭 하락

- (국내) 소비세율 인상 및 기업 설비투자의 순환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둔화
 - 개인 소비는 2019년 10월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으로 감소 전망
 - 경기확대로 지속된 설비투자 증가세는 2020년부터 다소 둔화 예상
- (해외) 해외 경제의 성장세 및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 지속으로 일본 수출은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일본 국채를 매입해 통화량을 늘려 시장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엔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게 됨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백만 명	128.4	128.3	128.2	128.0	127.7	127.5	127.2	126.9
명목GDP	십억 달러	6,205	5,160	4,852	4,381	4,949	4,873	5,006	4,899
1인당 명목GDP	달러	36,978	38,731	39,105	40,392	38,738	38,225	39,364	38,618
실질성장률	%	1.5	2.0	0.2	1.1	1.0	1.7	1.0	0.9
실업률	%	4.4	4.0	3.6	3.4	3.1	2.8	2.4	2.5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1.7	2.4	0.1	-0.1	0.5	0.9	1.2
재정수지(GDP대비)	%	-8.3	-7.6	-5.4	-3.5	-3.7	-3.4	-3.0	-2.8
총수출	십억 달러	776.6	694.8	699.1	622.0	635.2	688.6	763.5	797.1
(對韓 수출)*	"	64.4	60.0	53.8	45.9	47.5	55.1	-	-
총수입	"	830.1	784.5	799.0	629.4	584.1	644.6	726.8	776.5
(對韓 수입)*	"	38.8	34.7	32.2	25.6	24.4	26.8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3.5	-89.7	-99.9	-7.4	51.1	44.0	36.7	20.5
경상수지	"	60.1	46.4	36.4	134.1	193.7	195.9	210.6	203.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86.6	105.3	119.9	120.3	116.8	112.9	113.35	118.62
해외직접투자**	십억달러	122.4	135.0	138.0	138.4	173.9	168.6	103.8	119.5
외국인직접투자**	십억달러	1.8	2.4	19.8	5.2	39.3	18.8	29.7	30.9

주: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JETRO 직접투자통계

자료원: IHS Markit Country Report(2018. 8. 21)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간 융합(Connected Industries) 가속화
-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 소비세 추가 인상조치에 따른 개인소비 둔화 우려
-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활용에 특화된 소비층의 급성장
-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과 인바운드 소비 8조 엔 달성 목표

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간 융합(Connected Industries) 가속화

□ 생산성 개선 및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확산을 가속화

- 일본 정부의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은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Society 5.0*을 실현하는 데 주력
 - * 수렵 사회 → 농경 사회 → 공업 사회 → 정보 사회 →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으로 기업실적과 고용개선, 경기순환이 가시화되었으나, 여전히 생산성 하락과 신규 수요창출 부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
- 이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IoT, 빅데이터, AI, 로봇,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주요 기업의 IoT 활용 신산업 개발 추진 현황]

부문	기업명	비고
IT 전문	NTT데이터	제조업 IoT를 촉진하는 조직 설치
	(미) IBM	IoT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미) 시스코 시스템즈	현장과 클라우드 연계하는 서버제공
	(미) 인텔	데이터 수집용 IoT 게이트웨이 개발
IT 및 전자기기	후지츠	센서 기기부터 클라우드까지 일괄 제공
	NEC	화상인식기술에 강점. 제조업대상 IoT에 주력
	(독) 시멘스	인더스트리4.0 추진
	(독) 보쉬	자동차 운전용 미세 센서 개발
IT 및 인프라 기기	히타치제작소	자사 인프라 기기에 IoT 기술 활용
	도시바	미 GE 등과 IoT 기술개발
	(미) 제네럴일렉트릭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주창
IT 및 공장자동화기기	파낙(FANUC)	타사 기계를 네트워크에서 연계
	미쓰비시전기	복수의 공장에서 접속 가능한 플랫폼 개발
	오무론	국내외 공장 연계를 자사에서 실천

자료원: 2019 닛케이 업계지도

-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IoT기술을 핵심으로 제품·서비스 혁신을 달성
 - (산업현장) 제조, 의료·간호, 공사, 농림수산업, 유통·소매, 경비 등 모든 산업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반 환경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분석하여 산업현장의 자동화를 실현
 - (제품·서비스) 기업 대상 제품(제조설비 및 기계, 빌딩, 상용차 등)과 개인소비 제품(스마트하우스, 건강·스포츠, 자동차)을 대상으로 개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일본 산업 생태계에 흡수될 수 있는 사업모델 제시가 필요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IoT로 연결된 초연결사회의 구축으로 인한 생활 및 산업현장의 변화

- (가전) 가전제품에 IoT를 활용, 전체를 융합·연결하는 신기술 개발을 확산
 - 일본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스피커, 오븐레인지 등을 개발·출시
 - * 구글의 Google Home과 아마존의 Amazon Echo 등장 이후 2017년 가을 소니, 파나소닉, NTTDocomo, 도시바그룹, LINE 등이 일본어 AI 스피커 출시
 - * 샤프는 AI와 IoT를 활용한 오븐레인지를 출시함.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음의 부엌'과 연계하여 사용 가능한 새로운 레시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 2017년 7월 발족된 '커넥티드 홈 얼라이언스'는 궁극적으로 가정 내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서비스 공동개발을 목표로 추진
 - * 미쓰비시가전, NTT데이터, 오사카가스, 도요타, 닛산, 도교급행전철, 미츠이 부동산그룹 등 2018년 9월 현재 100개 기업 참가
- (자율주행) 운송업 구인난 및 고령자 이동수단 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수요가 급증
 - 운송업 종사자 부족, 고령자 증가 등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요 증대
 - 2020년 무인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전국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
 - * ZMP와 히노마루교통은 2018년 8월 세계 최초 자율주행택시 도로실증실험에 성공
 - 일본 국토교통성·산업경제성은 2018년 4월 주요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일본 국내 승용차 90% 이상에 대해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요구
- (기계) 제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성장혁신을 동시 추구
 - 일본은 2009년까지 공작기계 생산액 세계 1위였으나, 중국·독일·미국 등 경쟁국의 IoT 접목시스템 개발 영향으로 다소 주춤
 - * 일본 공작기계공업회 통계에 의하면, 공작기계 수주액은 2017년 1조 6,455억 엔(전년 대비 31.6% 증가)으로 호조세를 기록, 2018년에도 전년 실적을 상회할 전망
 - 공장 현장에서도 공작기계와 로봇을 연결하며, 실행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
 - 시스템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IT 기업과 기술을 제휴하는 움직임도 활발
 - * 일본 공작기계업체 야마자키마작, 오쿠마, DMG모리세이키, 파낙 등은 각각 시스코 시스템즈, GE,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은 미 IT 기업과 제휴하고 있음

나. 저출산·고령화 시대,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한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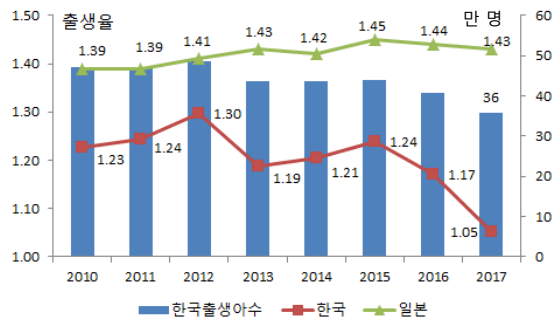
□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

- 2010년에 인구 감소 사회로 전환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미만으로 축소
 - 2018년 4월 1일 기준 일본 총 인구는 1억 2,650만 명으로 9년 연속 감소
 -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7,561만 명으로 전체의 59.8%로 축소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538만 명으로 전체의 28%로 상승
 - *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4%, 85세 이상 인구는 4.4%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연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일본	1970	1994	2006
한국	2000	2018	2025
프랑스	1894	1979	2018
이탈리아	1927	1988	2006
미국	1942	2015	2036
독일	1932	1972	2009

[한·일 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원: 통계청, OECD

- 고령자 급증에 따른 일본 사회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고령자 증가로 급증한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 목표치를 2020년까지 80%까지 증대
 - * 고령자 의료비(엔): (1995) 5.9조 → (2000) 11.2조 → (2010) 12.7조 → (2015) 15.2조
 - 고령 운전자들은 신체 능력의 저하로 차량 사고를 빈번하게 유발
 - *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 (2007) 8.2 → (2011) 10.3 → (2017) 12.9
 - 연금수급자 증가(1994년 2,162만 명 → 2017년 3,969만 명)로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기업은 대응을 강화

-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기업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지방·중소·유통기업의 구인난이 심각
 - * 일본의 실업률: (2017년 2월) 2.8% → (2018년 5월) 2.2%, 25년 만에 최저치
 - *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 (2018년 7월) 1.63%, (도쿄) 2.16% ↔ (오키나와) 1.14%

- 일손 부족에 따른 파산이 급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일본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고 가격 인상, 서비스 축소 등의 대응을 강화

*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2년 대비 2017년 60만 명 증가

[일본 기업들의 인력 부족 대책 상황]

전일 무휴·24시간 영업 폐지 등 영업시간 단축	IT와 셀프식 도입 등 절약화	매장 전석 금연 등 근무 환경 개선
• 손님이 적은 날을 휴무일로 변경 (시로키야, 우오타미 등 이자카야) • 2017년 초부터 전 점포에서 실시 (로얄호스트)	• 셀프식 음료바 도입 (데니스 등 패밀리레스토랑) • 주문용 태블릿 도입 (오오토야 등 음식점)	• 직원과 손님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 점포 실시(KFC)

자료원: 각종 신문 언론 보도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아베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정책

- (1억 인구 총 활약 플랜) 전체 인구가 활약하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표치로서 ‘희망 출산율 1.8’을 제시
 - 청년 고용안정·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 내실화,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 등 대응책을 내걸고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0년간 로드맵을 제시
- (일하는 방식 개혁) 시간외 근로 상한 규제*, 유급휴가 취득 의무화 등 장시간 근로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을 통한 비정규 고용처우 개선 등
 - * 시간외 근로 상한규제: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이하로 시간외 근로 금지
 - 일본은 2018년 6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 (인재 양성)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를 설치, 교육 무상화·부담경감,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대상을 고령자 위주에서 전 세대로 확대, 기업 인재채용 방식 재검토 등에 관한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

다. 소비세 추가 인상조치에 따른 개인소비 둔화 우려

□ 일본은 2019년부터 10월 2차 소비세(8% → 10%) 추가 인상을 추진

- 일본은 국가 재정건전화와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소비세 인상을 추진
 -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재원(약 5조 엔 규모)으로 재정 건전화(40%), 무상교육(40%), 사회보장(20%)에 각각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두 번째인데 2014년 4월에 1차로 인상(5% → 8%)되었고, 2019년 10월에 2차 인상(8% → 10%) 예정
 - 2차 인상은 2017년 4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행을 연기한 바 있음
 - * 2016년 기준 OECD 국가별 소비세율: 덴마크·스웨덴 25%, 네덜란드 21%, 프랑스 20%, 독일 19%, 한국 10%, 호주 10%, 일본 8%, 캐나다 5%(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름)

□ 2014년 1차 소비세 인상 당시, 소비지출의 급락과 소비양극화를 초래

- 소비세 인상 직전 사재기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비지출이 급증
 - 세대당 월별 소비지출 금액은 2013년 251,576엔에서 2014년 251,481엔으로 하락된 이후 2018년 상반기 현재까지 2013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
- 식품·일용품 등 생활필수품과 비과세 대상(의료·금융·교육 분야)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적었던 반면, 여가 관련 소비 및 내구재의 소비지출은 크게 하락
 - * 내각부 조사에 의하면 평균 사용기간이 11년인 냉장고와 에어컨은 사재기로 인해 2014년 2월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 80% 이상 급증하여 2024년까지 신규 판매에 영향 예상
-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돈키호테·코스모스약품 등 할인판매점은 할인 품목 확대, PB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가격인하 실시

[1차 소비세 인상 이후 거시경제 변화]

(단위: %, 엔)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경제성장률	2.00	0.38	1.35	0.94	1.71	1.21e
세대당 월별 소비지출	251,576	251,481	247,126	242,425	243,456	214,763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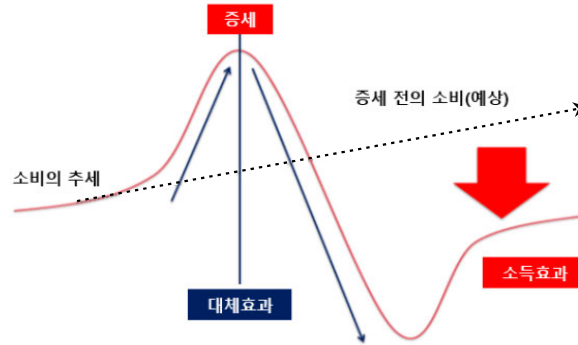
자료원: IMF, 총무성 통계국

□ 일본정부, 가계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

- 일본은행은 소비세 2차 인상으로 2조 엔의 추가 가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는 1차 인상 당시의 추가 가계부담(8조 엔) 대비 25% 수준
 - * 아베 총리는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2018. 9. 4)에서 “(2차 인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1차 인상은 거시경제에 예상보다 심각한 영향을 줬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
- 일본 정부는 증세 이후에 감소할 실질 소득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 2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5.6조 엔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 고등·유아 교육 무상화, ▲ 식료품 세율 유지, ▲ 내구소비재 구매지원(에코카 및 주택론 감세) 등의 경감조치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

- 한편, 2014년의 사재기 현상이 재현될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다이이치경제연구소)

[소비세 인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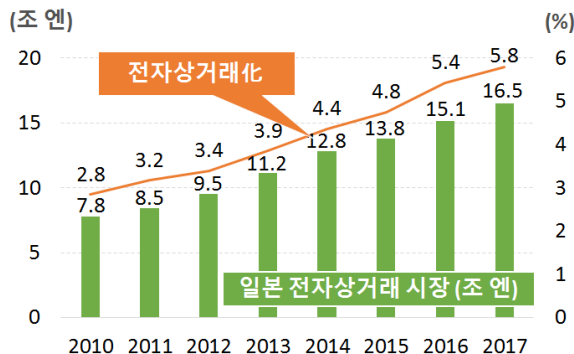
자료원: 다이이치경제연구소

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 활용에 특화된 소비층의 급성장

□ BtoB, BtoC, CtoC 각 분야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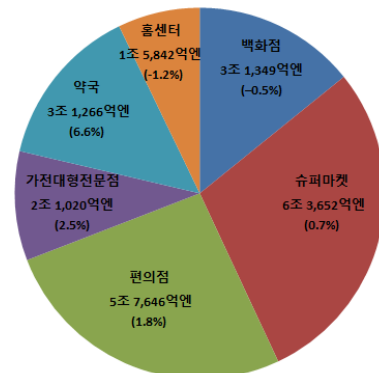
- 일본 소매시장 규모는 정체 상태인 반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꾸준한 성장
 -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소매시장 규모는 142조 엔을 기록한 이후 정체
 -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8%에서 2017년 5.8%로 상승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동 기간 7.8조 엔에서 16.5조 엔으로 2배 이상 성장

[일본 전자상거래 비중 및 시장규모]



자료원: 경제산업성(2017년 전자상거래 시장조사)

[2018년 상반기 업체별 매출액]



주: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

일본 전자상거래 주요 3개사 사업 진행현황

- 1위 '아마존': 연 3,900엔의 회원제 서비스 '프라임'은 당일이나 익일 도착 급행배송을 실시, 영화·음악 무료 시청, 사진 데이터 보존 등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 버튼 하나로 간단히 주문 가능한 소형 단말기 '아마존 대쉬' 시작. 음료수나 세제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일용품들 중심으로 130종류 이상의 브랜드 구비(전 세계 매출액 19.4조 엔 중 일본 매출액 1.3조 엔)
- 2위 '라쿠텐': 플리마켓 애플리케이션 '후리루'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미 월마트와 업무제휴, '인터넷 마트'를 개시할 계획(총 매출액 9,444억 엔 중 전자상거래 사업 6,803억 엔)
- 3위 '야후': B to B 통판에 강한 '아스쿨', 숙박·음식 예약사이트 '잇큐'를 자회사화함(총 매출액 8,971억 엔 중 전자상거래 사업 5,965억 엔)

○ 플리마켓(벼룩시장)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 특화 서비스 등장

- 인터넷 플리마켓으로 대표되는 개인 간 전자상거래 시장도 3,500억 엔이 넘는 규모로 성장, 업계 1위 기업 '메르카리'는 2018년 6월 상장
 - * '메르카리'는 시가총액 6,700억 엔이 넘는 대형상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함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보급 확산으로 관련 시장 꾸준히 성장할 전망
 - *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규모는 약 3조 엔이며, 전자상거래(16.5조 엔)의 약 35%를 차지함

□ SNS 이용자 증가는 소비 구매 플랫폼의 변화를 촉진

○ SNS 이용자 수 증가 및 일부 SNS의 경우 독보적 활약 중

- ICT 총연(도쿄 소재, ICT 컨설팅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SNS 이용자 비율과 이용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 전체 인구 중 SNS 이용자 비율(2013년 56.4% → 2017년 72.1%), 이용자 수(2013년 2,487만 명 → 2017년 7,216만 명)
 - * SNS 서비스별 이용률(%): (LINE) 76.9, (트위터) 41.2, (페이스북) 32.7, (인스타그램) 28.6

○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한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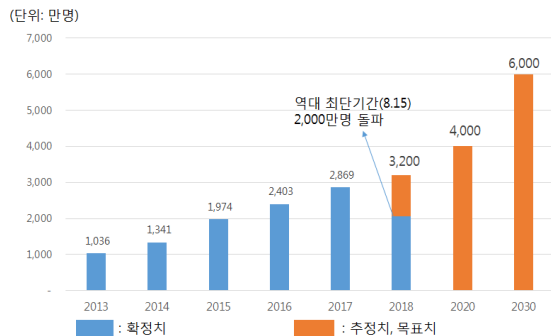
-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SNS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SNS 정보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SNS 게재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도 증가
 - * 닛케이 트렌디 2016 히트 키워드로 '인스타바에(인스타그램용 사진)'라는 신조어가 선정됨
 - * 미국 인스타그램 제품 마케팅 자료에 따르면, 일본 인스타그램 월간 액티브 계정 수는 2,000만 명을 초과. 일본은 해시태그를 통한 검색 수가 다른 국가의 3배에 달함
- 초반 SNS 광고는 10~20대 젊은 층을 주요 타겟으로 성장했으나, 최근에는 구매력이 높은 40~50대 층에서도 광고 효과가 확대

마.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과 인바운드 소비 8조 엔 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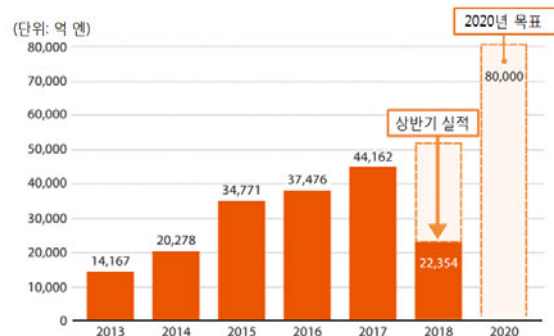
□ 급증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일본에서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부상

-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관광 진흥정책과 2012년부터 추진된 엔화 약세 기조 등의 효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5년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
 - 일본 정부는 럭비 월드컵(2019), 도쿄올림픽(2020), 오사카 EXPO(2025) 등 대형 이벤트의 잇따른 개최로 공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제시
-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 소비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진작에도 기여
 - 인바운드 소비*규모는 2013년 1.4조 엔에서 2017년 4조 엔대로 확대, 2020년까지 8조 엔을 목표로 설정
 - * 일본 정부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를 정의하는 용어
 - 주요 관광지인 도쿄, 오사카의 경우 인바운드 소비가 해당 지역 내 총생산의 4% 이상을 차지

[방일 외국인 관광객 추이 및 전망]



[일본 인바운드 소비액 추이 및 전망]



자료원: 일본 관광국(観光局)

- 중화권 및 동남아 관광객의 소비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내역 중 쇼핑 비용[37.1%(1조 6,398억 엔)]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 2017년 인바운드 소비 사용처(%): (쇼핑) 37.1, (숙박비) 28.2, (식비) 20.1, (교통비) 11.0
 - 1인당 쇼핑 지출규모에 있어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높은 순위 차지
 - 최근 구매력 측면에서 베트남 관광객이 일본 유통기업의 주요 타겟으로 급부상
 - * 1인당 지출액: (베트남) 18.3만 엔, (한국) 7.2만 엔 / 평균 체재일수 (베트남) 35.2박, (한국) 4.3박

□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인바운드 소비 확대 및 경제파급효과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제시한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제정(2017년)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 개요

- 정책방향: ① 국제경쟁력이 높은 매력 있는 관광지역 형성 ②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 ③ 국제관광 진흥 ④ 관광여행의 촉진
- 목표(2020년):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8조 엔, 재방문 2,400만 명, 지방 숙박자 수 7,000만 명

- 고속 교통망을 활용하여 일본 전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지방창생회랑(地方創生回廊)’을 추진
- 신칸센 및 교통인프라 내 무료 Wifi 확대 등 통신 인프라 정비
- 일본 내 8개의 국립공원을 재정비 및 브랜드화하여 관광거점을 구축하고 농어촌 체류형 여행 비즈니스 지역 500개 창출
- 통합형 리조트 추진법 도입(2018년 7월)으로 일본 내 최대 3개의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짐. 이를 통한 경제 파급효과는 1조 엔 이상을 기록할 전망
- 오사카, 홋카이도, 요코하마, 나가사키 등 다수의 지자체가 카지노 유치 추진

[관광산업 확대로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숙박	- 오래된 건물의 용도 변경 및 리노베이션을 통한 숙박시설 운영 - 민박사업자 대상 비즈니스(간편 보험, IT 기반 방법 등)
소매/외식	- 면세 수속 자동화, 다언어 안내를 위한 하드웨어 및 콘텐츠를 개발 - 방일 외국인 대상 홍보 콘텐츠를 제공
여행/레저	- 지자체와 연계한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 일본형 복합 리조트, MICE* 시설의 다양한 운영
금융	- 캐시리스 결제 서비스 제공 - 통역, 단기체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 부보 상품 제공 등

주: *MICE: 비즈니스 이벤트(Meeting, Incentive, Conference or Convention, Exhibition)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으로 안정적인 정책 실행력을 담보
- (경제) 소비세 인상 조치로 내수 침체가 예상되며 2019년 성장률 둔화 전망
- (산업)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성장동력 확보
- (대내 정책) 아베노믹스 경기부양책을 기반으로 성장동력 확보
- (대외 정책) TPP11, 일-EU EPA 등을 활용하여 통상 네트워크 확대

가. 정치 환경

□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은 2021년까지 장기집권 가능

- *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20일 자유민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여 세 번째 연임 성공
- * 아베 총리는 2006~2007년 만 52세로 최연소 총리를 지낸 바 있으며,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자민당 총재를 역임
- 아베총리는 집권 이후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일본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책방향을 공표하면 이에 대한 다양한 심의단체를 거쳐 2~3년 후에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에 기업과 개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후에도 혼란이 적으며, 변화로 인한 불안요소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
- 아베노믹스로 인한 거시경제지표들의 긍정적 변화로 안정적 기반 확보
 - (성장률) 생산 가능 인구 1명 당 실질 GDP 성장률 2012년 대비 2016년에 2.2% 증가
 - * 2012년 대비 2016년 국별 성장률 변화(%): (일본) 2.2, (영국) 2.1, (미국) 1.6, (독일) 1.2, (프랑스) 1.1
 - (금융) 아베노믹스 이후 환율 약세(2012년 말 86엔/달러 → 2018년 10월 113.96엔/달러), 주가 상승(2012년 말 1만 395엔 → 2018년 10월 2만 4,245엔), 금리하락(10년 만기 2012년 말 0.794% → 2018년 10월 0.125%)

- (만족도) 현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 최대치로 65.9%가 만족
 - * 연도별 만족도(%): (2013) 53.4 → (2014) 60.8 → (2015) 59.3 → (2016) 62.0 → (2017) 65.9
- (출산율) 2005년 1.26%에 불과했던 출산율이 2017년 1.43%로 증가
 - * 한국의 출산율(%): (2013) 1.19 → (2015) 1.24 → (2017) 1.05 → (2018) 0.97
 - * 일본 보육원 이용률(%): (2013) 35.0 → (2015) 37.9 → (2017) 42.4
- (실업률)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5.1%로 G7 국가 중 최저 수준, 한국(10.7%)의 절반
 - * 국별 청년 실업률(2016년 기준, %): (일본) 5.1, (독일) 7.0, (미국) 10.4, (영국) 13.2, (프랑스)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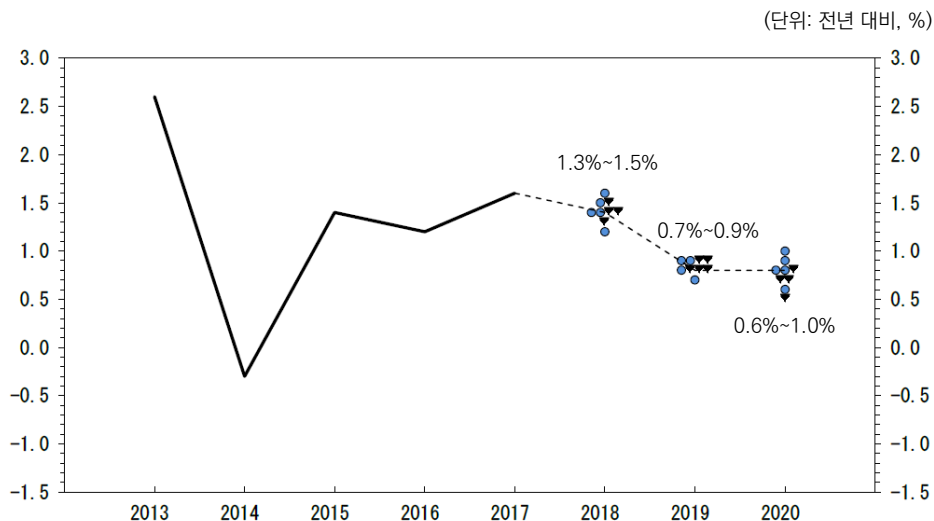
□ 파벌인사 부정 평가를 부른 4차 개조 내각 출범

- 2018년 10월 2일 개각 및 당직 개편을 단행하여 '4차 아베 개조 내각' 발족
 - 19명 내각 관료 중 13명을 바꾸는 개각을 실시, 이 중 12명이 처음 입각
 - *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유임, 방위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자민당 안보조사위원장, 지방창생상에 유일한 여성 각료로 가타야마 사쓰키 의원 기용 등
- 일본경제신문 긴급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편 후 지지율 오히려 하락
 - 내각 지지율은 50%로 지난 9월 조사보다 5%p 하락
 - 개각과 당직 개편으로 기용한 인물들에 대해서 긍정 평가는 28%에 그쳐

나. 경제 환경

□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19년부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

[2018~2020년 일본 경제 전망]



자료원: 일본은행, 「경제·물가정책의 전망 보고서」(2018. 10)

- 일본은행(2018. 7. 19 전망): (2018) 1.3~1.5% → (2019) 0.7~0.9% → (2020) 0.6~1.0%
- 미즈호은행(2018. 9. 10 전망): (2018) 1.2% → (2019) 0.8%
- 미쯔비시UFJ(2018. 9. 10 전망): (2018) 1.2% → (2019) 0.8% → (2020) 0.0%
- 일본총연(2018. 9. 4 전망): (2018) 1.3% → (2019) 1.0%
- 일본경제신문 NEEDS(2018. 7. 24 전망): (2018) 1.0% → (2019) 0.9%

□ (2018년 실적) 기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 확대까지 연계되지 못함

[일본의 실물 경기 동향]

	2017		2018			
	3/4	4/4	1/4	2/4	3/4	
실질 GDP	0.7	0.2	-0.3	0.8	-0.3	
국내수요	0.1	0.3	-0.3	0.9	-0.2	(-0.2)
민간수요	0.3	0.5	-0.4	1.1	-0.2	(-0.2)
최종소비지출	-0.6	0.3	-0.2	0.7	-0.1	(-0.1)
주택건설	-1.8	-3.2	-2.1	-1.9	0.6	(0.0)
설비투자	1.5	0.7	0.7	3.1	-0.2	(0.0)
재고증가	(0.4)	(0.2)	(-0.2)	(0.0)	..	(-0.1)
공적수요	-0.4	-0.1	-0.1	0.1	-0.2	(-0.1)
공적고정자본형성	-2.2	-0.8	-0.5	-0.3	-1.9	(-0.1)
순수출	(0.6)	(-0.1)	(0.1)	(-0.1)	..	(-0.1)
수출	2.7	2.1	0.5	0.3	-1.8	(-0.3)
수입	-1.0	3.1	0.1	1.0	-1.4	(0.2)
명목 GDP	1.1	0.2	-0.5	0.6	-0.3	

주: () 안은 기여도

자료원: 내각부(2018. 11. 14)

- (수출) 해외 경제의 성장세를 배경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
 - 일본의 對세계 수출은 2017년(11.8%)에 이어 증가(2018년 9월 누계, 5.1%) 추세를 지속
 -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장비, 금속 가공기계 등의 호조가 수출증가에 기여
 - * 지역별 수출 증가율(2018년 9월 누계): 중국 9.3%, 대만 4.1%, 미국 1.5%, 한국 -1.7%,
- (설비투자) 금융완화 기조 하에서 경기활성화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및 올림픽 관련 투자,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계화 및 무인화에 집중적 투자 확대
- (고용) 일본은 완전 고용상태로 2018년 9월 실업률은 2.3%이며, 유효구인배율*은 1.64배로 1974년 이래 역대 최고 기록
 - * 유효구인배율: 구직자 수에 대한 구인 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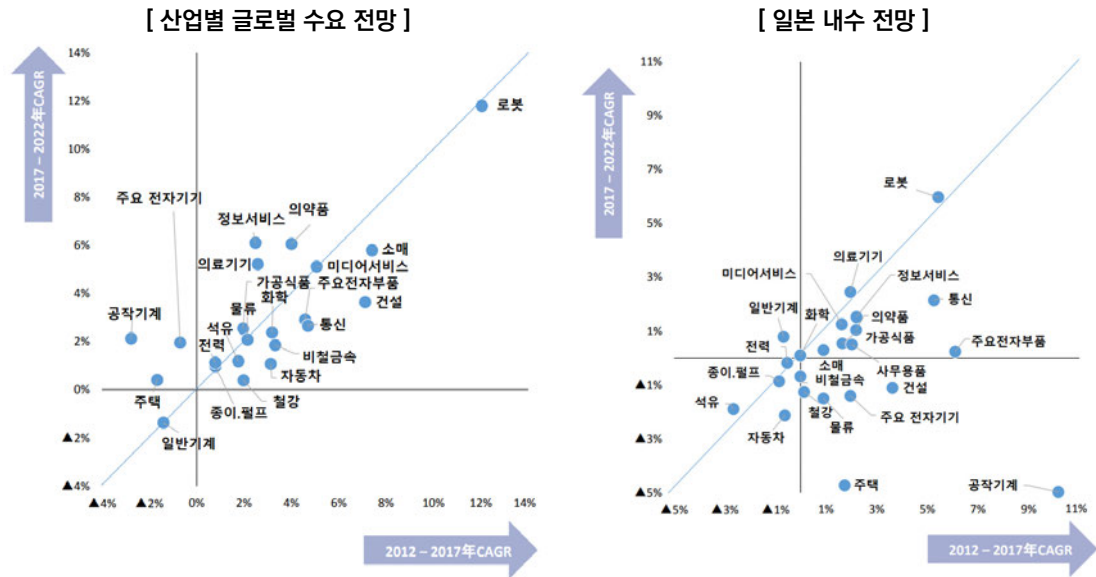
- 임금은 상승 중이나 과거 장기 경기조정의 경험과 최근 여성과 고령자 중심의 노동 공급으로 기업 수익 증가폭에 비해 실질 임금상승은 제한적인 상황
 - * 실질 임금상승률(전년 대비): (2018년 5월) 1.3% → (6월) 2.5% → (7월) 0.4%
 - * 취업자 비중: (여성) 2000년 40.8% → 2017년 43.8%, (노년층) 2000년 7.5% → 2017년 12.4%
- (소비) 고용 및 소득환경의 개선으로 전년대비 완만한 증가세 전망
 - (백화점) 대도시는 관광객과 부유층의 화장품, 장식품 등 잡화 소비로 호조
 - (대형마트) 주거용품, 의료품은 전년 대비 감소, 비식품부문은 고전
 - (편의점) 상품확충 등으로 객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출액이 2~3% 성장
 - (약국)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으로 신규 출점이 축소되고, 식품부문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소매점으로부터 수요층 이전이 성장을 견인하여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5% 성장 예상
- (물가)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증가세이지만 경기회복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 고용상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해 장기간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물가상승의 가능성은 낮음

□ (2019년 전망) 미·중 무역마찰의 지속과 소비세율 인상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 미·중 무역마찰이 2020년 미국 차기 대선 무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의 對세계 수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일본 기업 사장 100명 대상 설문결과 80%가 2020년까지 지속 예측
- 미국발 무역마찰로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나 해외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기업들은 미 연방은행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신흥국 및 자원보유국의 경기 하락, 영국의 EU 탈퇴 등의 리스크를 우려
 - * 일본 상장기업의 환율 전망: (2018년) 111엔 → (2019년) 105엔
- 2019년 10월 2차 소비세율 인상조치(8% → 10%)로 일시적인 경기침체 예상
 - 소비세 인상 이전의 수요급증 및 이에 따른 반동이나 실질소득의 감소에 따라 소비자 심리, 고용·소득환경, 물가 동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 1차로 소비세율을 인상(5% → 8%)했던 2014년에는 GDP가 전년 대비 0.5% 감소
- 올림픽과 관련된 설비투자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노동시장을 비롯한 규제·제도 개혁 등도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
 -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개인은 실질소득 감소, 기업은 업무효율화 추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발생

다. 산업 환경



자료원: 미즈호 산업 조사

□ (철강) 내수는 건조, 수출은 회복세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 요인 포함

* 일본 내수 전망치(전년대비 증가율, 세계 철강협회): (2018) 0.28% → (2019) 0.5%

- 내수는 조선을 제외하고는 제조업과 건설 분야의 안정적인 수요에 따라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도 생산 회복으로 증가세로 선회할 전망
 - 건설은 올림픽 관련 비주거용 건축이 증가할 전망이나 건설사업자나 강재 가공업자의 철강수요 증가는 미미
 - 단, 철강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인 자동차 업계에서 경량화를 위해 강재를 알루미늄, CFRP 등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어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 예상

□ (석유화학) 국내외 수요 증가에도 일본의 공급력 부족으로 생산·수출 감소 전망

- 기능성 소재용(자동차, 전자기기관련 소재)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도 수요는 증가할 전망

- 에틸렌 공장의 정기수리(2018년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속)로 생산량 및 수출량 다소 감소하여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
 - 2018년에는 일본 내 에틸렌 공장 12곳 중 7곳에서 정기수리를 진행해 실질 생산능력 저하로 에틸렌 생산은 감소
 - * 일본 내 에틸렌 생산 동향(2018년 9월): 생산량 47만 6,200톤(전년 동월비 10.9% 감소)

□ (석유) 일본의 구조적 원인과 정유업계 재편으로 국내 내수 및 공급이 동시에 감소

-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연료전환(휘발유 전용 → 하이브리드)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본 정유업계의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에 따라 업계가 재편 통합하여 공급 감소
 - * 현재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 구조 변화
 - 석유수요 감소로 1990년대 6만 개였던 주유소가 2017년에는 3만 747개로 급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국내시장의 과점화 방지를 위해 '수입촉진조치*'를 도입하여 한국제품의 對일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
 - * 수입촉진조치: 수입업체의 재고 변동위험을 줄여 수입품에 경쟁력을 부과하는 조치

□ (자동차) 상용차 수요하락과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일본 국내 판매량은 점차 감소할 전망

- (일본) 상용차의 일시적 수요하락과 승용차의 신형차 대체에 따른 판매감소와 더불어 2019년 소비세 인상으로 감소 전망
 -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517만 대가 판매될 전망
 - * 연도별 일본 자동차 판매대수(만 대): (2016) 497 → (2017) 523 → (2018p) 517
 - 미쯔비시 종합연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2017년 대비 6%정도인 30만 대의 수요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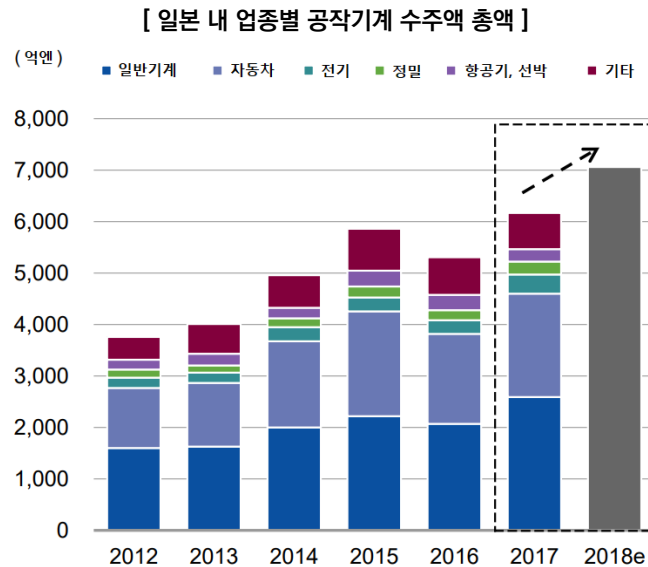
□ (섬유 및 의류) 일본의 섬유는 고기능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 의류는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나 단가는 감소추세

- 일본 내 섬유산업은 고기능화하고 있으며 의류뿐만 아니라 위생용품(기저귀 등), 산업자재(에어백), 의료,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
- 일본 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니클로 같은 대형점은 수요가 증가하나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고전

□ (공작기계) 수주액은 증가를 지속하여 2025년에는 2조 엔 규모로 성장 전망

- 중국, 북미,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일반기계 및 자동차용 부품 수요증가로 2018년 일본의 해외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6.4% 증가할 전망

- 중국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북미 지역에서는 일반기계, 자동차용 설비가 증가할 전망



자료원: 미즈호은행

□ (전자제품) 일본 내수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침체할 전망

- 일본 내수는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수요가 잠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침체할 전망
- (휴대폰) 2017년 기준 일본 내 휴대폰 점유율은 애플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
 - 2017년 총 출하대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3,746만 대이며,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8.1% 증가한 3,258만 대였음
 - 전체 휴대폰 중 업체별 출하량 점유율은 애플이 43.4%이며, 그 뒤가 샤프(13.6%), 소니모바일(10.9%), 삼성(10.3%), 후지츠(6.9%) 순임
- (PC나 태블릿) Window 10으로의 갱신에 따른 법인수요로 견조하나 개인용 수요는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하락세
 - 2018년 현재 일본 공립 학교의 학생당 PC 구비대수는 5.6명당 1대로 2017년말까지 3.6명당 1대라는 정부 목표에 미달
- (슬림형 TV) 출하대수가 4년 만에 반전하여 출하액이 증가하는 추세
 - 각 사이즈에서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도 계속되고 있음

□ (반도체) 2019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최대 20%까지 축소될 예정

- 가전용 아날로그 반도체 및 자율주행용 센서 등 다품종 소량생산되는 반도체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이나 서버용 및 스마트폰용 수요가 감소로 반도체 단가가 하락세
- 자동차의 자동화·전장화 확산으로 핵심기술인 반도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출하규모는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화장품) 일본 화장품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 예상

- *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2017년 기준, 비중): (미국) 18.5%, (중국) 11.5%, (일본) 7.8%, (한국) 2.7%
- 일본 화장품 시장규모는 엔화 기준으로 2012~2017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
 - 2019년과 2020년에는 인바운드 소비와 도쿄올림픽 개최로 소비 확대 예상
 - * 2017년 일본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9%(5위), 전년 대비 17.4% 증가
- 방일 외국인의 수요확대와 경기회복으로 국내 수요확대가 시장 확대 견인
 - 2014년 10월 개정된 '외국인 여행자 소비세 면세제도'에서 화장품이 소비재 면세대상에 포함

□ (가공식품) 2017년 기준 일본 가공식품 시장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2.5조 엔 규모

- 음료, 주류, 조미료·조미식품, 일상식품 등이 전체 시장의 60% 차지
 - 주류는 소비자 이탈 등으로 가공식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과자, 디저트, 기호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소비자들의 웰빙 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식품류에서도 건강, 노화방지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2017년 기준 가장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샐러드 치킨으로 44.6% 증가(후지경제)

라. 정책·규제 환경

(1) 정부 정책

□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아베노믹스 지속 추진

- (양적완화) 현재의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물가안정목표(2%)까지 유지 계획
 -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 완화' 도입 이후 완화 기조 지속
 - 일본은행이 추진 중인 '장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하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권에서 움직임
 - * 단기금리 -0.1%, 장기금리(10년물) 0% 수준으로 유지, 장기 국채 보유잔액 연간 80조 엔씩 늘어나도록 매입

- (재정정책) 경기 흐름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정책을 도입
 - 경기 신규 수요창출과 인재 투자 및 생산성 확대를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8년 히로시마 홍수·오사카 태풍, 홋카이도 지진 등 재해 복구에도 상당한 자금 지원

- (2013. 1. 11)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 13.1조 엔 규모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 및 방재 대책, 연구개발,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고용 대책 등
- (2013. 12. 5)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5.5조 엔 규모
 - 에너지 가격 등 기업경쟁력 강화, 여성과 약자 등을 위한 시책, 방재 및 안전대책 등
- (2014. 12. 27) 지방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 3.5조 엔 규모
 - 국민생활 및 사업자 지원, 지방 활성화, 방재 및 부흥 가속화 등
- (2016. 8. 2) 미래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 28.1조 엔 규모
 - 1억 총 활약사회 가속,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중소기업·영세업자 및 지방지원 등

- (성장전략) 민간의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기업 투자유도 정책 추진
 - 엔고 해소, 법인세 인하, 노동규제 및 환경규제 완화, 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기업을 위한 정책 도입
 - 그밖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확대 등에서도 성과 거양

□ 2015년 9월 2차 아베노믹스의 신 ‘세 개의 화살’ 발표

- 1차 ‘세 개의 화살’을 통해 주가상승, 기업수익 개선, 실업률 개선 등의 성과는 올렸으나 그 혜택이 지방과 비정규직까지 파급되지 못함
- 2차 성장전략의 최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우며 ‘1억 총 활약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아베노믹스 정책을 추진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의 변천]

세 개의 화살(2013년)	新 세 개의 화살(2015년)
① 질적·양적 금융완화	① 희망을 만드는 강한 경제 -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
② 신속한 재정정책	② 꿈을 자아내는 육아지원 - 출산율을 1.8명으로 회복(2016년 기준 1.44명)
③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③ 안심으로 이어지는 사회보장 - 50년 후에 인구(1억 명) 유지를 위한 1억 총 활약

□ 2017년 미래투자전략을 위한 신성장전략 발표

- IoT,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사회상인 'Society 5.0'을 실현할 목적이며, 이를 위해 전략분야 5개를 선정해 업계를 선도할 계획 수립

'Society 5.0'을 향한 전략분야

- (1) (건강수명 연장)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 (2) (이동혁명 실현) 이동 서비스의 고도화 추진과 데이터의 전략적 수집
- (3) (공급망 첨단화) 데이터 연대의 제도정비 및 선진사례 창출
- (4) (쾌적한 인프라·도시 만들기) 인프라 정비·지속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 (5) (핀테크) 오픈 이노베이션/현금 없는 사회 추진 가속

□ 2018년 3대 주요 정책의 변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일하는 방식 개혁

- (개헌)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항목을 구체화, 2019년 참의원 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개정 실현을 위한 작업을 추진
 - 1947년 5월 3일 개정된 일본의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며 2차 대전 패전 이후 미군정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군대 보유 금지조항을 포함

'헌법 제2장 제9조' 내용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고, 국권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 (방위력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국민 안전 보장 강화
 -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조달 비용을 포함
- (일하는 방식 개혁) 저출산 및 고령화 위기 타개를 위한 1억 총 활약사회 강조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 상한규제 도입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 등이 골자

(2) 통상정책

□ 일본은 2018년 현재 총 18개의 EPA*를 발효 및 서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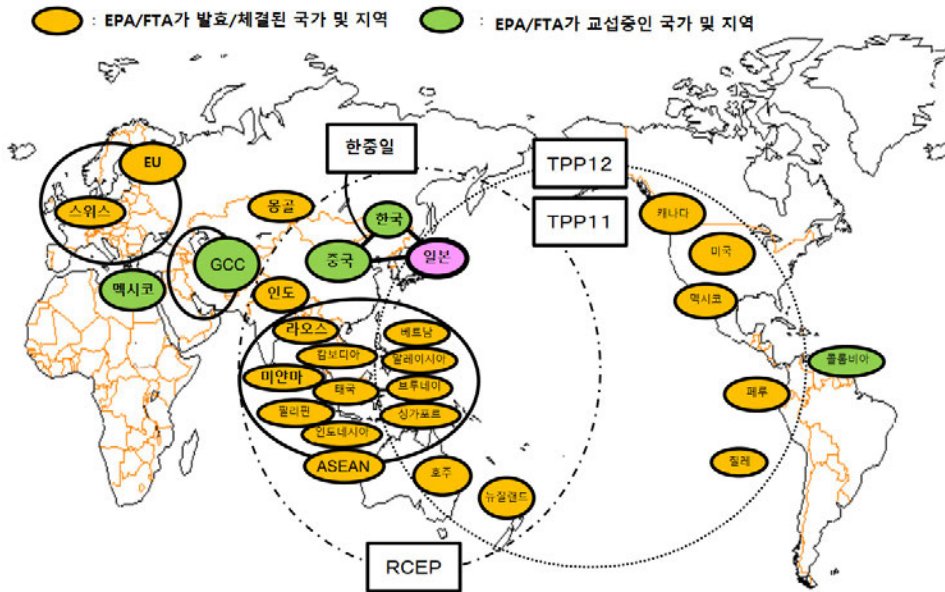
* EPA: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

- EPA 체결 국가들과의 무역규모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6%(미국 제외 시 36.5%)를 차지
 - 현재 교섭 중인 EPA 상대국과의 무역규모를 포함하면 85.8% 차지
 - ‘미래투자전략 2018’에 따르면 2018년까지 FTA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기업의 EPA 활용은 일·태국 EPA(2007년 11월) 이후 본격화
 - EPA 발효 국가가 증가할수록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4,874건에 불과했던 발급건수가 2015년에는 23만 4,288건으로 증가

□ 일본, CPTPP 재협상을 주도하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 2016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서명에 이르렀던 TPP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탈 표명으로 발효 불가능이라는 견해가 대세였음
 - 미·일 양국은 TPP와는 별도로 2019년 1월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
- 일본은 TPP 협상 결렬 위기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재협상을 주도
- 6개국 비준 완료로 CPTPP 18년 12월 30일 발효
 - CPTPP는 상품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95% 이상의 자유화를 합의했으며 회원국마다 민감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양허유형과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현황]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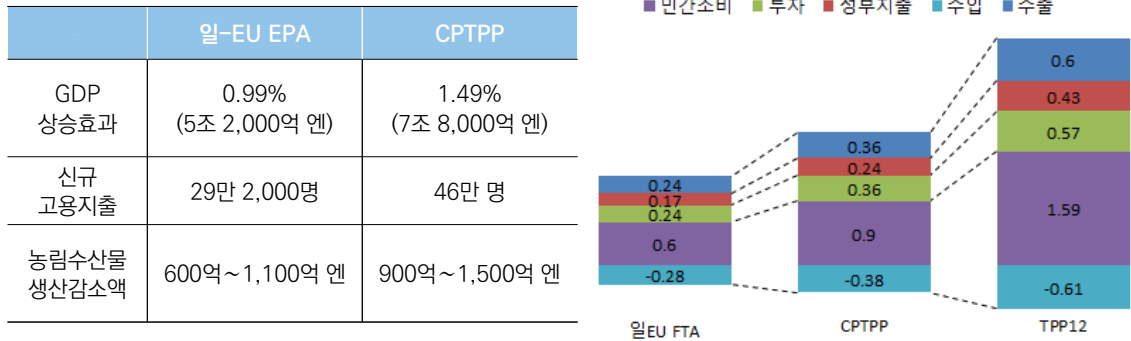
-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제공동체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자유 무역 주도국으로서 일본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음

□ 메가 FTA(CPTPP, 일-EU EPA)를 지렛대로 일본 경제 활성화를 도모

* 일-EU EPA: 2018년 7월 서명, 2019년 3월 발효 예정

- CPTPP와 일-EU EPA의 경제효과를 합산할 경우 미국이 포함된 TPP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제외된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 참여국 역내 인구 5억 명을 포함
 - CPTPP의 경제규모는 ASEAN의 4배이며, 참가국 전체 99%의 품목 관세가 철폐됨
 - 일본 정부는 CPTPP에 의한 GDP 상승효과를 1.49%, 일-EU EPA에 의한 GDP 상승효과를 0.99%로 전망

[CPTPP, 일-EU EPA, TPP12의 경제효과 비교]



자료원: 내각관방 TPP 등 정부대책본부

- 국제무역투자연구소가 추산한 CPTPP의 관세절감 효과를 보면, 국별로는 칠레, 상품별로는 농수산품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CPTPP의 국별 관세절감 효과는 칠레,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남
 - 상품별로는 농수산물 및 식료품, 알코올, 가죽·모피·핸드백(주로 베트남 수출용), 섬유 제품·신발, 수송용 기계·부품의 관세삭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CPTPP는 일본의 FDI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 CPTPP의 합의 내용에 따라 참가국은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등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참가국 간 투자활성화가 기대
 - *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 베트남은 지방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출자 비율 규제완화 등을 추진
 - 이 외에도 비자 발급 투명성·속도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

2. 시장 분석

- (시장) 세계적으로 기초·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장인기업의 메카
- (소비구조) 장기 불황으로 절약형 소비와 프리미엄 가치소비로 소비구조 양분화
- (수출) 엔화 가치 하락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은 확대 기조를 유지
- (투자) 일본 국내시장 축소를 배경으로 해외 직접투자도 증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세계 초일류 기업 다수 보유

-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 다수 존재
 - 2017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닛케이)에서 전체 71개 품목 중 미국이 24개, 중국이 9개 품목에서 선두였으며, 일본은 10개 품목에서 선두
 - 포춘(Fortune)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전체의 10%가 넘는 52개사

[일본의 세계 1위 기업]

품목	회사명	점유율(%)	품목	회사명	점유율(%)
CMOS 센서	소니	52.2	마이크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19.9
리튬이온 전지용절연체	아사히	16.7	이륜차	혼다	35.1
	도레이	9.5		야마하	10.0
상용차	도요타	19.0	타이어	브리지스톤	14.6
중소형 액정패널	재팬 디스플레이	20.0	렌즈 교환식 카메라	캐논	49.1
	샤프	10.8		니콘	24.9
레이저 복사기	리코	18.1		소니	13.3
	제록스	16.7	디지털 카메라	캐논	43.4
	캐논	16.6		니콘	25.7
				소니	20.0

자료원: 일본경제신문사(2018. 7. 9)

- 다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일본 기업 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
 - * 포춘(fortune) 5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 수(개사): (2014) 57 → (2015) 54 → (2016) 52 → (2017) 51 → (2018) 52

□ 세계적인 R&D 투자국으로 이노베이션 허브 역할 수행

- 일본은 연구개발 및 이노베이션에 대해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당 국제 출원 건수 및 출원 거주국별 특허 등록건수가 세계 1위
 - 특허 출원자의 국적: 일본 29.1만 건, 미국 25만 건, 중국 17.6만 건(WIPO)

[국가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자 수]

(단위: 억 달러, %, 만 명, 명)

순위	국가명	연구비	對GDP 비중	순위	국가명	연구자수	인구 1인당
1	일본	1,786	3.56	1	일본	66.2	52.1
2	독일	1,088	2.90	2	캐나다	15.9	45.3
3	미국	4,570	2.74	3	독일	35.1	43.4
4	프랑스	588	2.26	4	영국	27.4	42.3
5	영국	442	1.70	5	미국	130.8	41.3
6	캐나다	258	1.61	6	프랑스	26.9	40.7
7	이탈리아	277	1.29	7	이탈리아	12.0	19.7

자료원: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5"

-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2000년부터 총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 기초과학 분야가 뛰어난 배경에는 ① 과학자들의 순수연구 중시 경향 ② 장기 연구 프로젝트 추진 ③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 강화 ④ 100년 이상 축적된 연구 지식과 다양한 연구 풀이 반영(한국경제신문, 2018. 10. 4)

□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일본은 10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한 장수기업이 존재

- 일본에는 10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하는 전통기업(개인 상점이나 중소기업을 포함) 수가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중 4만 5천 개가 제조업에 해당됨
- 창업 이래 1,000년 이상 존속한 일본 기업도 7개나 존재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578년에 창업한 ‘곤고 구미’는 종합건설사로 사철 건축의 설계 및 시공, 문화재 복원 수리를 주업무로 함

□ 중산층이 두터운 소비시장이며, 절약형 소비와 프리미엄 소비로 구조 양분화

- 일본 GDP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1인당 GDP(명목)가 4만 달러를 넘음
 - 새로운 소비층으로는 맞벌이 여성,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있음
 - 일본의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27%로 세계 1위이며, 2025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30%를 초과할 전망으로 건강지향형 소비가 지속 확대될 전망
- 장기불황으로 절약형 소비와 가치추구형 프리미엄 소비로 이분화
 - * PB 상품 시장규모: (2014) 2조 9,855억 엔 → (2015) 3조 1,084억 엔(잠정)
 - * 가격 중시 소비자 비율 감소: (2000) 40% → (2015) 24%
 - 생활필수품에는 가급적 저가상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애착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경향

□ 복잡한 유통구조 및 관행적인 신용거래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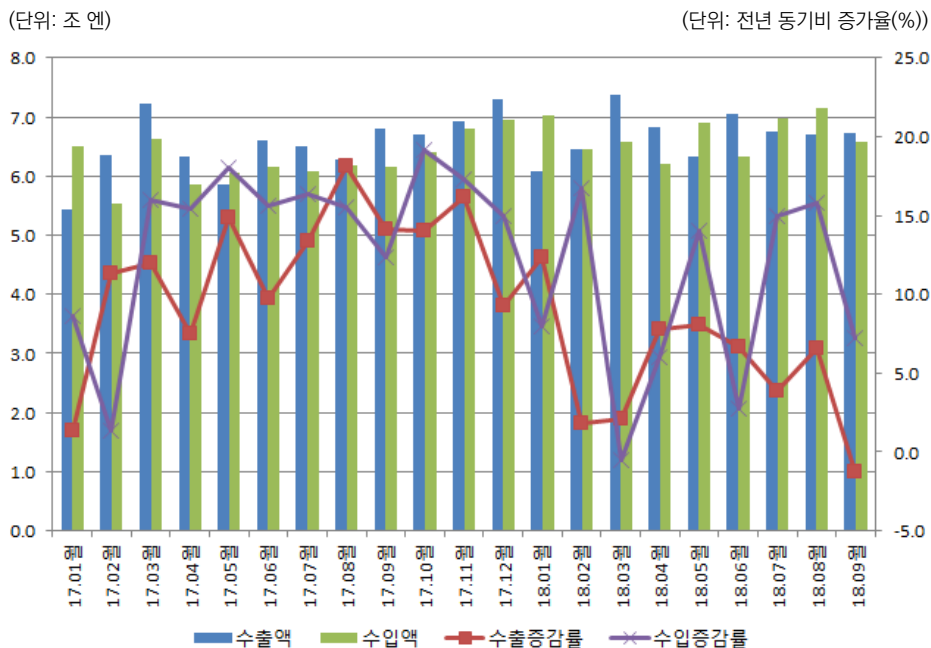
- 일본 유통구조의 특성은 ① 도매, 소매업체의 수가 많고 중소, 영세 규모 업체의 비율이 높으며, ② 1차 도매, 2차 도매, 3차 도매 등 상품의 유통경로가 다단계로 복잡
 - 이로 인해 해외기업의 일본 진출이 어렵고 국내의 가격차이 및 유통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소비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납품 후 결제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용이 매우 중요함. 이로 인해 신규 시장진입이 어려운 반면, 회사 신용정보 서비스가 발달
 - * 일본의 2대 신용정보회사인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사와 도쿄 상공리서치는 100년 이상 운영

나. 수출

□ 2017년 일본의 對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 2018년에도 상승세 지속

* 일본의 對세계 수출(조 엔): (2015) 75.6 → (2016) 70.0 → (2017) 78.3 → (2018. 1~9) 60.3

[일본의 월별 수출 및 수입 동향]



자료원: 일본 관세청, 전국무역통계

- (품목별) 2018년 9월 누적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비 6.4% 증가했으며 수입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의 증가로 13.0% 증가
 - 2018년 10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112.90엔으로 전년 동월 112.40엔과 유사
 - * 2018년 9월 누적 일본 對세계 수출증가율: 자동차(4.6%), 일반기계(7.4%), 전자기기(3.5%)
 - * 2018년 9월 누적 일본 對세계 수입증가율: 원유(19.8%), 전자기기(3.1%), 일반기계(7.8%)
- (국가별) 2018년 9월 누적 기준 일본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국이며, 일본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대상국은 미국임

【 일본의 주요 국가별 수출 및 수입 동향 】

(단위: 억 엔, %)

		전 세계	중국	미국	한국	대만
수출	금액	602,907	116,393	112,103	43,470	34,770
	비중	100	19.3	18.6	7.2	5.8
수입	금액	602,423	138,164	65,193	25,962	21,883
	비중	100	22.9	10.8	4.3	3.6

자료원: 일본 관세청, 전국무역통계

- (물량·단가) 2018년 상반기 수출물량 3.0% 증가와 단가 3.1% 증가
 - 수출, 수입 금액의 증가율에 비해 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음
 - 반면, 단가가 높은 고급품의 교역이 증가했음. 특히 EU와의 교역 단가가 크게 증가

【 일본의 수출금액의 수출물량과 단가 증감률 비교(2018년 1~6월) 】

(단위: %)

	수출			수입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세계	6.2	3.0	3.1	7.5	1.6	5.8
미국	2.4	4.0	-1.6	5.9	5.2	0.7
E U	8.8	0.3	8.6	11.2	3.6	7.3
아시아	6.6	1.8	4.7	5.6	3.0	2.6
중국	10.4	7.3	2.9	2.7	0.6	2.1

자료원: 일본 관세청, 전국무역통계

다. 투자진출

(1)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 일본은 OECD 기준 2017년 사상 최고 해외투자액을 기록하면서 세계 2위의 투자진출국으로 부상

* 투자액 추이(달러, OECD 기준): (2015) 1,342억 → (2016) 1,452억 → (2017) 1,605억

-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 기업들이 생산과 전력공급 차질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확대
 - 최근에는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를 배경으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기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금액은 1,193억 달러를 기록
 - 일본 기업의 해외 M&A 투자는 2018년 상반기 약 12조 엔으로 동기간 최대치를 기록함. 건수도 340건으로 역대 최대치

[국가 및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월	
					금액	구성비
전세계	138,018	136,428	173,855	168,587	119,374	100
아시아	43,407	34,477	13,745	38,266	41,570	34.8
중국	10,889	10,077	9,453	9,679	7,715	6.5
ASEAN	22,820	20,624	-5,340	22,011	24,712	20.7
싱가포르	8,145	6,779	-18,581	9,677	12,677	10.6
태국	5,568	3,926	4,632	4,724	5,650	4.7
인도네시아	4,835	3,306	2,957	3,388	3,170	2.7
말레이시아	1,291	2,893	1,394	935	454	0.4
북미	51,350	50,630	53,327	52,879	14,720	12.3
미국	49,437	49,319	52,584	51,981	12,786	10.7
중남미	6,266	5,953	27,965	10,950	20,513	17.2
멕시코	1,203	1,188	1,872	1,201	998	0.8
브라질	3,183	430	898	-3,593	1,828	1.5
대양주	6,029	6,917	6,344	3,185	4,441	3.7
호주	4,604	5,943	4,696	2,213	3,747	3.1
유럽	28,447	36,109	72,157	59,536	36,123	30.3
EU	27,025	35,638	69,122	56,845	33,250	27.9
영국	6,273	14,017	49,983	21,628	17,412	14.6

자료원: JETRO, 재무성,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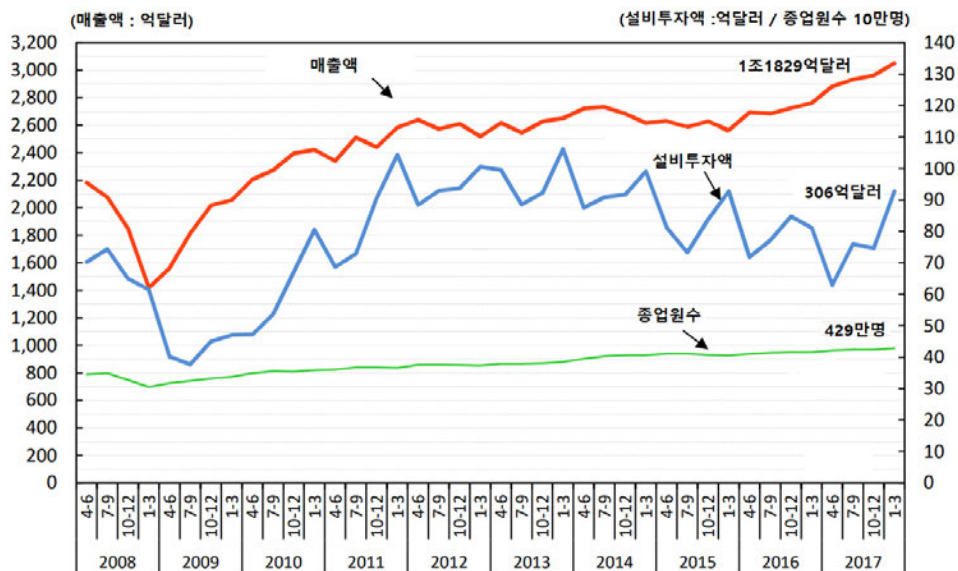
□ (국가별)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가 34.8%, 대 유럽 투자가 30.3% 차지

- 일본 기업이 주로 중국, 태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 설비에 투자하고 있음
 - 최근에는 아시아 기업의 M&A도 증가하여, '18년 상반기 기준 아시아 기업에 대한 M&A도 116건으로 미국(118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
 - 일본기업인 다케다약품공업이 아일랜드의 제약사 사이어사를 6조 8천억엔에 인수하는 M&A 안건이 발생

□ 해외 현지법인 매출액*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7년 1조 1,829억 달러 기록

- (매출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본 수출용의 매출액이 8.5% 증가
 - * 매출 비중: (현지 매출) 72.7%, (일본 수출용의 매출) 8.8%, (제3국 수출용의 매출) 18.4%
 - 업종별로는 수송기계가 전체의 57.3%를 차지한 6,3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 상승
 - 수송기계 매출액의 84.4%가 현지에서 판매되었으며, 일본으로의 수출비중은 2%에 불과
- (종업원 수) 2017년 해외 현지법인은 총 429만 명(전년 대비 3% 증가)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종업원이 295만 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
 - 가장 고용효과가 큰 업종은 수송기계로 168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기기계(106만 명), 범용·생산용·업무용 기계(47만 명) 순으로 집계

[일본의 해외 현지법인 운영실적]



자료원: 경제산업성(해외 현지법인 분기별 조사)

(2)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 일본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실시

- (법인세) 일본 정부는 미국(40.75%), 프랑스(33.33%) 등에 비해 낮아진 실질 법인세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외자기업 유치 홍보를 강화

* 법인세 인하 추이(%): (2014) 34.62 → (2015) 32.11 → (2016) 29.97 → (2018) 29.74

- (거대시장) GDP 기준으로 세계 3위를 자랑하며, 도쿄, 오사카의 인구 집약도가 세계 최대 수준

- (투자매력도) 외국기업 197개사 중 86%가 일본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응답

* JETRO, 「2016년 대일투자보고서」

□ 2018년 1~9월 일본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8.7% 증가

- 일본의 최대 외국인투자 지역은 유럽이고, 주요 업종은 제약,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증가함.
- 미국의 대일투자는 주로 금융보험업을 비롯하여, 소매, 통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히 전개
- 중동의 대일 투자규모는 2018년 1~9월 기준으로 13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14	2015	2016	2017	2018 (1~9)	
						금액	구성비
세계		19,770	5,253	39,314	18,840	20,006	100.0
아시아		6,384	5,591	8,269	5,668	2,921	14.6
	중국	767	636	- 93	966	662	3.3
	한국	669	932	593	974	1,670	8.3
	ASEAN4	1,648	2,324	3,814	3,203	1,409	7.0
	싱가포르	1,362	1,893	3,143	3,447	-1,952	-
	태국	153	335	662	- 444	1,182	5.9
북미		7,141	4,313	6,303	5,738	2,547	12.7
	미국	7,131	4,338	6,293	5,831	2,528	12.6
중남미		716	- 1,957	1,716	2,636	4,068	20.3
대양주		586	- 651	814	247	2,317	11.6
	호주	422	- 660	745	252	2,301	11.5
유럽		4,350	- 2,264	22,018	4,480	6,831	34.1
	독일	1,259	- 3,394	823	663	1,104	5.5
	영국	432	- 1,527	5,601	- 3,845	3,814	19.1
	프랑스	1,998	2,063	4,583	4,000	2,543	12.7
중동		579	228	159	62	1,316	6.6
아프리카		13	- 7	35	9	7	0.0

자료원: JETRO, 재무성, 일본은행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 (교역) 일본은 한국의 5대 수출대상국이며 3위 수입대상국
 - 석유화학, 가정용 고가 전자제품, 중간재 위주로 대일 수출이 증대
 - 기업규모별 대일 수출 비중을 보면,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대기업 비중을 상회
- (투자) 제조업뿐만 아니라 호텔, 부동산 등 서비스 분야의 대한 투자 증가
 -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ICT 분야 유망스타트업 및 IT 보완 솔루션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추진

가. 교역

□ 일본은 2018년 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5대 수출대상국이며 3위 수입대상국

- 2018년 10월까지 對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254억 달러이며, 수입은 1.2% 증가한 460억 달러
 - * 전 세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5,053억 달러, 수입은 13.0% 증가한 4,442억 달러
- 전체 교역에서 일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 對일 수출비중(%): (1988) 34.6 → (1997) 11.1% → (2007) 6.0 → (2016) 4.9 → (2018. 1~10) 5.0
 - * 對일 수입비중(%): (1988) 50.4 → (1997) 20.7 → (2007) 15.3 → (2016) 11.7 → (2018. 1~10) 10.4

[한·일 교역현황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對日
2011	397	7.1	40.8	683	13.0	6.3	-286
2012	388	7.1	-2.2	644	12.4	-5.8	-256
2013	347	6.2	-10.7	600	11.6	-6.7	-254
2014	322	5.6	-7.2	538	10.2	-10.4	-216
2015	256	4.9	-20.5	459	10.5	-14.7	-203
2016	244	4.9	-4.8	475	11.7	3.5	-231
2017	268	4.7	10.1	551	11.5	16.1	-283
2018(1~10)	254	5.0	16.3	460	10.4	1.2	-206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통계

□ 2018년 1~10월 기준 전체 수출의 23.6%를 차지하는 석유 관련 수출증가가 전체 수출증가 견인

* 주요 수출품목 증감률(2018년 10월 누적기준): 석유제품(92.6%), 석유화학제품(39.6%)

- (석유제품) 일본의 수입촉진조치와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으로 수출 확대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국내시장의 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촉진조치'를 조건으로 JXTG와 이데미츠, 쇼와셀석유의 합병을 승인함
 - * 수입촉진조치: 수입업체의 재고 변동위험을 줄여 수입품에 경쟁력을 부과하는 조치
 - 일본에 수입되는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제품의 가격이 일본제품에 비해 1리터당 3~4엔 저렴
- (석유화학제품) 일본 국내 주요 기업의 설비 축소, 설비 문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포장 필름이나 식품용기 등에 사용하는 범용 합성수지의 수입 급증
 - 식품 포장, 자동차부품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의 2018년 1~6월 수입량은 2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
 - 석유화학업체의 설비 감축으로 일본 전체 에틸렌 생산량은 10년 동안 20% 감소

[13대 수출품목의 對일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2017년 누계		2018년 누계(1. 1~11. 2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석유제품	3,027	30.6	4,560	87.7
철강제품	3,881	25.2	3,597	4.8
일반기계	2,922	5.0	2,732	5.7
석유화학제품	1,617	24.4	1,960	38.7
반도체	1,180	-19.8	1,105	7.7
자동차부품	937	2.5	816	-2.3
섬유류	773	-6.5	725	6.0
가전용 전자제품	574	-10.1	560	14.2
무선통신기기	587	-20.8	499	-1.6
컴퓨터	360	47.4	292	0.2
선박류	266	100.0	99	-58.1
평판디스플레이	95	44.7	95	14.9
자동차	29	-37.6	24	-6.6
13대	16,248	11.4	17,064	21.6
전체품목	26,816	10.1	27,055	15.8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통계

- (가정용 전자제품) 일본 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한 교체 수요의 증가로 수요가 확대 중
 - 에어컨 등 백색 가전의 10월 일본 국내 출하액은 전년 동월비 5.6% 증가한 1,523억 엔으로 6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상회
 -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의 교체 수요가 높아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이 호조
- (일반기계) 자동차 전용 생산자동화 및 효율화에 대한 투자 수요로 공작기계의 수출 확대

□ 중간재의 수출 확대가 전체 대일 수출을 견인

- 2012년부터 5년간 감소했던 대일 수출은 2017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대일 중간재 수출도 2017년부터 지속 증가하는 추세
 - * 중간재 비중(%): (2012) 71.9 → (2013) 74.2 → (2014) 73.9 → (2015) 71.6 → (2016) 71.8 → (2017) 73.6 → (2018. 1~10) 76.4
 -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對일본 수출과 일본의 對세계 수출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 한국의 對일 수출과 일본의 對세계 수출의 상관계수: (1988~1997) 0.40 → (1988~2017) 0.79

[가공단계별 한·일 수출비중]

	1차 산품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2011	2.1	10.0	14.0	73.9
2012	1.4	10.9	15.8	71.9
2013	1.6	11.0	13.2	74.2
2014	1.7	11.9	12.4	73.9
2015	1.7	13.1	13.5	71.6
2016	1.8	14.3	11.9	71.8
2017	1.9	12.4	11.9	73.6
2018 (1~9)	1.8	11.4	10.3	76.4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통계

□ 기업 규모별 對일 수출을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적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對일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2016년 63.7% → 2017년 55.3%)이 낮아진 이유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석유, 석유화학, 철강 등의 가격상승 및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대기업 제품의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비교]

	2014		2015		2016		2017	
	중소중견	대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중소중견	대기업
전체	33.8	66.1	35.9	63.9	37.6	62.2	34.3	65.5
아시아	37.7	62.2	40.3	59.6	41.3	58.6	36.5	63.4
일본	52.1	47.6	58.1	41.7	63.7	36.1	55.3	44.6
중동	30.1	69.8	31.0	68.9	35.4	64.4	41.5	58.4
유럽	32.9	66.7	32.1	67.8	34.5	65.3	33.5	66.4
북미	31.6	68.0	32.8	66.8	34.2	65.3	34.9	64.5
중남미	22.7	77.3	27.9	71.3	33.3	66.0	31.9	68.0
아프리카	22.2	77.6	26.5	73.2	20.0	79.7	19.3	80.4
대양주	15.1	84.8	18.7	81.2	20.6	79.3	10.3	89.6
기타 지역	8.2	91.3	12.8	76.4	21.2	73.8	68.3	31.6

자료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계(2018년 9월 일본지역본부 작성)

나. 투자

(1) 일본의 對한 투자

□ 2017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對한 투자

- 일본의 對한 투자규모는 2012년도 이후 감소세를 지속, 2017년에 잠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2018년 3분기 기준으로는 전년의 50% 수준
 -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해외진출이 증가했으며, 對한 투자도 증가
 -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경기호황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소재, 장비)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였고, 소비재·정보통신기술·금융 분야의 투자도 활발함
 - * 정보통신(1.5억 달러, +48.8%), 전기·전자(1.3억 달러, +16.6%), 비금속(1.3억 달러, +100%)
 - 화학, 반도체 등 설비의 증설이 이뤄지는 제조업 외에 일본 호텔의 한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
- 2018년 3분기까지의 투자신고금액은 전년대비 42.6% 감소한 9.7억 달러에 불과
 - 과거 일본의 對한국 투자는 한국의 Set Maker에 납품하기 위한 중간재의 제조설비 투자가 많았으나 한국 Set Maker가 해외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등 동 유형의 투자가 지속 감소 추세
 - 또한 최근 산업별 경기 침체 조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 투자 결정 유보 요인 증가

[일본의 對한 투자실적]

(단위: 건, 억 달러,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분기
건수	447	352	315	299	328	234
금액	26.9	24.9	16.6	12.5	18.4	9.7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Invest Korea 투자통계(신고 기준)

※ 일본 기업의 對한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사례

- (반도체용 고순도 흑연) 반도체 경기 활황에 대응하여 국내 완제품 기업 납품량 증가에 대응한 반도체 소재(흑연)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증액투자
- (스타트업 펀드) 세계적인 일본의 IT 그룹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ICT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펀드형 투자
- (IT 보안 솔루션)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이 한국 유망기업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신규 투자

(2) 한국의 對일 투자

□ 2018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對일 투자는 6억 8,088만 달러로 증가 추세

- 2018년 상반기 총 對일 투자금액은 6억 8,088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중 對일 투자금액 비중은 3%에 불과
 - 부동산업은 11개라는 낮은 신규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으로는 2억 5,619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 중에서 38.9%를 차지
 - 정보통신업(22.8%), 금융 및 보험업(20.4%) 등의 투자금액이 높은 순으로 나타남
-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활용한 對일 투자는 2019년 증가할 가능성
 - 아베정권은 일본재흥전략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대내직접투자 잔고기준 35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함
 -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사령탑으로 정부 각 조직을 일체화하여 규제, 행정수속의 개선을 착실히 추진

[한국의 對일 투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개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투자금액	757	495	809	320	836	681
신규 법인 수	200	171	197	2016	260	125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 강화

- 미·중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
 - 최근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로 전 세계가 빠르게 블록화되면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의 통상 정책 수정 필요
 - 한국은 한·일 FTA를 넘어 CPTPP 참가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교류 확대 필요
 - * CPTPP의 11개 회원국은 인구 5억 명, 국내총생산 기준 전 세계 12.9%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3위의 경제 블록 규모임, 한국은 CPTPP 11개 회원국 중 8개국과 FTA를 기체결
 - 추후 미국도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중국 주도의 RCEP를 넘어선 최대 규모의 경제권 탄생 예정
- 밀크런(더블넘버)을 활용한 한·일 교역 확대
 - 한·일 간 동일차량 운송물류 시스템(밀크런), 자동차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
 - * 밀크런(더블넘버): 한·일 양국 도로 주행을 허가받은 지정 트레일러를 활용한 물류방식. 항구에서 컨테이너 상 하역 작업이 생략되고, 쾌속 페리에 트럭채로 탑승하여 리드타임(납기) 및 비용의 획기적 절감 가능

[밀크런 방식에 의한 자동차부품 對일 수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수출액	6.2	683.2	1,621.4	2,325.5	2,790.5	4,158.1	4,369.4	15,954.3
증가율	-	11,019	137	43	20	53	5.1	-

자료원: 부산본부세관

- 더블넘버제의 활용 분야 철강·전자부품·식품 등 타 분야 확대 적용으로 양국 간 물류장벽 낮추어 교역 확대
 - * 닛산 자동차, 규슈 중국과도 더블넘버제 도입(2015. 10. 2), 한·중·일 트리플넘버제로 확대 가능
 - * 2018년 11월 14일 후쿠오카에서 규슈 경제권 소재 일본 기업 50개사를 초청하여 '밀크런 홍보설명회' 개최
- 對한 수출실적이 많은 일본 기업 참여를 유치, 물류 부가가치 창출 추진
 - * 반도체 제조장비 및 전기전자 분야 수입 시 동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한국 측 수입비용 절감 기대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모색

○ 로봇산업 협력 강화

- 현재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
- 고령자 친화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로봇 활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 일본 서비스 로봇시장 전망: 600억 엔(2014년) → 1조 241억 엔(2020년)
- 일본은 노동력 부족 및 고위험 산업현장에서의 점검수단으로 로봇을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커피전문점이나 호텔, 은행에서도 로봇 도입을 시작
 - * 20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 2020년까지 로봇시장을 제조업 분야는 2015년의 약 2배, 서비스 분야는 10배로 확대하여 총 2조 4천억 엔 시장으로 육성할 것을 발표
- 한국의 경우 제조업 혁신 3.0을 통하여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산업혁신 정책을 추진 중으로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
 - * 스마트 공장 1만 개 확산, 융합신산업 조기 창출 등 추진 중

○ 의료·간병 산업협력 강화

- 의료·간병 산업은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망산업
- 일본의 의료·간병 산업의 성장전략은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관련 산업육성, R&D 집중화*, 헬스케어 시장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화가 궁극적인 목표
 - *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최첨단 신속 평가제도를 도입, 의료분야의 R&D 기능을 총괄하는 일본판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e U.S)로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립
- 일본의 경우, 기존에 공적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간병 서비스뿐만 아니라 운동·돌봄 지원, 예방·진단·사후관리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와 같은 공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 한국은 원격 의료지원에 필요한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한 IT-Health, 정밀의학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보유

○ 인적교류 확대

- 일본정부의 외국인 인재 활용정책 및 체류자격 신설과 일본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노력 확대
 - *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명): 90만 7,896(2015년) → 108만 3,769(2016년) → 127만 8,670명(2017년)
- 한국의 경우, 실업난 해소를 위해 K-Move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
 - * K-move를 통한 일본 취업현황(명): 632(2015년) → 1,103(2016년) → 1,427(2017년)

□ 신성장산업 분야 협력기반 강화

○ 사물인터넷(IoT)의 경제 전반 확산

- 일본 총무성은 2017년 정보통신백서에서 IoT의 폭발적 증가를 전망
 - *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수가 2016년 현재 173억 대에서 연평균 15% 성장하여 2020년 약 304억 대로 확대 될 것으로 추산
- 일본 정부는 2017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 IoT·빅데이터·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활용,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실현을 강조
- 2020년까지 5G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양국 기업들의 표준화 노력
 - *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2020년에 맞추어 통신 대기업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3사의 상용화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
 - * 한국의 경우, KT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준비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2019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 예정

○ ICT를 활용한 올림픽 추진 협력체계 구축

- 일본 총무성은 2015년 7월, 2020년을 향한 사회 전체 ICT화 8대 분야 액션플랜* 발표, 도쿄올림픽 이후에도 ICT 기반을 활용, 일본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책 실시 예정
 - * 중점 8대 분야: ① 무선공중 LAN 환경 정비, ② ICT 활용 다국어 실현, ③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 확대, ④ 5G 실현, ⑤ 오픈데이터 활용환경 정비, ⑥ 방송 콘텐츠 해외전개, ⑦ 안전한 사이버 공간 실현, ⑧ 4K·8K 추진
- 도쿄올림픽에서 활용 가능한 평창올림픽의 선진 ICT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
 - * 스마트한 입국수속, 스마트한 이동 및 ICT 기반의 경기 송출, 체류 지원

○ 스마트 농업 분야 협력

- 현재 양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후계자 문제가 심각
 - * 한국과 일본의 농업종사자 평균연령은 각각 65.6세(경영주 평균, 관세청 농림어업조사, 2015), 67.0세임(2015년 농림수산성 조사)
- TPP, 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은 값싼 해외 농산물의 수입증가를 야기하여 농가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일본 정부는 스마트 농업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품질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도모
- 한국은 창조경제 구현 추진과제 중 하나로 '농림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선정하여 농업과 과학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노력 강화

□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한·일 협력 강화

○ 자동차 산업 협업을 통한 제3국 진출 확대

- 일본 국내시장 축소, 해외시장 경쟁우위 확보 등을 겨냥한 일본 주요 완성차 메이커들의 해외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직접 조달 수요가 증가
 - * 일본 완성차 해외 생산: (2014) 1,748만 대 → (2015) 1,810만 대 → (2016) 1,900만 대
 - * Toyota: 멕시코 구아나 제2공장 설립 중(2019년 가동목표, 생산능력 20만 대), Matsuda와 미국 합작회사 및 신공장 설립 예정(2021년 목표, 16억 달러 규모)
- 한·일 양국 자동차부품 기업 제3국의 공동 진출, 전략적으로 양국 간 협력 수요를 발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현지 진출 연착륙 및 수익 확대 가능
 - * GP ASIA 2018(2018. 6, 방콕): 아세안, 일본, 서남아 3개 지역 협업, 제3국 진출 일본 기업과 한국기업 간 현지 거래 가능성 타진

○ 아시아 역내 인프라 투자진출 협력 강화

- 2015년 12월 AEC 출범에 따른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증대 기대감 확산. ADB를 통한 아시아 지역 ODA 확대 전망
- 아시아 역내 인프라 수요 증가, 일본의 자금력과 한국의 우수한 설계 시공능력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창출
- 아세안 지역에 막대한 ODA 자금 공급이 전망되는 상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한국기업은 기존 주력시장인 중동 이외 아세안의 신시장 개척 가능성 상승
 - * 한국 EPC 분야의 경우 ① 높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 ② 다양한 국가 및 환경에서의 경험, ③ 빠른 의사 결정과 추진력을 보유

○ 문화·콘텐츠 산업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 제조업 대비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대두
-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업은 대부분 독자적인 해외유통망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이기에 양국의 세계시장 공동 진출 플랫폼 마련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동전략 등 필요
- 한국은 일본 캐릭터의 인지도를 활용해 사업영역을 확장,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 및 관련 라이선스 등을 통한 수익 향상 기회 확보
- 체계적인 콘텐츠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여, 양국 협력기반 불법 콘텐츠 대응전략 마련

Ⅲ 진출전략

● 일본시장 진출전략은 ① 소비트렌드 변화 ② 인구구조 변화 ③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산업 변화 ④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일 양국을 둘러싼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진출협력 기회를 발굴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일본 지역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거래선 유지 가능
-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
- 한국제품의 품질이 높고, 저렴하며,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 소비재 업체의 인터넷 쇼핑몰 경험 다수
- 금융 IT 기술력 확보

약 점(Weakness)

- 높은 진입장벽 및 장기간의 거래기간 소요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일본 고유의 거래 관행
- 고품질의 자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
- 엔화 안정화로 우리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기 회(Opportunity)

- 초일류 부품 소재 기업이 리드하는 거대 내수시장
- 올림픽, 정부 경기부양책 등 공공투자
- 해외직구 등 인터넷 상거래 증가
-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3차 한류 재점화
- 일본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조달 확대
- 2020년까지 초등학교 영어교육 의무화

위 험(Threat)

- 미 트럼프 대통령의 對일 적자 개선 요구
- 경기개선에도 소비지출 회복 부진
- 중국의 저가 공략, 일본 기업의 높은 기술력
- 역사왜곡 등 우익 성향 정당의 장기집권
- CPTPP, 일-EU FTA 체결 시 관세혜택 배제
-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축소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제3한류 적극 활용 • 다경험의 IT 기술로 일본 4차 산업 대응 • 영어교육 및 태블릿 PC 관련 콘텐츠 수출	SNS 활용한 유통시장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日인재부족과 韓청년실업을 동시 해결 •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임, 웹툰 진출	종합적 4차 산업 진출방안 강구
WO 전략 (기회 포착)	• 전력소매 자유화에 대응한 현지기업과 제휴 • 일본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방재용품 수출	일본 정부정책에 맞춤형 사업 실시
WT 전략 (위협 대응)	• 맞벌이와 고령화로 인한 유통시장 변화 대응 • 해외진출 일본기업 대상 부품소재 현지납품	현지공장 설립+日 본사 접촉 → 납품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트렌드		2019년 진출전략
소비 트렌트 변화	제3차 한류	• (패션, 뷰티) 트렌디함을 강조하며 10~20대 여성 공략 • (콘텐츠) 기존의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접근
	K푸드	• B2B뿐만 아니라 B2C 접근도 필요 • 유명 레스토랑, 대형 유통망 등과 콜라보를 통한 제품소개 • SNS로 일상 공유를 즐기는 층을 위해 SNS 마케팅 활용
	편리함 간소함	• 일상생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 필요 •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장 유망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의 니즈에 맞추려는 노력 필요 •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령자의 시각으로 진출전략 수립
	저출산	• 기업형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아용품, 시설, 설비 수출 • 정부의 교육 정책(영어교육, 태블릿PC 배부)에 맞춘 사업
4차 산업 및 신기술 변화	4차 산업	• 일본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한 솔루션 제공 • 자사 제품에 대해 목표 시장을 명확히 하고 타겟팅 필요
	차세대 자동차	• CASE화에 따른 부품별 수요 증감 파악 필수 •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에 맞는 ICT 기업의 진출유망 • KOTRA 주최 핀포인트 전시상담회 등에 참가
	재난기술 금융기술	• 무더위 및 집중호우 등 수요 품목 및 성공사례 모니터링 •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초기자금 확보로 시장 진입
기업간 전략적 제휴	해외진출	• 일본의 글로벌 제조기업의 신사업 트렌드 파악 • KOTRA의 제3국 공동 GP사업으로 해외 생산거점에 납품
	전력소매 자유화	• 현지 영업력을 보유한 우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
	일본기업과 파트너링	• 일본 국내에서 조달이 한계를 보이는 반도체 제조장치, 공작기계 및 기계부품 분야가 일본 시장개척 유망품목으로 주목

가. (제3차 한류) 트렌디함을 무기로 다양한 마케팅 수단 활용 필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0~20대를 중심으로 한 3차 한류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예인 관련 상품 뿐만 아니라 화장, 패션, 식품, 콘텐츠까지 인기가 확산
-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 패션의류 및 화장품의 인기가 높으나 복잡한 유통망 등으로 인해 시장 단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 유통 다변화 및 홍보 강화 필요
- 콘텐츠는 스마트폰, 스마트TV의 보급으로 드라마, 영화, 웹툰의 진출이 용이한 상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1, 2차와는 다르게 3차 한류는 한류의 인기가 10~20대의 상품 구매로 연결
 - 한국 아이돌(트와이스, 방탄소년단, 몬스터엑스 등)이 일본 진출에 성공
 - * 2017년 여자 중고생 유행어 대상 4개 선정(마케팅 전문기관 AM 발표): (인물 부문) 트와이스1위, (물건 부문) 치즈닭갈비 1위 차지
 - 연예인 관련 상품뿐만 아니라 화장, 패션, 식품, 콘텐츠까지 인기 확장
 - 얼짱(オルチャン)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한국 화장품과 패션을 선호
 - * 일본경제신문이 베퉁시장 앱 '프릴'과 여성 1,6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대의 48%, 20대의 26%가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을 참고함

[일본 내 한류 붐 전개과정 및 현황]

구분	1차 한류(2003~2007)	2차 한류(2010~2012)	3차 한류(2017~현재)
대표사진			
한류 전개과정	● 드라마 '겨울연가' 인기로 스타에 대한 열광은 컸으나 한국제품 구매에는 한계 ☞ 배용준 소나타 광고 (2005년) → 판매부진	● 스마트폰, 화장품 등 광범위한 제품소비로 연결, 걸그룹을 통해 젊은 남성 팬층 확보 ☞ '마시는 홍초' KARA 광고 출연 후 매출 9배	● SNS를 통해 자생적으로 한류 확산 ☞ SNS용 비주얼이 좋은 제품 인기 ● 피부관리, 메이크업, 패션,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분야 한류 확산 중 ☞ 한국여행 패키지 인기, 한국어강좌 다수 개설, 댄스교실 K-Pop 강좌 개설 등

- 3차 한류의 주요 특징은 SNS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며, SNS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 제공하면서 자생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음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일본 10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
 - * 일본 뷰티 유튜버 '회사원A'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팔로워 수: 한국110만명, 일본 40만명)를 얻고 있으며 제품 소개 영상 업로드 후 1~2주 안에 해당 판매 품절 유도

【 지난 1년간 일본 내 구글 키워드 검색 결과 추이 】



자료원: google trend(2017. 10. 18~2018. 10. 18)

【 한국 관련 주요 인기 검색어 】

	인기 키워드	관련 키워드
1위	드라마	굿닥터, 구르미 그린 달빛
3위	요리	치즈, 요리법, 닭갈비
6위	여행	블로그, 호텔, 서울
12위	블로그	여행, 드라마, 뉴스
13위	아이돌	트와이스, BTS
14위	영화	연애
15위	화장품	아이메이크업, 얼짱
18위	패션	통판, 여성의류, 얼짱
22위	예능	뉴스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패션·뷰티] 일본의 10~20대 젊은 여성 대상,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이 핵심
 - (제품) 한국제품은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있으므로 신상품 등을 위주로 소비자 반응에 따른 실시간 제품 생산이 중요
 - * 단, 화장품의 경우 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 수입 시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 인증을 받아야 하며,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화장품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준비에 시간 소요
 - (가격) 일본에는 특히 가치형 소비자가 많아, 질이 좋은 한국제품은 도매상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가격 면에서 단가가 높다는 평가
 - * 일본은 복잡한 유통단계로 인해 생산단가의 3~4배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
 - * 일본 의류의 수입시장은 중국 제품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단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
 - (유통) Amazon, 라쿠텐 등의 온라인 마켓이 확대되는 추세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음. 이밖에도 일본으로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요 면세점을 활용한 진출도 유망
 - * 라쿠텐에서는 한국 패션 인기 상승에 따라 특화 사이트인 K-Fashion ST를 개설
 - * 한국 내 중국 관광객이 주춤하고 있으나 방일 중국 관광객은 한국제품을 여전히 선호
 - (홍보) 과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키워드 검색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인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경향]

Product (구매대상)	- 과거 고가제품 위주 소비에서 생활용품 위주로 변화 - 화장품, 의약품, 식품, 생활잡화, 가전 등이 대표적인 수혜품목
Price (지출내역)	- 1인당 지출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40% 이상을 쇼핑 및 레저 활동에 투입
Place (구매장소)	- 접근성이 좋은 면세점, 편의점을 비롯, 드럭스토어, 백화점, 가전양판점에서의 구매가 많음
Promotion (정보입수경로)	- 인터넷, 특히 실제 여행경험자의 입소문을 중시하는 경향 강함 - 귀국 후에도 자국의 백화점이나 역직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

자료원: 미즈이스미토모은행, 일본경제신문, 일본 관광국 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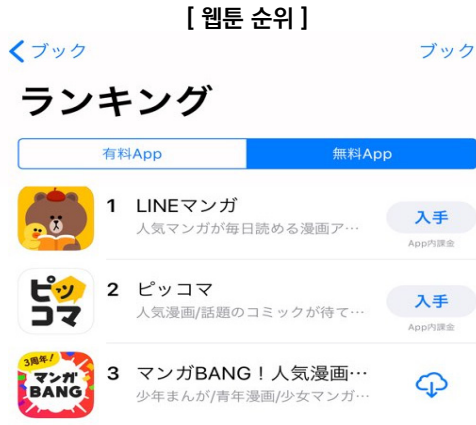
성공사례: '스타일난다' 한국 패션 의류 및 메이크업 업체

- 2004년에 의류사업으로 시작한 '스타일난다'는 개성을 중심으로 한 콘셉트로 시작, 최근에는 화장품에도 진출하여 발색력을 무기로 한 '3CE'를 런칭해 성공
- 일본 최대 백화점 이세탄 신주쿠점 입점에 이어 2017년 5월에는 도쿄의 패션 중심지 하라주쿠에 단독매장을 오픈, 2018년 5월 로레알이 4000억원에 매수



[KOTRA 라포레 팝업스토어]

- [콘텐츠]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을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소비
 - 2018년 3월 일본 정부가 방송사업의 규제 완화방침을 공개한 후,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드라마·영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아마존 프라임, dTV, 넷플릭스, hulu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제공 중
 - (웹툰) 네이버 라인망가, 카카오 픽코마 등 웹툰 플랫폼의 일본 진출로 한국 웹툰의 일본 진출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음. 한국에서 인기가 검증된 웹툰의 경우 번역을 거쳐 실시간으로 일본에서도 연재되고 있음
 - * 라인망가와 픽코마의 일본 시장점유율: (2017) 33.6% → (2018) 37.4%, 웹툰 부문 매출 1, 2위
 - * 라인의 경우 일본 국민의 생활 플랫폼으로 라인 메신저는 월 활성 이용자가 7,500만 명에 달함



나. (식품) 초간편·고령자용 식품 등 전문화로 일본식품 트렌드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인 가구 및 맛별이 인구에 따른 간편 식품, 고령자용 식품 및 젤리형 음식, 건강의식 고조에 따른 기능성 음료 등과 함께 K-FOOD라 불리는 한국 식품의 입지 강화
-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SNS를 통해 정보공유를 선호하는 10~20대 젊은 층 및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본인은 경험해보지 못한 맛'으로 홍보
- 익숙하지 않은 식품인 경우 시식 판촉행사를, 익숙한 식품의 경우 편의점에 활용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1인 가구와 맛별이 인구의 증가로 간편 식품이 성장세
 - '시간 절약'을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제품이 맛별이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 * 최근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간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슈퍼 조미료'가 등장, '가고메社'의 '야채가 들어간 반찬용 조미료', '키코망社'의 '초생강구이소스'가 대표적인바, 향후 성장세가 기대됨
-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자용 식품이나 도시락 등의 택배 서비스가 발달
 - * 고령자용 식품시장 규모 전망: 1,597억 엔(2017년) → 1,997억 엔(2025년)
 - 특히 치아가 약한 고령자도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이나 부담 없이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젤리 형태의 간식 수요가 큼

- 건강의식 고조로 음료시장에서는 기능성 음료와 파우치 젤리 음료가 큰 성장세
 - * 2017년 청량음료 시장이 전년대비 0.5% 증가한데 반해 에너지음료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하여 영양소 섭취와 식사 대체용 제품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SNS를 통해 알려진 한국 식품들은 'K-FOOD'라고 불리며 젊은 층에서 인기
 - 최근에는 매운 음식을 먹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신활여자(辛活女子)'가 화제, 치즈닭갈비, 불닭볶음면과 같은 매운 한국 음식이 더욱 주목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식품 분야는 B2B 방식으로 일본에 진출해도 소비자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10~20대까지 젊은 층 및 여성 고객을 타깃팅하는 것이 유리
 - 식품은 특히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받으나, 일본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층은 제품 그 자체를 중심으로 선택
- 일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익숙한 10~20대는 사진과 영상으로 한국음식을 보기 좋게 기록하고 SNS를 통해 전파하는 것을 선호
 - * 2017년 일본 중학생 중 유투버가 장래희망(소니생명보험): (남학생) 3위, (여학생) 10위
 - 큰 인기를 끌었던 치즈닭갈비와 새롭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치즈핫도그가 바로 10~20대를 중심으로 SNS상 붐이 형성된 식품들임
- 이미 포화상태인 일본 식품시장에서는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므로 '한국인에게 익숙하지만 일본인은 경험해보지 못한 맛'으로 홍보 필요

성공사례: CJ제일제당 브띠첼 미초

- 식초를 물에 타 먹는 것은 일본에서도 익숙한 문화이나, '과일 맛을 가미하여 달콤한 물에 타먹는 식초'라는 새로운 음용 방식이 일본 시장 공략 성공비결

- 가장 쉽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임
- 일본에게 익숙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할 경우 유통망,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과 협력하여 시식 행사나 요리 방법 등을 함께 홍보하는 것도 중요

[소비자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코스트코 시식 판촉행사 (2018년 9월)]



청정원 홍초 3종



청정원 닭도리탕



풀무원 떡볶이

- 일본 소비자들이 떡볶이와 같이 먹는 방법을 아는 제품의 경우, 편의점을 유통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함.
- 편의점은 종합 및 식품 슈퍼마켓에 비해 가격 인하 경쟁에 노출될 위험이 낮고, 백화점에 비해 판매력이 크며,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노출빈도가 높음
 - * 일본의 편의점 점포수: (2017) 5만 4822개 → (2018) 5만 7818개
 - * (주)영풍의 간편 떡볶이 '요보끼'는 돈키호테 등 할인판매점뿐만 아니라 편의점 로손에서도 판매 중

다. (편리함)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제품·서비스의 개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구매력이 높은 1인 및 2인(부부) 가구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
- 이들 세대는 간편성, 편리성을 강조하며 집안 생활공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
 - * '브랜드 재팬 2018'로 선정된 50개사 중 다수가 이들 세대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 실시
- 물건의 소유조차 귀찮아하는 소비자가 생겨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서비스시장 유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편리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 * 2017년 일본의 1인 가구는 약 1,360만 세대(27% 차지)로, 아이없는 부부 포함시 51%
- 또한 최근 여성 취업률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소비가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구매력이 높음
 - * 특히 맞벌이 가구는 최근 5년간 총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이 각각 2조 엔, 5,000억 엔 증가
- 일본경제신문은 가족형태가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점차 물건 보유, 시간 투입, 인간관계 형성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함

-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의 키워드로 ‘간편성·편리성’ 부상
 - 일본인 63%가 여가를 집안에서 보낸다고 응답*, 생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상품·서비스가 연달아 히트
 - 또한 이들은 SNS를 통해 본인의 취향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해 파급력이 높음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상생활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니즈를 충족하는 아이디어 상품 개발 필요

[집순이를 위한 히트상품]



카오사의 세탁용 세제
(덜 마른 빨래 냄새 제거)



다이슨사의 슈퍼소닉
(빠른 머리말림)



닌텐도 스위치
(집에서 온가족이 게임)

- ‘샐러드치킨(먹기 쉽게 가공한 닭가슴살)’을 처음으로 개발한 기업의 매출은 3년새 두 배 성장했으며, 기존 우유팩에 플라스틱 캡을 추가한 메이지사는 전년 대비 50%의 매출 증가를 보이는 등 히트 제품이 연달아 출시됨
- 물건·장소·기술 등의 소유를 귀찮아하는 新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시장이 유망
 - * 2018년 일본의 공유시장은 2014년 대비 두 배 성장한 462억 엔 규모에 도달(일본 총무성)
 - 자동차, 옷, 가방 등 물건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차장(아키퍼), 애완동물(도그허기), 요리 능력(셰어다인) 등에 대한 셰어링 서비스까지 등장함

라. (고령화) 고소득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편의 및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고령자의 수요가 확대
- 관련 가전시장 규모가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할 정도 급속도로 성장 중
 - * 파나소닉, 미쓰비시, 히타치제작소 등 고령자용 브랜드를 별도로 출시, 매출 성장으로 제품 확대 추세
-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고령자 시장을 분석하여 타겟팅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고령자용 가전시장
 - 일본 세대수 장래 추계 조사에 따르면 1인 세대 중 65세 고령자 비율은 2015년 32.6%에서 2040년 까지 40.0%로 증가할 전망
 - 시장 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자용 가전시장 규모는 2014년 450억 엔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17년 1,380억 엔으로 확대됨
- 고령자용 제품은 기능이 단순하고 체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제품이 다수
 - 전자기기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노인세대를 위해 자식이 원격으로 조작하고 부모는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아이디어상품이 개발
 - 가전제품은 1~2인 세대 생활에 맞는 크기, 건강하지만 체력이 약한 고령자를 위한 가벼움 및 편리함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호응을 얻고 있음
 - * 파나소닉과 미쓰비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전제품 브랜드인 'J콘셉트', '어르신 가전'을 각각 출시함. 특히 파나소닉의 'J콘셉트'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6개 제품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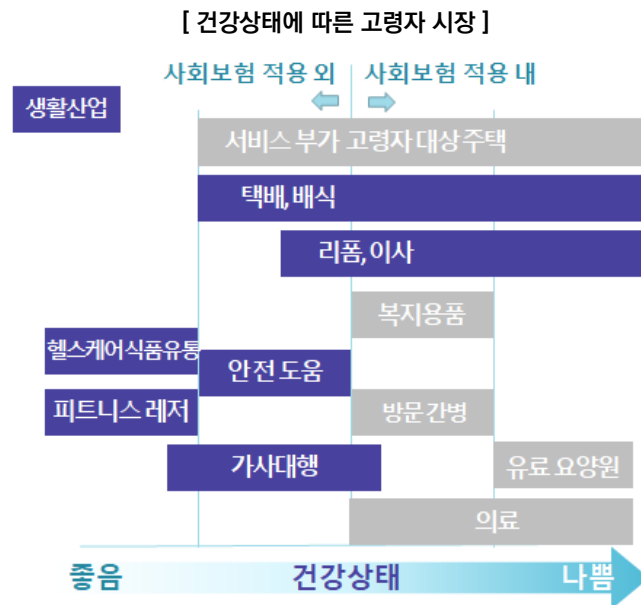
[고령자용으로 출시된 주요 가전제품 특징]

사진			
특징	2인용 소형 전기밥솥	수직형 세탁기	야채칸을 꺼내기 쉬운 냉장고
제조사	히타치제작소	파나소닉	파나소닉
공통점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거나 덜 굽혀도 되는 구조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닛케이 트렌디, 각 사 홈페이지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일본 고령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 세대의 가족 구성원 변화에 따른 수요를 파악하고 연령층에 맞는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로 공략해야 함
 - * 5000만엔(약 5억원) 초과 자산보유자의 69%가 60대 이상
 - 특히 생활경험이 풍부해 좋은 제품에 대한 안목이 높고, 주거공간과 음식 등 오랜 기간 쌓아 온 고집이 있는 고령자 세대의 니즈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
-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는 고령자 시장을 분석하여 타깃팅 필요
 - 가전 외에도 주택, 택배, 요양원, 생활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기회가 예상되므로 타깃팅 구체화 및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매년 간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직장인이 10만 명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서비스 산업 유망
 - *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붐세대, 1947~1949년생)이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간호인력이 약 34만 명 부족해질 전망 공표(후생노동성)
 - * 65세 인구의 1인당 의료비는 평균 74만 엔(전체 평균 의료비는 33만 엔)



- KOTRA 오사카 무역관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본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및 스마트 헬스케어 수출 상담회에 참가
 -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Medical Japan Osaka 전시회 한국관 운영 (2019.2.20 - 22/오사카 INTEX)

마. (유아용품) 사람 만들기(히토츠쿠리)에 따른 시장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8년 출산율은 2012년 1.26에 비해 1.43로 상승했으나 출생아 수는 94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일본 정부는 '희망출산율 1.8' 달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 중임
- 정부 주도의 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은 유아용품 관련 국내기업에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음
- 일본 정부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유망 전시회 등을 통해 홍보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2005년 1.26를 저점으로 2018년 1.43까지 증가
 - * 여성 1인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16년 1.45까지 증가했던 합계 출산율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하여 2018년 4월 1.43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를 기록, 출생아 수 35만 8,000명, 2018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
- 다만,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해당 연도 태어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여 명 적은 94만 6,060명으로 과거 최저를 경신
- 일본 정부는 희망 출산율 1.8를 '1억 총 활약 플랜'을 통한 실현 목표로 제시
 - 2017년 12월에는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람 만들기 혁명' 활동을 정리
 - 대표적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보육 대기아동 해소', '고등교육 무상화'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2019월 인상되는 소비세의 재원으로 교육 무상화를 약속한 상황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각 사업주 각출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보육사업(2016년 시작)'으로 기업 등이 신설된 보육시설 정비·운영에 나선 상황. 사업 시작 이후 2년 동안 7만 명 대상 지원환경이 갖춰진바, 향후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유아용품, 시설, 설비 수출이 유망할 것
- 현재 일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유아용품은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던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응

사례분석: 어린이용 매트 D사(수출)

- **(사례개요)** 2010년 설립된 국내기업 D사는 유아용품 전문기업으로, 일본 유아용품 전문기업 A사에 블록 매트 제품 수출에 성공
 - 일본 기업 A사는 카탈로그 통신판매 방식으로 일본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필요한 수입 및 자사 제품들을 공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비결)**
 - **(제품 용도에 맞는 탁월한 기능 보유는 필수!)** D사의 블록 소파 제품은 테트리스처럼 블록을 조합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압축 PE 내장재를 사용해 충격 흡수도를 높여 소음 방지 효과도 탁월. 일반 매트리스도 놀이를 겸한 구조로 제작해 활용도도 높음
 - **(집중 공략 시장을 사전분석으로 명확히!)** 일본 시장공략 초기 D사는 B2C 시장을 타깃으로 했으나 이미 경쟁사가 진출한 상태여서 경쟁을 피할 수 없던 상황. 또한 한국보다 방과 거실이 좁은 일본의 가정집보다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을 주요 타깃으로 공략하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판단하고 이후 B2B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성공적으로 작용
 - **(적극적인 바이어 대응!)** D사는 KOTRA 도쿄 무역관 지사화 가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바이어 대응을 추진. 그 결과 최근에는 바이어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상품까지 제작

- 한편 전시회 등 참가를 통해 한국과는 다른 일본 유아용품 시장 동향을 확인해가며 타깃 바이어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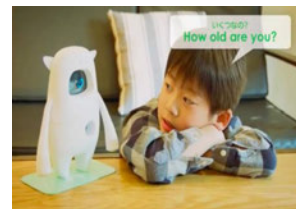
* 유아용품 유망 전시회로는 'Gift Show'가 있으며 2019년 2월 12~15일 도쿄에서 개최

- 일본인들의 영어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에 대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
 - 일본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중학교 입시시험에 영어를 시험과목으로 포함하는 학교들이 증가 중
 - 2020년까지 전국의 초중고 학생 1,3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 1태블릿 PC 배포를 계획, 이에 따라 교육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 * 1,300만 태블릿 PC 활용 시 태블릿 충전기 등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사례분석: 교육용 로봇 AKA사

(AI 엔진 및 로봇 개발, 일본에서 영어교육 로봇 Musio 판매 중)

- **(진출배경)** 2020년부터 일본의 중학교 입시시험에 영어과목이 도입. 이에 따른 영어교사의 인력부족을 배경으로 한 수요를 포착, 동 사는 영어학습용 AI 로봇으로 일본 시장에 도전. 또한 올림픽을 대비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에도 착안하여 사업을 전개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성공비결)** 자사가 일본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단계·분야별 Top-Tier 기업과의 제휴에 도전, 성공
 - 실증실험, 생산, 수리, 콘텐츠 개발, B2B, B2C 판매 및 CS 서비스, Musio 교실 등 사업을 디테일하게 나누어 각 단계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간 것이 성공의 포인트



KOTRA 영어교육 일본 진출 지원사업 소개

- (영어교육 세미나, 2018년 11월 27일, 도쿄) 일본 내 영어교육 관계자 100명 초청, 일본의 영어교육 의무화 계획 및 한·일 간 영어교육 비교, 한국업체의 실제 성공 사례 발표
- (영어교육 설명회 개최, 2019년 1월, 도쿄) 일본학원 연합회 주최 전시상담회 중 한국의 영어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 예정
- 2019년 중 한국 영어교육 기업을 초청, 일본 영어교육 관계자(기업, 정부, 교육기관) 간 상담회 개최 예정

바. (4차 산업) 탈아날로그 사회, 데이터 구동형 4차 산업 사회로의 변혁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산업', '경제', '행정·인프라', '지방·중소기업', '인적자본' 등, 전 사회·산업 분야의 변화를 도모
- 4차 산업기술은 일본기업도 새롭게 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제품·서비스에 강점이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본 정부는 '생활·산업', '경제', '행정·인프라', '지방·중소기업', '인적자본' 등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한 변화를 도모
 - * 미래투자전략 2017'에 이어 2018년 6월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2018'을 통해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혁을 추진
 - (생활·산업) 자동화를 통한 이동·물류혁명으로 인력부족 및 이동약자 문제를 해소하고, 원격화·실시간화로 지리적·시간적 제약 극복에 따른 신규 서비스 창출
 - * 자율주행, 자동번역 및 원거리에서도 최적의 의료·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
 - (경제 및 행정·인프라) 경제활동 기반을 양질의 '데이터'로 변화시키고, 행정업무 역시 디지털화. 이로 인해 인프라 관리 비용도 절감 가능
 - (지방·중소기업)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중소기업이 세계시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4차 산업을 활용해 다양한 니즈에 대응
 - (인적자본) 단순 작업이나 3D 직종을 AI나 로봇이 대체하게 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
- 정부 주도의 육성 중점분야와 관련 민관협력을 통해 세부 프로젝트 추진 중
 - (차세대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제공이 목표, 이를 위해 운영 사업자와의 제휴, 인프라 정비 등 추진
 -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에너지 제어, 축적, 수소 이용 등의 활용,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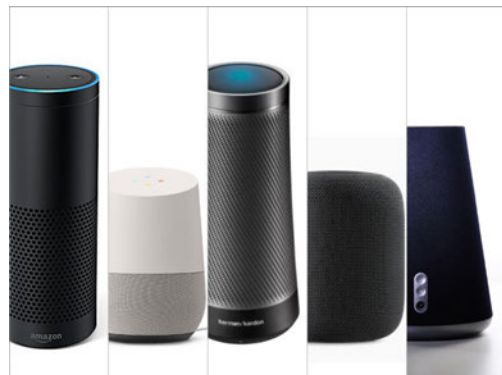
- (스마트화되는 농수산 분야) 농수산업 다방면에 AI·로봇을 도입, AI에 의한 숙련자 노하우 전수, 무인화, 인적 자본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 (핀테크를 통한 캐시리스 사회로의 이행) 금융·상거래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및 QR 코드 활용 규칙 정비 등이 이뤄질 것
- (중소·소규모 기업의 생산성 혁명) 해당 기업들의 IT 신기술, 로봇 도입 등 강력한 추진 지원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정부는 매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 4차 산업의 경제·사회적 활용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의 중점 산업분야 및 프로젝트 관련 접근이 일본 시장 진출에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일본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4차 산업은 특히 정부와 기업의 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음
- 4차 산업의 경우, 일본 사회에서도 새롭게 시장을 구축·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출을 꾀하는 국내기업들은 일본 시장에서 ‘어떠한 제품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사업모델 중심으로 접근해나가야 함
 - 자사의 서비스 및 제품 적용 가능 분야를 명확히 설정, 일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군과 거래·협력이 필요한지 명확히 타깃팅하여 접근할 것

참고자료: 일본 내 AI 스피커 동향

- 일본 대화형 AI 시스템 시장규모는 2017년 11억 엔에서 2022년 132억 엔 규모로 성장 가능
(야노경제연구소, 소프트웨어에 한함)
- 스마트홈과 연계하여 향후 발전가능성 높음
 - 일본은 ‘커넥티드 홈 얼라이언스(2017년 7월 발족)’를 통해 생활의 IoT를 추진 중
- 일본 내 가장 인기 있는 AI 스피커는 구글 홈
 - 세계 1위는 아마존, 2위 구글 홈
- 향후 AI 스피커와 호환되는 제품 개발 필요



[아마존 에코, 구글 홈, 라인 클로버웨이브]

- KOTRA에서 운영하는 도쿄 IT지원센터는 IT 기업(최대 17개사)의 일본 진출을 위한 사무실 임대, 일본 IT 바이어와의 상담회 및 교류회 개최, 출장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trait.or.jp>)

KOTRA 도쿄 IT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의 IT 솔루션을 소개

- 2018년 7월과 11월에는 각각 34개, 40개의 한국업체를 일본으로 초청 IT 전시상담회 개최
- 일본의 국가적 과제인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유용한 국내 IT 기업 3개사의 서비스·솔루션을 일본 기업 50개사에 소개, 큰 관심을 받았음 (2018년 2월)
 - 재택근무 솔루션, IT 운영 자동화, 비즈니스 규칙 엔진을 통한 업무 자동화 기술 소개

사. (차세대자동차) 현지 정보 수시 파악 및 거점 운영을 통한 전략적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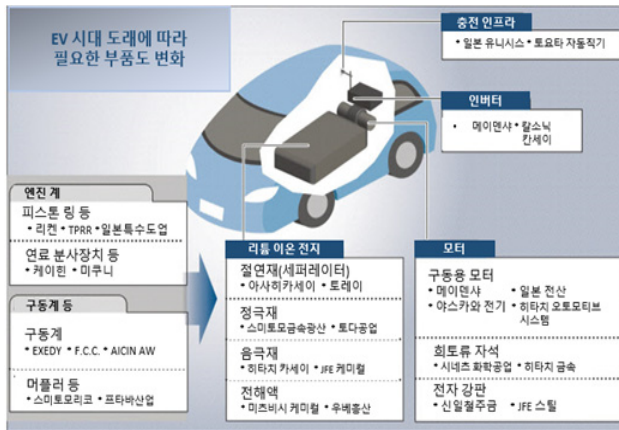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의 CASE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의 변화 등 각 완성차 업계는 과감한 변화 시도. 특히 중국의 전기차 생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 자동차 부품 변화뿐만 아니라 경량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중요성 확대
 - * 2035년까지 커넥티드카 비중이 93%로 확대, 카셰어링 시장규모는 2017년의 6.5배로 성장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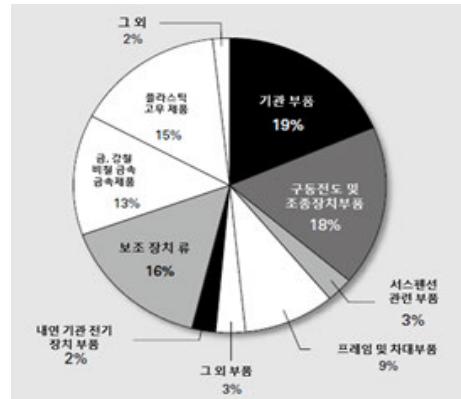
- CASE*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에 '100년 만의 위기'(도요타 아키오 사장)가 찾아오면서 산업의 패러다임 및 구조에 큰 변화가 진행 중
 - * CASE: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ed), 전기구동(Electric)
 -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에서 2020년 15%, 2030년 32%, 2040년 51%로 성장 전망
 - 차세대자동차의 부품이 모듈화·전자화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에서 마치 스마트폰과 유사한 수평 분업적 산업구조로 변화 추세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부가가치 시프트가 발생하면서 IT 및 통신 등 업종의 기업 혹은 스타트업 등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 진입 가능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부품 변화]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일본 자동차 부품별 시장구성 비율 전장화의 영향]



* 색상이 진할수록 전동화에 따른 수요감소 등 영향이 큼

자료원: 노무라연구소

○ 중국의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라 일본 기업과의 협력 움직임

- 일·중의 EV 충전기 통일규격 공동개발 합의 및 도요타 그룹의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10% 증액 결정 등 세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차세대자동차의 필요 부품 수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20% 수준, CASE화에 따른 부품별 수요 증감 파악 필수

- 엔진·트랜스미션 등의 수요는 감소 예정, 모터·인버터·배터리팩 등의 부품은 유닛화 및 공용화 (하나의 부품 모듈을 여러 차종에 공동 사용하는 것) 강화 추세
- 전기차는 연비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체 경량화가 중요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일본 강재를 알루미늄, CFRP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활발

* 자동차 무게가 10% 감소하면 연비 6%개선, 오염물질배출량 2.5%~8.8%감소, 가속력 8%향상, 조향성은 6% 향상, 제동성능 5% 향상

○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ICT 기업도 시장 참여 유망

- * 차량에 대한 인식이 '보유'에서 '이용'으로 변하면서 도요타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
- 특히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센서 및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큼

○ KOTRA 주최 전시상담회(2018년 7월 Inside 혼다, 2018년 11월 Inside 미쓰비시) 및 핀포인트 상담회(수시) 참가 시 일본 자동차기업과의 신뢰 구축 및 조달 정보 획득 가능

* 2019년에는 Inside 닛산(7월, 도쿄), 덴소(3분기, 나고야) 등을 진행할 예정

- 또한 일본 기업은 납기 단축, 요구사항 즉시 대응 등을 위해 일본 내 거점 보유 부품기업을 선호하는바, 현지 직접 진출 혹은 KOTRA의 자동차부품사무소(KAPP, 나고야 소재) 입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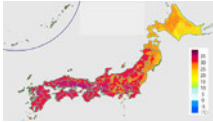
아. (환경변화)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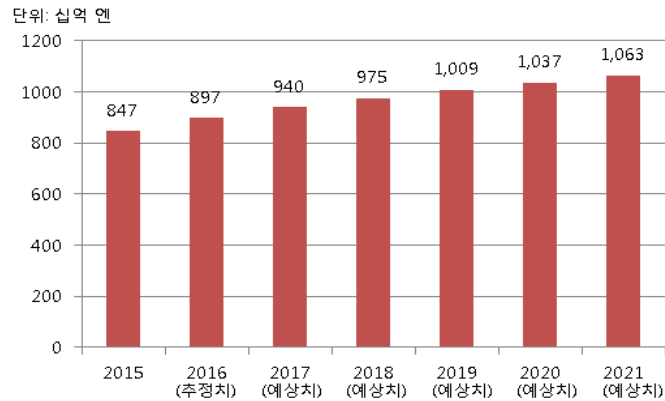
- 최근 잇따른 대형 재난피해로 기후, 재해 대비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관심 고조
- 지진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무더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 아이디어 상품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초기 자금 확보 및 시장진입 계기 마련 전략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건별 피해상황도 심각

발생재해명	피해내용
호쿠리쿠 폭설 	- 2018년 2월 4~9일 일본 호쿠리쿠 지방에 기록적인 폭설. 후쿠이현 후쿠이시에서는 37년 만에 140cm이상 적설 - 사망자 18명, 부상자 315명 - 고속도로 폐쇄, 열차 운행 정지. 후쿠이 시내 국도 8호선 약 10km 구간에서 1500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3일간 차내 생활, 눈에 파묻힌 차량에서 사망자 발생 등
서일본 호우 	- 2018년 7월 5~8일 일본 서남부 지역에 집중 호우. 고치현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최대 691mm의 강수량 기록 - 사망자 221명, 부상자 387명, 피난자 1,541명 - 360만 가구, 863만명에 '대피' 명령. 철로 및 도로 유실에 의한 철도 운행 중단, 도로 통행 금지 등
21호 태풍 제비 	- 2018년 9월 4일 12시 경 토쿠시마 현 상륙. 간사이 지방을 종단. 순간최대풍속 58.1m/s (간사이공항) - 사망자 9명, 부상자 449명, 피난자 891명 - 간사이공항 침수에 의한 공항 폐쇄. 탱커선이 공항과 내륙을 잇는 연결교에 충돌, 교각 파손되어 5000여명 공항 내 고립 등
홋카이도 지진 	- 2018년 9월 6일 오전 3시 7분 발생. 규모 M6.7 - 사망자 41명, 부상자 655명, 피난자 1599명 - 도마토아쓰마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북해도 전역 대규모 정전사태로 철도, 항공 기능 마비, 생필품 부족 사태 발생 등
더위 등 기타재해 	- 지난 1년간 (2017년 11월 ~ 2018년 10월) 진도 4이상의 지진 78건 발생 - 2018년 여름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41.1도)하는 등 극심한 폭염현상, 온열질환으로 사망자 150명 이상, 병원 후송자 8만 명 이상 기록 - 과거 일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회오리 바람이 2012년 이후 매년 20회 이상 발생, 게릴라성 호우 발생 빈도 증가

[일본 위기관리 솔루션 시장규모 추이 및 예상치]



자료원: 야노경제연구소

- 재난 대비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 일본 위기관리 솔루션 시장규모는 약 9,000억 엔(2016년), 2021년에는 1조 630억 엔까지 성장할 전망
 - 방재 솔루션 시장에서는 천재지변 관련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추진 중
 - 일본 정부 '방재 비즈니스 창조 및 육성을 위한 연구위원회' 운영, 재해 피해 최소화에 공헌할 수 있는 방재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 추진
-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방재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인식
 - (JFE) 단기간 시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조제' 제작, 판매
 - (NEC) 센서기술 활용, 산사태 발생 전에 위험정도를 예측하는 서비스 개시
 - (스미토모상사) 지자체와 협업으로 지진 감지 시 전력공급을 자동적으로 끊는 차단기를 인구밀집 지역에 보급
 - (세븐일레븐) 폭설로 인한 경제손실 해소를 위해 점포별로 적설 및 기상 센서를 설치, 예보 및 정보 발신을 위한 실증실험 중

□ 진출전략

- 수요증가 품목 및 성공사례 모니터링
 - 극심한 무더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 * 특히, 올림픽이 7~8월에 개최되는데 관광객이나 자원봉사자를 위한 더위 대책 필요

① 무더위로 일본 야채값 폭등에 따른 한국산 야채 수출 기회

- 냉동야채 및 특정 요리에 쓰이는 적정량만 포장해서 판매하는 커트 야채 수요 큰 폭 증가
- 특히 단기적인 공급 부족 시 지리적 이점이 있는 한국산 야채 매력도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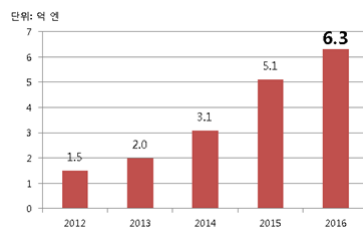
② 한국의 손선풍기, 일본 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

- 대형 가전양판점 'Yodobashi', 2018년 미니선풍기 매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기록
- 잡화점 'FranFran', 한국제품을 벤치마킹한 자사제품 2018년부터 발매 개시, 9만 2,000개 판매

③ 더위를 이기는 음식 '발효식품', 여름철에 빈번한 위장질환 및 시린 이에 대응한 의약품 등 판매량 증가

Bunka Shutter(1955년 창립, 철제셔터 제조 일본 2위) 성공사례

- 2012년 이후 폭우, 홍수에 따른 침수에 대비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지수사업(止水事業) 집중 육성
- 간편, 신속하게 실내 침수를 막는 제품, 전원이 필요없는 자동 지수판(止水板) 등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임
- 동 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해당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매김



[同社 지수사업 매출액 추이]

- 재난 발생 후 수요 급증 품목, 對일 수출유망 품목으로 타깃팅
 - * 오사카 지진(2018년 6월) 발생 직후 일본 온라인 홈쇼핑에서 방취소재 비상용 화장실, 비상용 가방 및 키트, 가구전복 방지봉 등 판매량 급증
 - * 홋카이도 지진(2018년 9월) 후 일본 벤처기업 Eliiy사가 개발한 개별 주거 단위로 설치 가능한 축전지가 큰 주목을 얻음(계획 정전 중에도 해당 제품 설치가구는 전기 사용 가능)
- 재난 대비 및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IT 기반 인프라, 피해 복구 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도 주목 필요
 - (IoT 인프라) 재난 상황에도 기능하는 인터넷 인프라, 관공서의 정보 전달시스템, 피해복구 지원, 보험 부보를 위한 피해상황 책정, 고립지역에 대한 물자 전달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 주목
 - (피해복구) 재해로 인한 손상 및 침수 시 재이용이 불가능한 건축자재(벽지, 카펫, 외벽실링제, 창문, 새시 등), 청소도구 및 소독제, 의약품 등
- 일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초기 자금 확보 및 시장진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략 주요
 - 기존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제품은 한국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으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상품성 확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장 진출 후 일본 시장 본격 진출 시 판매 후 A/S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한국 미니선풍기 ‘블루필’ 성공사례

-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쿠아케’를 통해 약 7,600만 원 자금조달 성공
- 일본 대리점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판매시작, 백화점 및 주요 판매점에 입점, 3만 개 이상 판매 기록
- 일반 미니선풍기보다 작으면서 강력한 바람 구현



한국 공기청정기 일본시장 진입 성공사례

- ㈜에이티엔에스그룹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결합된 공기청정기
- ‘마쿠아케’를 통해 자금조달 성공, 2017년부터 판매시작
- ㈜모비스타의 휴대용 다기능 공기청정기 Zunion, 2018년 3월 마쿠아케를 통해 목표액 대비 25배에 달하는 자금조달에 성공



자. (해외진출) 일본 기업 보유 제3국 생산거점과의 직접 협력 도모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일본의 해외투자액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세계 2위의 해외진출국 등극
 - * 일본의 해외투자액 추이(달러): (2015) 1,342억 → (2016) 1,452억 → (2017) 1,605억
- 일본 제조업 GVC 구조상 본사는 기술 개발 컨트롤타워 역할, 해외생산거점에서 주력제품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신사업 트렌드를 파악한 신규 수요 발굴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7년 아세안 신차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34만 대(일본 전체 판매대수의 2/3 수준)로,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 일본 자동차의 아세안 시장점유율은 약 80%(인도네시아 95%)이며, 히타치, 미츠비시, 파나소닉 등 현지 공장을 보유한 전기·전자 기업도 판매 호조
- 해외 생산된 일본 자동차는 2017년 기준 1,974만 대로서 1990년 대비 6배 증가
 - 중국 환경규제 대응 및 수요 흡수를 위해 도요타는 광저우에 전기자동차 연간 17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신공장 설립, 닛산은 중국에 1,000억 엔을 투자해 2개 거점 설립 예정
 - 단, 미-멕시코의 NAFTA 재협상에 따라 완성차 부품의 역내생산 의무비율이 상승(62.5% → 75%)함에 따라 멕시코 진출전략 재검토 필요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신사업(차세대자동차, 스마트 가전 등) 트렌드 파악을 통한 신규 수요 발굴 필요
 - 그 동안 한국 기업이 GVC 중 주로 제조단계에 참여해왔던 데에서 나아가 밸류체인 초기(제품 기획 및 R&D) 단계 협력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 도모

공동 R&D 프로젝트 발굴 성공사례

- 일본 내 유력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A사는 나고야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KAPP)를 통해 친환경자동차(HEV, EV)용 부품의 공동개발 희망 의사를 밝힘
- 나고야 무역관은 A사의 요청에 따라 일본 내 생산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공동개발 파트너를 물색하여 B사(2013년 KAPP 입주)를 추천
- B사와 동 기획 및 R&D 추진: 일본 원자재 가공기술+한국 설계 및 생산능력 결합

- KOTRA 주최 GP Asia(방콕), GP Japan(도쿄) 등 참가를 통한 일본 완성차 메이커 및 1·2차 벤더의 제3국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직접 부품 수출 추진
 - 특히 범용·중량부품의 경우 현지법인에서 조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 자동차기업의 중국 생산공장 증설 관련 우리 기업 납품 지원사업

- (중국 진출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 디렉토리(2018년 11월, 일문)) 상하이, 난징, 충칭 등 중국 진출 자동차부품 기업 중 일본 완성차에 납품 희망 기업의 디렉토리를 제작, 배포
- (Inside Nissan(2019년 7월 중, 도쿄)) 전장품 및 전기차 부품 관련 전시상담회 개최 예정
중국 진출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 중 관련 업체를 초청, 상담 실시
- (GP China 협업사업(2019년 하반기, 중국)) 일본 완성차기업을 중국 상담회에 초청

- 일본의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 낮은 조달 단가 희망
 - 현지시장에 맞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부품 소재도 높은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현지조달을 요구함.
 - * 일본의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17년기준) 중 현지매출 72.7%, 일본수출용 8.8%, 제3국 수출 18.4% 차지

차. (전력소매 자유화) 일본 전력시장 효율화에 맞춘 조달시장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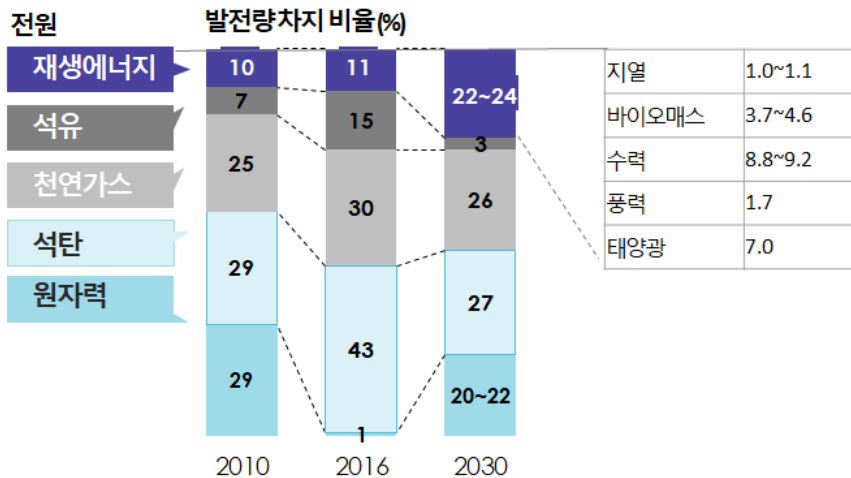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지역별 전력사에 의한 독점구조가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는 경쟁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 특히 매입가격이 상승된 바이오매스는 대형 발전소 건설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확대 전망
- 2016년 4월 전력소매 자유화 이후 고객유치 및 가격경쟁의 일환으로 일본 전력사가 해외조달에 관심
 - * 제로에너지하우스(ZEH) 관련 제품 수요 확대 기대, 또한 최근 공장 및 매장에서 LED 조명 도입 확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 전력시장의 효율화 추구 움직임
 -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8조 엔의 배상금을 부담하는 도쿄전력은 비용절감이 절실
- 일본 전력시장은 총 7조 5천억 엔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일본 10대 전력사의 연간 기자재 구매비용 및 인건비, 공사비용 합계는 약 2조 엔임
- 지역별 전력사에 의한 독점구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에 대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

[일본의 전원에 따른 발전량 비율 변화]



자료원: 경제산업성

- 일본 전력시장 개혁 3단계 추진
 - (1단계, 2015년 4월) 광역운영 추진기관(OCCTO*) 설립
 - : 전력위기 발생 시 지역 간 신속한 전력수급 조정을 위해 광역운영 도모
 - (2단계, 2016년 4월)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실시
 -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기요금 상승추세를 억제하고자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소비자가 원하는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3단계, 2020년 4월 예정) 송배전부문 법적 분리 및 전기 소매요금 규제 철폐
- 확대되는 경쟁으로 해외조달 관심
 - 2016년 실시된 전력소매 자유화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쟁 확대, 소비자 선호에 따라 신규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선택하면서 고객유치가 활발
 - 전력사가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해외조달 비중 확대, 새로운 전략 수립 중
 - * 해외조달 비중 확대: (도쿄전력) 10% → 30%, (중부전력) 0% → 30%
 - * JFE철강과 추고쿠전력은 협력하여 도쿄전력 관할지 치바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

□ 산업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가격) 일본 전력시장 진출에 있어서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은 기본조건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만성적 전력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 일본 바이어들은 해외기업에 동일한 품질의 일본 기업 대비 최소 10%에서 최대 30%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이 필수임
- (제휴) 현지 영업력을 보유한 우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강화
 - 납품경력 홍보는 필수, 전문전시회를 통해 인지도 제고 및 바이어 발굴
 - * 도쿄 빅사이트: 2019. 2. 27~3. 1 월드 스마트에너지 워크 및 제3회 차세대 화력발전 엑스포, 2019. 5. 22~24 제67회 전기설비공업전
 - * 오사카 인텍스: 2018. 9. 26~28 월드 스마트에너지 워크 및 제2회 관서 화력발전 엑스포
 - 현지 네트워크 및 영업력, A/S가 가능한 기업 등과 제휴를 통해 진출
 - 장기적 관점에서 소량 주문에도 적극 대응, 현지 시장에서 신뢰 확보 필요
 - 전력회사의 과제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므로 납품 전 까다로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납품 후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일본 기업은 보통 발전소 근처에 출장소 개설이나 대리점 계약으로 부품 마모 및 노후화에 대응하기 때문에, 해외기업에도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기대함

- 수요 발굴을 위한 KOTRA 네트워크 활용 및 전력시장 기회 포착
 - 광역운용을 목표로 송배전 연계선 증강이 실시·계획되고 있으므로 송배전 관련 품목에 대한 조달 수요가 존재함
 -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 및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오래된 구조물에 대한 교체 수요도 발생하고 있음
 - 고객관리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스템, 스마트홈과 같은 가정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IT 관련 소프트웨어도 현지화를 전제로 진출기회 있음
 - 주요 전력사 홈페이지 조달정보 및 KOTRA를 통한 인콰이어리 정보 활용

한국전력 우수 벤더 초청, 전력기자재 면담사업 실시(GP JAPAN, 도쿄, 9. 4)

- ① 한국전력 우수 벤더 125개사의 명단을 도쿄전력에 전달 → ② 도쿄전력에서 면담 희망하는 기업 20여 개사를 선정 → ③ 최종 12개사 도쿄 방문 상담회 참가
- 일본 1위 전력회사인 도쿄전력 외에도 추부전력, 토호쿠전력, 홋카이도 전력 등 일본 주요 전력사와 전문상사까지 17개사 참가

카. (공작기계) 일본 설비투자 확대로 공작기계 시장 호조세 지속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재난, 건설 붐, 산업 효율화 개선 수요 확대 등으로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역사적인 수준의 호황세 기록
- 공작기계 분야, 일본 국내 조달이 한계를 보이며 일본 시장개척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
- 정보화 투자,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 강조 등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년도 일본 기업 설비투자는 7년 연속 증가, 증가율은 38년내 최고치
 - 전기자동차의 개발·생산 효율화와 개발제품 스펙 변동, 일반기계 분야의 생산능력 보강, 도시기능 확충 및 물류시설 정비 등이 설비투자 견인

[일본 업종별 설비투자 계획 특징]

- **일반기계**(0.6% → 21.7%): 산업용기계 및 일반기계부품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확대
- **정밀기계**(7.4% → 30.4%): 반도체 제조장치 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견인
- **자동차**(▲1.5% → 30.6%): 모델 변경 및 IoT를 활용한 효율화, 차세대 기술을 위시한 R&D 투자 활발
- **식품**(8.8% → 27.9%):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른 고부가가치 식품 제조·가공 관련 투자 증가
- **화학**(▲0.6% → 29.3%): EV 등 자동차용 부품에 대응한 투자 및 전자부품·전자용 투자 대폭 증가
- **석유**(4.6% → 46.6%): 유통설비 및 발전설비 투자, 정유소의 유지보수 등이 설비투자 증가 견인
- **운수**(3.9% → 26.2%): 철도 고속화, 부동산 개발 증가, 물류설비 정비 및 항공기 취득 등 대형투자 활발

주: 괄호 안은 2017년 설비투자 증가율 → 2018년도 설비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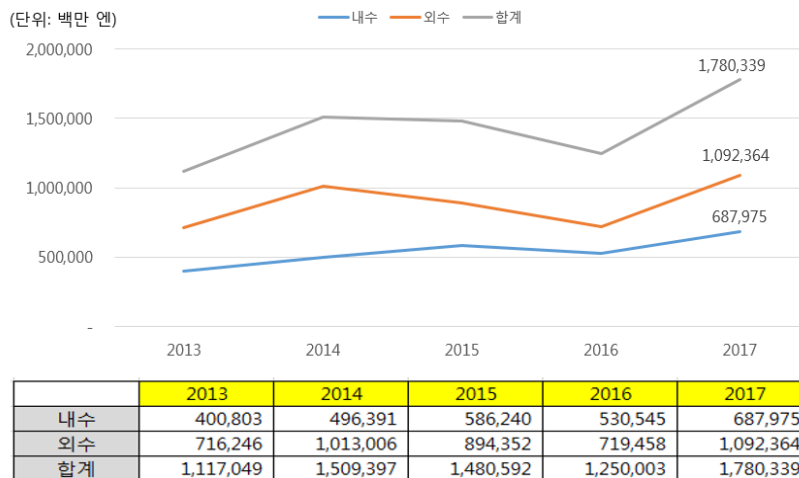
자료원: 일본정책투자은행

- 일본정책투자은행 전국설비투자계획 조사(2018년 8월) 결과 2018년 일본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6%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인재난에 따른 자동화 추진, 도쿄올림픽 관련 수요,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2020년까지 설비투자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공작기계 수주액은 2017년에 전년 대비 38.1% 증가한 1조 7,803억 엔을 기록

- 내수·외수 모두 호황세를 기록하며 2007년에 기록한 역대최고치를 크게 상회, 2025년에는 2조 엔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공작기계 시장 호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업계에서 주요 부품의 조달에 어려움 호소
 - * 리니어가이드(LM 가이드), 볼스크류 등 주요 부품의 생산은 공작기계 수주 증가세를 하회하고 있으며 납기까지 1년이 걸리는 제품도 존재
- 최근 산업용 로봇, 반도체 제조장비 등 산업기계 수주도 호조가 잇따르고 있어 부품 조달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

[일본 공작기계 수주액 추이]



자료원: 일본공작기계공업회

○ 한국으로부터의 공작기계 수입규모 증가추세

- 일본 내수시장과 공작기계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공작기계의 총수입 규모도 2012년 이후 증가세 지속, 2017년 연간 수입총액은 전년 대비 57.4% 증가
- 對한 공작기계 수입액 역시 매년 꾸준하게 증가세를 유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0.9%의 상승 폭을 보이며 최초로 연간수입액 200억 엔 규모를 돌파
- NC 선반 등 기존 주력제품의 수입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치(484.6%↑),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179.2%↑), 집적회로 제조장치(56.6%↑) 등 반도체 관련 기계의 對한 수입이 증가세

[일본의 공작기계 수입대수 추이]

(단위: 백만 엔, 대수)

구분	2015		2016		2017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총수입	434,249 (51.1)	144,389 (△9.6)	297,640 (△31.4)	140,582 (△2.6)	468,542 (57.4)	140,464 (△0.0)
對한 수입	13,042 (16.3)	4,018 (△12.9)	16,429 (26.0)	3,891 (△3.2)	28,085 (70.9)	4,746 (22.0)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수요가 높은 ‘정보화 투자’에 대응

- 개별 공장의 IoT화, 복수 공장의 생산통합관리 시스템, 조립 및 검사 공정에서의 센서 도입, 영업소의 무인화 등 정보화 투자에 적극적
- 일본 기업 중 약 80%가 유형고정자산투자 대비 정보화 투자 확대 계획
- 효율화 수요 및 인재부족 현상을 배경으로 IT 기기 도입 및 시스템 채신 움직임 가속화, 2017년도 일본 기업의 정보화 투자는 2015년 대비 약 20% 증가

○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 집중 타킷

- 자동차와 제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경우 일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 자동차 조립 검사장비, 제철 설비용 기계 및 부품 등 일본 시장 개척 성공사례 다수

일본 자동화설비 분야 글로벌 기업 H사 사례

- GM, TESLA를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공급 중, 매출액 약 8,000억 원
- 자동차 조립 설비용 제품 중 약 30%를 한국에서 조달. 단순 프레임·설비뿐만 아니라 라인 내 주요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발주 증가 중
- 안정적인 조달체계 확보를 위해 한국 벤더에 대한 출자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

일본 기계 분야 대기업 M사 사례

- 연속주조용 몰드(점유율 75%), IC 트레이(점유율 40%) 등 틈새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제조업 기업으로 매출액 약 4,000억 원
- 한국기업, 특히 제철설비용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 해당 분야에서 자체 제조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90%의 부품을 한국업체로부터 조달 중

- 반도체 제조장치 및 FPD 제조장치(Flat Panel Display) 수요 확대에 대응
 - 최근 설비투자 및 제품수입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수요 확대 전망
 - FPD 제조장치는 중국·한국의 설비투자가 활발하며 일본 시장도 확대 가능성이 높음, 패널 가격 하락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OLED 패널 생산 확대가 예상
- 기계 및 기계부품 전문상사 집중 타깃팅 필요
 - 일본 글로벌 제조기업의 경우 까다로운 제품 사양 및 거래조건 등으로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 Sony Semiconductor 사례

- 최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조달 확대 움직임 포착, 기존에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는 반도체 설비 유지·관리용 부품 및 소모성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 리스크 회피를 위해 무역업무를 중간 상사에게 일임하며, 신규 제품 채택 시 '삼성 혹은 SK하이닉스 인정 납품 업체' 등의 조건을 걸고 다품종 소량 발주 및 후불 계약조건 고수

- 일본 내 인증 및 수입업무에 대한 대응력으로 신규 거래 및 단기적 성과창출 유망, 최근 일본 시장 내 호황으로 기계 및 기계부품 전문상사로부터 인콰이어리 증가 추세

(인증) 2018년 한국표준협회, 지방지원단 연계 'JIS 인증 설명회(9회)' 개최

- JIS은 일본공업규격으로 일본에서 인증을 받을 경우 가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
- 한국표준협회에서는 JIS 인증을 대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심사원을 파견하므로 기업에 유리

KOTRA 12개 지방사업단 중 9곳에서 순회 설명회 개최

- 강원(8/23), 광주전남(8/27), 울산(8/28), 경남(8/30), 대전충남(11/27), 대구경북, 부산(12/12), 충북(12/13), 전북(12/14)

[JIS 마크 (왼쪽부터 광공업품, 가공기술, 특정측면)]



- 일본 바이어가 한국 부품 소재를 구매할 때 가중치를 높게 평가하는 요소에 대해 사전 준비 철저
 - 일본 바이어는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 품질’ 등을 중요하게 평가
 - 일본 바이어가 중요하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만족도가 낮은 ‘명확한 품질관리 체제’,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 품질’, ‘확실한 공급체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됨.

[일본 바이어의 한국업체 평가 중요도 및 만족도 차이]

평가항목	중요도 (A)	만족도 (B)	차이 (A-B)
①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품품질수준	4.58	3.37	1.21
② 공급량부족, 납기지연등이 없는 확실한 공급체제	4.42	3.24	1.18
③ 명확한 품질관리체제 (평가, 검사, 불량품 처리방법 등)	4.31	3.23	1.08
④ 초기 견적가격	4.04	3.28	0.76
⑤ A/S 대응능력	4.01	3.22	0.79
⑥ 제품의 기술수준 (경쟁타사에 비해 선진성, 부가가치)	4.00	3.30	0.70
⑦ 원가관리 및 개선능력	3.97	3.06	0.91
⑧ 생산설비와 양산능력	3.94	3.47	0.47
⑨ 재무제표의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3.92	3.30	0.62
⑩ 시장(업계)에서의 좋은 평판	3.92	3.39	0.53
⑪ 납품실적(대기업또는 동종유명기업)	3.86	3.52	0.34
⑫ CEO의 리더쉽 및 신뢰도	3.77	3.33	0.44
⑬ 시제품(부품) 개발 스피드	3.73	3.26	0.47
⑭ 환경과 안전에 관한 관리체제	3.71	3.16	0.55
⑮ 디자인과 기술개발력 (설계능력 등)	3.68	3.22	0.46
⑯ 수송비용	3.61	3.15	0.46
⑰ 자재 및 부품의 수송조건의 유연성 (최소수송규모, 수송빈도)	3.61	3.24	0.37
⑱ 기업의 사회적 책임	3.57	3.17	0.40
⑲ 필요한 지적재산권(IP)의 보유	3.48	3.17	0.31
⑳ 자본,기술제휴등의 기존협력관계	3.48	3.28	0.20
㉑ IT기술력	3.34	3.26	0.08
㉒ 기업의 혁신적 문화 및 개방성	3.34	3.19	0.15
㉓ 시장점유율	3.30	3.28	0.02
㉔ 생산거점의 위치	3.32	3.17	0.15
㉕ 업계 내의 규모	3.29	3.24	0.05

주: KOTRA 일본지역본부 작성. 일본 바이어 145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8년 11월)

3. 한-일본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19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구인난+구직난	- 일본 정부의 외국인재 활용 및 한국의 해외 취업지원 정책 추진 협력 - 기 취업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일 양국 비즈니스 기회 확대
스타트업	- 일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초기 자금 확보로 진입기회 마련 - 기술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특성상 B2B 창업 유망
스마트농업	(농업용 IT 솔루션)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밀 농업 실시 (6차 산업) 일본의 6차 산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가.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과 한·일 비즈니스 기회 포착

경제 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현재 일본의 인구감소 및 경제회복에 따라 기업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인재 채용 증가 ○ 일본 정부 차원에서 비자 제도 완화 등 외국인재 채용을 적극 장려 ○ 현지 유관기관과 취업박람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시 애로, 취업 후 생활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서 협력 필요

□ 해당국의 경제발전전략 및 주요 이슈

- 인구감소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업의 구인난 가속
 - 실업률(2.5%), 대졸취업률(98%) 및 유효구인매율(1.59) 등 모든 지표 호조
 - * 실업률은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최저치로 완전고용상태(2.8%)를 넘어선 인력 부족
 - 지난 20년간 20대 인구 약 600만 명 감소한 반면 경제호황으로 일자리 풍부

[최근 3년간 노동시장 현황]

(단위: 만 명, 증가율 %)

구분	2015	2016	2017
경제활동 인구수(증감률)	6,598(0.17)	6,649(0.9)	6,716(0.1)
경제활동 인구비율	59.6	60.0	60.5
취업자 수(증감률)	6,376(0.39)	6,452(1.1)	6,542(0.8)
실업자 수	222	197	174
실업률	3.4	3.1	2.8
유효구인배율	1.20	1.41	1.5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총무성 통계국

- 외국인 노동자 수도 백만 명을 초과, 5년 연속 과거 최고치 갱신
 - '17년 10월 기준 1,278,670명으로 전년대비 18.0%증가, 한국인은 55,926명으로 6위(전체 4.4%)
 - 한국인은 주로 유통업 및 서비스업, IT업에 종사

[일본의 한국 노동자 업종별 취업상황]

(단위: 명, %)

구분	유통업	숙박/식음료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위탁파견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업	건설업
취업자수 (비중)	11,705 (20.9)	7,949 (14.2)	7,721 (13.8)	6,479 (13.5)	6,058 (10.8)	5,089 (9.1)	4,723 (8.4)	887 (1.6)

자료원: 후생노동성, 「외국인고용현황신고 현황」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로,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도전문지식·기술 외국인 취업을 적극 촉진하고 있음
 - 외국인 고용서비스센터를 고도 외국인재 취업지원 거점으로 삼고 헬로워크*의 전국 네트워크 활용, 기업 매칭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책 제공
 - * 헬로워크: 후생노동성 설치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안내소
 - 헬로워크 내 유학생 코너 설치 등을 통해 유학생 취직지원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IT, 관광 등 전문기술 분야에서 체류 자격요건 완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재 활로촉진을 추진 중
 - * 2012년 5월 '고도인재 포인트제' 도입, 2015년 4월부터는 고도인재 전문 체류자격 '고도 전문직'을 신설
 - 2019년 4월부터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의료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설립할 계획,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단순노동에도 문을 열어 2025년까지 50만 명의 취업을 목표로 함

□ 협력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

- 일본 정부의 외국인재 활용 및 한국의 해외 취업지원 정책 추진 협력
 -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책목표 달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 양국 정부 협력기반의 다각적 일본 취업 지원이 필요
 - * 2018년 KOTRA 주관 일본 취업박람회(11월, 부산·서울) 개최 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협력기관으로 참여, 일본 국내 JETRO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일본 각지의 다양한 구인처 발굴을 도모
- 일본 취업과정에서 애로사항 역시 양국 협상을 통한 해소를 도모해야 함

한국인의 일본 취업 시 발생했던 애로사항은?

- 고용하는 기업의 규모·재무상태·업무내용과 고용된 외국인의 학력·경력 등의 관련성이 낮다고 출입국관리소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비자 발급 거절·지연 등의 문제 발생
- 단순 노동업 분야 기업의 경우,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홍행', '교육', '교수', '법률', '의료' 및 기타 취업 가능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를 채용할 수 없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인재의 일본 기업 취업 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협력이 필요
 - 일본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한국인 취업자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
 - * 2018년 7월 각의 결정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8'에 근거하여, '외국인 수용 환경 정비에 관한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이 법무성 총괄 하에 추진될 예정

[2018년 취업자 및 구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KOTRA 자체조사)]

KOTRA를 통해 일본에 취업한 청년 115명	KOTRA 사업에 참가한 일본 구인기업 177명
• 성별: 남성 59명, 여성 56명 • 나이: 전체의 73.9% 30대 미만 • 졸업학교: 전체의 87.3%가 일본에서 학교경험 전무 • 전공분야: 어문계 34%, 이공계 39%, 상경계 14%, 사회계 9% 등 • 일본 실력: 원어민 수준 21.7%, JLPT 1급 65.2%, 2급 8.7%, 3급 4.3% • 일본 취업 만족도: 매우만족 22%, 다소만족 44%, 보통 24% • 취업 준비기간: (6개월 미만) 70.2% • 회사유형: (일본기업) 83.5% • 계약형태: 정규직 87.6% • 상시고용: (500명 이상) 50.5%, (100~500명) 31.7% / 상장회사: 69.4%	• 회사 유형: 일본기업이 92.1% • 한국과의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기업이 44.1% • 채용목적: 국적불문 좋은 인재 채용을 위해 85.3% • 필요스펙: 일본어(90.4%), 커뮤니케이션 능력 (81.9%), 적응력, 타문화 이해, 행동력, 유연성 - 일본어 수준: JLPT 1급 41.8%, 2급 54.2% • 채용방법: 합동설명회 70.6%, 사이트 47.5% • 배치 부서: 영업 43.5%, 정보시스템 30.5%, 총무 및 관리 25.4% • 채용시 고민: 조기퇴직 44.1%, 일본어부족 33.9% • 한국인재에 대한 만족도: 70.6%가 만족 • 향후 채용 계획: 적극적으로 채용 39.5%, 좋은 인재가 있으면 채용 56.5% • 한국인재에 대한 이미지: 근면성실, 일본어, 적극성

나. '고용창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글로벌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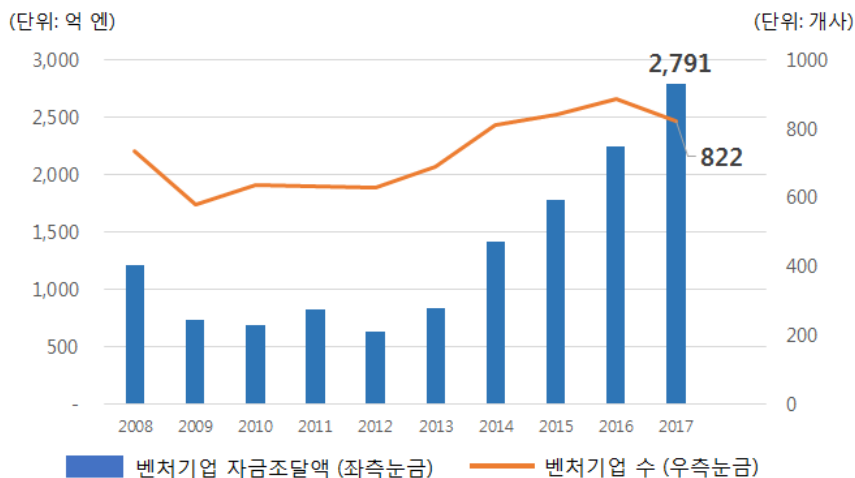
경제 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벤처 붐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정책,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 기대
- 글로벌 창업, '고용 창출' 및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검토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본 벤처시장 활성화로 '제4차 벤처 붐' 도래
 - 2017년 일본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총액은 전년 대비 24.5% 증가한 2,791억 엔으로 역대 최대규모 기록
 - 벤처기업 1개 사당 조달액도 확대 추세로 2012년 대비 약 3배 수준
 - * 벤처기업 'Preferred Networks'(IoT), TOYOTA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128억 엔 투자유치
 - * 2017년 중 10억 엔 이상 자금조달에 성공한 벤처기업은 총 58개사로 역대 최대
 - 여러 업종의 대기업들이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서며 벤처 붐 뒷받침
 - * (IT) 일본 3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KDDI, IoT 플랫폼 벤처기업 매수
 - * (기계) 글로벌 로봇기업 'FANAC', 자율주행 및 공장 자동화 기술보유 벤처기업에 출자
 - * (부동산) 미쓰이부동산, 300억 엔 규모 펀드사업 개시, 자사 운영 빌딩에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시설 개소
 - * (미디어) 마이니치신문사, 20억 엔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

[일본 벤처기업 자금조달 총액 및 기업 수 추이]



자료원: entrepidia

- 일본 정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
 - 일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인 ‘벤처챌린지 2020’ 수립
 -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창업률 향상 도모, 특히 지방에서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각 지자체에 설치
 - 경제산업성, 유니콘 기업 배출을 목표로 벤처기업 1만 개사 중 9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J-Startup’ 사업 개시(2018년 6월)
 - 수도권과 후쿠오카를 창업특구로 지정, 규제완화 및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는 등 외국계 벤처도 환영하는 분위기 형성
- 창업하지 않는 일본인, 진취적인 한국인에게 기회의 시장
 - 일본의 창업환경은 전 세계 190개국 중 106위에 불과
 - * 월드뱅크 Doing Business 2018 발표 결과, 한국은 9위
 - 보수적인 국민성과 구인난이 맞물려 창업할 동기 부족, 실제 창업활동률은 2017년 4.68%, 창업 관심도도 12%에 그침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초기 자금 확보 및 시장진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략 주요
 -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의 경우 일본 시장에서 상품성 확인 및 진출 초기 교두보 마련을 위한 우수한 방법임

[일본 내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명	특징
Makuake	- 인터넷 광고 대기업 ‘Cyber Agent’가 운영 - 한국 벤처기업의 펀딩 성공사례 다수※
CAMPFIRE	- 일본 크라우드펀딩 중 지원자 수 1위 - 누계 약 50억 엔의 자금조달 성사
미라이쇼핑	- 일본경제신문사가 운영, 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독자에 대해 프로젝트를 노출할 수 있는 점이 강점
Countdown	- 일본 유일의 글로벌 펀딩, 영어로도 참가 가능 -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Motion Gallery	- 영화, 예술, 출판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 프로젝트 중심의 구입형 크라우드펀딩

※ 일본 크라우드펀딩 Makuake를 통한 한국기업의 펀딩 성공사례

- 애니랙티브(컴퓨터 주변기기), 목표금액의 35배인 1,100만 엔 조달 성공
- 블루필(미니선풍기), 약 7,600만 원의 자금조달, 백화점 및 주요 양판점 입점

- 기술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일본의 산업구조 특성상 스타트업이 직접 소비자를 확보하는 B2C 사업모델보다는 B2B 창업이 유망

[2017년 일본 VC협회 선정 기업가치 상위 스타트업]

(단위: 억 엔)

순위	기업명(일본)	사업내용	기업가치(추산)
1	프리퍼드 네트워크	심층학습 산업응용	2326
2	메루카리	플리마켓 앱 운영	1479
3	SanSan	클라우드형 명함관리	505
4	에리파워	리튬이온전지	404
5	후리	중소기업 클라우드 회계	394
6	비즈리치	이직 사이트 운영	338
7	TBM	석회석에서 신소재 개발	292
8	FiNC	건강관리서비스	225
9	라쿠스루	인터넷 인쇄, 물류	219
10	포낙크	핵산의약품 개발	217

- 일본 내 최종소비자를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직접 진출을 통해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 증가추세
 - ‘수출 후 일본 기업(대리점, 유통상 등)을 통해 일본 고객에게 판매’ 구도로 일정 규모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적용
 - 일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이 수입상 및 일본 내 판매자 역할을 함으로써 마진 최소화 실현, 특히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 가능한 소비재의 경우 유력한 전략
 -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정책을 활용할 경우 효과 배가

※ 해당 모델의 실제 사례

① D사(플라스틱 용기 제조)

- 화장품, 제약,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 기존에는 수출 및 일본 기업을 통해 일본 시장에 제품 공급
- 2018년 일본 법인 설립 후 일본 내 주요 EC 사이트를 통해 엔드유저에게 직접 판매 개시

② S사(스포츠용품)

- 농구 유니폼 전문 제조, 기존에는 EMS를 통해 일본 대리점에 발송 후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
- 2018년 일본 법인 설립, 동 법인이 수입처 및 일본 내 판매처 역할을 함으로써 마진 최소화 및 수출실적 창출을 통한 세제혜택 수혜 등 기대

다. 고령화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 농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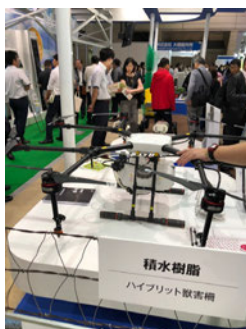
경제 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일본 농촌도 인력부족이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스마트 농업 제시
- 농업용 IT 솔루션이나 1, 2, 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기술 요구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일본 농촌도 고령화,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해 특히 숙련자가 요구되는 작업이 많은 분야에서는 인력 확보에 난항
 - 농촌 평균연령이 2015년 기준 67세이며, 차세대 농업 인구는 점차 감소 중
-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농촌의 스마트 농업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
 - ① 대규모 경작 실현, ② 작물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 ③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서 해방, ④ 누구나 할 수 있는 농업, ⑤ 소비자 등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등을 모토로 스마트 농업 지원

【농약 도포용 드론】



【AI센서가 장착된 밭 좁는 기계】



【LAEVO사의 어시스트 슈트】



주: 국제 차세대 농업 EXPO(2018년 10월 도쿄인근 마쿠하리멧세)

□ 일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농업용 IT 솔루션) 토지에 센서를 부착하여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밀 농업을 실시하는 농가가 증가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솔루션 유망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해 작물의 실적을 입력하고 축적된 작업실적·센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비용구조를 시스템화
 - 소비자가 요구하는 작물의 시기 및 수량을 데이터화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안심과 신뢰 제공
- (6차 산업) 1, 2, 3차 산업을 융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의 수입확대에 기여
 -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당 및 농촌체험과 연계한 농가 등
 - 일본에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농촌 간 자매결연 실시

품목명 1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미용기기	수입액('17/US\$백만)	2,283	대한수입액('17/US\$백만)	52
	선정사유	○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에스테틱에 가는 대신 미용기기를 이용해 홈케어 하는 여성이 증가 추세		
	시장동향	○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6% 성장한 2,484억 엔 규모 ○ 드라이기, 두피 마사지기 등 헤어케어 제품 유망		
	경쟁동향	○ 파나소닉이 47.1%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 고급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신규 시장 진입 활발		
	진출방안	○ 오프라인 판매가 90%이므로 빅카메라 등 전자제품 전문점 위주로 유통하는 것이 유리		
품목명 2	HS Code	330590	수입관세율(%)	0
드라이샴푸	수입액('17/US\$백만)	303	대한수입액('17/US\$백만)	7
	선정사유	○ 한국에서는 바쁜 라이프스타일의 직장인, 학생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일본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선점 가능		
	시장동향	○ 시세이도, 코세 등 대기업 제품이 주를 이룸 ○ 방재(防災)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 메이크업 제품 대비 패키징이 단조로움		
	경쟁동향	○ 다양한 헤어케어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드라이샴푸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		
	진출방안	○ 소셜 인플루언서 혹은 K-Pop 스타를 이용한 SNS 홍보를 통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략 필요 ○ 일본 소비자들은 진한 냄새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향기가 은은한 제품 개발 필요		
품목명 3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액('17/US\$백만)	808	대한수입액('17/US\$백만)	91
	선정사유	○ 현재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를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가 2030년에 32% 비중 도달 전망		
	시장동향	○ 파나소닉-도요타 등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메이커의 공동출자회사 설립 등 협력 강화 추세		
	경쟁동향	○ 수입시장에서 1위 중국(56.6%), 2위 한국(11.3%), 3위 미국(9.1%)으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 JIS 인증 획득 및 LG, 삼성과의 거래이력 등을 내세워 일본 기업과 신뢰도 장기구축이 필요		
품목명 4	HS Code	820730	수입관세율(%)	0
프레스금형	수입액('17/US\$백만)	178	대한수입액('17/US\$백만)	83
	선정사유	○ 연비 규제 강화에 따라 차량 경량화가 중요해짐		
	시장동향	○ EV 등 개발·생산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 확대 ○ 관련기업의 30%의 기업이 2018년에 설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유망성 증가		
	경쟁동향	○ 한국이 수입액 기준 1위인 가운데 낮은 제품 가격을 경쟁력으로 하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		
	진출방안	○ 현지 생산거점 운영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납기 준수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시 유리		

품목명 5	HS Code	870895	수입관세율(%)	0
자동차용 에어백	수입액('17/US\$백만)	935	대한수입액('17/US\$백만)	37
	선정사유	○ 글로벌 기업 타카타社 파산 이후 에어백 시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 반사이익이 예상		
	시장동향	○ 일본 자동차업체에서 안전주행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 등 수요 확대		
	경쟁동향	○ 한국은 수입시장 점유율 8위로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저가 공세를 하는 기업들과 경쟁 심화		
	진출방안	○ 단기적으로는 위탁생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설비 확장을 통해 타카타 파산의 반사이익을 누릴 전망 ○ 제품 기획단계에 참여해 공동개발 시 GVC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획득 가능		
품목명 6	HS Code	852351	수입관세율(%)	0
SSD (Solid State Drive)	수입액('17/US\$백만)	948.2	대한수입액('17/US\$백만)	78.5
	선정사유	○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 수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음		
	시장동향	○ 일본 국내기업용 스토리지 시장규모는 2017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2,988억 엔을 기록 -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0.2%로 2021년의 시장규모는 3,084억 엔 전망(IDC 재팬 조사) ○ HDD 시장은 세계적으로 축소 경향이기에 시장 자체의 폭발적 성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 저장 매체로 SSD 도입이 급증 ○ 또한 애플처럼 SSD를 탑재하여 얇으면서도 절전형인 컴퓨터 생산 증가 추세 - 특히 노트북에서는 부팅이 빠른 SSD를 탑재하는 제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요도 기대할 수 있음		
	경쟁동향	○ SSD에 사용되는 NAND의 세계 시장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도시바 메모리 ○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약 50개 국내기업이 對일 수출 중		
	진출방안	○ 대부분의 일본 데이터 센터 역시 HDD에서 SSD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 IoT, 의료 및 농업, 교통 등에서 활용하는 빅데이터를 위해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향후 2~3년은 견조		
품목명 7	HS Code	852859	수입관세율(%)	0
디지털 사이니지	수입액('17/US\$백만)	368.8	대한수입액('17/US\$백만)	64.1
	선정사유	○ 일본에서 디지털 사이니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		
	시장동향	○ 잠재수요가 큰 대규모 점포 및 대기업의 신설 수요에 더하여 교통 인프라 및 공공시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한 신규 수요가 활발함		
	경쟁동향	○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일본 내 협단체인 'Digital Signage Consortium'의 회원사 108개사 중 하드웨어 제조기업은 20여개사로, 이 중 대표적인 기업으로 NEC Display, TOSHIBA VISUAL SOLUTIONS, Japan Material, Sharp, KYODOCOM 등이 존재		
	진출방안	○ 디지털 사이니지용 콘텐츠는 향후 對일 유망 품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각적인 디자인 및 콘텐츠 분야를 한국의 강점으로 꼽는 현지 의견이 많아,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분야임 ○ 하드웨어 제조기업과의 협력에는 대리점을 통한 OEM 수출 등이 가능하며, 그 외 최종 수요처 기업 대상의 납품 역시 유망할 것임		

품목명 8	HS Code	620930	수입관세율(%) (수입최대인 6209.30.222 기준)	기본: 11.2, WTO 협정: 9.1
아동복	수입액('17/US\$백만)	17.7	대한수입액('17/US\$백만)	0.1
	선정사유	○ 출생아 수 최저를 기록한 일본이기에, 유아·어린이용 의류시장 규모 자체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국제품 수입이 최근 증가 추세 - 일본 유아·어린이용 의류시장 규모는 2015년 9,180억 엔, 2016년 9,161억 엔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 한국 수입은 4만 9,000달러(2016년) → 5만 7,000달러(2017년) → 22만 3,000달러(2018년 1~8월)로 지속 증가 추세		
	시장동향	○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인터넷 통신 판매 채널을 통한 판매만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Amazon과 함께 일본 대표 EC사이트인 라쿠텐에서 한국 아동복, 유아용품의 판매 역시 호조		
	경쟁동향	○ 이온, 패스트리테일링, 미츠코시이세탄 등 주요 유통사의 PB 방식의 유아복 브랜드가 존재 ○ 그 외 유아복 제조·판매 기업이 존재하며, 해외 브랜드 역시 라이선스 브랜드 형식으로 다수 판매되고 있음		
	진출방안	○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브랜드가 일본 EC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바, 좋은 재질, 귀여운 디자인, 새로운 느낌으로 승부를 거는 브랜드·제품은 일본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임 -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가성비만으로는 승부를 걸기 어렵지만, '신경 써서 제대로 만든 제품'이라는 방향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임		
품목명 9	HS Code	950300	수입관세율(%)	0
아기 머리 보호용 쿠션 등 아이디어 잡화 및 장난감	수입액('17/US\$백만)	2,127.4	대한수입액('17/US\$백만)	9.8
	선정사유	○ Amazon의 TV CM에서 '아기 머리 보호용 쿠션'이 다뤄진 후 아이디어 잡화, 완구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최첨단 기술과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본 시장에 새로 소개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면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는 분야		
	시장동향	○ 2017년 출생아 수 최저를 기록한 일본이기에, 시장 자체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상시 존재하는 것이 일본 시장 - '아기 머리 보호용 쿠션' 역시 TV CM에서 다뤄진 것을 계기로 인기 상승, Amazon의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Amazon 히트 상품 랭킹'에서 4위 기록(유아·출산 부문)		
	경쟁동향	○ 중국에서의 수입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 한국은 일본의 동 제품 수입 8위국		
	진출방안	○ '부모의 걱정거리인 유아의 약점을 극복', '인스타용 귀여움', '저렴한 가격'이라는 3요소를 갖춘 유아용품을 모색 -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SNS에서 돋보이는 상품은 요즘 부모에게 영향력이 큼 - 또한 유아는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구입을 망설일 정도의 높은 가격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보임		
품목명 10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기본 : 25, WTO 협정 : 21.3
그밖의 파스타 (즉석면 등)	수입액('17/US\$백만)	29.6	대한수입액('17/US\$백만)	20.1
	선정사유	○ 동 제품 수입시장 점유율 약 70%가 한국 제품으로, 절대다수 차지 - 한국의 對일 수출액은 1,670만 달러(2016년) → 2,010만 달러(2017년) → 1,310만 달러(2018년 상반기)로 2018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42% 수입증가를 보이는 등 일본 즉석면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		

	시장동향	○ 우동, 소바, 스파게티, 냉동면 등 모든 업종의 규모가 축소하는 중에도 즉석면 업계만 성장 - 컵라면 개발 60주년으로, 2017년도 즉석면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0.7% 상승한 5,866억 2,800만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 ○ 주된 고객층인 젊은 층의 감소 등으로 시장 축소가 예상됐으나 다양한 신제품, 마케팅 등으로 즉석면의 인기는 쉽게 꺼지지 않음. - 최근 시장동향은 '건강지향'이라고 할 수 있음. 2011년 '도요수산'이 발매한 '마루짱세멘'을 시작으로 논프라이(튀기지 않은)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발매 전 약 20%에서 발매 후 40%대까지 상승. 그 외에도 지방, 염분을 조절한 제품이 속속 출시 - 각 지역 특산품 등의 맛을 첨가한 제품, 인기 라면 전문점의 맛을 재현한 제품 등도 활발히 출시돼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음		
	경쟁동향	○ 일본 즉석면 시장은 닛신식품, 도요수산, 산요식품 등 일본 국내 3대 기업의 무대 - 상위 3개 기업을 합하면 점유율 83.3%, 묘조식품 포함 4대 기업의 경우 91.3%로 시장 대부분 점유 - '컵 누들 시리즈' 등 기존 유명 시리즈 내에서 새로운 맛을 내놓는 등, 완전한 신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으로의 회귀경향이 눈에 띄고 있음		
	진출방안	○ 일본의 제3차 한류 붐이 최근 한국 즉석면 판매량 급증의 요인으로 작용한바, 일시적인 한류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 - SNS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한국 즉석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 증가가 급격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한류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우선 전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장 한국다운 맛의, 처음 느껴보는 맛의 라면'으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재해 대비용 간편식, 건강식 등을 어필한 새로운 제품으로 틈새시장 공략도 유효할 것		
품목명 11	HS Code	190220-220	수입관세율(%)	기본 : 25, WTO협정 : 21.3
냉동식품 (냉동식품 전반을 유망품목으로 하되, HS 코드, 관세율, 수입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 견적이 있는 냉동 교자를 적용)	수입액('16/US\$백만)	21.3	대한수입액('16/US\$백만)	1.7
	선정사유	○ 과거 중국산 냉동식품의 잔류 농약 문제와 중독사건 등으로 수요가 감소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장기 보존이 가능하고 요리하기도 쉬운 냉동식품에 주목 ○ 맛별이 가구 증가, 고령화 진전 등 사회구조 변화와 편의점 품목 증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습관 정착 등 역시 냉동식품 수요를 가속화 ○ 2017년 한국의 동 제품 對일 수출액은 2015년 대비 74%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하며 호조		
	시장동향	○ 냉동식품의 국내 생산액은 7,180억 엔(전년 대비 4.5% 증가)으로 7년 연속 증가(일본 냉동식품협회 조사) - 각 사는 저녁의 메인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늘리고 있는 상황 ○ 또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함 - 일본에서 식품소비를 늘려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		
	경쟁동향	○ 2년 연속 국내 출하 1위는 마루하니치(점유율 23.7%), 2위는 니치레이(23.4%)로 치킨 등 도시락용 반찬과 볶음밥 등 밥 종류가 강세. 3위는 JT 산하의 테이블 마크(11.9%), 4위는 아지노모토 산하의 아지노모토 냉동식품(11.7%) (일본경제신문사 '2016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 - 슈퍼마켓 등 소매점은 PB 상품 전개를 강화 중		

	진출방안	○ 한국 본고장의 맛을 일본 식탁에 재현 - 최근 일본의 냉동식품 트렌드를 따라, 저액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본격적인 맛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필수적 ○ 최근 일본에서 치즈 닭갈비가 유행하고, 양념 치킨(아지노모토 냉동식품이 음식 잡지 'dancyu'와 공동 개발한 냉동식품 '밤 아홉시에 혼자 마시기' 시리즈)이 인기를 끌고 있어, 한식은 여전히 인기상품을 창출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품목명 12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7/US\$백만)	1,228.8	대한수입액('17/US\$백만)	155.2
	선정사유	○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이 예쁘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 화장품 인기. '얼짱 화장'이라는 신조어 ○ 최근 3차 한류로 에뛰드하우스 등 가성비 좋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높음		
	시장동향	○ 2017년 일본 화장품 시장은 2조 5,985억 엔 규모 * (2014) 2.3조 엔 → (2016) 2.5조 엔 → (2018) 2.8조 엔 예상 ○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가 대폭 확대 - 아마존, 라쿠텐, 야후재팬도 인터넷 판매 확대 중, 2018년 6월 인스타그램은 일본 'Shop Now' 기능 개시		
	경쟁동향	○ 화장품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은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수입시장 점유율 35.9%), 미국(17.4%) 등 선진국임. 한국 점유율은 12.6% - 수입화장품 유통은 2개 유통대기업(Arata, Paltac)이 독식 ○ 일본업체로는 시세이도, KAO, KOSE이 각축 ○ 최근 유기농화장품, 남성용 화장품 등 틈새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대두		
	진출방안	○ 한류 및 SNS 활용 마케팅 ○ 구매력이 높은 중국, 아시아권 방일 관광객 타깃		
품목명 13	HS Code	6204, 6206	수입관세율(%)	6204: 9.1~12.8 6206: 7.4~10.0
여성의류	수입액('17/US\$백만)	4,507.5	대한수입액('17/US\$백만)	14.1
	선정사유	○ 한국 걸그룹 인기에 따라 한국 패션에 대한 10대 여성의 관심 증가 - 스타일난다, D홀릭 등 동대문 기업 일본 진출		
	시장동향	○ 2016년 기준 5조 7,563억 엔에 달하는 시장 ○ 백화점 판매는 지속 감소세이나, 조조타운 등 온라인 매장, 시마무라 등 전문점은 성장세		
	경쟁동향	○ 여성의류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은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 및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 고급제품은 선진국, 저가 제품은 개도국 제품 위주		
	진출방안	○ 한류 적극 활용, 한국 패션스타일 홍보 강화 ○ 온라인 시장을 통한 시장 공략		
품목명 14	HS Code	841950/90	수입관세율(%)	0
열교환기 및 부품	수입액('17/US\$백만)	574.7	대한수입액('17/US\$백만)	61.3
	선정사유	○ 최근 바이오매스 발전 프로젝트 및 수소 충전소가 증가하면서, 기존 원자력 분야는 침체했지만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새로운 분야에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정부의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촉진 정책으로 국내 수요 증가		
	경쟁동향	○ 국내제품과 해외제품 비율은 7:3 정도 ○ 한국산 인지도는 높은 편이지만 A/S가 신속한 일본제품 선호 ○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은 3대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의 약 12% 차지		
	진출방안	○ A/S 서비스 가능체계 구축이 필수 ○ 품질 관리 및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 제조기업 계열 상사를 통한 납품 추진		

품목명 15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축전지	수입액('17/US\$백만)	807.5	대한수입액('17/US\$백만)	90.9
	선정사유	○ 일본 정부의 ZEH(제로 에너지 하우스) 보급 확대정책 본격화 및 가정에서 태양광 등으로 발전된 잉여 전력 축전 수요 확대		
	시장동향	○ 주택용 FIT(고정가격 매입제도) 제도 종료로 계기로 발전 전력의 자가소비용도 수요 확대 예상 - 2025년 주택용 축전 시스템용 축전지 시장은 431억 엔에 달할 전망		
	경쟁동향	○ 축전지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은 중국, 미국 - 한국은 전체 수입시장의 12.1%를 차지하는 3대 수입국		
	진출방안	○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축전지 제조기업 계열 상사 등을 통해 진출 가능		
품목명 16	HS Code	854140	수입관세율(%)	0
LED	수입액('17/US\$백만)	3,937.3	대한수입액('17/US\$백만)	337.3
	선정사유	○ 최근 고천장용 LED 교체 수요 증가 - 수은규제 대비 및 에너지 절약 정책 확대에 대응		
	시장동향	○ 2017년 LED 조명기구 시장은 전년 대비 3.3% 확대된 7,102억 엔을 기록		
	경쟁동향	○ 2017년 기준 한국은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은 3대 수입국으로 올라섬(2016년 기준으로는 5위) - LED 저가격화 진행으로 가격경쟁력도 중요해짐 ○ 2017년은 전년 대비 일본의 LED 수입액뿐만 아니라 중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LED 수입도 줄었으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증가함		
	진출방안	○ 현지 전략적 파트너를 통한 영업력 확대 ○ 가격경쟁력과 함께 고천장용 LED 등 새롭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 필요		
품목명 17	HS Code	847989	수입관세율(%)	0
자동화기계	수입액('16/US\$백만)	883.0	대한수입액('17/US\$백만)	78.5
	선정사유	○ 일본 경기 호황세와 인력난이 겹쳐 향후 수요 확대 예상, 일본 수입액,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수요 확대 추세, 생산설비의 라인 전체를 설계하는 기업의 성장세 뚜렷		
	시장동향	○ 일본 공작기계 수주액 역대 최고치 기록 ○ 2017년 일본 공작기계수주액 1.8조 엔 기록, 전년 대비 38.1% 증가 ○ 인재난에 따른 자동화 추진, 도쿄올림픽 관련 수요, 노후 인프라 교체 등으로 2020년까지 설비투자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경쟁동향	○ CORETEC, Tsujimura denkou, Taihei Technos, Sanwa Koki 등의 일본기업 제품이 한국제품과 경합 중		
	진출방안	○ 일본기업, 개별 공장의 IoT화, 복수 공장의 생산통합관리 시스템, 조립 및 검사 공정에서 센서 도입, 영업소의 무인화 등 정보화 투자에 적극적 → 이에 대응 필요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일정수준 이상의 위상을 확보한 분야(자동차, 제철 등)와 관련된 제품이 일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음		

품목명 18	HS Code	0710	수입관세율(%)	0
냉동야채	수입액('17/US\$백만)	903.1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 이상기후 등으로 일본 내 야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변동의 영향이 적은 냉동야채 수요 크게 증가		
	시장동향	○ 일본의 냉동야채 수입량 지속적인 상승추세로 2017년 최초로 100만 톤을 초과 ○ 역사적인 무더위가 이어진 2018년은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중국산이 전체 수입의 약 60% 차지 ○ 최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對일 수출액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진출방안	○ 해당 분야 전문상사 및 OEM 위탁 냉동식품 기업 타깃 ○ 일본 내 특정 작물의 가격 폭등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		

공유경제 서비스	선정사유	○ 공유경제 서비스 시장은 성숙시장인 일본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716억 6천만 엔 규모였던 시장이 2022년에는 1,386억 1천만 엔 규모로 예측되는바, 연평균 성장률은 17%로 추이할 전망
	시장동향	○ 서비스 분야별로 볼 때 가장 시장규모가 큰 것은 '차량 공유 경제 서비스'로, 이 중 시장 규모의 대부분을 '카 셰어링'이 차지하고 있음 ○ 한편 '공유 사이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공간 공유 경제 서비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 동 시장 구성비가 가장 큰 것은 '민박 서비스'로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앞두고 방일 외국인 증가추세에 따라 지속 이 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경쟁동향	○ 일본 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대기업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신규 시장 진출 역시 두드러지고 있음 ○ 해외기업의 진출 역시 주목되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의 선전이 눈에 띄 - 자전거 셰어링 관련 Mobike, ofo 등
	진출방안	○ 일본 시장에서 중국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의 두각이 나타났던 이유는 거대한 인구규모를 지닌 시장에서 선례가 확실히 존재했기 때문임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히 이뤄진 중국, 방대한 인구가 존재하는 사회구조 덕에 공유 서비스의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작용 ○ 국내 기업들 역시 한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선례가 존재하는 셰어링 서비스 아이디어로 일본 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믿을 수 있는 일본 파트너사와 함께 사업 전개를 추진하는 것을 추천 -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의 경우, Airbnb를 제외하고는 기존 사업망, 고객군을 지니고 있는 일본 기업과 협력을 토대로 진출
배달 서비스	선정사유	최근 일본 소비자들의 편리성 중시 소비 패턴 부상
	시장동향	○ 2016년 일본 식품 배달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조 782억 엔(한국은 15조 원 규모) ○ 인구감소로 식품시장 감소추세이나, 고령층 대상 배달 서비스 확대 및 요리시간 단축에 대한 니즈로 인해 배달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경쟁동향	○ 생활협동조합(개인배달)이 시장의 52%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버이츠, 아마존프레시 등 글로벌 기업의 시장 참가가 본격화되고 있음
	진출방안	○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메뉴가 있는 음식점, 배달 가능한 편의점(세븐일레븐 중 일부 점포) 등 현지 파트너와 협력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어학교육	선정사유	○ 최근 초등 저학년의 영어교육 필수화 및 대입 영어시험 제도 개혁으로 조기 영어 열풍 붐 - 어학교육 시장 성장세
	시장동향	○ 어학 교육시장은 2013~2020년 동안 연평균 1.7%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3,700억 엔에 달한 전망 ○ 기술발달, 인력부족을 배경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어학교육 시장의 성장도 기대됨
	경쟁동향	○ 교육시장은 외국기업의 진출이 거의 없음 - YBM 등 해외기업 진출사례도 있지만 일본 기업에 비해 시장점유율은 매우 작은 상황
	진출방안	○ 현지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장 공략 - YBM의 경우 초등학교생용 YBM 잉글루를 현지화한 LEPTON으로 시장공략 성공 ○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필요 - 제휴를 통해 현지인에게 이질감을 최소화

방일 관광객 대상 서비스	선정사유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 소비의 주역으로 부상
	시장동향	○ 2013년 이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지속 증가, 2017년 2,869만 명 기록, 2030년까지 6,000만 명 유치 목표 ○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 증가, 2020년까지 약 8조 엔 규모로 성장 예상 ○ IT 기술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각종 서비스 및 벤처기업 등장
	경쟁동향	○ 소매점포 및 요식업, 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관광객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번역 서비스 전문업체 급증 ○ WAmazing(관광객 대상 무료 SIM 카드 대여), Squeeze(민박, 호텔 지원 서비스), Bespoke(AI를 이용한 관광객 안내) 등 벤처기업의 대두 두드러짐
	진출방안	○ 일본 투자가 대상 피칭, 일본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제휴 등을 통한 직접 진출이 주요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초기 진출 교두보 확보
가사대행 서비스	선정사유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인구 고령화로 업계 급성장 ○ 가사대행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해 노동비자 발급 대폭 간소화 등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
	시장동향	○ 가사대행 시장, 향후 6,000억 엔 규모로 성장 전망(경제산업성, 2012년 규모 1,000억 엔) ○ 아베 정권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추진', '가사 부담 경감' 정책과 연계, 관련 규제완화 추진
	경쟁동향	○ 가사대행 전문기업 하세가와코산, 자사의 청소대행 프랜차이즈 점포 2배 이상 확대 계획 ○ 2014년에 창립된 Casy, 가사대행 업무위탁 계약직원 수를 현재의 약 3배로 확대 계획 ○ 이미 5,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어즈, 2017년 중 800명의 신규 현장직 채용
	진출방안	○ 고객-기업 간 매칭 효율화, 직원 스케줄 중앙 관리,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한 앱 개발 등 IT 기술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경향 뚜렷 →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
경영효율화 서비스	선정사유	일본 기업, 효율화 및 인재부족 현상을 배경으로 '정보화 투자'에 치중
	시장동향	○ 2017년도 일본 기업의 정보화 투자는 2015년 대비 약 20% 증가 ○ 일본 기업의 ICT 도입 현황, 타 선진국 대비 저조 * 일본 70.2%, 미국 80.8%, 영국 94.4%, 독일 93.8%
	경쟁동향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생 ○ LegSea(계약서 전자 관리), Payme(급여 즉시 지불서비스), Cinamon(수기 서류 자동 인식), Stmn(사내SNS) 등 시장에서 호응
	진출방안	○ 일본 투자가 대상 피칭, 일본 대기업과의 비즈니스 제휴 등을 통한 직접 진출이 주요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초기 진출 교두보 확보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일시/장소
1	기계부품 (일본설비투자증가에 대응)	대전·오사카 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플라자	미정/대전
2		간사이 기계요소기술전 한국관 참가	10. 2~4/오사카
3		하반기 통합 사절단(소재부품 중심)	10월/전 일본
4	자동차부품 (차세대부품)	GP Japan(한일 부품소재 상담회)	11월/도쿄
5		Inside 닛산 in Japan	7월/도쿄
6		나고야 자동차기술 전시회 참가	7월/나고야
7		Inside 덴소, 미래자동차부품 상담회	3분기/나고야
8		Inside 닛산 in China	4분기/중국
9		자동차의 역 견본시 사업	연중/한국
10	항공부품	한·일 항공 클러스터 수출상담회	9월/나고야
11	소비재 (제3한류)	우리대학 특허제품의 대 일본 진출 지원사업	연간/도쿄
12		범일본 유력 소비재벤더 逆무역사절단	3월, 8월/4개 지방
13		K-CON 연계 한류소비재·서비스산업 수출상담회	4월/도쿄
14		(패션의류) 도쿄 매직쇼 춘계 전시회 한국관 참가	4월/도쿄
15		소비재 통합 무역사절단	4월 중순/ 전 일본
16		면세점 유통벤더 수출상담회	5월/ 서울
17		규슈 유력 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입점지원	3~6월/미정
18		온오프라인 연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6월/도쿄
19		Japan Business Week 2019	7월/도쿄
20		K-Consumer Goods Plaza in OSAKA 개최	3분기/오사카
21		(식품) K-Pop 콘서트를 활용한 수출 상담회	연중/도쿄
22		(유아용품) 일본 전시상담회	11월/도쿄
23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 지원 사업	2~4분기/도쿄
24		IDEA KOREA in OSAKA	2분기/시티프라자
25	의료기기	Medical Japan Osaka 전시회 한국관 운영	2. 20~22/오사카
26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in OSAKA 개최	2분기/오사카

연번	구분	사업명	일시/장소
27	해외취업	K-Move 지방순회 한국인재 채용설명회	연간/전 일본
28		중부지역 기업 대상 한국인재 채용 세미나	하반기/나고야
29		일본취업환경 설명회	미정/서울
30		K-move Job Fair in JAPAN 개최	1분기/ 도쿄
31		오사카 한국인재 채용박람회	3월/오사카
32		나고야 한국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2분기/나고야
33		한국인재 채용 세미나	7월/오사카
34		중부지역 한국인재 팝업(POP-UP) 면접회	연중/나고야
35		채용 유망 분야 채용설명회(1)	8월/후쿠오카
36		채용 유망 분야 채용설명회(2)	9월/부산
37		규슈 멘토링 데이	3월/후쿠오카
38		글로벌 인재 멘토링 및 네트워킹 세미나	12월/대사관저
39	투자유치	한국 화학산업 투자유치 IR	미정/도쿄
40		Innovation Leaders Summit 연계 한국 스타트업 IR 개최	미정/도쿄
41		메가뱅크 연계 한국진출 1대1 상담회 개최	미정/도쿄
42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연계 TFT 추진	연중/전 일본
43		「MONOTSUKURI 페어 2018」활용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미정/후쿠오카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일본 천황 퇴위(5월 1일부터 새로운 연호 개원)	4월 30일	-
19회 통일 지방선거 실시	4월	-
참의원 재선거	미정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내용	일시(잠정)	비고
법인실효세율 29.74%로 인하	2018년 중	-
G20 오사카	6월 28~29일	-
소비세율 10%로 인상	10월 1일	-
러비 월드컵 개최	9월 20일	-
2020 도쿄올림픽	2020년 7~9월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시/장소
소비재	선물용품	GIFT Show	2. 12~15/도쿄
자동차	자동차부품, 자율주행, 경량화	오토모티브 월드	1. 16~18/도쿄
식품	식품, 식자재	국제식품음료전	3. 5~8/도쿄
제조업	베어링, 모터, 가공기술 등	기계요소 기술전(M-tech)	2. 6~8/도쿄
제조업	베어링, 모터, 가공기술 등	간사이 기계요소 기술전(M-tech)	10. 2~4/오사카
의료	의료기기·설비, 간호·개호용품 등	Medical Japan Osaka	2. 20~23/오사카

담당자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Tel +81-3-3214-7073

직책 과장

Email hanna@kotra.or.kr

시장조사팀 김은지

Tel +82-2-3460-7727

직책 차장

Email eunjikim@kotra.or.kr

KOTRA자료 18-077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1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 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02-3460-7592)

I S B N | 979-11-6097-868-1 (93320)

979-11-6097-869-8 (95320) (PDF)

